

국립국어원 2009-01-5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39-14

#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책임자 : 강영봉

■ 연구보조원 : 김순자 · 김성용

■ 조사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국립국어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9일  
연구책임자 : **강 영 봉**



2009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목 차

### 국문초록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1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5
제 2 편 어휘 .....	139
제 3 편 음운 .....	192
제 4 편 문법 .....	227

### Abstract

#### 4. 제출 자료(별첨)

- 1) 보고서 100부
-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 3)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 5)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국문초록>

###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지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이다. 이 마을은 동쪽으로 중문동, 서쪽으로 상예동, 남쪽으로 중문관광단지, 북쪽으로는 제주시 애월읍과 이웃하고 있다.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한 이루며 바다까지 길게 펼쳐져 있다. 중간에 크고 작은 오름들이 있으나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활짝 트인 곳이다. 전형적인 농촌으로 대부분 감귤 농사를 짓고 있다. 2009년 11월 기준으로 165가구에 남자 410명, 여자 369명 등 모두 77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단결심과 생활력이 강하며, 농가 부채가 없는 마을이다. 중문해수욕장 운영 수익금으로 주민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세금 체납이 없는 마을이며, 복지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주제보자는 변\*\* (70살)이고, 부제보자는 그의 부인인 한\*\* (72살)이다. 이들은 조사자가 직접 섭외하여 제보자가 되었다. 변\*\*은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를 떠나보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의 혜택도 본 적이 없다. 쟁기를 비롯한 농기구를 잘 만들며, 초가도 몇 채 지은 경험이 있어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음성은 크고 분명하였다. 부제보자인 한\*\*은 색달동 부녀회장을 지낸바 있으며 얼마 동안 물질을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주제보자보다 기억력이 또렷하여 많은 어휘들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나 발음은 분명하였다. 이 두 분은 그 분들의 표현대로 “일만 일만 하여” 자수성가하였다. 슬하에 1남 5녀를 두었으며, 지금은 감귤 농사와 소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역어 조사는 7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7월 8회, 8월 6회, 9월 1회 그리고 12월 2회 등 4개월 동안 19회 조사가 이루어졌다. 8월 1일에는 색달동 공동목장과 산야를 돌아다니며 마을 정경과 나무, 식물 등을 촬영하였다. 한여름인데도 매미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 녹음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어서 지역어 조사는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사는 강영봉·김순자·김성용이 담당하였으며, 조사 장소는 제보자 집 마루이다.

조사 내용은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사항 등 4개 분야이다. 조사는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식물 이름을 조사할 때는 동네를 돌며 실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추가 조사는 12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했다. 그 결과 구술 발화는 15시간 47분, 어휘 12시간 30분, 음운 3시간 5분, 문법 2시간 4분 등 총 33시간 정도 녹음되었다.

녹음기는 마란츠(Marantz) PMD660이며, 마이크는 SURE SM11을 이용하였다.

전사는 9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루어졌다. 어휘·음운·문법 사항은 조사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구술 발화는 15시간 47분 녹음되었으나 그 가운데 4시간 분량만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였으며, 어휘·음운·문법 사항은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음운인 경우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전사는 김순자·강영봉이 담당하였으며, 1차 점검은 강영봉·김성용이, 2차 점검은 강영봉·김순자가 담당하였다.

주요어: 제주 지역어, 구술 발화, 전사, 제보자, 제주문화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지점인 서귀포시 색달동(穢達洞)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 동쪽은 천제연(天帝淵) 폭포를 사이에 두고 중문동(中文洞)과 접해 있고, 남쪽은 중문관광단지이며 서쪽은 색달천(穢達川)을 사이에 두고 상예동(上峴洞), 서북쪽은 서귀포시 안덕면(안덕면), 북쪽은 제주시 애월읍(애월읍)과 이웃하고 있어 광활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와 중문해수욕장이 위치한 곳이 바로 조사 지점인 셈이다.

색달동의 지형은 북에서 남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바다까지 길게 펼쳐진 곳이며, 중간에 ‘오보름’ 등 크고 작은 ‘오름’이 있으나 비교적 산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활짝 트인 곳이다. 1374년 14현(縣)을 설치할 당시 예래현(猊來縣)이 있었고, 색달동 2610번지 일대인 ‘주승케’에서 기왓장 조각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 색달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1,2백년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주승케’ 일대를 ‘막은골’이라고 불렀는데 ‘막을 색(塞)’을 써서 색달촌(塞達村)이라 이름이 붙여진 듯하다. 1780년에서 1789년 사이에 제주삼읍지에 의하면 색달리는 ‘막을 색’(塞)이 ‘거둘 색’(穢)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이는 한자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의미 곧 ‘막다, 막히다’에서 ‘거두다, 풍요롭다’는 뜻의 ‘색’(穢)으로 바뀐 것이다.

색달동은 본동·군남동(軍南洞)·천서동(川西洞)·감수동(甘水洞)·‘큰벙디’ 등 5개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서동’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감수동’과 ‘큰벙디’는 제주 4·3사건으로 소개되어 3개의 자연 마을은 없어지고 말았다. 18세기의 《제주읍지》(濟州邑誌)에 따르면, 색달리는 “(현의) 동쪽 30리에 있다. 민호는 37호로, 남자는 85명, 여자는 74명이다.”(東距三十里 民戶 三十七 男八十五 女 七十四), 20세기 초의 《제주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연가 110호로, 남자 105명, 여자 215명 합하여 320명이다. 초가는 103칸이다.”(煙家 一百十 戶 男 一百五口 女 二百一十五口 合 三百二十口 草家一百三十間). 2009년 11월 말 기준, 색달동에는 165가구에 남자 410명, 여자 369명 등 779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조직으로는 개발위원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 등 4개의 자생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이사무소가 있고, 서귀포시의 소각장·폐기물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이 들어서 있다. 중문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민박 등 숙박시설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단결심과 생활력이 강하여 현재 농가 부채가 없으며, 중문해수욕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어 세금 체납이 없는 마을이며, 복지 시설이 잘 갖추어진 마을로 유명하다.

## 1.2. 조사 기간

2009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7월 4일 제보자를 섭외하여 실제 녹음에 들어가니 귀가 약간 멀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새로운 제보자를 찾아야만 했다. 그 다음날인 7월 5일 제보자 변\*\*과 그 부인을 부제보자로

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색달동은 이상하리만치 70대 이상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부부를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지역어 조사는 7월 8회, 8월 6회(1회 사진 촬영), 9월 1회 그리고 12월 2회 등 4개월 동안 18회 이루어졌다. 2009년도 조사 지점은 연구보조원인 김성용의 고향이기도 하여 조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제보자 모두 친화력이 좋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바쁜 가운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특히 부제보자인 한\*\*은 텃밭에서 손수 가꾼 물외, 콩잎, 호박잎, 동부, 양하 등을 준비했다가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손에 들려 보내는 등 후한 인심을 나눠 주어 조사자들을 감동시켰다. 조사 때마다 정성들여 간식을 준비해 주었고, 조사자들을 위하여 두 차례나 저녁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첫 수확한 감귤이라며 보내와 조사자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한여름이어서 매미 울음소리를 염려했는데 울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 녹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이는 집 주위가 과수원이어서 농약을 쳐서 매미 유충이 자라지 못한 결과였다. 8월 1일에는 색달동 공동목장 등을 돌아다니며 마을 정경과 나무와 풀 등 식물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 1.3. 제보자

#### (1) 주제보자

◦이름	변
◦성별	남
◦나이	70살(1940년생)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거주지	위와 같음
◦선대거주지	위와 같음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무학
◦병역	육군 병장
◦제보자 소개 과정	직접 섭외
◦제보자의 특기 사항	농기구를 잘 만들며 매우 부지런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크고 분명함

#### (2) 보조 제보자

◦이름	한
◦성별	여
◦나이	72살(1938년생)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거주지	위와 같음



◦선대거주지	위와 같음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무학
◦병역	(해당사항 없음)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의 부인
◦제보자의 특기 사항	기억력이 아주 또렷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소리가 조금 작은 편이나 발음이 분명함

## 1.4. 조 사

(1) 조사자: 연구책임자: 강영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순자(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성용(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 조사 일시: 2009년 7월 4일~12월 6일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마루

(4) 녹음기와 마이크

녹음기: 마란츠

마이크: SURE SM11

(5) 조사 일정과 내용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은 표 <2009년 제주 지역어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과 같다.

이 일정 가운데 8월 1일은 사진 촬영 관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 기간에 손자들이 놀러 와도 조사자들을 배려하여 손자들을 조사 시간 동안에는 인근 마을인 중문동에 있는 이모 댁으로 보내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구술 발화 15시간 47분, 어휘 12시간 30분, 문법 2시간 4분, 음운 3시간 5분 등 총 녹음은 33시간 30분 가량이다.

## 1.5 전 사

(1) 전사자: 김순자·강영봉

전사 일시: 2009년 9월 10일~2009년 11월 27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1, 구술발화 2, 어휘, 음운, 문법

(2) 1차 점검: 강영봉·김성용

1차 점검 일시: 2009년 12월 1일~2008년 12월 6일

(2) 2차 점검: 강영봉·김순자

2차 점검 일시: 2009년 12월 10일~12월 12일

<2009년 제주 지역어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

번호	조사 일자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녹음 시간	비고/파일
01	7월 4일	제보자	제보자 섭외	-	-
02	7월 5일	제보자 재섭외 구술발화 1 구술발화 2 어휘 1	변**·한** 마을 들여다보기 일생 의례 농경	37분 59분 58분	SJJ_SG_01 SJJ_SG_02 SJJ_SG_14
03	7월 11일	구술발화 3 구술발화 4	장례와 제사 생업활동 1	59분 1시간 35분	SJJ_SG_03 SJJ_SG_04
04	7월 12일	구술발화 5 구술발화 6 어휘 2 어휘 3	생업활동 2 의생활 곡물 음식 1	1시간 51분 9분 29분 30분	SJJ_SG_05 SJJ_SG_06 SJJ_SG_15 SJJ_SG_16
05	7월 18일	구술발화 7 구술발화 8	식생활 1 식생활 2	1시간 53분 47분	SJJ_SG_07 SJJ_SG_08
06	7월 19일	구술발화 9 구술발화 10	거주 생활 1 거주 생활 2	53분 1시간 11분	SJJ_SG_09 SJJ_SG_10
07	7월 26일	구술발화 11	질병과 민간 요법	2시간 6분	SJJ_SG_11
08	7월 27일	구술발화 12 구술발화 13	세시풍속 전설, 설화, 고기잡이등	1시간 8분 1시간 39분	SJJ_SG_12 SJJ_SG_13
09	7월 28일	어휘 4 어휘 5	음식 2 가옥, 의복	1시간 14분 46분	SJJ_SG_17 SJJ_SG_18
10	8월 1일	사진 촬영	색달동 배경, 식물	-	-
11	8월 2일	어휘 6 어휘 7	세시풍속 인체	1시간 49분 1시간	SJJ_SG_19 SJJ_SG_20
12	8월 4일	어휘 8 어휘 9	육아 친족	48분 1시간 6분	SJJ_SG_21 SJJ_SG_22
13	8월 8일	어휘 10 어휘 11 어휘 12 어휘 13	동물 1 동물 2 식물 자연	36분 43분 53분 1시간 11분	SJJ_SG_23 SJJ_SG_24 SJJ_SG_25 SJJ_SG_26
14	8월 16일	문법 1 문법 2	대명사~연결어미 주체존대~관용적 표현	1시간 12분 52분	SJJ_SG_28 SJJ_SG_29
15	8월 25일	음운 1	음운 목록	1시간 33분	SJJ_SG_30
16	9월 6일	음운 2 음운 3	활용 곡용	1시간 19분 13분	SJJ_SG_31 SJJ_SG_32
17	12월 5일	음운 4	음운(누락 부분)	2분	SJJ_SG_33
18	12월 6일	어휘 14	어휘(누락 부분)	27분	SJJ_SG_27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는 단모음 [ø]로 실현되지 않고 항상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기 때문에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e)’가 변별적 기능을 지니므로 각각 따로 표기하였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⑥ ‘오’와 ‘아’, ‘어’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 아(·)와 이중모음 ‘으(·)’의 경우, transcriber 상에서는 ‘오/’와 ‘요/’로 표기했으나, 인쇄물에서는 ‘으’와 ‘으’로 바꾸어 표기했다.
- ⑦ 제주 지역어에서 ‘쓰’은 종성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스’를 표기했다.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3. 생업 활동

### 1.3.1. 논농사

10301 @1 이버는 그 나록농사에 대에서예 나록농사에. 거 한번 무려보쿠다. 혹시 나록 품종은 어떤 거시 이서날쭉가? 나로게 품종?{이번은 그 벼농사에 대해서요 벼농사요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벼 품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벼의 품종?}

10301 #1 여기 나록 품종이 연나레 뭐 만날 허는 걸로 헤여난는데.{여기 벼 품종이 옛날에 뭐 만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0301 @1 예.{예.}

10301 #1 그 육찌서 온 거를 흐며는 아즌배기엔 허영 낭 안 나는 거. 그걸 허면은 거 이름도 이신 건데 이르를 이젠 이저불고.{그 육지에서 온 거를 하면 앓은뱅이라고 해서 나무 안 나는 것. 그것을 하면 그것 이름도 있는 것인데 이름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10301 @1 조쭈다. 안즌뱅이예?{좋습니다. 앓은뱅이요?}

10301 #1 예. 그거 헤여가지고 흐면 수확기 그전 우리 이디서 허는 걸로는 뭐 곱 나온덴 허는 건 아니고 이제 혼 뉘 나올 꺼문 혼 뉘 바는 나와. 지금 그런 시그로.{예. 그것 해서 하면 수확이 그전 우리 여기서 하는 것으로는 뭐 곱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되 나올 거면 한 되 반은 나와. 지금 그런 식으로.}

10301 #1 또 육찌서 온 씨가 혼 헐 똥아는 상당히 병체도 강하고 그러케 조탄 겉또 두번 세번 헤가민 안 뉘부러.{또 육지에서 온 씨가 한 해 동안은 상당히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렇게 좋다가 그것도 두번 세번 헤가면 안 되어버려.}

10301 @1 게난 안즈배기 인써날꼬예. 그러면 그 나록농사에 겉또 묘종을 논 거 아니우 파?{그러니까 앓은뱅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벼농사요 그것도 묘종을 놓은 것 아닙니까?}

10301 #1 예. 묘종 놔야주.{예. 묘종 놔야지요.}

10302 @1 쪽 과정을 쪽 한번 ㄱ라쥬보십써?{쪽 과정을 쪽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10302 #1 게난 묘종은 이제 육찌에는 그 뭐 파니 만드라가지고 허는 거 간는디 여기는 그런 걸로 허는 건 지끔 몬테보고.{그러니까 묘종은 이제 육찌에는 그 뭐 판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지금 못해보고.}

10302 #1 자기 노네 가가지고 뉘 뿌네 일 쟁도 헤영으네 만드랑으네 이제 모파니다고 헤여가지고 씨 지베서 쉬엄을 어느 선 나게.{자기 논에 가서 몇 분에 일 정도 해서 만들어서 이제 모판이라고 해서 씨 집에서 뿌리를 어느 선까지 나게.}

10302 @1 아아.{아아.}

10302 #1 예.{예.}

10302 #2 다라에서 난.{대야에서 나서.}

10302 #1 다라에서 뿌리허고 순도 나야웨지? 그 저.{대야에서 뿌리하고 싹도 나야하지? 그 저.}

10302 #2 순.{썩.}

10302 #1 파랑허게.{파랑게.}

10302 #2 파란수는 안 나고 순 두 개가 나완게. 저 뿌리가 경헌디.{파란 썩은 안 나고 썩 두 개가 나오던데. 저 뿌리가 그렇게 했는데.}

10302 #1 뽕죽커게 나와서.{뽕죽하게 나왔어.}

10302 #2 그때 경 헐 때 되면.{그때 그렇게 할 때 되면.}

10302 #1 겨곡 뿌리가 생긴 후에 이제 못짜리에 강으네 서흐레로 달화가지고.{그러하고 뿌리가 생긴 후에 이제 못자리에 가서 씨레 다뤄서.}

10302 #1 그거 골고루 허청으네 이제 새, 그 밀레에 현 거 저 욱찌허고 다르디.{그것 골고루 흠어서 이제 새, 그 밀레라고 한 것 저 욱지하고 다르디.}

10302 #1 그 밀레로 이러케 차북 차북 차북 허며는 펄무리 이러나며는 그 씨가 영 흐뽀 무더정 허영 물 흐뽀 기피 대며는 이제 현 사밀 일땅으네 무리 기프면 그거 잘 나오질 아녀 니까.{그 밀레로 이렇게 차북 차북 차북하면 펄물이 일어나면 그 씨가 이렇게 조금 묻어져서 해서 물 조금 깊이 대면 이제 한 삼일 있다가 물이 깊으면 그것 잘 나오지 않으니까.}

10302 #1 사밀 후엔 강으네 무를 흐뽀 그게 정식그로 땅에 부터 이서. 그 무를 흐뽀 빼며는 그게 헐빼슬.{삼일 후에는 가서 물을 조금 그것이 정식으로 땅에 붙어 있어. 그 물을 조금 빼면 그게 햇벌을.}

10302 #1 제일 농사에는 이 일광. 이게 뭐 이제 규리고 뭐이고 해보며는 그 일광 관계가 최고 일써느로 안 허면 안 돼게 뵈. {제일 농사에는 이 일광. 이것이 뭐 이제 곱이고 무엇이고 해보면 그 일광 관계가 최고 일선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뵈어.}

10302 @1 경 헐.{그렇게 해서.}

10302 #1 경 헐 그게 어느 선 크면 비료 주곡 자꾸 그 팔리헤가지고 이제 사월 나면.{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선으로 크면 비료 주고 자꾸 그 팔리해서 이제 사월 되면.}

10302 #1 묘 뽕방으네 또 정식컬 때는 옴나레는 뭐 그냥 무턱대고 그자 막 영 시면는디 그 증가넌 농촌지도소에서 그 막 컬 땀 딱 그.{묘 뽑아서 또 정식할 때는 옛날에는 뭐 그냥 무턱대고 그저 막 이렇게 심었는데 그 중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그 막 할 때는 딱 그.}

10302 @1 줄로.{줄로.}

10302 #1 줄 마취가지고 그게 간겨기 뭐냐 허면 뵈뽕 하나라. 뵈뽕.{줄 맞춰서 그게 간격이 뭐냐 하면 뵈 하나야. 뵈.}

10302 @1 아아.{아아.}

10302 #1 뵈뽕 하나 딱 논 거. 가로 세로. 그게 현 이십 켤 뵈는가 이 그거까지 그 뵈 켤 뵈는 거까진 지금.{뵈 하나 딱 놓은 거. 가로 세로. 그것이 한 이십 켤 뵈는가 이 그거까지 그 몇 켤 뵈는 거까지는 지금.}

10302 #1 어 우리 저디 못줄 일킨 인는디. 다 표시되언 나와신디.{아 우리 저기 못줄 있기는 있는데. 다 표시되어서 나왔는데.}

10302 #2 그디가.{거기가.}

10302 #1 \*\*\* 땅 마잘써.{\*\*\* 딱 맞았어.}

10302 #1 \*\*\*\*\* 게난 그 이십 켤 이십 켤 뵈언을 꺼라.{그러니까 그 이십 켤 이십 켤 뵈언을 꺼야.}

10302 @1 아.{아.}

10302 #1 그거를 논줄 놔가지고 딱 시므니까 일하기도 조코 옴날 그냥 잡종으로 이러케



시든 거 허고 보담 농약커기도 조코 논 풀 메기도 조코.{그거를 못줄 놔서 딱 심으니까 일 하기도 좋고 옛날 그냥 잡종으로 이렇게 심은 거하고 보다는 농약하기도 좋고 논 김매기도 좋고.}

10302 #2 영 밀려그네 그 논닐 헤난 거 \*\*\*.{이렇게 밀려서 그 논 일 했던 거 \*\*\*}

10302 #1 그게 이르미 뭐라.{그것이 이름이 뭐야.}

10302 #1 이제.{이제.}

10302 #2 저추기.{번지.}

10302 #1 응?{뭐?}

10302 #2 저추기 미령으네.{번지 밀어서.}

10302 #1 예추기?{예추기?}

10302 #2 저추기.{번지.}

10302 #1 저축.{번지.}

10302 #1 저차가는 거니까. 제치명.{젓혀서 가는 것이니까. 젓히면서.}

10302 #1 그거 허영 골로 허니까 그걸로 미난 풀 몬나게 해지지. 또 그 나락또 이거 수둑을 올려줘야 돼.{그것 해서 고랑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미니까 풀 못나게 해지지. 또 그 벼도 이거 북을 올려줘야 돼.}

10302 #1 모든 농사가 뭐 마찬가지로.{모든 농사가 뭐 마찬가지로인데.}

10302 #1 이제 조 허문 조가 연나래 뭐 초벌메고 두벌메고 헐는데 그 골갱이로 그너주며는 그 호기 일화지며는 빨리가 양성을 빨리 해가지고 조가 건강허영 빨리 크득기 나록또 제추기 허연 밀리고. 또 비료 주는 건또 딱 만꼬 사름 발 다니는 건또 이제 딱 골로 가니까 조코.{이제 조 하면 조가 옛날에 뭐 초벌매고 두벌매고 했는데 그 호미로 굽어주면 그 흙이 일어나면 뿌리가 양성을 빨리 해서 조가 건강해서 빨리 크듯이 벼도 번지 해서 밀리고. 또 비료 주는 것도 딱 맞고 사람 발 다니는 것도 이제 딱 고랑으로 가니까 좋고.}

10302 @1 으.{아.}

10302 #1 그래가지고 그 후에 그 잡종으로 싱근 거보단 수확또 더 나고 해가지고. 뭐야 다 조텐허영 그치록 줄 낱 시멍. 겐디 줄 낱 시므민 묘종 드러가는 건또 좀 덜 드러가는 거 같꼬.{그래서 그후에 그 잡종으로 심은 것보다는 수확도 더 나고 해서. 뭐야 다 좋다고 해서 그렇게 줄 놓아서 심어서. 그런데 줄 놓아서 심으면 묘종 들어가는 것도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10302 #2 훨씬 덜 드러가.{훨씬 덜 들어가.}

10302 #1 잡종으로 그냥 막 영 시므는 거보다는 묘종이 좀더 덜 드러가고 일허는 건또.{잡종으로 그냥 막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묘종이 좀더 덜 들어가고 일하는 것도.}

10302 #2 어리난 수확.{어리니까 수확.}

10302 #1 흐끔 패난허고.{조금 편안하고.}

10302 @1 검지른 땀 뻘 메연쭈가?{검은 땀 뻘 땀습니까?}

10302 #1 검질 두버는 메야지.{검 두번은 메야지.}

10302 @1 두번 메고예?{두번 메고요?}

10302 #1 예.{예.}

10302 @1 그러면 사월따레 이묘를 헌 거 아니우짱?{그러면 사월달에 이묘를 한 것 아닙니까?}

10302 #1 예. 사월따레.{예. 사월달에.}

10302 @1 그러믄 언제쫘 거두어드려마씨?{그러면 언제쫘 거둬들이나요?}

10302 #1 상강.{상강.}

10302 @1 상강?{상강?}

10302 #1 예. 상강 전후. 이 저 이제 절믄 사람더른 양녁 그 올낙내력 아녀. 뜰업써. 영해도 그 농사진은 절기상은 그 절기쳐는 딱 그게 음려그로 그 허는 절기쳐는.{예. 상강 전후. 이 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양력 그 오르고내리고 앓아. 뜰업써. 이렇게 해도 그 농사 짓는 절기상은 그 절기는 딱 그것이 음력으로 그 하는 절기는.}

10302 @1 땅 마자예?{딱 맞다구요?}

10302 #1 예. 그게 농사허민 대랴근 만는 거.{예. 그게 농사하면 대략은 맞는 거.}

10302 @1 그러믄 이젠 두벌 꺾질메고 상강웨믄 빌 꺼 아니우파?{그러면 이제는 두벌 꺾매고 상강되면 벨 것 아닙니까?}

10302 #1 예.

10302 @1 그 다으멘 태자근 어떻 헤마씨?{그 다음엔 타작은 어떻게 하나요?}

10302 #1 태자근 저 클로 홀트는 사름 인꼬. 또 탈곡기라고 인써서가지고 발로 누르며가지고 도로기 돌려가지고 현 건또 요리케 잘게 무경 현 건또 인꼬.{예. 타작은 저 틀로 훑는 사람 있고. 또 탈곡기라고 있어서 발로 눌러서 바퀴 돌려서 한 것도 요렇게 잘게 묶어서 한 것도 있고.}

10302 #1 또 그거 허단 이 사라미 자꾸만 발찌니 되어가난 내중은 맥타기. 맥타기로 대랴근. 겐디 여기는 욱찌 모양에 콤파인 와가지고 허나 이런 거는 어선꼬. 우리는 이 아랜 생수천 노니 바대가 조치 아녀가지고 경 콤파인 드러갈 정도 웬 노는 업꼬.{또 그것 하다가 이 사람이 자꾸만 발전이 되어가니까 나중에는 탈곡기. 탈곡기로 대략은. 그런데 여기는 욱찌 모양에 콤파인 와서 하나 이런 것은 없었고. 우리는 이 아래는 생수천 논이 바닥이 좋지 안해서 그렇게 콤파인 들어갈 정도 되는 논은 없고.}

10302 @1 게난 쫘 들랭이가 만타예?{그러니까 쫘 논뻬기가 많네요?}

10302 #1 예. 뭐 강완도에 보니까 소 두 개 허영 어흥 어흥 허멍 그 논 달릅꼬 싱그고 홀트고 그딘 홀트지 안코 돌맹이 놔가지고 이러케 세왕 막 물렁 날따가.{예 뭐. 강원도 보니까 소 두 개 해서 어흥 어흥 하면서 그 논 다루고 심고 훑고 거기는 훑지 않고 돌맹이 놔서 이렇게 세워서 마구 말려서 놔두었다가.}

10302 #2 빼영.{뽑아서.}

10302 #1 두드려패여네 나로글 터런꼬.{두들겨패서 벼를 떨었고.}

10302 #1 우리는 돌맹이로 두드려패연 허는 건 어선꼬. 어떤 거 홀트던지 그러치 아느냐는 탈곡기로 이레 발바가지고 허든지 맥타기로 헤던지 허지마는.{우리는 돌맹이로 두들겨패서 하는 것은 없었고. 어떤 것은 훑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곡기로 이리로 밟아서 하든지 탈곡기로 하든지 하지만.}

10302 #1 야넌 맥타기나 뭐 탈곡기나 아녀고 어멍이 이를 잘헤노니까 다 홀탕.{애네는 탈곡기가 뭐 탈곡기나 아니하고 어머니가 일을 잘하니까 다 훑어서.}

10302 @1 예.{예.}

10302 #1 야침 복끼 전의 강 허영으네 뭐 오후 세 시만 웨믄 탁 그냥 끄내갈 때난. 나룩또 하영 헨꼬.{아침 밝기 전에 가서 해서 뭐 오후 세 시만 되면 탁 그냥 끝내갈 때니까. 벼도 많이 했고.}

10302 @2 그 나룩 검지른예 받떠 검질하고 이르믄 틀리지 아눔니까? 초부렌 험니까? 나

록 검질 메는 건 뭐렌 겁니까?{그 벼 김은요 밭에 김하고 이름은 다르지 않습니까? 초벌이  
 라고 합니까? 벼 김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302 #2 나록 논닐. 논닐 허레.{벼 논일. 논일하러.}  
 10302 #1 그냥 노닐이라고 헨는디 검질 이르믄.{그냥 논일이라고 했는데 김 이름은.}  
 10302 #2 그냥 검지른 딱나. #1 그 뭇필떼기.{그냥 김은 달라. #1 그 말피(?)}  
 10302 #1 딱 건 이르미 업짜나?{다른 것은 이름이 없잖아?}  
 10302 #2 뭇핀 거자 영그라갈 때 거자 이거갈 때 뭇피가 그 딱난 거주게. 나록 달믄 거라  
 도 그거 망 메주게. 그저네는 이상헌 푸리 받떠 나는 거 아녀도 나. 까만 걸.{말피는 거의  
 영글어갈 때 거의 익어갈 때 말피가 그 다른 거지. 벼 닳은 것이라고 그거 막 매지. 그전에  
 는 이상한 풀이 밭에 나는 거 앓아도 나. 꺼먼 것을.}  
 10302 @2 으.{아.}  
 10302 #2 예. 논닐허레 가는.{예. 논일하러 가는.}  
 10302 #1 그냥 말로는 "어디 간 완서?" "난 논닐 허연.{그냥 말로는 "어디 갔다 오는가?" "  
 나는 논일 했어."}  
 10302 #2 막 소느로.{막 손으로.}  
 10302 #1 나 논닐허레 감서.{나 논일하러 가네.}  
 10302 @1 거시 검질메는 거우꽈?{그것이 김매는 것입니까?}  
 10302 #1 예.{예.}  
 10302 #2 소느로 막 무르췌멍. 경 허영으네 막 뽀바그네 딱 췌영 시둑떠레. 시둑떠레 놔똥  
 또 허고. 경 아녀믄 그.{손으로 마구 주무르면서. 그렇게 해서 막 뽑아서 딱 쥐어서 논독에.  
 논독에 놔두어서 또 하고. 그렇게 앓으면 그.}  
 10302 #1 그게 낱 발로 불란췌게.{그것이 놓아서 발로 밟았지.}  
 10302 #2 딱커게 눌렁 무더불민 그대로 썩거.{딱하게 눌러서 물어버리면 그대로 썩어.}  
 10302 @1 아 무리 인쓰니까예?{아 물이 있으니까요?}  
 10302 #2 예 물 이시난.{예 물 있으니까.}  
 10302 #1 불바불민.{밟아버리면.}  
 10302 #2 발빨리루 짹 불라불곡. 경 허곡 시둑 예염에 간 때 시둑디레 강 노코. 경 허멍.  
 시둑또 비고.{발부리로 짹 밟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논독 옆에 간 때는 논독에 가서 놓고.  
 그렇게 하면서. 논독도 베고.}  
 10302 @1 게믄 아까 이러케 다라에 놔가지고 이거 썩기 나면 요기 모파늘 이러케 썩 잘  
 달룰 꺼 아니라예?{그러면 아까 이렇게 대야에 놓아서 이것 썩이 나오면 요기 모파늘 이러  
 게 썩 잘 다룰 것 아닌가요?}  
 10302 #2 딱커게 떼어서.{딱하게 떼어서.}  
 10302 @1 그때 뭐가 피료한 거우꽈? 아까 서레 미레?{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아까 씨  
 레 번지?}  
 10302 #1 노닐헐 때 똑가타. 이 저 중가네는 경운기 나오난 노타리로 노닐 간 달루니까 더  
 제기 똤얼찌마는 우린 소로. 사름.{논일할 때 똑같아. 이 저 중간에는 경운기 나오니까 로터  
 리로 논을 가서 다루니까 더 빨리 되었지만 우리는 소로. 사름.}  
 10302 @1 게난 쟁기로.{그러니까 쟁기로.}  
 10302 #1 우리 할망은 이끄고.{우리 할머니는 이끌고.}  
 10302 @1 으.{아.}

10302 #1 그 쟁기질 할 때는 소를 안 이끄는디 서으레질 할 때는 소를 이끌어야만.{그 쟁기질 할 때는 소를 안 이끌어서 하는데 썩레질 할 때는 소를 이끌어야만.}

10302 @1 아.{아.}

10302 #1 서레가 돼.{썩레가 돼.}

10302 #2 무사 썩 받 그리칠 때.{왜 소 밧가는 것 가르칠 때.}

10302 @1 으으.{아아.}

10302 #2 아기 어병 등기렌 허문 코 썩근 내 썩 코 썩근 낸 무사 으르메 남광.{아기 업어서 당기라고 하면 코 썩은 내 소 코 썩은 내는 왜 여름에 나는지.}

10302 @1 아 게니까 썩레로 이러케 해노키만.{아 그러니까 썩레로 이렇게 해놓기만.}

10302 #1 예 그거 헤영. 밀레 청으네 요러케 반반허게 해놔 이제 이디 날레 너는 당근네나 그 밀레나 비슨턴 건디 밀레는 툇글 안 지우고 당근네는 툇글 지운 게 당근넨디.{예 그것 해서 번지 밀어서 요렇게 반반하게 해놓아서 이제 여기 곡식 너는 고무래인데 그 번지나 비슷한 것인데 번지는 툇글 안 지게 하고 고무래는 툇글 지운 것이 고무래인데.}

10302 #1 밀레 칠 때 밀레 청 바다글 반반허게 썩 빼여놔 밀레로 차박차박차박허문.{번지 칠 때 번지 쳐서 바닥을 반듯하게 썩 뿌려놓아서 번지로 차박차박차박하면.}

10302 @2 아느로 드러가게.{안으로 들어가게.}

10302 #1 이제 그 썩가 썩 구정물 이러나며는 그 저 정상으로 그 흑떠리 흑뽀 뭉쳐지는 거.{이제 그 썩가 썩 구정물 일어나면 그 저 정상으로 그 흑들이 조금 뭉쳐지는 것.}

10302 #1 거 무쳐지며는 사밀 똥아는 무를 흑뽀 새 주서먹찌 몬터게 썩 인따가 사밀 너드민 강 물 빼영.{그것 묻혀지면 삼일 동안은 물을 조금 새 주워먹지 못하게 썩 있다가 삼일 넘으면 가서 물 빼서.}

10302 @1 예.{예.}

10302 #1 헤빼슬 바다야만 그게 빨리 자라니까게.{햇볕을 받아야만 그것이 빨리 자리니까요.}

10302 @1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10302 #1 사밀 시민 그 파랑하게 올라와.{삼일 있으면 그 파랑게 올라와.}

10302 @1 예예예.{예예예.}

10304 @1 그러므예 그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드리 인찌 아너우짱예?{그러면요 그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10304 #1 예.{예.}

10304 @1 어떤 거뜨리 이서신고예? 예를들면 지그든 나록농사할 때 농기구는 아까 썩레도 인꼬 밀레도 인꼬 밀레 그 다으메 그 쟁기도 인썩 거시고예?{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들면 지금은 벼농사할 때 농기구는 아까 썩레도 있고 번지도 있고 번지 그 다음에 그 쟁기도 있을 것이고요?}

10304 #1 아 쟁기로 가라놔.{아 쟁기로 갈아놓아서.}

10304 @1 예.{예.}

10304 #1 서레로 달화놔 밀레로 쳐야되그 그걸. 또 기구가 갈 때는 멍에 소멍에를 씌왕으네 쟁기지를 헨꼬 또 서레지를 할 때는 질메를 지와가지고 이제 받썰 흘랑 끄러넨꼬.{썩레로 다뤄서 번지로 골라야 되고 그것을. 또 기구가 갈 때는 멍에 소멍에를 씌워서 쟁기질을 했고 또 썩레질을 할 때는 길마를 지워서 이제 밧썰 흘려서 끌어냈고.}

10304 @1 영 허나네 도구는 뭐 다 비슨비슨턴 건데 그 서레질할 땐 질메 지운 거 쟁기질

헐 땀 멍에 씌웁. 거 구부니 흥뿔 떨리주. 모양도 떨리고.{이렇게 하나까 도구는 뭐 다 비슷 비슷한 것인데 그 썩레질 할 때는 길마 지운 것 쟁기질할 때는 멍에 씌워서. 그것 구분이 조금 다르주. 모양도 다르고.}

10304 #1 등아리 우에 질메 지운 거 허곡 모가지에 멍에 씌운 거 허고는 구부니 와저니 떨리난.{등어리 위에 길마 지운 것 하고 모가지에 멍에 씌운 거 하고는 구분이 완전히 다르니까.}

10304 @1 아까 썩레 할 때는 멍에? 멍에?{아까 썩레 할 때는 멍에? 멍에?}

10304 #1 저 질메.{저 길마.}

10304 @1 질메예?{길마요?}

10304 #1 으.{예.}

10304 @1 쟁기는 멍에고예?{쟁기는 멍에고요?}

10304 #1 으. 쟁기는 멍에고.{예. 쟁기는 멍에고.}

10304 @1 예. 예예예예. 게난 논닐 헐 때는 그냥 소느로 검질 허는 거구나예?{예. 예예예예. 그러니까 논일 할 때는 그냥 손으로 김 하는 거군요?}

10304 #2 소느로.{손으로.}

10304 #1 그게 현 게 만추.{그것 한 것이 많아.}

10304 #2 제추기는 그냥 #1 제추기로 현 건 #2 그냥 등으려주는 거. #1 얼마 아니고.{제초기는 그냥. #1 제초기로 한 것은 #2 그냥 등그려주는 거. #1 얼마 아니고.}

10304 #2 소느로가 주로 마니. 소느로가 하영.{손으로가 주로 많이. 손으로가 많이.}

10304 @2 반농사 할 때 선생님.{밭농사 할 때 선생님}

10304 #2 소느로가 하영 허고.{손으로 많이 하고.}

10305 @1 그 다오메 노네 물도 대야 땔 꺼 아니우짱예?{그 다음에 논에 물도 대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305 #1 예 물 대곡.{예 물 대고.}

10305 #2 대곡 빼곡.{대고 빼고.}

10305 @1 그럼 물 댈 땐 뭘 피료한 연장이 어신가마씨?{그럼 물 댈 때는 뭘 필요한 연장이 없을까요?}

10305 #1 아 연장은 물 댈 때.{아 연장은 물 댈 때.}

10305 #2 소느로 강 시둑. 시둑 잘랑 물 내려가게 허곡. 또 댈마니 헤시민 시도게 꺼 강마강. 시둑 마그민 안 내려강 판 데레 강.{손으로 가서 논둑. 논둑 잘라서 물 내려가게 하고. 또 댈만큼 했으면 논둑에 거 가서 막아서. 논둑 막으면 안 내려가서 판 데로 가서.}

10305 @1 다 소느로?{다 손으로?}

10305 #2 예.{예.}

10305 #1 뭘 기구는 얻꼬.{뭘 기구는 없고.}

10305 @1 기구는 없고요?{기구는 없고요?}

10305 #2 시둑 빌 때에는 호 호미로. 시둑 그 푸리.{논둑 벨 때는 호 낫으로. 논둑 그 풀이.}

10305 #1 풀 풀 빌 때는 호미로.{풀 풀 벨 때는 낫으로.}

10305 #2 호미로 비고.{낫으로 베고.}

10305 @2 삽 가튼 거 피료어서마씨?{삽 같은 것은 필요없나요?}

10305 @1 그냥 소느로만.{그냥 손으로만.}

10305 #2 소느로만.{손으로만.}

10305 #1 아니 사본 그걸또 삽 들 때도 인쥬게. 저 뭐야. 무리 크게 비가 오나 뿔터나 허민 뭐 논꼬리 벙키던지 그 또 논꼬리 허무러져볼든지 이런 때는 사비 피료허긴 피료허지. {아니 삽은 그것도 삽 들 때도 있지. 저 뭐야. 물이 크게 비가 오나 무엇하나 하면 뭐 물꼬가 막히던지 그 또 물꼬가 허물어져버리든지 이런 때는 삽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

10305 #1 삽또 거 참 농기구에 일차로 필수품이나네 사비. 반농사에도 피료허고 논농사에도 피료허고 이게 참마.{삽도 거 참 농기구에 일차로 필수품이니까 삽이. 밭농사에도 필요하고 논농사에도 필요하게 이게 참말.}

10305 @1 계난 여기 그 보통 나록농사는 생수꿀 생수천?{그러니까 여기 그 보통 벼농사는 생수꿀 생수천?}

10305 #1 생수천.{생수천.}

10305 @1 그 금방만 뿔쭈가?{그 금방만 뿔쭈니까?}

10305 #1 예.{예.}

10305 @1 다른 딴 안 뿔고마씨?{다른 데는 안 뿔고요?}

10305 #1 다른 디는 이.{다른 데는 이.}

10305 #2 소끼꼬리렌 현 디 열리 그 우리 그디도 간 해날쭈게. 열리.{소끼골이라고 한 데 예래 그 우리 거기도 가서 했었습니다. 예래.}

10305 @1 열리?{예래?}

10305 #2 막 영 오르메.{막 이렇게 오름에.}

10305 #1 이제 휴양님단지 허는 텐디 거기는 사람 텅기는 겐또 무섭찌마는 소에 짐 시경 올 때는.{이제 휴양님단지 하는 곳인데 거기는 사람 다니는 것도 무섭지만 소에 짐 실어서 올 때는.}

10305 @1 음.{아.}

10305 #1 아 이거 소 주겨지카부텐.{아 이거 소 죽여질까봐.}

10305 @1 아아.{아아.}

10305 #1 이제는 소 하나 주겨도 겁 뺨찌마는 연나렌 소 하나 주그믄.{이제는 소 하나 죽어도 겁 없지만 옛날에는 소 하나 죽으면.}

10305 @1 큰 재산인데.{큰 재산인데.}

10305 #1 나 재산 바는 허무러져본 거.{내 재산 받은 허물어져버린 거.}

10305 #1 그 소가 업쓰며는 일 할 쭈가 업쓰니까. 그러케 그 소가 중요헌 거라꼬.{그 소가 없으면 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소가 중요한 것이였고.}

10305 #1 이제는 뭐 소 나도 이제 뿔 개 허다네 이젠 네 머리주마는 이젠 새끼만 잘 나면 뿔는 거.{이제는 뭐 소 나도 이제 뿔 개 하다가 이제는 네 마리지만 이것은 새끼만 잘 낳으면 되는 거.}

10305 #1 뿔 뿔 거 하나도 업씨. 일 시길 겐또 업꼬 뿔.{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일 시킬 것도 없고 뿔.}

10305 #1 아 지비 올 때 차 타렌 허민 차로 오지 갈 때 차 탕 가지 뿔. 이거 뿔. 겨우레 지비 오민 연나렌 저 풀만 주고 살렸는데 새끼 나곡 일 허곡 구루마질 허곡 받갈고 다 뿔이 지곡.{아 집에 올 때 차 타라고 하면 차로 오지 갈 때 차 타서 가지 뿔. 이거 뿔. 겨우레 집에 오면 옛날은 저 풀만 주고 살렸는데 새끼 낳고 일 하고 마차질 하고 밭 갈고 다 뿔아짱고.}

10305 #1 뭐 모든 거 다 헨는디 이젠 그건또 아무 건또 아니명 사료 사당 쥐야허곡.{뭐 모든 거 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무 것도 아니면서 사료 사다가 쥐야하고.}

10305 @1 누가 메기곡.{보릿가루 먹이고.}

10305 #1 아 겨우레 뭐 풀 잘 쥐야웨곡 경 해도 어제그지게 날 얼메결따마려.{아 겨울에 뭐 풀 잘 쥐야되고 그렇게 해도 엇그저께 나를 연결먹게 했다고.}

10305 @1 웃음. \*\*\* 고바부런텐.{웃음. \*\*\* 숨어버렸다고.}

10305 #2 이른 아녕 놀멍 예기만 나민 쥘텐.{일은 안 하고 놀면서 아기만 낳으면 된다고.}

10305 #1 아이. 담배 한 까치가 피우렌 허영 자 허영 준 겐파 하나 흠쳐 머거분 겐파 기부니 다른들끼.{아니. 담배 한 가치가 피우라고 해서 자 해서 준 것과 하나 흠쳐 먹어버린 것과는 기분이 다르듯이.}

10305 @1 예. 마수다.{예. 맞습니다.}

10305 #1 아 이거 서푼짜리라도 이녀 물거니 탄 사람 꺾 다 인는디 나 건만 어시난 흥뽀 썩썩 허긴 허고.{아 이것 서푼짜리여도 이녀 물건이 다른 사람 것은 다 있는데 내 것만 없으니까 조금 썩썩은 하기는 하고.}

10305 #1 아 이거 오래 사람시난 벨꼬를 다 보내 허멍.{아 이거 오래 살고 있으니까 벨꼬를 다 보내 하면서.}

10305 @1 저 어린 누구 말마따나 건 환장허지.{저 어린 누구 말마따나 그것은 환장하지.}

10305 @1 웃음

10305 #2 환장허연 와십따다.{환장해서 왔던데요.}

10305 #1 아 이거 쥘 압짱성 나왕으네 어형허는 건디게 뻔 바퀴를 도라도게 수멍.{아 이거 쥘 앞장서서 나와서 어형하는 것인데 뻔 바퀴를 돌아도 숨어서.}

10305 @1 게난 가그네 싸이니 달라진 거 아이우짜?{그러니까 가서 사인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10305 @1 웃음. 강 뭇엔 불런쭈가?{웃음 가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10305 #1 불르는 소리로 불려봐도.{부르는 소리로 불려봐도.}

10305 @1 아아.{아아.}

10305 #2 불르민 잘잘 도라웁니다게.{부르면 잘잘 달려옵니다.}

10305 @1 게메.{그러게요.}

10305 #2 동사네 강 어이 허민양 영 고개 들렁 뵙 쫄쫄쫄쫄 아방 오민 와게.{동산에 가서 어이 하면요 이렇게 고개 들어서 봐서 쫄쫄쫄쫄 남편 오면 와요.}

10305 #1 멀리 가긴 허는 건디.{멀리 가기는 하는 것인데.}

10305 @2 가이 요새 여내허는 거 달르게.{그애 요즘 연애하는 것 닮은데.}

10305 #2 다 드러간. 드러갈 꺾.{다 들어갔어. 들어갈 것은.}

10305 #1 저 중간에 사료라도 흥포 사당 쥐시민 탁 나올 꺼 아니라게. 놔더른 다 경 곤고.{저 중간에 사료라도 한 포 사다가 쥘으면 턱 나올 것 아닌가.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10305 #1 아니 어디 돈 서게. 이제 뭐 사료 주멍 아니민 뭐 새끼 하나 보는 건디 뭐 허멍 헨는디.{아니 어디 돈 있는가. 이제 뭐 사료 주면서 앓으면 뭐 새끼 하나 보는 것인데 뭐 하면서 했는데.}

10305 #2 득는 사르미난 드르렌.{달리는 사람이니까 달리라고.}

10305 #1 아 수머부러가지고 사름 얼먹언.{아 숨어버려서 사름 연결먹어서.}

10305 #2 혼 사름 완전 얼머거부린.{한 사람 완전히 연결먹어버렸어.}

### 1.3.2. 밭농사

10307 @1 예. 이버는 나록 농산 다 웬거라예. 이제는 받뜨로 가쿠다. 반농사와 관련텐 거 예. 반농사는 뭐뭐 지어봬디까?{예. 이번은 벼 농사는 다 된 거지요. 이제는 밭으로 가겠습니다. 밭농사와 관련된 거요. 밭농사는 무엇무엇 지어봬습니까?}

10307 #1 반농사사.{밭농사야.}

10307 @1 예. 보리도 헐쓸 거시고.{예. 보리도 했을 것이고.}

10307 #1 여기서 허는 건.{여기서 하는 것은.}

10307 @1 보리.{보리.}

10307 #1 다 헐쥬게.{다 했지.}

10307 #2 보리 조.{보리 조.}

10307 @1 조.{조.}

10307 #2 산뒤.{밭벼.}

10307 @1 산뒤. 감저도 해보고예?{밭벼. 고구마도 해보고요?}

10307 @2 선생니미 굴 게 아니고 우리 삼추니 굴이라야 되는데.{선생님께서 말할 게 아니고 우리 삼촌이 말해야 되는데.}

10307 #1 모멸 콩 뭇.{메밀 콩 무엇.}

10307 @1 예.{예.}

10307 #1 아년 게 하나도 얻쥬게.{안 한 것이 하나도 없지.}

10307 @1 마농?{마늘?}

10307 #2 콩.{콩.}

10307 #1 농사 여기서 진텐 현 거 다.{농사 여기서 짓는다고 한 것은 다.}

10307 @1 예예.{예예.}

10307 #2 아너는 거 어시 다 헐쥬게.{안 하는 것 없이 다 했습니다.}

10307 #1 게난 이제 옛날 ㄱ트민 이 장마에 이 오날 ㄱ튼 나른 콩도 갈기 조은 나리주.{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이 장마에 이 오늘 같은 날은 콩도 갈기 좋은 날이지.}

10308 @1 예예. 그러믄예? 조쥬다. 시저레 따라. 아까 보리 조 콩 다 헐짜우팡예? 봄서부터 쭉 해봄썬?{예예. 그러면요? 좋습니다. 시절에 따라. 아까 보리 조 콩 다 했잖습니까? 봄에서부터 쭉 해보십시오?}

10308 @1 봄 뒤면. 음녀 사뭇 뒤면 뭇 허곡 사뭇따레는 뭇허곡 혼번 쭉 혼번 ㄱ라봄썬?{봄 뒤면. 음력 삼월 뒤면 무엇을 하고 사월달에는 무엇하고 한번 쭉 한번 말해보십시오?}

10308 @2 일년 농사를?{일년 농사를?}

10308 @1 일년 농사 한번 지어보썬썬? 말로. 말로 일년 농사 지어봄쥬.{일년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말로. 말로 일년 농사지어보지요?}

10308 #1 일년 농사 봄 사뭇 사뭇따레 허는 농사가.{일년 농사 봄 삼월 삼월달에 하는 농사가.}

10308 #1 사뭇따레 허는 농사는.{삼월달에 하는 농사는} #2 사뭇레는.{삼월에는.} #1 업네.{없네.}

10308 @2 게난 기주늘 정헝으네 짹 해봄썬?{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짹 해보십시오?}



10308 @1 예. 사월부터 한번 해봅써?{예. 사월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10308 #2 사월부터 허지 아녜쭈가?{사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10308 #1 게난 보리가 시월따레 간 거나네 보메 검지를.{그러니까 보리가 시월달에 간 것이니까 봄에 김을.}

10308 #2 사월따레 검질메열썸. 보리 검질.{삼월달에 김맸다. 보리 김.}

10308 #1 이 보리 검지를 사월따레 검질메명 칼 파든 사월 해가 무당노미 지비 현 북 드라마메들 드랭이 드라정 안 진다.{이 보리 김은 삼월달에 김매면서 칼 파던 삼월 해가 무당놈의 집에 현 북 달아매듯 주렁히 달려져서 안 진다.}

10308 @1 다시 한번만마썸? 칼친 뭐?{다시 한번안요? 칼친 뭐?}

10308 #1 웃음

10308 @2 칼바람.{칼바람.}

10308 @1 어.{아.}

10308 #2 해가 너무 지난.{해가 너무 기니까.}

10308 #1 사월레 예 해가 기니까 무당노미 지비 현 북 드라마메들 해가 드랑이 드라진다. 이거. 그래가지고. {삼월에 아 해가 기니까 무당놈의 집에 현 북 달아매듯 해가 주렁히 달려있다. 그래서.}

10308 #2 지질 아녜다.{지지를 앓는다.}

10308 #1 해가 지질 아녜다.{해가 지지를 앓는다.}

10308 @2 험편 마른 안 해신디.{했던 말은 안 했는데.}

10308 #1 게난 이 해가 쥔진 때가 언제나 허면 하지거든.{그러니까 이 해가 쥔진 때가 언제나 하면 하지거든.}

10308 @1 예. {예.}

10308 #1 하지까지 막 지렁 이제 이제부터 질당 저 초복부터 일초씩 살살살살 내려강 말 북 뒤편은 짜른 줄 아라지게 예 찢라지는 건데.{하지까지 막 길어서 이제 이제부터 길다가 저 초복부터 일초씩 살살살살 내려가서 말복되면 짧은 줄 알아지게 아 짧은지는 것인데.}

10308 #1 으 그러케 그 막 해가 지러노민 옴나른 이젠 뭐 해가 지러도 빵도 먹꼭 과일도 먹꼭 험쭈마는 옴나른 뭐 빵 먹꼭 과일 먹꼭 머글 게 업써노니.{아 그렇게 그 막 해가 길면 옛날은 이제는 뭐 해가 길어도 빵도 먹고 과일도 먹고 했지만 옛날에는 뭐 빵 먹고 과일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10308 @1 게난 심방치비 북 드라마지들 드렁허게 둥견는데 아페 무슨 바라미 불면 칼바라미 불면?{그러니까 무당집에 북 달리듯 주렁히 늘어졌는데 앞에 무슨 바람이 불면 칼바람이 불면?}

10308 @2 아니 아니 칼차든 무슨?{아니 아니 칼차듯 무슨?}

10308 #1 칼바라미 부는 게 아니라 무당노미 집 현북 드라마메들 북 북.{칼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무당놈의 집 현 북 달아매듯 북 북.}

10308 @1 예.{예.}

10308 #2 해가 드라마여정으네.{해가 달려있어서.}

10308 #1 해가 진진해가지고 안 진다.{해가 길고 길어서 안 진다.}

10308 #2 부기 터러질 리가 일쑤가? 경 허난 해도 하도 지러노난 드라마져둬서 지질 아녜다.{북이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해도 매우 기니까 달려있으면서 지질 앓는다.}

10308 #1 게난 옛날 못살 때는 밤 진 건 존디 나제 해 진 거는.{그러니까 옛날 못살 때는 밤 진 것은 좋은데 낮에 해 진 것은.}

10308 #2 밤 진 건 조안쭈가? 바미도 일 헨쭈.{밤 진 것은 좋았습니까? 밤에도 일 했지.}

10308 @1 게난예. 게난 사월말 뒤편 보리밭 검질맨 거?{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월달 되면 보리밭 검맨 거?}

10308 #1 검질맨 거.{검맨 거.}

10308 @1 예.{예.}

10308 #1 사월말 나머는 이제 나룻메 준비가 켈 아페 허는 거지?{사월달 되면 이제 밋모 준비가 켈 앞에 하는 것이지?}

10308 #2 보리게 보리로 험썸게. 나룻메 끈나고 보리 농사.{보리요 보리로 하십시오. 밋모는 끝나고 보리 농사.}

10308 #1 아니 일너네 농사진 거를 쭉 말허렌 허난 사월따레 뒤편 켈 처음 씨 노첸 허는 게 나록요 노첸 나록 무레 크는 게 처으미고. 이제 사월따렌 그걸로 에 뒤편 사월말 쪼메는 노네 강 파종허는 게고.{아니 일년에 농사지은 것을 쭉 말하라고 하니까 사월 달 되면 켈 처음 씨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밋모 놓으려고 벼 물에 담그는 것이 처음이고. 이제 사월달에는 그것으로 에 뒤편 사월 말쭈메는 논에 가서 파종하는 것이고.}

10308 #1 또 오월말 나머는 보리 농사 썸 거두와드리면 다음부터는 농사에 드러가는 게 순서가 어느 게 빠르느냐가 문젠디 빠르는데 대랴근 이 저 산뒤.{또 오월달 나면 보리 농사 썸 거뒤편이면 다음부터는 농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어느 것이 빠르랴가 문제인데 빠른 것이 대략은 이 저 밋벼.}

10308 @1 예 산뒤.{예. 밋벼.}

10308 #1 예. 산뒤도 나로케 스추닌디 산뒤 험 썸르른 산뒤부터 켈 아페 씨부치는 게 산뒤. 그 다르른 조.{예. 밋벼도 벼의 사촌인데 밋벼 할 사람은 밋벼부터 켈 앞에 씨뿌리는 것이 밋벼. 그 다음은 조.}

10308 @ 1. 예.{예.}

10308 #1 또 그 다르른 예.{또 그 다음은 아.}

10308 #2 콩도 갈곡.{콩도 갈고.}

10308 #1 콩. 콩이 그다으른 고구마. 에 푼시 이제 우리 가란 그 이르게 가라부니까 안 되는 건디 그다음 푼. 푼시나 콩이나.{콩. 콩이 그다음에는 고구마. 에 팔이 이제 우리 갈아서 그 이르게 갈아버리니까 안 되는 것인데 그다음 팔. 팔이나 콩이나.}

10308 #1 이제는 이르지 아니민 농사가 안 뒤편헌디 연나른 유월썰 너멍 저 초복 다으메 해야 그 알맞게 커가지고 저 여무리 만타고 헨는데. 아 이제 그 저 푼도 이르게 간 가니까 뒤편 벌레만 다 머거부러신디.{이제는 이르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옛날은 유월절 넘어서 저 초복 다음에 해야 그 알맞게 커서 저 여무리 많다고 했는데. 아 이제 그 저 팔도 이르게 가서 가니까 뒤편 벌레만 다 먹어버렸는데.}

10308 #2 모밀 언제 놈\*\*. 치월말.{메밀 언제 농\*\*. 칠월달.}

10308 #1 어 모머른 이제 장마에 모밀판 두벌 가랑으네 치월 나야 치월따레 모머리 제일 내중 노록 또 가을농사 드리는 건 또 모머리 켈 내중.{아 메밀은 이제 장마에 메밀판 두벌 갈아서 칠월 되야 칠월달에 메밀이 제일 나중에 넣고 또 가을농사 들이는 것은 또 메밀이 켈 나중.}

10308 @1 예.{예.}

10308 #1 에 계난 ㄴ싸 농사를 그치록 지머는 가으레 구월똥부터 해들이는 게 켈 빠른 게 조가 아메도 빨라. 산뒤 조 나락 그거 세 가지가 비스터게 ㄴ튼 고비에 드러와야 뉘곡. 또 그 다으른 콩. 고구마가 또 켈 내중 파 드리는 거시 고구마고.{에 그러니까 아까 농사를 그렇게 지으면 가을에 구월달부터 해들이는 것이 켈 빠른 것이 조가 아무래도 빨라. 밭벼 조 벼 그것 세 가지가 비슷하게 같은 무렵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다음은 콩. 고구마가 또 켈 나중 파서 들이는 것이 고구마고.}

10308 #1 그 다음 시월똥 뉘머는 보리 파종에 드러가는 거고 농사엔 현 건 그러케뵈끼 뉘.{그 다음 시월달 되면 보리 파종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사라고 한 것은 그렇게밖에 뉘.}

10308 @1 엔나른 지시른 안 헐쭈가?{옛날은 감자는 안 했습니까?}

10308 #1 지슬?{감자?}

10308 @1 예.{예.}

10308 #1 지스른 보메 논는 거.{감자는 봄에 넣는 거.}

10308 #2 받치어로 쫄 낱양 반찬.{밭 가로 조금 넣어서요 반찬.}

10308 #1 이월 이월따레.{이월 이월달에.}

10308 #2 쌀망도 몬 머견쭈게. 머리가.{삶아서도 못 먹었지. 머리가.}

10308 #1 이젠 지슬보고 감저엔 허지 아념서?{이제는 지슬보고 감자라고 하지 않는가?}

10308 @1 예.{예.}

10308 #1 감전데 그 엔나렌 우린 지슬 지슬 현디 지슬 이월따레. 음녀그로 이월따레.{감자인데 그 옛날에는 우리는 감자 감자 했는데 감자 이월달에. 음력으로 이월달에.}

10308 @1 네.{네.}

10308 #2 감저는 싱그젠 허면 저기 메종도 봐야할 거 아니우파? 건 언제 놉니까?{고구마는 심으려고 하면 저기 모종도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넣습니까?}

10308 #1 정위레. 정위레 땅 막 파그네 난 삽 등이고.{정월에. 정월에 땅 막 파서 나는 삽 당기고.}

10308 #1 이 이위레 노추 이월. 음려그로.{이 이월에 넣지 이월. 음력으로.}

10308 #2 아이고 정위레도 낱쭈다 원상으로 노첸 허면.{아이고 정월에도 넣습니다. 원상으로 넣으려고 하면.}

10308 @1 저 감저 감저 감전메에?{저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묘요?}

10308 #2 예. 감전메 원상으로 노첸 허면 정위레 그 추운 때에.{예. 고구마 묘 정상적으로 넣으려고 하면 정월에 그 추운 때에.}

10308 #1 아방은 사브로 땅 영 허민 난 그 사베 베 즐라멩 영 둥이곡 영 둥이곡 경 허영 팡 막 이 노피 파마씨. 쉼걸름 봐. 걸름. 비료샤 셴 봐저서? 쉼걸름 봐그네 그 우티레 감저 메 낱 더평 비니루 더경 봐두면 빨리 나.{남편은 삽으로 땅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삽에 참바 즐라매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그렇게 해서 파서 막 이 높이 파요. 소거름 넣어. 거름. 비료야 있어서 넣어졌나? 소거름 넣어서 그 위로 고구마모종 넣어서 덮어서 비닐 덮어서 봐두면 빨리 나.}

10308 #1 빨리 크곡.{빨리 크고.}

10308 #2 빨리 크곡.{빨리 크고.}

10308 #1 여리 나니까.{열이 나니까.}

10308 #2 경 허여그네 이 마에 싱견쭈게.{그렇게 해서 이 장마에 심었잖아요.}

10308 @1 예. 감절쭈 비여당예? 예예예예.{예. 고구마줄기 베다가요?}

10308 #2 마에.{장마에.}

10308 @1 예예예.{예예예.}

10308 #2 마에 싱겁쥬게. 경 허민 젤 말쑤에 파그네 썰젠 허민 가르레.{장마에 심었지. 그렇게 하면 젤 나중에 파서 썰러고 하면 가을에.}

10308 #1 게난 우리 중무니 그 조합 생긴 때가 오십구년도에 생겼떤가?{그러니까 우리 중문리 그 조합 생긴 때가 오십구년도에 생겼던가?}

10308 #1 중문농협 처음 생긴 때 그 조합짱이 김형식 조합짱인디 그 박대통령 절간갑저 바다드리라 헐 때 나가 우리 부라게서 백삼십 개 허여네 일등 해여네.{중문농협 처음 생길 때 그 조합장이 김형식 조합장인데 그 박대통령 절간고구마가 받아들여라 할 때 내가 우리 마을에서 백삼십 개를 해서 일등 해서.}

10308 @1 백 백삼십 가마?{백 백삼십 가마?}

10308 #1 예. 게연 상 바단 허멍 해나신디.{예. 그렇게 해서 상 받아서 하면서 했었는데.}

10308 #2 그게 잘 몰르면양 하양허곡 막 곤디 이치룩 써령 마나 저불민양.{그것이 잘 마르면요 하얏고 막 고운데 이렇게 썰어서 장마나 저버리면요.}

10308 @1 거멍허연.{거매서.}

10308 #2 파월 마 저불민 거멍허연 순 돼여봅니다. 게도 그걸 바다.{팔월 장마 저버리면 거매서 숯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

10308 #1 그게 뭐냐면 상강 절기 때무네 상강 저니 절간 허며는 아무리 잘 몰라도 조끔 꺼묻꺼묻터고 상강 너멍 절가늘 허며는 날씨만 조안따허민 그냥 하얏허게 이 종이모양에 하얏허게.{그게 뭐냐면 상강 절기 때문에 상강 전에 절간 하면 아무리 잘 말라도 조금 꺼못꺼 못하고 상강 넘어서 절간을 하면 날씨만 좋았다하면 그냥 하얏게 이 종이모양에 하얏게.}

10308 @1 그럼 또 다시합쥬예. 일탄 보리농사도 지어본 거 아니우짱예?{그럼 또 다시하겠 습니다. 일단 보리농사도 지어 본 것 아닌가요?}

10308 #1 응.{응.}

10309 @ 1 그럼 보리 종뉴는 뭐워 이서날쥬짱? 보리?{그럼 보리 종뉴는 뭐워 있었 습니까? 보리?}

10309 #1 아. 쫄 세 가지 종뉴 일찌.{아. 쫄 세 가지 종류 있지.}

10309 #2 맥쥬보리.{맥쥬보리.}

10309 #1 아이 살보리가 젤 험 거.{아니 쌀보리가 젤 한 거.}

10309 @1 슬루리.{쌀보리.}

10309 #1 으. 두줄보리 맥쥬보리 그걸뵈끼 업짜나.{으. 두줄보리 맥쥬보리 그것밖에 없잖 아.}

10309 #2 세 가지. 우리 헐 땐 세 가지.{세 가지. 우리 할 때는 세 가지.}

10309 @1 아 세 가지마쥬? 팡질로리도 안 드리뵈떠가?{아 세 가지요? ‘팡질오리’도 안 들어봤 습니까?}

10309 #1 어?{어?}

10309 @1 팡질로리.{팡질오리.}

10309 #2 저.{저.}

10309 #1 아 그런 겐또 아녀고.{아 그런 것도 안 하고.}

10309 #2 떡뵈리엔 해네 빨간 거. 그 뵈급쥬근험 새깔 그 떡커영 머그민 그걸까 흐뵈 출진 덴. 게엔 그 보리 해날쥬다.{떡보리라고 해서 빨간 거.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 떡해서 먹으

면 그것이 조금 차진다고. 그것이 차진다고. 그래서 그 보리 했었습니다.}

10309 @1 세 가지예?{세 가지요?}

10309 #2 세 가지.{세 가지.}

10309 @1 어어. 계난 주로 어느 보리를 해납따가? 슬루리?{아아. 그러니까 주로 어느 보리를 했었습니까? 쌀보리?}

10309 #2 맥주보리가.{맥주보리가.}

10309 #1 처음 못 쌀 때는 쌀보리를.{처음 못 살 때는 쌀보리를.}

10309 @1 슬루리?{쌀보리?}

10309 #1 거의 이 동네 전체가 그 쌀보리가 그 불량이 만허니까 그거 허다가 그제 바쁜 허며는 햅꼐 해 마는 쪼끔 더러.{거의 이 동네 전체가 그 쌀보리가 그 분량이 많으니까 그거 허다가 그제 밥은 하면 조금 햅 맛은 조금 덜해.}

10309 #1 켄디 내중엔 두줄보리가 그 호주매기라고 해가지고 두 줄로 짝케도 그거 나온 땀 뒹 곤바비 멋찌 아년쥬. 그냥 그 호주맥 까까네 기계에 그냥 까간 물 안 쥬 까깁 행 오민 그거 밥퍼민 뒹 아이고 뒹.{그런데 나중에 두줄보리가 그 호주맥이라고 해서 두 줄로 짝해도 그것 나온 때는 뒹 쌀밥 못지 안았지. 그냥 그 호주맥 깎아서 기계에 그냥 깎아서 물 안 줘서 깎아서 해서 오면 그것 밥하면 뒹 아이고 뒹.}

10309 @1 또 하나마씨? 아까 세 개 햅쓰니까?{또 하나요? 아까 세 개 했으니까?}

10309 #1 그:.{그:.}

10309 @1 쫄보리?{쌀보리?}

10309 #1 저 슬보리허곡 두줄보리허곡 허지. 그 그냥 저 무신겅꼬 곤싸.{저 쌀보리하고 두줄보리하고 하지. 그 그냥 저 무엇이지 아까?}

10309 @2 맥주보리.{맥주보리.}

10309 #1 맥주보리는.{맥주보리는.}

10309 #2 맥주매기엔 햅찌. 그때.{맥주맥이라고 했다. 그때.}

10309 #1 그건 밤마시 영 업는 거. 수확도 안 나고 겉또 동네 마니 갈도 아년꼬.{그것은 햅맛이 전혀 없는 거. 수확도 안 나고 그것도 동네 많이 갈지도 았았고.}

10309 @1 예예예.{예예예.}

10309 #2 맥주맥 납작납작한 거 .{맥주보리 납작납작한 거.}

10309 #1 맥주맥 햅어오고 쌀보리가 마난쥬. 켄디 맥주맥 햅 땀 밤만 조코 정부에서 바다가는 건 쌀보린 안 받꼬 맥주맥만 바드난 야간 구십 프로는 맥주맥. 일 프로 정도가 돼나마다 햅찌 쌀보리 햅는 사람.{맥주보리 햅오고 쌀보리가 많았지. 그런데 맥주보리 햅 때는 햅맛 좋고 정부에서 받아가는 것은 쌀보리는 안 받고 맥주보리만 받으니까 햅어튼 구십 퍼센트는 맥주보리. 일 퍼센트 되나마나 햅지. 쌀보리 햅는 사람.}

10309 #1 맥주맥 나단 말짜에 돼난.{맥주보리 나오다가 말째에 되니까.}

10310 @1 계른예 그 쫄 쫄보리나 두줄보리 한번 농사지은 것 한번 쫄 햅줍씨? 계난 씨는 어떻 보관햅날쥬가? 씨는.{그러면요 그 쌀 쌀보리나 두줄보리 한번 농사지은 것 한번 쫄 햅줍시요? 그러니까 씨는 어떻게 보관했었습니까? 씨는.}

10310 #2 씨는?{씨는?}

10310 @1 보리씨는?{보리씨는?}

10310 #1 씨는 그거 뒹 아무 걱ჽ 업는 거. 땀 거는 위엽허는디 뒹 저 비만 안 마장 뒹 깨꾼턴 거민 뒹 그냥 도루미깁에 놔도 뒹고.{씨는 그것 뒹 아무 걱정 없는 거. 다른 것은 위

험하는데 뭐 저 비만 안 맞아서 뭐 깨끗한 거면 뭐 그냥 드럼통에 놔도 되고.}

10310 @1 메게 놔도 돼고.{먹서리에 놓아도 되고.}

10310 #1 메게 놔도 돼고. 메게 메게는.{먹서리에 놓아도 되고. 먹서리에 먹서리에는.}

10310 #2 짠. 멘드란 이치룩 험 거로 하꼬 크게.{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상가 크게.}

10310 #1 메게 놔둔텐 허는 버븐 우리 부라게 어선꼬 이런 지벤 쥐가 안 드리오난 메게 놔도 돼겐는디 엔나른 뭐.{먹서리에 놓아둔다고 하는 법은 우리 마을에는 없었고 이런 집에는 쥐가 안 들어오니까 먹서리에 놓아도 되겠는데 옛날은 뭐.}

10310 @1 으으으.{아아아.}

10310 #2 향아리에 향아리.{향아리에 향아리.}

10310 #1 가치 밤 머글라고 덤비고 뭐 허는디.{같이 밥 먹으려고 덤비고 뭐 하는데.}

10310 #2 안빵엔 험디 쪽 양쪼그로 낱 사름만.{광이라고 한 데 쪽 양쪽으로 놓아서 사름만.}

10310 #1 쥐가 춤 어디 가부런신디.{쥐가 참 어디 가버렸는지.}

10310 #2 향아리.{향아리.}

10310 #2 허나네 향아리나 또 난 그 방 안에 통 만드라가지고 그런디 너코 그랜찌.{하니까 향아리나 또 나는 그 방 안에 통 만들어서 그런데 넣고 그랬지.}

10310 #1 곧싸 뭐 메게 논다는.{아까 뭐 먹서리에 넣는다는.}

10310 @1 예. 그러든 씨 씨 보관은 문제가 안꼬예. 그 보관 할땐 씨를 받까라그네 뿌리는 경우도 인지만 걸르메 서경으네 허는 경우도 인쭈가?{예. 그러면 씨 씨 보관은 문제가 없어요. 그 보관 했던 씨를 받갈아서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름에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0310 #1 아이고 춤.{아이고 참.}

10310 @2 엔날 보리 가라난 걸 ㄴ라 줍싸?{옛날 보리 갈았던 것을 말해 주십시오?}

10310 #1 엔날 그 보리 간 거 아주 우리 춤 나이 어려도 명칭헌 질 마니 험 거주.{옛날 그 보리 갈았던 거 아주 우리 참 나이 어려도 명칭한 짓 많이 한 거지.}

10310 #2 돈결름 내어네.{돼지거름 내어서.}

10310 #1 소결르를 돈통에 너영. 돈통에 막 드러놔. 이젠 또 가을 뜰며는 그 가을거지 거 뒤드리고 그 돈결름 혜영 그 돈결르를 마당에 이제 퍼네영.{소거름을 돼지우리에 넣어서. 돼지우리에 막 들여놓아. 이제는 또 가을 들면 그 가을건이 거뒤들이고 그 돼지거름 해서 그 돼지거름을 마당에 이제 퍼내서.}

10310 #2 골체에.{삼태기에.}

10310 #1 거기서 씨 뿌령 소로 어령떠령 그 노를 불방 그걸 소스랑으로 다 일리리 뒤지병 뒤지병 또 씨 빼영 또 불방 또 그 노를 한 군데 모으는 건또 아무렇게 모아도 될 이리디 딴 사람덜 볼 때 모양 조께.{거기서 씨 뿌려서 소로 어령떠령 그 놈을 밟아서 그것을 쇠스랑으로 다 일일이 뒤집어서 뒤집어서 또 씨 뿌려서 또 밟아서 또 그 놈을 한 군데 모으는 것도 아무렇게 모아도 될 일인데 다른 사람들 볼 때 모양 좋게.}

10310 @1 으.{아.}

10310 #1 으 이리께 네모나겔 허든지.{아 이렇게 네모나게 하든지.}

10310 #2 막 싸올령.{막 쌓아올려서.}

10310 #1 어어 어디냐? 저 산방산 모양에 쭈쭈커게 모양 인께 그러케 데미든지 그러케 허

며는 절은 사름 너머가당 아무네 지비 거름 춤 잘 데면네 이런 말 들쨌덜 그 허연는다.{어 어 어디냐? 저 산방산 모양에 뽕족하게 모양 있게 그렇게 쌓든지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 넘어가다가 “아무네 집에 거름 참 잘 쌓았네.” 이런 말 들으려고 그 했는데.}

10310 #2 메게.{떡서리에.}

10310 #1 그걸 또 뭐냐하면 돈꺼름착.{그것을 또 뭐냐하면 돼지거름착.}

10310 @1 네.{네.}

10310 #1 돈꺼름착 다망 소에 혼 짜게 하나씩 두 갠 시경 아이고 춤. 그걸 받떡.{돼지거름착 답아서 소에 한 쪽에 하나씩 두 개를 실어서 아이고 참. 그것을 밭에.}

10310 #2 아방은 지레 크난 강 탁 부쳐도 난 벅들락벅들락 허멍 강 그거 쉼 우티레 강.{남편은 키 크니까 가서 탁 붙여도 나는 바둥바둥 하면서 가서 그것 소 위에 가서.}

10310 #1 거 돈꺼름차겐 헛 게 어디 빌레 가니까 돈꺼름착도 즈랑 쓰라. 뭐 아무나 거 빌려주는 게 아니여. 거 혈주게.{그거 돼지거름착이라고 한 것이 어디 빌려 가니까 돼지거름착도 곁어서 써라. 뭐 아무나 그것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 혈지.}

10310 @1 예. 벅따리니까예.{예. 떡서리이니까요.}

10310 #1 저 소에 시경 강 탁 터러질 때 땅드레 터러질 때 그게 혈긴 허러.{저 소에 실어서 가서 탁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질 때 그게 혈기는 혈어.}

10310 #1 게난 아이고 그날 처낙부터 새끼 꼬아서 하루 처낙게 돈꺼름착 하나 만드라야 넣 자곡. 그 뭐 열 개 만드난 다섯 빠리라.{그러니까 아이고 그날 저녁부터 새끼 꼬아서 하루 저녁에 돼지거름착 하나 만들어야 누워서 자고. 그 뭐 열 개 만드니까 다섯 바리야.}

10310 @1 음. 마주다.{음. 맞습니따.}

10310 #1 두 개가 혼 바리니까 아 열 개 만드난 혼 바리.{두 개가 한 바리니까 아 열 개 만드니까 한 바리.}

10310 #1 게문 구루마에 다섯 빠리 딱 시경 텅이니까 아이고 이젠 뭐 세상 이보단 더 조은 이리 열꾸나 허연 춤.{그러면 달구지에 다섯 바리 딱 실어서 다니니까 아이고 이것은 뭐 세상 이보다는 더 좋은 일이 없구나 해서 참.}

10310 #2 구루마 허난 막.{달구지 하니까 막.}

10310 #1 허단 내중 경운기가 우리 부라게 켈 처음 나온 때 다섯 짜르미 가보허난 고장 나민 나도 아넌찌 나도 아넌찌 나도 아넌찌. 웃음. 다 이러더라고.{하다가 나중에 경운기가 우리 마을에 켈 처음 나온 때 다섯 사람이 동아리하니까 고장 나면 나도 안 했다 나도 안 했다 나도 안 했다. 웃음. 다 이러더라고.}

10310 #1 게난 이게 또 아이고 이제 저 딸따리를 제주시 과양 성남기업 거기 간 야이 저 도나메 살 때 그디 간 하루 저녁 자명 저거 만드러 와네 저걸로 돈도 마니 벌고 저걸로 헌디.{그러니까 이제 또 아이고 이제 저 탈탈이를 제주시 광양 성남기업 거기 가서 이 애 저 도나메 살 때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저거 만들어 와서 저것으로 돈도 많이 벌고 저것으로 했는데.}

10310 #1 구루마에건 이제 경운기건 감저뽕때기 헛 거를 딱 시렁 가며는.{달구지에든 이제 경운기든 절간고구마 한 것을 딱 실어서 가면.}

10310 #1 그 소에 시경 막 텅기든 그거야 영 뽕지러져부러신디 검사과니 그거 뽕지러지면 알아주질 아녀.{그 소에 실어서 막 다니면 그거야 이렇게 뿌러져버렸는데 검사관이 그것 뿌러지면 알아주지를 앓아.}

10310 @1 아. {아.}

10310 #1 아 예 허나네 그 구루마에나 경운기에나 이거 페나니 시렁 가든 이게 덜 뿐질러 지니까 일똥을 머거야 도니 돼지 이등이나 등웨 머그든 등웬 머그든 영 안 돼.{아 예 하니까 그 달구지에나 경운기에나 이거 편안히 실어서 가면 이게 덜 뿌러지니까 일똥을 먹어야 돈이 되지 이등이나 등외 먹으면 등외는 먹으면 전혀 안 돼.}

10310 #1 요즘 그 교수님넨 더 잘 아람쭈마는 소도 그런습니다. 이게 하누가 일똥그블 머그든 엄청 돈 벌고 이등급 일똥급 몬 머경 이등급만 머거도 조은디 삼등급 머그민.{요즘 그 교수님네는 더 잘 알고있지만 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우가 일등급을 먹으면 엄청 돈 벌고 이등급 일등급 못 먹어서 이등급만 먹어도 좋은데 삼등급 먹으면.}

10310 @1 마니나스.{마이너스.}

10310 #1 완전 적짜라. 거 돈 차이가 너무 나부러.{완전 적자야. 그것 돈 차이가 너무 나버려.}

10310 #1 만 키로당 만삼천오백 원에 삼등급 허민 칠쳐 년도 안 주니까 그거 엄청나.{만 킬로그램당 만삼천오백 원에 삼등급 하면 칠천 원도 안 주니까 그거 엄청나.}

10310 @1 고비네.{굽이네.}

10310 #1 예. 차이가 나부러. 그런 시기 돼들끼 그 고구마 혈 때도 가능허민.{예. 차이가 나버려서. 그런 시기 되듯이 그 고구마 할 때도 가능하면.}

10310 #1 일등급 먹젠 게도 흥뽀 야속컨 할망인디 검질께기 하나 안 들게 부시레기 몬지 다 떠러내곡 허명. 상 받꼬.{일등급 먹으려고 그래도 조금 야무진 할머니인데 검부러기 하나 안 들게 부스리기 먼지 다 떨어내고 하면서. 상 받고.}

10310 @1 게난 걸름차게다가 이젠 그 돈꼴르를 실렁.{그러니까 거름짜에다 이제는 그 돼지거름을 실어서.}

10310 @2 보리 가라얹쭈. 이젠.{보리 갈아야요. 이제는.}

10310 @1 보리 보리 받떠 간 거 아니우짱예? 그 쪽 폐와낭.{보리 보리 밭에 간 것 아닌가요? 그 쪽 퍼놓아서.}

10310 #1 폐워노면 이 사르미 강.{퍼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10310 @1 소시랑으로.{쇠스랑으로.}

10310 #1 그 추운디 눈 팡팡 와가든디 손 영 이러케 뿌병 이러케 막 골고르 허치는 거여.{그 추운데 눈 펄펄 오는데 손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막 골고루 흠어 놓는 거야.}

10310 #2 받 천지를 막 소느로.{받 천지를 막 손으로.}

10310 #1 받 천지에 쪼끔씩 옴 누구말째거라도 개똥 굴기든 영 받떠 막.{받 천지에 조금씩 옴 누구 말하듯이 개똥 깔기듯 이렇게 밭에 막.}

10310 @1 가마기똥 케우리든.{까마귀똥 흘든.}

10310 #1 예 그러쭈. 예 그 걸르를 이렇게 확 아상으네 영 부병 타타타타 던져노민 그다음은 받가는 사르미 나라.{예. 그렇지요. 예 그 거름을 이렇게 확 가져서 이렇게 비벼서 타타타타 던져놓으면 그다음은 받가는 사람은 나야.}

10310 @2 으음.{으음.} 1

0310 #1 어 가라.{아 갈아.}

10310 #1 게든 갈며는 또 꼬랑이 고랑이 비연따 마려. 이 고랑에 한 병탱이 한.{그러면 갈면 또 고랑이 고랑이 비었다 말야. 이 고랑에 한 덩어리 한.}

10310 #1 병탱이.{덩어리.}

10310 @1 아아 고랑에.{아아 고랑에.}



10310 #1 건 시보전에 하나씩.{그것은 십오전에 하나씩.}

10310 #2 강 아따그네 아낭.{가서 가져다가 안아서.}

10310 #1 시보전.{십오전.}

10310 #2 딱딱.{딱딱.}

10310 #1 시보저네 하나씩 툭툭툭툭 문드령으네 또 이걸 이러케.{십오전에 하나씩 툭툭툭 툭 떨어뜨려서 또 이것을 이렇게.}

10310 @1 으음.{으음.}

10310 #1 흐그로 마가져.{흙으로 막아져.}

10310 #2 그걸로 뭐 영 아나당 트다그네.멍에에 왕으네 사르미.{그것으로 뭐 이렇게 안아다가 뜯어서 발머리에 와서 사람이.}

10310 #1 또 그런 건또 인꼬. \*\*\*\*. 췌가 한번 쪽 ㄱ라가며는.{또 그런 것도 있고. \*\*\*\*. 소가 한번 쪽 갈아가면.}

10310 #1 이 골 갈리는 영 양펜디레 영 갈라지는 게 골 갈리고.{이 고랑 갈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고랑 갈기고.}

10310 #1 이건 흔썩디레만 가게 똥 건디 영 허영 쪽 드라가면 이 나 가라가는 조르메 거름을 아저왕 흔 병탱이씩 탁탁탁탁 낱 저디 강 소가 도라갈 때 이짜그로 또 영 오게 똥은 건데 조르메 바짝 허여져야 똥은디 그걸 안 똥며는 소가 이거 이거 거름 안 낱 이시며는 이거 이러 터터허멍 가야 똥은디.{이것은 한쪽으로만 가게 똥 것인데 이렇게 해서 쪽 돌아가면 이 내가 갈아가는 꿈무니에 거름을 가져와서 한 덩어리씩 탁탁탁탁 놓아서 저기 가서 소가 돌아갈 때 이쪽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인데 꿈무니에 바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안 되면 소가 이거 이거 거름 안 놓아 있으면 이러 이라 헛헛하면서 가야 되는데.}

10310 @1 못 까.{못 가.}

10310 #1 아 참 못 까니까. 하 저 어떤 똥 성지른 흙똥 뜨우롱허면서도 바쁠 땐 엄창 야네 어머니하고 나는 동기간 똥에도 엄창 바쁜 사르미라. 게난.{아 참 못 까니까. 하 저 어떤 때는 성질은 조금 뜬 것 같으면서도 바쁠 때는 엄청 애네 어머니하고 나는 동기간 중에도 엄청 바쁜 사람이야.}

10310 #2 이젠 이거 똥 똥엔.{이제는 이거 똥 똥어.}

10310 #1 야네 어머니가 거름 노코 골 막는 거.{애네 어머니가 거름 놓고 골 막는 것.}

10310 #2 사름 다올려가는다. 이제 영 헤시민.{사람 몰아치는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10310 #1 나가 받 까라도 그걸 마왕으네 허민 자네 어명은 나를 조아허주.{내가 받 갈아도 그것을 맞춰서 하면 재네 어머니는 나를 좋아하지.}

10310 @1 게난 영 헨 다.{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10310 #1 센쓰가 마지니까.{센스가 맞으니까.}

10310 @1 예예. 게연 이제 다 간 거라. 이젠예.{예예. 그래서 이제는 다 간 거죠. 이제는 요.}

10310 #2 나도 나만이 드란.{나도 나만큼 뛰어서.}

10311 @1 게민 이제는 싸기 나다보면 이제 또 블라줘야 똥 꺼 아니우짱?{그러면 이제는 싸기 나오다보면 이제 또 밟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10311 @2 이 동넨.{이 동네는.}

10311 #1 아아 여긴 흑빨 조나넨.{아아 여기는 흙바탕이 좋으니까.}

10311 @1 안 블란쭈가?{안 밟았습니까?}

10311 #1 예. 버브로 나와네 혼 해.{예. 법으로 나와서 한 해.}

10311 #2 가랑만 내부런.{갈아서만 내버렸어.}

10311 #1 볼브렌 막 헨쭈. 헨는디 그거 안 하고. 모실포 쪼그로 글로는 마니 볼바.{밟으라고 막 했지.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모슬포 쪽으로 그리로는 많이 밟아.}

10311 @1 아 게난 여긴 남테도 모르겐파예?{아 그러니까 여기는 남테도 모르겠네요?}

10311 #1 예. 그 볼르는 건 뭐.{예. 그 밟는 것은 뭐.}

10311 #2 돌맹이가 하노나네 가라가는양 그걸 막 지들르난 볼름 무신 걸 험니까게. 게난 지슬 그튼 거 안 땀니까. 놀러부렁.{돌맹이가 많으니까 갈아가는대로 그것을 막 지지르니까 밟으면 무슨 것 합니까. 그러니까 감자 같은 거 안 되지요. 놀러버리니까.}

10311 #1 저.{저.}

10311 #2 경 혜연 안 댜는 거라. 이렌.{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리로는.}

10311 #1 모실포 동쪽 사계 글로 모실포 사이엔 호기 꺼멍허고 부각컨 디난 이제 아까 지스리엔 그라시난 감저보고 지슬허난 지슬도 잘 땀꼭 그 뭐야. 이 배추그튼 건또 잘 땀꼭 이러는디 여긴 돌맹이가 만타 보나네.{모슬포 동쪽 사계 그리로 모슬포 사이에는 흙이 꺼멍고 부각한 데니까 이제 아까 감자라고 말했으니까 감자보고 지슬하니까 감자도 잘 되고 그 뭐야. 이 배추같은 것도 잘 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돌맹이가 많다 보니까.}

10311 #2 게난 보리 간 거 우렁.{그러니까 보리 간 것 위해서.}

10311 #1 그 밭로 안 볼라도 땀.{그 밭로 안 밟아도 땀.}

10311 @1 예예.{예예.}

10312 @2 게문 이제 보리가 커 가문 검질메얹쭈?{그러면 이제 보리가 커 가면 김매야 죠?} 10312 @1 게난 보리반 이젠 크니깐 검질멜 꺼 아니우팡예? 검질 땀 뿔까지 땀쭈가?{그러니까 보리밭 이제는 자라니까 김매 것 아닙니까? 김 몇 벌까지 땀습니까?}

10312 #1 아 비료부터 아피 주고.{아 비료부터 앞에 주고.}

10312 @1 비료 주고.{비료 주고.}

10312 #2 비료 쥬 다으메.{비료 주고 다음에.}

10312 #1 빠른 사르문 두볼 메는 사름도 인쭈마는 보리 검지른 대라근 혼볼로.{빠른 사람은 두벌 매는 사람도 있지만 보리 김은 대략은 초벌로.}

10312 @1 아 초볼로 그냥 끈나마썬?{아 초벌로 그냥 끝나요?}

10312 #1 끈나. 그게 빨리 크고 짐뻑허니까 초볼만 땀 때 풀만 얻게 만드라노민 그 보리가 어우러지니까 풀 날 동자기.{끝나. 그게 빨리 크고 듬뻑하니까 초벌만 땀 때 풀만 없게만 들어놓으면 그 보리가 어우러지니까 풀 날 동작이.}

10312 #2 그 다으메 저 대우리. 보리 달문 대우리.{그 다음에 저 귀리. 보리 님은 귀리.}

10312 #1 또 허문.{또 하면.}

10312 @1 대우리 뿔꼬예?{귀리 뿔고요.}

10312 #2 대우리.{귀리.}

10312 #1 대우리는 또 씨진 받떠 쪼문 땀 대우리가 보리 반 대우리 반 허는 수가 이썬. 경 허영.{귀리는 또 씨가 떨어진 밭에 쪼문 땀 귀리가 보리 반 귀리 반 하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10312 @1 대우리 뿔꼬.{귀리 뿔고.}

10312 #1 예. 그거 안 뿔브민 또 크닐 나니까 건 꼭 뿔바야.{예. 그거 안 뿔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것은 꼭 뿔아야.}

10312 #2 대우리만 메민 이거그네.{귀리만 매면 익어서.}

### 1.3.3. 가을걷이와 겨울걷이

10318 @1 계영 이제 또 빌 꺼 아니우광?{그래서 이제 또 벨 거 아십니까?}

10318 #1 예.{예.}

10318 @1 비영 받티서 태작헛띠강 지비 완 태작?{베서 밭에서 타작했습니까 집에 와서 타작?}

10318 #2 지비 가져완.{집에 가져와서.}

10318 #1 아이고 그 연날사 보리 허미는 다 무경으네 소에 실러 오든지 또 마차로 실러 경운기로 실러왕 지비 왕.{아이고 그 옛날이야 보리 하면 다 묶어서 소에 실어 오든지 또 마차로 실어 경운기로 실어와서 집에 와서.}

10318 @1 누렁.{가리지어서.}

10318 #1 이 우리 할망 모나 마라실건디 크게만 올리라 올리라 크게만 눌렌. 그거 해 낱음. 중무니 경리 난 때지. 웃음.{이 우리 할머니 먼저 말했을텐데 크게만 올리라 올리라 크게만 가리지으라고. 그거 해 놓아서 음. 중문리 경리 날 때지.}

10318 #2 아니 경 허난 그 말만 마릅써. 난 때만.{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말만 말하십시오. 낱은 때만.}

10310 @1 게난 이제 누런땅 이젠 또.{그러니까 이제 가리지었다가 이제는 또.}

10318 #1 그러믄.{그러면.}

10318 @1 홀타야 웰 꺼 아니라예?{홀어야 될 거 아닌가요?}

10318 #1 영 췌여 주멍.{이렇게 쥐어 주면서.}

10318 @1 췌여 주곡 홀트곡.{쥐어 주고 홀고.}

10318 #1 홀탕 소로도 불바도 보고.{홀어서 소로도 밟아도 보고.}

10318 @1 태작또 허고.{타작도 하고.}

10318 #1 도깨로 태작또 해보고.{도리깨로 타작도 해보고.}

10318 @1 메탁끼도 허고.{탈곡기도 하고.}

10318 #1 맥타기로 이제 이러케 올리멍.{탈곡기로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10318 #2 메타기로가 하영 헐쭈. 거 췌로 현 건 아방.{탈곡기로가 많이 했지. 그거 소로 한 것은 아버지.}

10318 @1 게믄 이젠 보리 이젠 다 수확킨 거라예?{그러면 이제는 보리 이제는 다 수확한 거지요?}

10318 #1 예.{예.}

10318 계영 그걸 바 폐 먹젠허면 방에 지어야 웰\*\*?{그래서 그것을 밥 해 먹으려고 하면 방아 찧어야 될 \*\*?}

10318 #2 물령그네게. 물령.{말려서요. 말려서.}

10318 @1 게믄 #1 그 @1 물방에 강.{그러면 #1 그. @1 연자매에 가서.}

10318 #1 예. 그 보리를 물루완.{예. 그 보리를 말려서.}

10318 @1 예.{예.}

10318 #1 그 물방에 가가지고 췌 메영 어랑떠렁허멍 물멍 그걸 여자는 이러케 올련따 내련따 허고.{ 그 연자매에 가서 소를 매서 어랑떠렁하면서 물면서 그것을 여자는 이렇게 올

렸다 내렸다 하고.}

10318 #2 반만 저가든양 물 줘.{반만 쪼어가면요 물 주어.}

10318 #1 예 물.{예. 물.}

10318 #2 막론 보리에.{마론 보리에.}

10318 #1 막론 보리에 물 쥘 그걸 다 까까. 저 버서. 껌쭉 버스면 또 지비 왕 너렁 멍서게 너렁 그거 어느 선 물 빠지민 또 그 불리멍 그 체를 골라내어 부러야주.{마론 보리에 물 주어서 그것을 다 쥘어. 저 벗어. 껌질 벗으면 또 집에 와서 널어서 멍석에 널어서 그거 어느 정도 물 빠지면 또 그 불리면서 그 겨를 골라내 버려야지.}

10318 #1 경 혜영 그 마레에.{그렇게 해서 그 맷돌에.}

10318 #2 거피연쭈. 거피연.{거피했지. 거피했지.}

10318 #1 또 보리쌀 거핀다. 영 허영 거평 아아.{또 보리쌀 거피한다. 이렇게 해서 거피해서 아아.}

10318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18 #1 그래서 바블 헨꼬.{그래서 밥을 했고.}

10318 거피영 밥 폐도 끌랭이 도다서.{거피해서 밥을 해도 꼬리 돈았어.}

10318 @1 예.{예.}

10318 #2 예. 끌랭이가 도다.{예. 끌리가 돌아.}

10318 @1 예. 마쭈다. 마쭈다.{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318 #2 경 해도 야게기 야게기가 뜯나나신가 몰라.{그렇게 해도 목이 목이 달랐었는지 몰라.}

10318 @1 켄디 요새는예 그런 바블 머거야 웬텐 거친 바블 머거야 웬텐.{그런데 요새는요 그런 밥을 먹어야 된다고 거친 밥을 먹어야 된다고.}

10318 #2 그런 밥 머그난 할망더리양 건강험서마썸. 아주.{그런 밥 먹으니까 할머니들이 건강하지요. 아주.}

10318 #1 안 내려가곡.\*\*.{아니 내려가고. \*\*.}

10318 @1 안 내려가마씨? 아.{안 내려가나요? 아.}

10318 #1 왜 안 내려가느냐. 메밀. 메밀리 껌주글 뽕경 진마르로 헌 건또 허는디 메밀 껌죽 안 뽕견 헌 거 요 중무니 감땅 누게 거 머거보렌 헨는디 거무특특헌디 그 메밀 껌주글 안 뽕겨가지고 그냥 마란 헌 거 안 내려가.{왜 안 내려가느냐. 메밀. 메밀이 껌질을 벗겨서 고운가루로 한 것도 하는데 메밀 껌질 안 벗겨서 한 거 요 중문리 갔다가 누구 그것 먹어보라고 했는데 거무튀튀한데 그 메밀 껌질을 안 벗겨서 그냥 갈아서 한 것 안 내려가.}

10318 #2 게난 호강시러완게.{그러니까 호강스러웠어.}

10318 @1 게도 흑씨 \*\*\*\* 물보리는 머거 봄띠강?{그래도 흑씨 \*\*\*\* 물보리는 먹어 봤습니까?}

10318 #1 아이고 물보리 참 물보리 이러케 조 그거 영 만드는 거 췌기지는 거옌 헌디 조지는 거옌 헌디 보린꼬고리만 이러케 모양 이러케 떡.{아이고 물보리 참 물보리 이렇게 조 그것 이렇게 만드는 거 췌기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트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리이삭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딱.}

10318 #2 저 날보리 헐 때 서포리.{저 날보리 할 때 물보리.}

10318 #1 서포리 그거 혜영.{물보리 그거 해서.}

10318 #2 아방 아녀 받쭈다게.{아버지 안 해봤습니다.}

10318 #2 나 저 초기사네.{나 저 표고버섯밭에.}

10318 #1 무사 저 우마게 살 때 아녀서.{왜 저 움막에 살 때 안했나.}

10318 #2 초기사네 간 때 아방 브벼쥬? 초기사네 가부나네. 웃음. 나가.{표고버섯밭에 간 때 아버지 비벼쥬어? 표고버섯밭에 가버리니까. 웃음. 내가.}

10318 #1 그거 허연 브병.{그거 해서 비벼서.}

10318 @1 음.{음.}

10318 #1 물 하영 놔네 쌀마부난.{물 많이 넣어서 삶아버리니까.}

10318 #2 분시 몰란.{분수 몰라서.}

10318 #1 그 노미 보리가 벨록벨록. 영.{그 놈의 보리가 벨록벨록. 이렇게.}

10318 #2 말만 드린판 나가. 말만.{말만 들었다가 내가. 말만.}

10318 #1 벌러. 벌러져부런쥬. 무를 쩍게 놔도 그.{쪼개 쪼개져버렸어. 물을 적게 넣어도 그.}

10318 #2 그 바드랭이 낱으네 처야 돼는디.{그 경그레 넣어서 쪼야 되는데.}

10318 #1 흐끔만 놔야 돼는디 하영 놔부니까 보리쥬빵우리 이러케 다 버려쥬.{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어버리니까 보리쌀알이 이렇게 다 쪼개졌어.}

10318 #2 밥. 밥 다 돼여부런.{밥. 밥 다 되어버렸어.}

10318 #1 아 경 허난 그거 다 물리쥬 허난.{아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말리려고 하니까.}

10318 #2 몬 물런쥬다게. 던져부런.{못 말렸습시다. 던져버렸어.}

10318 #1 뭇 던져서게.{무엇을 던졌나.}

10318 #2 이치록 마 저부런. 게난 아방이 몰라. 아방 어신 때난.{이렇게 장마 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라. 아버지 없을 때니까.}

10318 #1 던지길 뭇 던져게 그거 허연 밥또 안 돼여 죽또 안 돼여도 머건쥬.{던지기는 뭇 던졌나 그거 해서 밥도 안 돼 죽도 안 되어도 먹었지.}

10318 @1 조쥬다. 게난 이젠 보리 농사 끝난 거 아니우쥬? 예.{좋습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리 농사 끝난 거 아닙니까? 예.}

10318 @1 이제는 조농사 험쥬예?{이제는 조농사 합시다?}

10318 @1 조:쥬는 어떻 가냥해난쥬가?{쥬쥬는 어떻게 간수했었습니까?}

10318 #1 아 조쥬도 그 저.{아 쥬쥬도 그 저.}

10318 @1 허버게?{허벅예?}

10318 #2 허버게.{허벅예.}

10318 @1 예.{예.}

10318 #1 허벅 허병양 연나른 저 즈라서.{허벅 허벅요 옛날은 저 쥬었어.}

10318 @1 음.{음.}

10318 #2 저 말쥬에라 가난. 맥 모양에 조랑으네 허벅뿌리 멘드랑 우티레 와 갈쥬록 조라 지게.{저 말쥬에 가니까. 맥서리 모양에 쥬어서 허벅뿌리 만들어서 위로 와 갈쥬록 줄아지게.}

10318 @1 건 쥬부게기라고 허는 겹쥬게.{그것은 쥬부게기라고 하는 거지요.}

10318 #2 쥬 노쥬.{쥬 넣으려고.}

10318 @1 예. 쥬부게기.{예. 쥬부게기.}

10318 #2 경 허연 그디 지렁 놔쥬쥬게.{그렇게 해서 거기 길어서 놔두었지요.}

10318 @1 예.{예.}

10318 #2 경 아년 땀 허버게.{그렇게 앓을 때는 허벅에.}

10318 @1 예.{예.}

10318 #2 경 허영 지런따그네 이제 좁씨 빠게 댜민 이제 망텅이 좁씨망텅이. 건띠렌 비와  
놔그네 으정강 경 허영 받 까라놔근네 빠여.{그렇게 해서 길었다가 이제 좁씨 뿌리게 되면  
이제 먹등구미 좁씨먹등구미 그것에 부어넣어서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밭 갈아놓아서 뿌  
려.}

10318 @1 예.{예.}

10318 #2 빠영 뭇 혼 서너 개씩 네 갠 허여. 경 헤그네 혼디 야게기 줄라매곡 줄라매곡 주  
렁주렁허영. 아방은 받 깔곡 그걸 으정 텅기멍 막 불리렌.{뿌려서 밭 한 서너개씩 네 개는  
해. 그렇게 해서 함께 목 줄라매고 줄라매고 주렁주렁해서. 아버지는 밭 갈고 그것을 가져  
서 다니면서 막 밟으라고.}

10318 @1 예. 불려.{예. 밟아.}

10318 #2 게문 드러 뭇 딱리멍 막 드라텅기주. 받떡. 도라텅기민 받 불라.{그러면 마구 밭  
때리면서 막 돌아다니지요. 밭에. 돌아다니면 밭 밟아.}

10318 @1 으.{으.}

10318 #2 직작 불라저사. 그디 잘 불라진 디가 조 잘 나마씨. 안 불라진딘.{뽕뽕히 밟아저  
야. 거기 잘 밟아진 데가 조 잘나지요. 안 밟아진데는.}

10318 @1 겐디 비가 마니 왕 이젠 버서부러예.{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는 벗어버려  
요.}

10318 #2 경 허난 버서분 딴 버서분 딴 비오민 또 강으네 그 조진 디 꺼 해당 또 싱거. 싱  
그민 온바시 문밖 ㄴ드가. 경 허연 헐쭈게.{그렇게 하니까 벗어버린 데는 벗어버린 데는 비  
오면 또 가서 그 뽕뽕한 데 갓 해다가 또 심어. 심으면 온밭이 몽땅 가득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0318 @1 게문 마지기는 어떻 해납따가?{그러면 마지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18 #2 말지긴.{마지기는.}

10318 @1 마지기 마지기?{마지기 마지기?}

10318 #2 받 이신 건 다 해납쭈.{밭 있는 것은 다 했었지.}

10318 @1 아니 저 장마 다투메 허는 겐또 인쭈광?{아니 저 장마 다음에 하는 것도 있습  
니까?}

10318 @2 마 저네 농사 짓는 거 하고.{장마 전에 농사 짓는 거 하고.}

10318 #1 마거지.{마걸이.}

10318 @1 \*\* 예. 마가지. 마가지.{\*\* 예. 마걸이. 마걸이.}

10318 #1 마거지 조파셴 헐 건.{마걸이 조밭이라고 하는 것은.}

10318 #2 으으 마거지.{으으 마걸이.}

10318 #1 어떤 바슬 마거지로 허느냐. 감전메 놔난 디나 지슬 놔난 디나 그 땅이 저 좀 이  
거리완.{어떤 밭을 마걸이로 하느냐. 고구마모종 났던 데나 감자 났던 데나 그 땅이 저 좀  
이 마을 안에 있는 밭.}

10318 @1 예.{예.}

10318 #1 즉 마려자면 이 동네 거리와슨 장국 내만 마셔도 걸다 해서 그 지슬 놔난 디나  
감전메 놔난 건 디는 마 끈나면 헐 땀 그 불리는 겐또 엄청 불려야 돼.{즉 말하자면 이 동  
네 마을 안에 있는 밭을 된장국 냄새만 마셔도 기름지다 해서 그 감자 났던 데나 고구마모

중 넣었던 기름진 데는 장마 끝나면 할 때는 그 밟는 것도 엄청 밟아야 돼.}

10318 #1 이 몽둥이로 찢러보멍 땅이 딱딱너게 불이라야.{이 몽둥이로 찢러보면서 땅이 단단하게 밟아야.}

10318 #2 조크르에 허는 건 그런 제라허게 조크르에 허는 건 가스레 허는 거옌 허고.{조 베어난 데 하는 것은 그런 제대로 조 베어난 데 하는 것을 가을에 하는 것이라고 하고.}

10318 @1 예.{예.}

10318 #2 조판.{조밭.}

10318 @1 예.{예.}

10318 #2 가슬조판시옌 허고. 마거지옌 현 건 마자 지슬끄르나 그런 디.{가슬조밭이라고 하고 마견이라고 한 것은 감자 심었던 데나 그런 데.}

10318 @1 예 그러치예?{예. 그렇지요?}

10318 #2 예. 두 번.{예. 두 번.}

10318 #1 저 그거 춤 간판현 문제가 아니네.{저 그것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10318 @1 계난 어디 조가 더 조옴네까? 가실?{그러니까 어데 조가 더 좋습니까? 가을?}

10318 #1 아이. 저 내중 마거지현 게 조추.{아니. 저 나중 마견이 한 것이 좋지.}

10318 #2 빨리 커마씨.{빨리 자라요.}

10318 #1 빨리 크곡 수확또 잘 나곡.{빨리 크고 수확도 잘 나고.}

10318 @1 음.{음.}

10318 #1 땅이 거니까.{땅이 기름지니까.}

10318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18 #2 그디 이제추룩 조 보리 저 거름 셔그네 주질 몬테 노난 가스렌 현 디 흥꿈양 노랑허여.{거기 이제처럼 조 보리 저 거름 있어서 주질 못해 놓으니까 가을에 한 데는 조금요 노랑해.}

10318 @1 계믄 아까 보리 보리농사인 경우는 거두고 난 다옴엔 크레 이러케 흘탄.{그러면 아까 보리 보리 농사인 경우는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는 틀에 이렇게 흘어서.}

10318 #2 아니 조오?{아니 조?}

10318 @1 계난 보리마씨. 보리.{그러니까 보리요. 보리.}

10318 #2 보리는 흘트고.{보리는 흘고.}

10318 @1 켜디 조는 어떻 험니까?{그런데 조는 어떻게 합니까?}

10318 #2 조는양?{조는요?}

10318 @1 이그면 이그면.{익으면 익으면.}

10318 #2 호미로.{낫으로.}

10318 @1 호미로 툃당.{낫으로 따서.}

10318 #2 비어다그네.{베다가.}

10318 @1 예.{예.}

10318 #2 비어당으네 이제 또 썰 누런판. 눌 누런당으네 혼 문 빠당 영 아장 클러놔그네 호미 영 허영 이디 놔그네 영 아장 두 개고 세 개고 영.{베다가 이제 또 썬 가리지었다가. 가리 가리지었다가 한 못 빼다가 이렇게 앉아서 끌러놓아서 낫 이렇게 해서 여기 놓아서 이렇게 앉아서 두 개고 세 개고 이렇게.}

10318 @1 예.{예.}

10318 #2 툃당. 툃당으네 마께.{따서. 따서 방망이.}

10318 @1 마께로.{방망이로.}

10318 #2 덩드렁마께. 그걸로 막 두드려쥌게. 막 팔리영 벤 나민 팔리민 두드리민 그게양 막 잘 터져. 복삭복삭. 경 허멍.{덩드렁방망이. 그것으로 막 두들겼습니다. 막 마르게 해서 별 나면 마르게 해서 두들기면 그것이요 막 잘 떨어져. 복삭복삭. 그렇게 하면서.}

10318 @1 도께지른 \*\* 아넵띠강?{도리께질은 \*\* 안 했습니까?}

10318 #1 도께질도 허곡.{도리께질도 하고.}

10318 #2 마께질도 하고.{방망이질도 하고.}

10318 #1 방안까네 강으네 소 메왕 그 둥그릴 땀 방애가 워낙 못 췌디여. 그게.{방앗간에 서 가서 소 메워서 그 굴릴 때는 방아가 워낙 못 견더. 그것이.}

10318 #2 둥우림도 허곡.{굴리기도 하고.}

10318 @1 응.{응.}

10318 #1 방애.{방아.}

10318 #1 이제 비포장도로에 차가 가든 울통불통허드끼 방애도 그 조코고리 낱 헐 때는 \*\*\* 저 완전허지 아넵 울통불통 허여가민 방애가 자빠져부카 부덴허곡.{이제 비포장도로에 차가 가면 울통불통하듯이 방아도 그 조이삭 놓아서 할 때는 \*\*\* 저 완전하지 않아서 울통 불통 해가면 방아가 쓰러져버릴까 봐하고.}

10318 #2 그 고고리가.{그 이삭이.}

10318 #1 이제 ㄴ트민 \*\*. {이제 같으면 \*\*.}

10318 #2 누드러지멍 가. 그 방애가 막 밍끄러정. 누드러지멍 밍끄러지멍 막 방애가 도라 갑쥬.{눌러지면서 가. 그 방아가 막 미끄러져서. 눌러지면서 미끄러지면서 막 방아가 돌아가 지요.}

10318 #1 게난 그걸또.{그러니까 그것도.}

10318 #2 잘 허여사.{잘 해야.}

10318 #1 이제 그 망시기 그 김치비서 아넵 때라야 해지지.{이제 그 ‘망숙이’ 그 김집에서 안 할 때라야 할 수 있지.}

10318 @1 으으으.{으으으.}

10318 #1 헐 때는.{할 때는.}

10318 #2 게난 하르방이 물이ㄴ레 좌시라. 느네 왕하르방이 물고레 좌시.{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연자매 좌수야. 너의 증조부가 연자매 좌수.}

10318 #1 야네 하르방네 쥬리 쥬 위엄한 하르방.{애네 할아버지네 줄이 쥬 위엄있는 할아버지.}

10318 #2 물이ㄴ레짜시 쥬 ㅁ순 하르방.{연자매 좌수 쥬 무서운 할아버지.}

10318 @1 저 경김?{저 경주김씨?}

10318 #2 예. 왕하르방이난. @3 김해.{예. 증조부니까. @3 김해.}

10318 @1 김해.{김해.}

10318 #2 왕하르방이 물이ㄴ렐짜씨 저디 아잔쥬 허민양.{증조부가 연자매 좌수 저기 앉았 다고 하면요.}

10318 @2 물이ㄴ렐짜시는?{연좌매 좌수는?}

10318 #1 야네 하르방 두리에.{애네 할아버지 둘에.}

10318 @3 물이ㄴ레.{연자매.}

10318 #2 물이ㄴ레가 이선쥬게.{연자매가 있었지.}



10318 @3 또 채김자주게.{책임자이지.}

10318 #2 물이ㄴ레가 그 인짜나이? 영 차경 드라지곡.{연자매가 그 있잖니? 이렇게 채 달리고.}

10318 @1 으넝 파르방이 떡 안자노민 이 안티레 드리갈 땀 물 탕도 묻 가곡. 또 거리가명도 반뜨기 상 거러가당으네 인사를 잘 해야지 안 험땅.{여넝 할아버지가 딱 앉아있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말타서도 못 가고. 또 걸어가면서도 반듯하게 서서 걸어가다가 인사를 잘 해야지 안 했다가는.}

10318 #2 농담도 잘 해날쑤다. 하라버지가양.{농담도 잘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10318 #1 크닐 나고.{큰일 나고.}

10318 #2 저 쟈정디레 가당보민 끄넝 강 구부로 확커게 그치민 생이더리 뱅뱅 므라지명 몬딱 터러지난 혼 바구리 주서 와서. 경 허명양 농담도 그런 농담 해날쑤게.{저 쟈정으로 가다보면 툇잎 가서 굵으로 확하게 굵으면 새들이 뱅뱅 말아지면서 몽땅 떨어지니까 한 바구니 주워 왔어. 그렇게 하면서요 농담도 그런 농담 했었지요.}

10318 @1 예. 게문 조판뎌 검질 땀 뻘 메는고마씨?{예. 그러면 조발에는 김 몇 번 매나요?}

10318 #1 건 두불 안 메민 안 땀여.{그것은 두벌 안 매면 안 돼.}

10318 @1 아.{아.}

10318 #1 예.{예.}

10318 보리는 혼두 버닌데. #2 세불ㄴ장 메열쑤다.{보리는 한두 번인데. #2 세벌까지 땀습니다.}

10318 #1 잘못터민 세불꺼지 매고. #2 세불ㄴ장 메여.{잘못하면 세벌까지 매고. #2 세벌까지 매.}

10318 @1 아.{아.}

10318 #2 아.{아.}

10318 @1 무사 무사 경 험니까?{왜 왜 그렇게 합니까?}

10318 #2 초부른양 막 어린 때라. 어린 때에 강 메언땅 두부른양 허울허울헝 이마니 올라와.{초벌은요 막 어린 때야. 어린 때에 가서 땀다가 두벌은요 허울허울해서 이만큼 올라와.}

10318 #2 경 허민 그땀 강으네 이제 구진 거 골르곡 귀마구리 골르곡 그치록 커여그네 골르곡 이제 췌넌너게 방 버려.{그렇게 하면 그때는 가서 이제 굵은 거 고르고 귀마구리 고르고 그렇게 해서 고르고 이제 평평하게 방 벌여.}

10318 @1 예. 방 버려예.{예. 방 벌인다구요.}

10318 #2 주머그로 팍팍 췌여그네 이제 허여땀 반반하게 내부런땅.{주먹으로 팍팍 쥐어서 이제 해두고 반반하게 내버렸다가.}

10318 #2 또 세부른 이마니 췌 고고리 거자 나을뜯말뜯 망넝 놀려. 그때엔 강으네 또 구진 걸 골라내. 또 귀마구리가 일꼬 경 소독 어시.{또 세벌은 이만큼 커서 이삭 거의 나을듯말듯 막잎 놀아. 그때에는 가서 또 굵은 것을 골라내. 또 귀머거리가 있고. 그렇게 새뻬기 없이.}

10318 #1 보리는 어우러정 어는 선 즈자도 땀언는다.{보리는 어우러져서 어느 정도 배도 되었는데.}

10318 #2 조는 안 돼.{조는 안 돼.}

10318 #1 즈자도 안 땀고. 그 조아리 잘기 때무네 이 씨 땀 때도 그 잘 땀 사라문 두무룽

이 잘 빠며는 존데 그제 씨를 또 마니 빼여노민 그제 너무 준게 와나도 그제 검지리라.{배도 안 되고. 그 조알이 잘기 때문에 이 씨 뿌릴 때도 그 잘 뿌린 사람은 드물게 잘 뿌리면 좋은데 그제 씨를 또 많이 뿌려놓으면 그제 너무 배게 나도 그제 김이야.}

10318 @1 거 소파야지예?{그것 속아야지요?}

10318 #1 예. 그걸 전부 소파네젠 허니까 그 초불 소팡 보민 다음 크니까 잘 안 소파진 거 담겨든. 또또 아녀곡 허영은.{예.그것을 전부 속아내려고 하니까 그 초벌 속아서 보면 다음 크니까 잘 안 속아진 것 닮거든. 또또 아니 하고 해서는.}

10318 #2 게민양.{그러면요.}

10318 #1 조는 노력 안.{조는 노력 안.}

10318 #2 사름 수눌명양.{사람 품앗이하면서요.}

10318 #1 게난 보리치록 마니 갈질 안 하주.{그러니까 보리처럼 많이 갈지를 양지.}

10318 #2 안 메영양 수누리당도 허곡 혼 사십 멍씩 삼십 멍씩 혼 쓰물씩.{아니 땀다가요 품앗이하다가도 하고 한 사십 명씩 삼십 명씩 스물씩.}

10318 @1 아 조판떠는.{아 조밭에는.}

10318 #2 예. 경 허영 가그네 막 나진 차룻작 두 개 밥 차룻작냥 밥 두 개에 다 거러. 경 허영 탁 두 개 부짱 이제 싹 포따리에 싹그네 구더게 낱 경 강.{예. 그렇게 해서 가서 막 낮에는 채룻작 두 개 밥 채룻작요 밥 두 개에 다 떠. 그렇게 해서 탁 두 개 붙여서 이제 싹 보자기에 싹서 바구니에 넣어서 저서 가서.}

10318 #2 몫치허곡 경 헤그네 이젠 가그네 콩입 툃다다 노록 웨허곡 허영으네 나진 머거. {모자반장아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서 콩잎 따다가 놓고 물외하고 해서 낮에는 먹어.}

10318 #2 낭끄느레 아장 막 말 곧땅 막 장난 부쳐노민 이젠 조판떠 강 넣 등그리불곡.{나 못그늘에 앉아서 막 말 말하다가 막 장난 붙여놓으면 이제는 조밭에 가서 누어서 구르고.}

10318 @1 으.{으.}

10318 #2 장난 춤 막 그치록 허명양 재미있게 헐 땀양 완전 경 헐쑤다.{장난 참 막 그렇게 하면서요 재미있게 할 때는요 완전 그렇게 했습니다.}

10318 @1 아.{아.}

10318 @2 아까 귀마구리 ㄴ란게 귀마구린 뽀우파?{아까 귀머거리 말하던데 귀머거리는 뽀니까?}

10318 #2 귀마구리가 조가 영 올라가당 쏹니비 안 나. 쏹니비 안 낱 뽀구쟁이 뽀어부러. 경 허민 그런 거는 저 가망이 어서.{귀머거리가 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속잎이 안 나. 속잎이 안 나서 헛아지 되어 버려.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은 저 가망이 없어.}

10318 #2 내중에 필 가망. 쏹입 나을 가망성이 어서마씨. 경 허영 그거 다 골라내어 부러.{나중에 필 가망. 속잎 나을 가망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다 골라내버려.}

10318 @2 그걸 귀마구리 허는 거고. 아까 망닙 놀령이렌 헹게마는.{그것을 귀머거리 하는 것이고. 아까 막잎 날려서라고 하던데.}

10318 #2 망닙 놀리는 건 막 이제.{막잎 날리는 것은 막 이제.}

10318 #1 고고리 나오젠 헐 때.{이삭 나오려고 할 때.}

10318 #2 쏹닙 막 나 가당.{속잎 막 나가다가.}

10318 #1 요리케 나와가명 망닙 하나 나왕으네 거들거들.{요렇게 나와가면서 막잎 하나 나와서 거들거들.}

10318 #2 망넙 흥나 글로 고고리 나는 건 망넙.{막일 하나 그리로 이삭 나오는 것을 막  
있.}

10318 #1 게난 조는 우리 여기보단 애월 나브베가 더 잘 돼지.{그러니까 조는 우리 여기보  
다는 애월 납읍에가 더 잘 되지.}

10318 @1 으으.{으으.}

10318 #1 그 내 강. 이제 일녀네 흥번 별초를 갈 때 나뭇 이제 어음니로부터 저 어디냐 고  
내봉꺼지 거러가는 거리가 엄청 먼 거린디 그 줄: 보른 꿰허곡 조는 나뭇.{그 내가 가서. 이  
제 일년에 한번 성묘를 갈 때 납읍 이제 어음리로부터 저 어디냐 고내봉까지 걸어가는 거리  
가 엄청 먼 거리인데. 그 조를 보면 참깨하고 조는 납읍.}

10318 #2 꿰랭이가 우으로 데끼민 알력맘꺄장 간덴.{밀집모자가 위로 던지면 아랫담까지  
간다고.}

10318 #1 나브베 조는 고고리가 이만씩케가지고 고개를 게난.{납읍에 조는 이삭이 이만씩  
해서 고개를 그러니까.}

10318 #2 수국컨데.{수긋한다고.}

10318 #1 어 아주 잘 톨 어르는 고개를 수기는디 꿰도말도 아년 노른 고개 고썩케영 헌텐  
허는디 나락또 그거고 조도 그래요. {어 아주 잘 된 어른은 고개를 숙이는데 되지도말지도  
않은 놈은 고개 곧게해서 한다고 하는데 벼도 그것이고 조도 그래요.}

10318 #2 으물 안 툄 꺄.{여물 안 툄 거.}

10318 #1 여물 안 툄 꺄 꺄썩 이성 허곡.{여물 안 툄 것은 곧게 있어서 하고.}

10318 @1 으으.{아아.}

10318 #1 으무리 잘 툄게 뵈민 그 조코리도 크니까 다 고개.{여물이 잘 툄게 되면 그 조이  
삭도 크니까 다 고개.}

10318 #2 드룬터니.{드룬하니.(?)}

10318 #1 겐디 소에 시를 때도 에 보리는 일곱 무슬 흥 쪼게 일곱 무슬 시끄는디 이 저  
조는 흥 쪼게 서 문베끼 문 시꺼.{그런데 소에 실을 때도 에 보리는 일곱 못을 한 쪽에 일  
곱 못을 싣는데 이 저 조는 한 쪽에 세 못밖에 못 실어.}

10318 @1 아아. 음.{아아. 음.}

10318 #1 소에 우리 시경 텡일 때도. 게난 소 약커민 서 문 시끄른 소가 빌빌해.{소에 우  
리 실어서 다닐 때도. 그러니까 소 약하면 세 못 실으면 소가 빌빌해.}

10318 @1 으으.{으으.}

10318 #2 에 너 문싸 시끄주.{아 네 못이야 싣지.}

10318 #1 에?{뭘?}

10318 #2 안네 흥 문 바깥띠 양페니 두 문 가운데 흥나 허문 너 문.{안에 한 못 바깥에 양  
편에 두 못 가운데 하나 하면 네 못.}

10318 #1 가운데 문 시끄지.{가운데는 못 싣지.}

10318 #2 조오?{조요?}

10318 #1 조는. 보리는 안네 두 못 아피 두 개 두에 두 개 가운데 흥나 허곡.{조는. 보리  
는 안에 두 못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가운데 하나 하고.}

10318 #1 이제 이 사십 때 정도에 아 오십 때꺼지라도 저 길메 낭 시끄는 쉼안뻬 걸랜허  
민 우리 부라게 걸 싸름 업써.{이제 이 사십 대 정도에 아 오십 대까지라도 저 길마 나무  
싣는 참바 걸라고 하며 우리 마을에 걸 사람 없어.}

10318 @1 게믄 보리 혼 바리는 뎨 무시라마썬? 게믄.{그러면 보리 한 바리는 뎨 못인가요? 그러면?}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보리 혼 바리?{보리 한 바리?}

10318 #1 일곱 뎨. 아 게믄 열네 뎨.{일곱 뎨. 아 그러면 열네 뎨.}

10318 @1 열네 뎨.{열네 뎨.}

10318 #2 양뎨니 열네 뎨.{양뎨에 열네 뎨.}

10318 @1 조는 여섯?{조는 여섯?}

10318 #2 은 뎨.{여섯 뎨.}

10318 @1 아아. 으음. 음.{아아. 으음. 음.}

10318 #1 뎨 부라겐 모른겐디 우리 부라겐 그거.{다른 마을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을에는 그거.}

10318 #2 마니도 시끄지 뎨뎨쥬게. 요마니헛 질로만 뎨기난.{뎨이도 싣지 못했지요. 요만 큼한 길로만 다니니까.}

10318 @1 예.{예.}

10318 #2 박박양.{박박요.}

10318 #1 보리는 이제 고고리가 뎨테레 가게 시러가지고 뎨는데 조는 뎨테레 가게 시르민 나무뎨기가 지러노니까.{보리는 이제 이삭이 뎨으로 가게 싣어서 뎨는데 조는 뎨으로 가게 싣으면 나무뎨기가 기니까.}

10318 @1 예. 안 뎨.{예. 안 뎨.}

10318 #1 고고리가 다 우터레 가게 행 시끄는 따무네 소가 약커민 그 고고리가 어느 쪽뎨레 혼 쪼게 뎨리민 이 버성 뎨껴볼젠만. 쥬 조 시경 뎨기는 게 쥬 까다로와.{이삭이 다 위로 가게 해서 싣는 뎨문에 소가 약하면 그 이삭이 어느 쪽으로 한 쪽에 뎨리면 이 뎨어서 뎨저버리려고만. 쥬 조 싣어서 다니는 것이 쥬 까다로워.}

10318 @1 아아.{아아.}

10318 #1 보리는 알려레만 허니까 뎨 바께 허영 고고리가 질레 보리가 잘잘 흘려도 크게 손시리 안 가는디 조는 거 그 고고리가 뎨테로 내려간따른 뎨 완전 손실 뎨는 거.{보리는 아래로만 하니까 뎨 밖에 해서 이삭이 길에 보리가 잘잘 흘려도 크게 손실이 안 가는데 조는 그것 그 이삭이 뎨으로 내려갔다고 하면 뎨 완전 손실 뎨는 거.}

10313 @1 으으으으. 예예예예. 흑씨 여기서도 뎨 뎨리나 쿵 노뎨 받뎨 그거 강 슬짜기 비영 온 적또 인쥬가?{으으으으. 예예예예. 흑씨 여기서도 뎨 뎨리나 쿵 남의 밭에 그거 가서 살짜기 베어서 온 적도 있습니까?}

10313 #1 아 이거 노뎨 받뎨 강 그런.{아 이거 남의 밭에 가서 그런.}

10313 @1 예를 들면 뎨 겨울쳐레 노뎨 집 가그네 득 시머당 자바 뎨는 시그로?{예를 들면 뎨 겨울철에 남의 집 가서 닭 잡아다가 잡아 먹는 식으로?}

10313 #1 와 그건 마니 헛쥬.{와 그것은 뎨이 뎨지.}

10313 #2 연날 경 헛쥬게. 웃음.{옛날 그렇게 뎨지요. 웃음.}

10313 #1 득 시머당 뎨는 거.{닭 잡아다가 먹는 거.}

10313 @1 예.{예.}

10313 #1 보리쿵.{완두쿵.}

10313 @1 예.{예.}

10313 #1 보리콩 노미 받떠 가랑 이시민 나지 받땅 바미 강 보리콩.{완두콩 남의 밭에 갈아 있으면 낮에 봤다가 밤에 가서 보리콩.}

10313 #2 툇당 왕 술마 머거부러.{따다가 와서 삶아 먹어버려.}

10313 #1 타당 술마 머거불곡. 저 득 이젠 뭘 콩짜로 주켄 해도 아녀주마는 연나른 노미 지비 강 득 시머당 자바 먹꼭. 그런 건 마니.{따다가 삶아 먹어버리고. 저 닭 이젠은 뭘 콩짜로 주겠다고 해도 안 하지만 옛날은 남의 집에 가서. 닭 잡아다가 잡아 먹고. 그런 것은 많이.}

10313 @1 다시 도새기도 해볼떠가?{다시 돼지도 해봤습니까?}

10313 #1 도새기 이설쨌?{돼지 있었다고?}

10313 #2 도새긴 아녜쭈다.{돼지는 안 했습니다.}

10313 #1 잘 모르고.{잘 모르고.}

10313 #2 도새긴 아녀고 득근양.{돼지는 안 하고 닭은요.}

10313 #1 득근 마니 해서.{닭은 많이 했어.}

10313 #2 줌잠 시민.{잠자고 있으면.}

10313 #1 득커곡 \*\*\* 보리콩허곡.{답하고 \*\*\* 완두콩하고.}

10313 #2 ㄱ만헌텐.{가만한다고.}

10313 @2 아아.{아아.}

10313 #2 소리가 안 나.{소리가 안 나.}

10313 #1 또 지슬.{또 감자.}

10313 #2 야게기 툇 즈방 왕.{목 툇 잡고서 와서.}

10313 #1 지스리 이월뜨레 낱 이 이제 팡 나들 때주게. 팡 놔두난. 웃음.{감자가 이월달에 넣어서 이 이제 파서 놔들 때지. 파서 놔두니까. 웃음.}

10313 #2 지스른 아녀고 감전 무덩 놔두민.{감자는 안 하고 고구마는 묻어서 놔두면.}

10313 #1 아니 뭘 지슬 도둑질허레 우리도 안 가와서?{아니 뭘 감자 도둑질하러 우리도 안 가왔나?}

10313 #2 어디 강 헐꼬렌.{어디 가서 했다고.}

10313 #2 아방이나 도둑질 해단 머건쭈.{아버지나 도둑질 해다가 먹었지.}

10313 @1 게난 우린.{그러니까 우리는.}

10313 #1 다 해도.{다 해도.}

10313 @1 노미 지비 강예 감저누른.{남의 집에 가서요 고구마가리는.}

10313 #2 감전누레 보초 산 이 성땀 둘러그네.{고구마가리에 보초 서서 이 성땀 둘러서.}

10313 #1 아이. 감저 도둑찌른 아녀고 거 거설땅.{아니. 고구마 도둑질을 앓고 그것 건드렸다가.}

10313 #2 아방은 아녀고 우린 허연.{아버지는 아니 하고 우리는 했어.}

10313 #1 날리가 난디. 웃음. 그건 크닐나고.{난리가 나는데. 웃음. 그것은 큰일나고.}

10313 #2 우린 헐쭈게. 원해기네 거.{우리는 했습니다. 원혁이네 거.}

10313 #1 지슬 해왈쭈. 무사.{감자 해왔지. 왜.}

10313 #2 원해기네양 우리 사는 그 저 \*\*\* 정나미네 뒤에 무더시난양 보초 산땀 오라네 그디 오란 파당.{원혁이네요 우리 사는 그 저 \*\*\* 정남이네 뒤에 묻어있으니깐요 보초 섰다가 와서 거기 와서 파다가.}

10313 #1 아 이디 봉지니 어멍허고 저사름허고 강 집쭈이니영 막 말ㄱ르커메 절로 강으네

다망 오랜 허난 간 지슬 다마 완.{아 여기 봉진이 어머니하고 저사람하고 가서 집주인하고 막 말 하겠으니 절로 가서 답아서 오라고 하니까 가서 감자 답아 왔지.}

10313 #2 장난 비스르미 저. 웃음.{장난 비슷하게 저. 웃음.}

10313 #1 아프로 가난 \*\*\* 이 말도 곧곡 저 말도 곧곡 막 케가난게 올 땐 두이로 가네 지슬 다망 와도 몰란쭈게.{앞으로 가니까 \*\*\* 이 말도 말하고 저 말도 말하고 막 해가니까 올 때는 뒤로 가서 감자 답아서 와도 몰랐지.}

10313 #2 말쎈 머경 된나른 봐지민 야 우리 지슬 해당 머거도 아라전 감제 해당 머거도 아라전?{말쎈는 먹어서 뒷날은 보이면 야 우리 감자 해다가 먹었는데 알았니 고구마 해다가 먹었는데 알았니?}

10313 @1 게난 요새말로 하면 바람자비.{그러니까 요새말로 하면 바람잡이.}

10313 @2 여카를 현 거.{역할을 한 거.}

10313 @1 어어어어.{어어어어.}

10313 #2 아이고 우리.{아이고 우리.}

10314 @1 게난 아까 보리 할 때에 거 슬루리도 인꼬 두줄보리도 인찌 아너우팡예?{그러니까 아까 보리 할 때요 그것 쌀보리도 있고 맥주보리도 있지 않습니까?}

10314 #1 예.{예.}

10314 @1 그럼 그 줄기는 뭐해날쭈가?{그럼 그 줄기는 뭐했었습니까?}

10314 #2 줄기.{줄기.}

10314 #1 보린때에.{보릿짚.}

10314 @1 예. 보리짚.{예. 보릿짚.}

10314 #1 \*\* 아 보리짚.{아 보릿짚.}

10314 #2 페랭이 째쭈게.{밀짚모자 째지.}

10314 #1 페랭이 짜는 거사.{밀짚모자 짜는 거야.}

10314 #2 소독. 소독.{새빼기. 새빼기.}

10314 #1 뭐어?{무엇이라고?}

10314 @2 소도그로.{새빼기로.}

10314 #1 \*\* 보린때 소도그로 해연 페랭이도 짜기야 째찌마는.{보릿짚 새빼기로 해서 밀짚모자도 짜기야 째지만.}

10314 #2 보린땀 슬르고 춤 저 때.{보릿짚은 삶고 참 저 끼니.}

10314 #1 밥 페멍는.{밥 해먹는.}

10314 @1 땀감?{땀감?}

10314 #1 땀까미.{땀감이.}

10314 @1 지들커?{땀감?}

10314 #2 예. 지들커.{예. 땀감.}

10314 #1 게난 이제 우리 아이덜 그거 나무를 해당 봐두면 그 보린땀 눈물 흘리는 것 보단 나무로 살짝 한번 허문 조키야 준다. 게문 아방은 욱커고.{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그거 나무를 해다가 봐두면 그 보릿짚 눈물 흘리는 것 보다는 나무로 살짝 한번 하면 좋기야 좋은데. 그러면 아버지는 욱하고.}

10314 #2 나무가 어디 이션쭈다게? 나무 해단 봐둔 걸로 안 때열쎄.{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 해다가 봐둔 것으로 안 때었어.}

10314 #2 아이고 춤 이 사르마.{아이고 참 이 사람아.}

10314 #2 보리낭빼끼 어서서.{보릿짚밖에 없었어.}

10314 #1 나무는 우리지비 젤 하날따고 봐.{나무는 우리집이 젤 많았었다고 봐.}

10314 #2 누게가 간 해 완?{누구가 가서 했왔어?}

10314 #1 아이. 딸따리가 지름 목장에 몬 다니는 디 어시 다니니까 간 적마다 그.{아니. 탈탈이가 지금 목장에 못 다니는 데 없이 다니니까 간 적마다.}

10314 #2 그 건 말짜이. 아기덜 오근 때.{그것은 말제. 아기들 컸을 때.}

10314 @2 웃음.

10314 #1 해왓꺼든.{해왔거든.}

10314 @1 게난 그 보리낭인 경우는 지들커로 허고.{그러니까 그 보릿짚인 경우는 땀감으로 하고.}

10314 #1 예. 땀감.{예. 땀감.}

10314 @1 그 다오메?{그 다음에?}

10314 @2 소도그로는?{새 패기로는?}

10314 @1 통시도 해선찌예. 통시에 그 쥔 쭈고.{돼지우리에도 했었지요. 돼지우리에 그 깃 주고.}

10314 #1 쥔 쭈고 허는 거?{깃 주고 하는 거?}

10314 @1 예.{예.}

10314 #1 아 도새기 그 새끼나 나고 어린 도새기 사오믄 보리낭 강 돌쥔 안네 너어 쥔찌. 소거르미 인쓰니까.{아 돼지 그 새끼나 낳고 어린 돼지 사오면 보릿짚 가서 돼지우리 안에 넣어 주었지. 소거름이 있으니까.}

10314 @1 으음.{으음.}

10314 #2 때는 걸 주로 헐쭈게.{때는 것으로 주로 했지.}

10314 @2 음. 때는.{음. 때는.}

10314 #2 지들케 조가부난.{땀감 적어버리니까.}

10314 #1 어떤 지빈 그 돌통이 무를 골르나.{어떤 집에는 그 돼지우리가 물을 고이나.}

10314 #2 마당에 끌고.{마당에 끌고.}

10314 #1 도새기가 무래서 휘여 땡기민 도새기가 잘 안 크는데 거름 소 질랑으네 거름만 이빠이 잘 허믄.{돼지가 물에서 헤어 다니면 돼지가 잘 안 크는데 거름 소 키워서 거름만 가득 잘 하면.}

10314 #1 겨난 이제 가트민 그 돌통을 땅을 안 광 해야 돼는디 땅을 기피 판 해노니까 그 무리 고인 거라.{그러니까 이제 같으면 그 돼지우리를 땅을 안 파서 해야 되는데 땅을 깊이 파서 해놓으니까 그 물이 고인 거야.}

10314 #2 도새기 나오랑 사라짐니까게? 땅 안 파믄게.{돼지 나와서 살아집니까? 땅 안 파면요.}

10314 @2 웃음.

10314 #2 열 씨 돼영 받떠서 왕 보민 야게기.{열 시 되어서 밭에서 와서 보면 목이.}

10314 @1 도새기 귀여난.{돼지 뛰어나가서.}

10314 #2 이런디양.{이런 데요.}

10314 #1 다메 드라정.{답에 매달려서.}

10314 #2 영 거러정 켜.{이렇게 걸어서 켜.}

10314 #1 다 주거간.{다 죽어갔어.}

10314 #2 하루 해원 굴머노민양. 경 허지. 애기 울지. 물 은찌. 저녁글 행 머거가민 열뚜 시 너머.{하루 종일 굶어놓으면요. 그렇게 하지. 아기 울지. 물 없지. 저녁을 해서 먹어가면 열두 시 넘어.}

10314 @1 밀랑페랭이도 헐썸찌예?{밀짚모자도 했었지요?}

10314 #2 즈믄.{잠을.}

10314 @1 그걸로?{그것으로?}

10314 #1 예. 소독케영 밀랑페랭이 이녁 꺼만씩.{예. 새 패기해서 밀짚모자 이녁 것만큼씩.}

10314 #2 이 때 돼민 드러 즈라십쭈.{이 때 되면 마구 걸었지요.}

10314 #1 예.{예.}

10314 @1 예.{예.}

10314 #2 탈 타레 가는 탈바구리도 멩글곡.{산딸기 따러 가는 산딸기바구니도 만들고.}

10314 @1 아아.{아아.}

10314 #2 탈바구리. 영 허민 네모나게양. 이러케 이러케 탈바구리 멩그란 저디 보리탈 막 끄헐 하난쭈. 다메 드랑드랑 게른 그거세 강으네 타고고.{산딸기바구니. 이렇게 하면 네모나 게요. 이렇게 이렇게 산딸기바구니 만들어서 저기 보리딸기 막 그때는 많았었지. 담에 드랑드랑 그러면 그것에 가서 따오고.}

10314 @1 예. 탈바구니. 거.{예. 산딸기바구니. 그것.}

10314 #2 탈바구리 멩그란.{산딸기바구니 만들어서.}

10314 @1 예. 거 봐 봐나서예. 예예예.{예. 그것 봐 봤었어요. 예예예.}

10314 #2 그거 소독 케여그네.{그거 새 패기 해서.}

10314 @1 예예. 마쭈다.{예예. 맞습니다.}

10314 #2 그 고망디레양 찢르멍. 찢르멍 허영 드러 즈라. 계속. 계속 즈르민 이마는 허게 즈라지민 탈바구리 즈란젠 허멍 탈 타레 가게.{그 구멍으로요 찢르면서. 찢르면서 해서 마구 걸어. 계속. 계속 걸으면 이만큼 하게 걸어진면 산딸기바구니 걸었다고 하면서 산딸기 따러 가자고.}

10314 #1 우리 제주도도 탈 저 하우스 허는 디가 이신가원. 육찌엔 텔레비엔 보문.{우리 제주도도 산딸기 저 하우스 하는 데가 있는가. 육지에는 텔레비전에 보문.}

10314 @2 하우스는 아니라도예 저기 하는 데 인쭈다. 탈.{하우스는 아니여도 저기 하는데 있습니다. 산딸기.}

10314 @1 게난 지금 요샌말로 북뽕잡쭈. 거 저.{그러니까 지금 요샌말로 북분자지요. 그것 저.}

10314 #1 아 우리 제주도도 인꾸나.{아 우리 제주도도 있구나.}

10314 @1 예예. 마니 인썸마썸.{예예. 많이 있습니다.}

10314 @2 양 삼춘. 소엔 허지 마랑 쉼엔 ㄱ라뽕썸게.{여보세요 삼춘. 소라고 하지 말고 쉼라고 말해버리세요.}

10314 #2 쉼 험썸게.{소 하십시오.}

10314 #1 쉼. 웃음.{소. 웃음.}

10314 #2 경 해똥 말짜에 소에 허메.{그렇게 해두고 말째에 소에 하지.}

10315 @1 또 고추 농사도 해봣떼강?{또 고추 농사도 해봣습니까?}

10315 #2 예게.{예.}

10315 @1 저 옥썸수. 강녕이?{저 옥수수. 강녕이?}



10315 #2 강냉이 아녀봐신디 고추도 허고.{강냉이는 안 해봤는데 고추도 하고.}

10315 @1 담배?{담배?}

10315 #2 싱건양.{심어서요.}

10315 @1 담배?{담배?}

10315 #2 담배는 담배는 해져신가?{담배는 담배는 했었는가?}

10315 @1 고추. 담배.{고추. 담배.}

10315 #2 고추도 흥 받 싱거나고.{고추도 한 받 심었었고.}

10315 @1 아까 감자도 헐썰꼬 지실도.{아까 고구마도 했었고 감자도.}

10315 @2 밀도 가라나실 건데.{밀도 갈았었을 것인데.}

10315 #1 어 담배가 저게.{어 담배가 저것이.}

10315 #2 밀도 미른 아녀고 모멸. 모멸허고.{밀도 밀은 안 하고 메밀. 메밀하고.}

10315 #1 오십 년도 후에.{오십 년도 후에.}

10315 #2 박과도 싱건 비연 말런 폭라보고 아녀 세워리.{박하도 심어서 베서 말려서 팔아 보고 안 한 세월이.}

10315 @1 아 박과도 해난꼬예?{아 박하도 했었고요?}

10315 #2 예예.{예예.}

10315 #1 놈 헌덴 헌 건 다 해시나네.{남 한다고 한 것은 다 했었으니까.}

10315 #2 놈 박과헐썰가? 우리만 헐썰.{남 박하했습니까? 우리만 했지.}

10315 #1 뭇 우리마나라게. 헌 사라미 땀집 너머쭈기.{무엇 우리만인가. 한 사람이 땀 집 넘었지.}

10315 @1 고치 농사 어떻 해납따까?{고추 농사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15 #1 고치 농사도 거 아이고.{고추 농사도 그것 아이고.}

10315 #2 고치 농사 흥 뒤 말지기 거 험뽀.{고추 농사 한 두어 마지기 그것 함뽀.}

10315 @1 재료 씨는 어떻 보관해마씨?{재료 씨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10315 #2 씨 메 놉그네.{씨 모종 놓아서.}

10315 #1 메 놉.{모종 놓아서.}

10315 @1 예.{예.}

10315 #1 아 메.{아 모종.}

10315 #2 메 놉그네.{모종 놓아서.}

10315 #1 고추 농사가 이제 ㄱ트민 잘 쉼 건디 그 당시엔.{고추 농사가 이제 같으면 잘 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10315 #2 비료도 안 주곡 허난게.{비료도 안 주고 하니까.}

10315 #1 잘 쉼질 아녀. 게난 뭇에든지 어 경력또 인뽀.{잘 되지를 앓아. 그러니까 무엇이 든지 아 경력도 있고.}

10315 #2 거 어느 걸 허민 도늘 버렁 사라지린 허연.{그것 어느 것을 하면 돈을 벌어서 살 아지겠나 해서.}

10315 #2 무턱대고. 곧싸 소연 허난 쉼. 쉼도 경력 인는 사름이라야지 경력 어신 노믄 어떻 어떻 허당 소가 주거. 쉼가 주거불고 도망가불곡 이러는 거거든.{무턱대고. 아까 소라고 하니까 쉼. 소도 경력 있는 사름이라야지 경력 없는 놈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소가 죽어. 소가 죽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러는 거거든.}

10315 @1 게믄 담배 농산 어떻 지어납따까?{그러면 담배 농사는 어떻게 지었었습니까?}

10315 #1 담배 농산 아버지영 해판는데.{담배 농사는 아버지랑 해봤었는데.}

10315 @1 아아.{아아.}

10315 #2 그 담배 농사도 힘든 거.{그 담배 농사도 힘든 거.}

10315 @1 아 힘드려예?{아 힘들어요?}

10315 @1 예. 그 바시 나쁘며는 막 큰 후에 주거.{예. 그 밭이 나쁘면 막 자란 후에 죽어.}

10315 @1 아아.{아아.}

10315 #1 자동으로. 그래가지고 실패허곡. 또 바시 켜차녕 잘 돼며는 허는디 그건또 등그비 오등급꺼지 이서노니까 그 등그블 잘 몬 마지민.{자동으로. 그래서 실패하고. 또 밭이 괜찮아서 잘 되면 하는데 그것도 등급이 오등급까지 있으니까 그 등급을 잘 못 맞으면.}

10315 #1 게난 이제는 연나른 크닐 치비 갈 때 술 안 멩는 사르멍 부떠가민 혼 잔 짹씩 이시난.{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은 큰일 집에 갈 때 술 안 먹는 사람이랑 붙어가면 한 잔 갖었으니까.}

10315 #1 아 게메. 그걸 곤젠 허난 현 건디.{아 그러게.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10315 #2 아이 담배 말만 ㄴ릅써?{아니 담배 말만 말하십시오?}

10315 #2 현디 아 그 엽싸름 꺼 혼 잔 어더 먹젠 이거 제 자니우다. 두 잔 줄 때도 어더 먹고 허쟁 술 안 멩는 사름허고 부텅 가들끼 이 담배 농사가 왜냐허면 술 때무니주게.{한데 아 그 옆사람 거 한 잔 얻어 먹으려고 이것 제 잔입니다. 두 잔 줄 때도 얻어 먹고 하려고 술 안 먹는 사람하고 붙어서 가듯이 이 담배 농사가 왜냐하면 술 때문이지.}

10315 #1 수를 그땐 고수리. 지비서 만든 수린다.{술을 그때는 고소리. 집에서 만든 술인데.}

10315 @1 예. 고소리예?{예. 고소리요?}

10315 #2 예. 그 수를 해가지고 담배가 어느 전 몰라가며는 그 쏘주를 뽕기멍 막 허며는 세기 검불게.{예. 그 술을 해서 담배가 어느 정도 말라가면 그 소주를 뿌리면서 막 하면 색이 검불게.}

10315 #2 빨강.{빨강.}

10315 #1 잘 세기 그러게 검뽕게 짹 나오른 일뽕그블 멩는데 일뽕그블 몬 머경 뭐 삼등그비나 사등그비나 오등급 머거불민 일뽕이 엽써저불거든.{잘 색이 그렇게 검뽕게 짹 나오면 일등급을 먹는데 일등급을 못 먹어서 뭐 삼등급이나 사등급이나 오등급 먹어버리면 일뽕이 없어져버리거든.}

10315 @1 으.{으.}

10315 #1 그래가지고 그 술 사는 도니 엽썰으네 스물.{그래서 그 술 사는 돈이 없어서 사 못.}

10315 #2 여간 물런쭈가?{엮어서 말렸습니까?}

10315 #1 뭐 아무 지비나. 여간 물리고.{뭐 아무 집에나. 엮어서 말리고.}

10315 #2 게메.{그러게.}

10315 #1 아 여깡 처음 그 썰으로 따다운 땀 그느레 짹 폐와낭으네.{아 엮어서 처음 그 썰으로 따온 때는 그늘에 짹 피놓아서.}

10315 #2 시들루곡.{시들게 하고.}

10315 #1 어 어느 선 시들며는 그땐 찌프로.{어 어느 정도 시들면 그때는 짭으로.}

10315 @1 여쭙. {여어서.}

10315 #1 그 노를 여까가지고 이레 딱 영 줄 쳐놀 때. {그 노를 여어서 이리로 딱 이렇게 줄 쳐서 놓을 때.}

10315 #2 그느레 헤실 꺼라. {그늘에 했을 거야.}

10315 #1 그 춤 이제 ㄴ트민 술도 쟈 거. 그 술 이베 무렁으네 탁커게 뽕기민 그 향기도 잘 나오고 세기 잘 나오고. 술 못 뿌리민 뭐 등쭙 몬 머거노며는 뭐 담배 농사는. {그 참 이제 같으면 술도 쟈 거. 그 술 입에 물어서 탁하게 뽕으면 그 향기도 잘 나오고 색이 잘 나오고. 술 못 뿌리면 뭐 등수 못 먹으면 뭐 담배 농사는.}

10315 #2 멘 이파리 난 혼 접 꺾디까? 혼 접? {몇 이파리 놓아서 한 접 했습니까? 한 접?}

10315 #1 어? {어?}

10315 #2 혼 저비 멘 이파리 놓따가? {한 접이 몇 이파리 놓았습니까?}

10315 #1 아 그건 그거는 잘 모르켄게. 멘 이파리 드러간 건 모르는데 어 요즘도 아. {아 그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어. 몇 이파리 들어간 것은 모르는데 어 요즘도 아.}

10315 #2 열 이파리 드러갈쭈다. {열 이파리는 들어갔습니다.}

10315 #1 딱 믋른 거 이 이거 안에 딱 들면 담배 이파리 하나로 그 탱기를 만드는 거라. 머리 무끄는 거 모양으로 이러케 딱 케영 엮따레 제평 딱 눌뜰민 윈 그게 딱 만는 거. {딱 마른 거 이 이거 안에 딱 들면 담배 이파리 하나로 그 탱기를 만드는 거야. 머리 묶는 거 모양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옆으로 접어서 딱 누르면 윈 그게 딱 맞는 거.}

10315 #1 혼 탱인 열 접. 혼 탱이는 열 저비 다섯 개 아래 낱 또 다섯 개 위로 딱 낱 여기 딱 무끄는 이제 뭐로 무거운 거로 꺾 지들황 놔두민 딱 그냥 부뜨민. {한 덩이는 열 접. 한 덩이는 열 접이 다섯 개 아래 놓아서 또 다섯 개 위로 딱 놓아서 여기 딱 묶으면 이제 무엇으로 무거운 것으로 꺾 지질러서 놔두면 딱 그냥 붙으면.}

10315 @1 부떠예? {붙어요?}

10315 #1 예. 부트른 허영 이거 공판허레 갈 땀 이제 그러케 허명 다 아저강 등그블 잘 머그민 기분도 조코 돈도 돼는데. {예. 붙으면 해서 이거 공판하러 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가져가서 등급을 잘 먹으면 기분도 좋고 돈도 되는데.}

10315 #2 무를 잘 올라사. {물을 잘 올라야.}

10315 #1 그 노를. {그 노를.}

10315 #2 물을 잘 올르곡. {물을 잘 오르고.}

10315 #1 소늘 잘 몬 뽕으네 허면 뭐 영 기냥. {손을 잘 못봐서 하면 뭐 이렇게 그냥.}

10315 @1 예예예예. {예예예예.}

10315 #1 일땅도 어서저볼고. {일당도 없어져버리고.}

10315 #1 이제 이버네 텔레비에 보나네 강완도엔 그 우박 내려가지고 담배를 하 나 그거 볼 땀 나도 담배 싱겔판 주거부난 가슴 아판게 우박 떠러져가지고 담배가 다 손실 보고 그걸 보니까. 아이고. {이제 이번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강완도에 그 우박 내려서 담배를 하 나 그것 볼 때는 나도 담배 심었다가 죽어버리니까 가슴 아프던데 우박 떨어져서 담배가 다 손실 보고 그것을 보니까. 아이고.}

10315 @1 으음. {으음.}

10315 #1 거 나 거 손해 험 거 모양으로 생가기 들더라고. {그것 내 것 손해 한 것 모양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10316 @1 수박 농사도 해봣때가? {수박 농사도 해봤습니까?}

10316 #1 에에?{에에?}

10316 @1 수박?{수박?}

10316 #1 수박? 수박 농사는 안 하고.{수박? 수박 농사는 안 하고.}

10316 @1 차메?{참외?}

10316 #1 아 차메도 농사는 안 해보곡. 아 그건 아년는디 매년 쪼끔씩근 이녁 머글 꺼는  
허고 일찌.{아 참외도 농사는 안 해보고. 아 그것은 안 하는데 매년 조금씩은 이녁 먹을 것  
은 하고 있지.}

10316 @1 겐디 혹시 그 지베서 머글 꺼라도 씨는 강 사왓쑤가? 아니면 지베서 \*\*수파?  
{그런데 혹시 그 집에서 먹을 것이라도 씨는 가서 사오나요? 아니면 집에서 \*\*습니까?}

10316 #2 메로 사당.{모종으로 사다가.}

10316 #1 아아 웨는.{아아 참외는.}

10316 @1 예예.{예예.}

10316 #1 씨 바다땅 이녁냥으로 헨 거고 수바근 그 씨 오일짱에 강으네 묘종.{시 받았다가  
이녁대로 한 것이고 수박은 그 씨 오일장에 가서 모종.}

10316 @1 아아.{아아.}

10316 #1 예 사당.{예 사다가.}

10316 #2 거시 잘 웨여.{그것이 잘 돼.}

10316 #2 허고. 이 씨로도 웨는데. 아메도 그 묘종으로 사 온 게 빨리 자라니까 차메 가튼  
건 이녁때로 씨 헨땅으네 허염꼬.{하고. 이 씨로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묘종으로 사 온 것  
이 빨리 자라니까 참외 같은 것은 이녁대로 씨 했다가 하고 있고.}

10316 #2 또 오인 이 사름 댜 개 사 완 저디 헤 노난.{또 오이는 이 사람 댜 개 사 와서  
저기 해 놓으니까.}

10316 @1 겐또 묘종으로예?{그것도 모종으로요?}

10316 #2 메종으로 사오난 잘 웨엄 신게. 저 막 노프게 울타리 해주고.{모종으로 사오니까  
잘 되고 있네. 저 막 높게 울타리 해주고.}

10316 #2 쉼만 막 받떠 아저단 발 발 걸럼젠 해도 그거 헤영 딱 드랑 잘 해주난 그 오이  
가 으란찌. \*\*\* 모양으로 내부러시민.{쇠만 막 밭에 가져다가 발 발 걸린다고 해도 그거 해  
서 딱 달아서 잘 해주니까 그 오이가 열었지. \*\*\* 모양으로 내버렸으면.}

10316 #2 땡기난 데가리 페는 건 쉼라. 웃음. 손 걸련.{다니니까 대가리 때리는 것은 쇠야.  
웃음. 손 걸려서.}

10316 #2 다 용무가 일써서.{다 용무가 있어서.}

10316 굴 농사도 하고 인는 거 아니우짱?{굴 농사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316 #1 예.{예.}

10316 @1 멘 년도부터 험디까?{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10316 #1 칠십일년도.{칠십일년도.}

10316 @1 칠십일년도부터예? 게난 얼마 정도 험쑤과?{칠십일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10316 #2 약 오천 평.{약 오천 평.}

10316 @1 오천 평. 품종은 어떤 품종이우파?{오천 평.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10316 #1 어 일남일로가 반. 반 웨까? 반 정도고 극쪼생인데 일남일로 반 정도. 또 일반  
조생이엔 헨 거 이제 반 정도. 어 두 가지 종뉴.{아 일남일호가 반. 반 될까? 반 정도고 극

조생인데 일남일호 반 정도. 또 일반 조생이라고 한 거 이제 반 정도. 아 두 가지 종류.}

10316 @1 예. 할라봉은 안 하고예?{예. 한라봉은 안 하고요?}

10316 #1 아 할라봉은 이녀 머글 꺼 혼 댄 깨 일꼬.{아 한라봉은 이녀 먹을 거 한 댓 개  
있고.}

10316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17 @1 우리 이제 여자 사추니 잘 알 꺼라게. 아까 보리밭 검질멜 때 뭐 뭐 뭐 남니까?  
보리밭떠.{우리 이제 여자 삼촌이 잘 알 거야. 아까 보리밭 김멜 때 뭐 뭐 뭐 나나요? 보리  
밭에.}

10317 @2 검질 이름들.{김 이름들.}

10317 #2 검질?:{김?}

10317 @1 예.{예.}

10317 #2 그때엔 뭐 진폴 가튼 거. {그때는 뭐 별꽃 같은 거.}

10317 @1 예. 진폴.{예. 별꽃.}

10317 #2 또 저 폴 일르미 다 이저부러서.{또 저 폴 이름이 다 잊어버렸어.}

10317 @1 췌비늬 언제 남니까?{쇠비름 언제 나나요?}

10317 #2 췌비느른.{쇠비름은.}

10317 #1 여름.{여름.}

10317 #2 이제 얻꼬.{이제 없고.}

10317 #1 이제 이제 막 나.{이제 이제 막 나와.}

10317 @1 저 췌터럭?{저 김의털?}

10317 #2 보리 검지를양 췌터럭 커곡 저 그 진푸리엔 현 게 두 가지라마썸? 경 혼 가진  
모르커라. 진폴 허곡 경 허영 세 가지가 경 잘 남띠다. 제일 그 췌터러기.{보리 김은 김의털  
하고 저 별꽃이라고 한 거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한 가지는 모르겠어. 별꽃 하고 그렇게 해  
서 세 가지가 그렇게 잘 나대요. 제일 그 김의털이.}

10317 #1 진폴 말고 그 영.{별꽃 말고 그 이렇게.}

10317 #2 복쿨허고.{깨풀하고.}

10317 #1 끝 피영 영 톡 아는 거.{꽃 피어서 이렇게 톡 아는 거.}

10317 #2 게난.{그러니까.}

10317 #1 그 노미 폴일르미.{그 놈의 풀이름이.}

10317 #2 몰라. 이제도 몰라.{몰라. 이제도 몰라.}

10317 @1 고녕이이빨?{고양이이빨?}

10317 #2 예.{예.}

10317 #1 고녕이푸른?{닭의장풀은?}

10317 #2 고녕이푸른.{닭의장풀은?}

10317 #1 보리헐 때 안 나고.{보리할 때 안 나오고.}

10317 @1 아아.{아아.}

10317 #2 이제.{이제.}

10317 #1 이제가 마에.{이제가 마에.}

10317 #2 마에. 마에 나는 거고. 진폴도 춤 저 진푸른 아무 제나 나도.{장마에. 장마에 나  
는 것이고. 별꽃도 참 저 별꽃은 아무 때나 나도.}

10317 #1 그 다으메 고녕이폴 허곡 곧싸 췌비느텐 현 건 뭐 뭐 영 둘 우에 봐도 말 말라.

난 멘 년 물 다만 놔둬시난.{그 다음에 닭의장풀 하고 아까 쇠비름이라고 한 것은 뭐 뭐 이렇게 돌 위에 놓아도 말 마라. 나는 몇 년 물 담아서 놔뒀으니까.}

10317 #2 진풀허곡 복풀허곡.{별꽃하고 깨풀하고.}

10317 #1 끄딱끄딱허영 사라.{끄딱끄딱해서 살아.}

10317 #2 이제 그 대우리.{이제 그 귀리.}

10317 @1 예.{예.}

10317 #2 대우리 보리 꼭 달믄니다게. 경 현디 그 대우리 누니 얻쥬게. 보리는 누니 인꼬. 경 막디에.{귀리 보리 꼭 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귀리는 눈이 없지. 보리는 눈이 있고. 그렇게 마디에.}

10317 #2 경 허나네 그 대우리허곡. 경 허난 멜 땀 대우리 깨끄시 메어야 보리 더운 때에 야가기 쥘르멍 그 대우리 메젠 허민 구지난 그걸 잘 메젠 허영. 막 경 허난 그런 거 서너 가지. 막 검질 만친 아념니다. 보리 검질.{그렇게 하니까 그 귀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멜 때는 귀리 깨끗이 매야 보리 더운 때에 목 찌르면서 그 귀리 매려고 하면 곱으니까 그것을 잘 매려고 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서너 가지. 막 김 많지는 않습니다.}

10317 @1 그 다으메?{ 그 다음에?}

10317 @2 감저 검질?{고구마 김?}

10317 @1 저 감저 검지른마씨? {저 고구마 김은요?}

10317 #2 감저 검지른 이제 뭐 그 췌비눔.{고구마 김은 이제 뭐 그 쇠비름.}

10317 @1 네:{네.}

10317 #2 췌비눔허곡 이제 고네쿨.{쇠비름하고 이제 닭의장풀.}

10317 @1 고네쿨?{닭의장풀?}

10317 #2 진풀. 이제 또시 제완지. 절완지. 절완지 그거 그자 잡풀덜 납니다. 이제 복쿨 이젠 나는 것은 다 나.{별꽃. 이제 다시 바랭이. 바랭이. 바랭이 그거 그저 잡풀들 납니다. 이제 깨꽃. 이제는 나오는 것은 다 나와.}

10317 #2 제일 쥘완지허고 췌비눔 위엄허곡.{젤 바랭이하고 쇠비름이 위험하고.}

10317 #2 계속 납니다.{계속 나옵니다.}

10317 @1 그 다으메 조판띠마씨?{그 다음에 조발에요?}

10317 #2 조판띠.{조발에.}

10317 #1 또 그제 마찬가지로.{또 그것이 마찬가지로.}

10317 그 그때에나 마찬가지로난.{그 그때에나 마찬가지로니까.}

10317 @1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10317 @2 조허고 흥뽀 달믄 검질 이름 뭐열썬가? 조허고 톱 달믄 거?{조하고 조금 닭은 김 이름 무엇이었습니다까? 조하고 톱 닭은 거?}

10317 @2 아까?{아까?}

10317 #1 ㄹ랄.{가라지.}

10317 @1 보리허고.{보리하고.}

10317 #2 ㄹ랄. ㄹ랄. 계난 ㄹ랄터곡.{가라지.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10317 #1 대우리 ㄹ랄 그거는 필히 스쥬느로 드랑 땡겸쥬게.{귀리 가라지 그것은 필히 사촌으로 데려서 다니고 있지.}

10317 #1 조는 ㄹ라슬 드랑 땡겨야 돼곡 보리는 대우리를 안 드랑 땡이민 돼게 돼질 아녀서.{조는 가라지를 데려서 다녀야 되고 보리는 귀를 안 데려서 다니면 되게 되지 않았어.}

10317 #2 나로겐 뭇피 딱 그게.{벼에는 ‘말피’ 딱 그것이지.}

10317 #1 나로겐 뭇피. 거 꼭 드랑 땡기는 거.{벼에는 ‘말피’. 그것 꼭 데려서 다니는 거.}

10317 #2 도랑 땡기는 게 이서.{데려서 다니는 것이 있어.}

10317 @1 스춘 아니우파? 스춘?{사춘 아십니까? 사춘?}

10317 #2 스춘덜.{사춘들.}

10317 #1 예?{예?}

10317 @1 스춘?{사춘?}

10317 #1 아이 거 다 스춘이주게.{아니 그것 다 사춘이지.}

10317 #2 ㄱ랄또 초다메.{가라지도 처음에.}

10317 #1 아이 드랑 땡일 쭈가 업쭈.{아니 데려서 다닐 수가 없지.}

10317 #1 그게 이걸 다 드랑 땡이게 땡 거.{그것이 이것을 다 데려서 다니게 된 거.}

10317 #2 그거 잘못 땡연 땡 거 달마. 스춘.{그것 잘못 되어서 된 것 님아. 사춘.}

10317 @1 예. 웃음.{예. 웃음.}

10317 #1 쿵. 쿵도 갈면 우분지 정으네 그걸 뚝 이서야 땡고. 폰또 갈머는 뚝 그 우분지가 인꼬. 그 스춘.{쿵. 쿵도 갈면 우분지 저서 그것 뚝 있어야 되고. 팔도 갈면 뚝 그 우분지가 있고. 그 사춘.}

10317 @1 쿵. 쿵에 뭇마씨?{쿵. 쿵에 뭇라고요?}

10317 #2 우분지가 꼭 이서.{우분지가 꼭 있어.}

10317 @2 우분지가 뭇우파?{우분지가 뭇니까?}

10317 #2 우분지가.{우분지가.}

10317 #1 열매도 안 열곡 아무 걸또 안 으은 누릅쓰름헌 게 두루멍청허게 ㄱ치 쿵영 부텅 이서.{열매도 안 열고 아무 것도 안 여는 누르스름한 것이 ‘두루멍청하게’ 같이 쿵이랑 붙어 있어.}

10317 @2 쿵 달믄 걸?{쿵 님은 것을?}

10317 #2 쏹니블 잘 안 낱 뭇글락케영. 나 오늘도 강 메열쭈마는.{속잎을 잘 안 나와서 뭇 특해서. 나 오늘도 가서 땡지만.}

10317 @2 걸 우분지렌 헤마씨?{그것을 우분지라고 합니까?}

10317 #1 거 윈{그거 참.}

10317 @2 게난 우분지는?{그러니까 우분지는?}

10317 #2 우티레 빼질 몬터곡 그냥 우분지 그냥 쎄페니 땡어부니까.{위로 빼지 못하고 그냥 우분지 그냥 평평히 되어버리니까.}

10317 #1 전. 우 마가져분 거.{저서. 위 막아져버린 거.}

10317 #2 뭇구쟁이 땡 거주.{뭇텅이 된 것이지.}

10317 #1 뭇구쟁이.{뭇텅이.}

10317 @2 걸 우분지렌 험니까? 게믄 쿵에도 우분지 인꼬.{그것을 우분지라고 합니까? 그러면 쿵에도 우분지 있고.}

10317 @1 꺽세도 인꼬?{팔에도 있고?}

10317 @2 꺽세도 인꼬 보리에도 이서 우분지가?{팔에도 있고 보리에도 있어요 우분지가?}

10317 #1 아이 보리엔 대우리.{아니 보리에는 귀리.}

10317 @2 대우리고?{귀리이고?}

10317 #2 다 스춘.{다 사춘.}

10317 #1 게난 스춘더른 다 드랑 텅긴텐 허난.{그러니까 사춘들은 다 데려서 다닌다고 하니까.}

10317 @2 감저엔 어심니까?{고구마에는 없습니까?}

10317 #1 아 감저엔 얻꼬.{아 고구마에는 없고.}

10317 #2 감저엔 검질만 머근덴.{고구마에는 김만 먹는다고.}

10317 @1 예 좀 쉬열따 하겠씀니다예.{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2 이젠 나로글 다 키운거라예.{이제는 벼를 다 키운거예요.}

10318 #1 예.{예.}

10318 @1 이젠 빈 거라마씨.비여. 그 다으덴 어떻 허는고예? 비면?{이제는 벼 거예요. 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베면?}

10318 #1 비며는 그 노네서 말른 후에 홀트는 사름도 인꼬 탈곡허는 사름도 인꼬.{베면 그 논에서 마른 후에 훑는 사람도 있고 탈곡하는 사람도 있고.}

10318 @1 예.{예.}

10318 #1 또 이 맥타기로 허는 사름도 인꼬 만헌 사라문 맥타기로 허곡 우리가치 짜근 사르문 뭐 이 탈곡끼로도 아녀 보고 홀트는 걸로만 홀탄만 헨탄 이젠 노니 폐지 돼부난 뭐. {또 이 탈곡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탈곡기로 하고 우리처럼 적은 사람은 뭐 이 탈곡끼로도 안 해보고 훑는 것으로만 훑어서만 했다가 이제는 논이 폐지 되버리니까 뭐.}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나로근 이제 우리 부라겐 나록 허는 사르미 아무도 어시난.{벼는 이제 우리 마을에는 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10318 @1 게난 거의 나로근 경운 탈곡끼로 하고예?{그러니까 거의 벼인 경우는 탈곡끼로 하고요?}

10318 #1 게난 하영 허는 사르문 탈곡끼 저 맥타기. 저 경운기 맥타기.{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탈곡기 저 탈곡기. 저 경운기 탈곡기.}

10318 @1 족게 족게 허는 사르문마씨?{적게 적게 하는 사람은요?}

10318 #1 족게 허는 사르문 홀트는 거.{적게 하는 사람은 훑는 거.}

10318 @1 예. 홀탕 태작?{예. 훑어서 타작?}

10318 #1 예. 홀틈만.{예. 훑음만.}

10318 #2 그냥 홀트는 거.{그냥 훑는 거.}

10318 #1 게난 도께 아녀도 그 홀트민.{그러니까 도리께 안 해도 그 훑으면.}

10318 @1 예.{예.}

10318 #2 싸리.{쌀이.}

10318 #1 나록 알로 나오다가 강메기엔 현 게 인는디 강메기가 그 고고리로 실러정 강메기가 쏙 인는데 강메기는 뭐 만치 안 하녀니까. 그.{벼 아래로 나오다가 꼬투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꼬투리가 그 이삭으로 실려서 꼬투리가 좀 있는데 꼬투리는 뭐 많이 안 하니까. 그.}

10318 #2 목뎡이로 떼련쭈게.{몽둥이로 때렸지.}



10318 #2 몽뽕이가 아니고 클 압따리.{몽둥이가 아니고 틀 앞다리.}

10318 @1 예예. 클 압따리에?{예예. 틀 앞다리요?}

10318 #1 클 압따리가 혼 일 메다 혼 십일 메단 너머. 그 압다리.{틀 앞다리가 한 일 미터 한 십일 미터는 넘어. 그 앞다리.}

10318 @1 예예. 여기 바치는 건디예?{예예. 여기 받치는 건데요?}

10318 #1 예 바치는 게. 다 그걸로 짜바 때렁.{예 받치는 것이. 다 그것으로 잡아 때려서.}

10318 #2 말째엔 얼뭇이로 쳐 낡양. 그 우에 꺼.{말째엔 어레미로 쳐 놓아서요. 그 위에 거.}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그거 헛나네.{그거 하니까.}

10318 #2 또 치곡. 경 허영 장만헐쑈게.{또 치고. 그렇게 해서 장만했습니다.}

10318 @1 아아 홀트기만 하면 돼는 겨우짱?{아아 훑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으음. 홀트기만 하든.{으음. 훑기만 하면.}

10318 #1 예. 홀트기만 허민 알뽕이로 떠러지니까. 겐디 겐또 요령인께 아녕 바끼 둥기민 고고리로 마니 실러지고 은그니 슬슬 둥기며는 알뽕이 알로만 다.{예. 훑기만 하면 알뽕이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도 요령있게 안 해서 박박 당기면 이삭으로 많이 실어지고 은근히 슬슬 당기면 알뽕이로 알로만 다.}

10318 @1 아아.{아아.}

10318 #1 받끼 홀트며는 고고리로 실러지민 내중 일꺼리가 더.{박박 훑으면 이삭으로 실어지면 나중 일꺼리가 더.}

10318 @1 마나예?{많지요?}

10318 #1 마너지. 게곡 또 깨끝또 아너고. 게난 탁 폐왕 슬히 둥기민 알뽕이로 스스로허게 터러정 그 고고리 실러진 게 만칠 안 허지.{많지. 그러하고 또 깨끗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탁 퍼서 살짝 당기면 알뽕이로 스스로하게 떨어져서 그 이삭 실어진 것이 많지 않지.}

10318 @1 예.{예.}

10318 #1 겐또 다 일허는 겐또 다 요령이라.{그것도 다 일하는 것도 다 요령이야.}

10318 #1 받 까는 겐또 요령. 그런 겐또 요령. 뭐 요령이 업쓰며는 막 힘드러 베고.{받 가는 것도 요령. 그런 것도 요령. 뭐 요령이 없으면 막 힘들어 보이고.}

10318 @1 이젠 보리를 빌 차례라예. 보리를 비영 이젠 어떻 합니까? 겐 보리로 멩글젠 허면?{이제는 보리를 벨 차례예요. 보리를 베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리로 만들려고 하면?}

10318 #1 아 보리도 비영으네 받떠서 뭐 하루도 물리는 사름 이틀 말리는 사름도 인꼬 말랴노며는 이제 모양 무경.{아 보리도 베서 밭에서 뭐 하루도 말리는 사람 이틀 말리는 사람도 있고 말려놓으면 이제 모아서 묶어서.}

10318 @1 예.{예.}

10318 #1 무경으네 지베 왕 허는 사름도 인꼬. 요 멘 년 전부떠는 맥타기가 바테 드러가가지고 거 무끄긴 다 무껴야 돼. 맥타기 드러가도 무경 그 맥타기에서 낭 채 홀트지 아녕 그냥 낭 채 홀트지 아녕 낭채 메겨가지고 탈곡커는 거 이션꼬.{묶어서 집에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는 탈곡기가 밭에 들어가서 그것 묶긴 다 묶어야 돼. 탈곡기 들어가도 묶어서 그 탈곡기에서 나무 쪼 훑지 않고 그냥 나무 쪼 훑지 아니 해서 나무 쪼 먹여서

탈곡하는 거 있었고.}

10318 #1 그 앞싸는 홀타가지고 고고리를 만드라가지고 이제 정운기 안 나온 때. 저 정운기가 약 칠십 혼 읍년도 칠년도 쪼메.{그 앞서는 훑어서 이삭을 만들어서 이제 정운기 안 나온 때. 저 정운기가 약 칠십 한 읍년도 칠년도 쪼메.}

10318 #1 그때 뭐 서이. 우리 남구네는 서귀포 군농협에서 그 배당이 댜는디 우리 부라게 하나 온 게 우리 다섯 썩르미 가보헤 사난 게 칠십 댜 년도에 나완는다. 그때는 그 처으르 그 보리타작커는 그 탈곡커가 낭 채 허니까 조타고 막 헐쥬.{그때 뭐 셋이. 우리 남군에는 서귀포 군농협에서 그 배당이 댜는데 우리 마을에 하나 온 것이 우리 다섯 사람이 합작해서 샀던 것이 칠십 댜 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 처음으로 그 보리타작하는 그 탈곡커가 나무 썰 하나까 좋다고 막 했지.}

10318 #1 그 저네는 홀튼 걸 헤가지고 이러케 장마저노민 스물 마당에 춤 마당이 마당이 아니고 그 밭똥기 그 뭐 그 연날 오 마력 십 마력 헤가지고 허는디 거 잘 댜지도 아녀곡 마당에 왕 무사 기르든 찰찰.{그 전에는 훑은 것을 해서 이렇게 장마저놓으면 사뭇 마당에 참 마당이 마당이 아니고 그 밭똥기 그 뭐 그 옛날 오 마력 십 마력 해서 하는데 거 잘 되지도 앓고 마당에 와서 왜 기름은 철철.}

10318 #2 마가 장차. 그때.{장마가 장차. 그때.}

10318 #1 아이고 거 보리 줄바로 댜진 아녀곡 깡으로 댜 개 바당 가불민.{아이고 그거 보리 제대로 되지는 앓고 통으로 댜 개 받아서 가버리면.}

10318 @1 예 만썩다.{예. 맞습니다.}

10318 #1 예고. 거 뉼 썩썩커곡 헤나신디 뉼. 게도 정운기 나완 뉼타기에 이거 올런 헐 때 뉼 이거 모든 게 조쿠나. 웃음.{예고. 그것 뉼 썩썩하고 했었는데 뉼. 그래도 정운기 나와서 탈곡기에 이거 올려서 할 때 뉼 이거 모든 것이 좋구나. 웃음.}

10318 @1 예예.{예예.}

10318 #1 이걸 사름 살다 보민 댜 년 안 댜 이룬디 참 조은 일.{이것 사람 살다 보면 댜 년 안 댜 일인데 참 좋은 일.}

10318 @1 쿵은 어떻 헐쥬가? 쿵도 꺾경.{쿵은 어떻게 했습니까? 쿵도 꺾어서.}

10318 #1 예. 건또 뉼타기.{예. 그것도 탈곡기.}

10318 @1 아.{아.}

10318 #1 뉼타기 아년 때는 독께로.{탈곡기 앓을 때는 도리께로.}

10318 @1 예예예예. {예예예예.}

10318 #1 뉼드려.{뉼들겨.}

10318 #2 쿵은 이만썩 뉼겔쥬. 쿵. 이만썩 뉼겨.{쿵은 이만큼썩 뉼었지. 통. 이만큼썩 뉼어.}

10318 @2 쿵이나 저기 뉼는 뉼끄는 거 뉼로 뉼껴마썩?{쿵이나 저기 뉼는 뉼는 것은 뉼엇으로 뉼나요?}

10318 #2 새.{띠.}

10318 #1 새.{띠.}

10318 #2 진 새 허영 마주 봐그네.{진 띠 해서 마주 놓아서.}

10318 #1 썩근 썩브니까. 새도 비며는 썩바. 이러케 데왕 꺾 등기민 나오니까 그걸 꺾가 길게 헤가지고 아까 조가 서 뉼슬 시끈뉼 허는디 소에 쿵도 서뉼.{썩은 썩으니까. 띠도 베면 썩아. 이렇게 꺾아서 꺾 당기면 나오니까 그것을 매끼가 길게 해서 아까 조가 서 뉼을

신는다고 하는데 소에 콩도 서 못.}

10318 @1 으으.{으으.}

10318 #1 혼 짜게. 게문 으설 무시 혼 바리.{한 쪽에. 그러면 여섯 못이 한 바리.}

10318 #2 혼 두르메 혼나씩.{한 두름에 하나씩.}

10318 #1 해가지고 콩 무끄젠 허민 께를 받떠 가서 쪽 케영 저디 돌멩이 노코 요거 돌멩이 노코 허영 콩 끄땡이만 이제 께 인는 디레 요리케 노록 또 올로 왕 요리케 노록 막 낭 발로 꺾 불랑으네 이놈을 숙 올려강 무끄든 우리 혼 아늑 몬 탄쭈.{해서 콩 묶으려고 하면 매끼를 밭에 가서 쪽 해서 저기 돌멩이 놓고 요거 돌멩이 놓고 해서 콩 끄트머리만 이제 매끼 있는 데로 요렇게 놓고 또 요리로 와서 요렇게 놓고 막 놓아서 발로 꺾 밟아서 이놈을 숙 올려가서 묶으면 우리 한 아늑 못 안지.}

10318 @1 아아.{아아.}

10318 #1 그 무시 혼 아늑 몬 탄게 된 건데. 케영 시렁 왕 지비 왕으네 마당에서 도끼로 허곡. 그 사르미 쪼쪼 뭘 해가나네 이 저 갑빠.{그 못이 한 아늑 못 안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실어서 와서 집에 와서 마당에서 도리깨로 하고. 그 사람이 조금 뭘 해가니까 이 저 갑빠.}

10318 #1 갑빠가 나오기 시작커니까. 갑빠 사당 받떠서 태작커는 게 그러케 조은 이틀. 그거 무경 지비 소에 실록 해영 왕.{갑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빠 사다가 밭에서 태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을. 그거 묶어서 집에 소에 실코 해서 와서.}

10318 #2 오랑 췌열땅 허주.{와서 쌓았다가 하지.}

10318 #1 아이고 허곡 해신디. 그 갑빠가 나오난 이제 참 그러케 조안. 건디 이젠 갑빠 이제 참 쓸모가 이젠 엷췌.{아이고 하고 했는데. 그 갑빠가 나오니까 이제 참 그렇게 좋아서. 그런데 이제는 갑빠 이제 참 쓸모가 이제는 없어.}

10318 @1 예예.{예예.}

10318 @2 그런 농사 안 하니까.{그런 농사 안 하니까.}

10319 @1 그럼 이제는 다 거뒀드린 거라예. 그 다으메 그 방에는 어떤 거 이서신고마췌? 방에. 툇방에 이췌 거시고.{그럼 이제는 다 거뒀들인 거지요. 그 다으메 그 방아는 어떤 것 있었을까요? 방아. 연자매 있을 것이고.}

10319 #1 남방에.{남방아.}

10319 @1 남방에.{남방아.}

10319 31 예. ㄴ레.{예. 맷돌.}

10319 @1 예. ㄴ레.{예. 맷돌.}

10319 #2 돌혹.{돌확.}

10319 @1 예. 돌혹.{예. 돌확.}

10319 #2 돌로 만든 돌혹.{돌로 만든 돌확.}

10319 @1 예. 돌혹예. 예예예예.{예.돌확요. 예예예예.}

10319 #2 뽕인꺼.{방앗공이.}

10319 @1 예. 방엔꺼도 인꺼예.{예. 방앗공이도 있고요.}

10319 #2 방엔꺼.{방앗공이.}

10319 #1 돌호게도 방엔꺼가 인췌야 뵤고 남방에도 방엔꺼가 인췌야 뵤고.{돌확에도 방앗공이가 있어야 되고 남방아에도 방앗공이가 있어야 되고.}

10319 @1 예.{예.}

10319 #2 물그레는 췌가 인씨야 돼고.{연자매는 소가 있어야 되고.}

10319 @1 예예.{예예.}

10319 #1 므리나 췌나.{말이나 소나.}

10319 @1 예. 사라프론 안 안 해신가마씨?{예. 사람으로는 안 아니 했는가요?}

10319 #1 사르프로 힘 드렁.{사람으로는 힘 들어서.}

10319 @1 으음.{으음.}

10319 #1 물방엔.{연자매는.}

10319 #2 사르프로도 허여나긴 해날쭈다. \*\* 밀리영.{사람으로도 했었기는 했었습니다. \*\* 밀리면서.}

10319 #1 아이고 서너 사람 드려도 잘 안 돼더라고.{아이고 서너 사람 들어도 잘 안 되더라고.}

10319 #2 밀리명 허여도 버천.{밀리면서 해도 부쳐서.}

10320 @1 그래서 그러면 보리 방에 진는 거 한번 쪽 그라 볍씨?{그래서 그러면 보리 방아 찧는 것 한번 쪽 말쑤해 보십시오?}

10320 @1 보리 \*\*\* 타작 태작커연.{보리 \*\*\* 타작 타작해서.}

10320 @2 다 물런.{다 말려서.}

10320 @1 이젠 물려지지 아년쭈가? 이젠 그걸 쏘로 허젠 허면.{이제는 말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쌀로 하려고 하면.}

10320 #1 어 게난 보리 헤여네 잘 물란 이젠 물방에 가게 돼며는 그 물 저당으네 물방에 강.{아 그러니까 보리 해서 잘 말려서 이제는 연자매에 가게 되면 그 물 지어다가 연자매에 가서.}

10320 #1 텅 놔두고 수도 시난 허주마는 그땐 이제 이거 이십 리터 짱이라도 이서시민 조을 건디 톱 허벅. 그 물방에 강 딱.{틀어서 놔두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거 이십 리터 통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건데 톱 물동이.}

10320 #2 물허벅.{물동이.}

10320 #1 대기해 낵.{대기해 놓아서.}

10320 #2 저 순번.{저 순번.}

10320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20 #2 물허벅 노민 아피 온 사름부터.{물동이 놓으면 앞에 온 사름부터.}

10320 @2 줍파기 아니고 물허벅.{줍파기 아니고 물동이.}

10320 #2 물허벅. 줍파근 조 할 때. 조 할 때에 강 혼 줍 놔그네 어평 놔두곡 조도 혼 망텅이 온당으네 팡에 놔두곡. 경 허민 순번.{물동이. 줍파은 조 할 때. 조 할 때에 가서 한 줍 놓아서 엎어서 놔두고 조도 한 먹둥구미 가져다가 팡에 놔두고.}

10320 @1 예. 순버니 뵤는 거.{예. 순번이 되는 것.}

10320 #2 예예. 경 헐쭈게.{예예. 그렇게 했습니다.}

10320 #1 아 현디 그거 참. 보리허는 거 보린 몰라 낵 방에 강 허쳐 낵 물 낵 아 거 참 마견현 건데.{아 그런데 그것 참. 보리하는 거 보리는 말려 놓아서 방아에 가서 흘어 놓아서 물 넣어서 아 거 참 막연한 것인데.}

10320 @1 소로 빙빙 도라.{소로 빙빙 돌아.}

10320 #1 예. 소로 허영으네 올란따 내련땅 올란따 내련따 허영으네 꺾죽 어느 선 버스민 아 풀리 도단젠 현 게 보리 그거시 허다보민 춤 그레에 그랑 봐도 풀리가 도다. 그 겁쭈

리.{예. 소로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해서 껌질 어느 정도 벗으면 아 꼬리  
돈았다고 하는 것이 보리 그것이 하다보면 참 맷돌에 갈아서 봐도 꼬리가 돌아. 그 껌질  
이.}

10320 #1 그러케 해연 먹판 그 방에가 또 새로 물 서끼멍 해영으네 통보리로 해연 머글  
때 그 느네 우영 뒤에 그 저 송 하르방 사라난디 그 모실포 싸름 오라네 물 주멍 통보리 해  
연 그건또 밥 조텐 허단 보난 내중은 까끼는 기계가 나온 뎌.{그렇게 해서 먹다가 그 방아  
가 또 새로 물 섞으면서 해서 통보리로 해서 먹을 때 그 너의 텃밭 뒤에 그 저 송 할아버지  
살았는데 그 모슬포 사람 와서 물 주면서 통보리 해서 그것도 밥 좋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  
은 껌는 기계가 나온 때는.}

10320 #2 졸밥 이상이라.{쌀밥 이상이야.}

10320 #1 허영현.{하얀.}

10320 #2 혼 낭푸네 아방이영 나영 다 머거불곡.{한 양푼 아버지랑 나랑 다 먹어버리고.}

10320 #1 삼십 포 짜리로 밥 하나 해여네 맹류니네 담다레 가네 삼십 포 짜리로 밥 하날  
헨는디 돌리가 다 머거부난 주인 머글 껌 어실 쟁도로. 폴 아판 몬 머건쥬.{삼십 호 짜리로  
밥 하나 해서 명륜이네 담 쌓으러 가서 삼십 호 짜리로 밥 하나를 했는데 둘이서 다 먹어버  
리니까 주인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팔 아파서 못 먹었지.}

10320 @2 웃음. 만 쪼안?{웃음. 맛 좋아서?}

10320 #1 예. 폴 아판. 이제는 혼 공기도 바블 몬 멍는디 그뎌 뉘 초기 사네 간 구닌 향  
고.{예. 팔 아파서. 이제는 한 공기도 밥을 못 먹는데 그때는 뉘 버섯 산에 가서 군인 도시  
락.}

10320 #1 그게 썩를 하영 노며는 바비 뚜경 더경은 안 뉘주. 올라와 올라와 허다보면 한.  
{그것이 쌀을 많이 넣으면 밥이 뚜경 덮어서는 안 되지.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다보면 한.}

10320 #2 썩밥 뉘부러.{선밥 되어버려.}

10320 #1 \*\*센치 정도는 우터레 향고 우터레 터러질 쟁도로 올라온 거. 그거를 야침 먹꼬  
정시를 머거야 뉘는디 먹따 보민 바비 업써부러. 겨민 정시몬 굴머야지.{\*\*센치 정도는 위  
로 도시락 위로 떨어질 정도로 올라온 것. 그것을 야침 먹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  
면 밥이 없어버려. 그러면 점심은 끓어야지.}

10320 @1 으.{아.}

10320 #1 굴무멍 이를 해 봐신디 아이 참. 경 허연 일똥 월급 받젠 허면 참말 누니 뉘라지  
게 이를 해야 일똥 월급. 그냥은 일똥 월그블 안 줘.{끓으면서 일을 해 뉘는데 아이 참. 그  
렇게 해서 일똥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참말로 눈이 찌그러져서 일을 해야 일똥 월급. 그냥  
은 일똥 월급을 안 줘.}

10320 #2 잘 몬터몬 내려가 경 허곡.{잘 못하면 내려가 그렇게 하고.}

10320 #1 으. 춤 내려가 쏘리 듣는 사르미 또 만치.{아. 참 내려가 소리 듣는 사람이 또  
많지.}

10320 #2 초기 꼭지 하나만 머건땅은 \*\*\* 강 내려가.{버섯 꼭지 하나면 먹었다가는 \*\*\* 가  
서 내려가.}

10321 @1 게문예. 아까 다시 험주예. 보리를 이젠 톨방에서 이러케 검퍼. 와그네 하다보면  
맨 처으메 나오는 게 채 아니우팡예? 두 번째는 뉘가 나옵니까?{그러면요. 아까 다시 하겠  
습니다. 보리를 이제는 연자매에서 이렇게 거피해. 와서 하다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채 아닙니까? 두 번째는 뉘가 나옵니까?}

10321 #1 아 채가 아니고 물방에 강 정. 지비 그걸 가정왕 멍서게 짹 너난. 물 저진 거나 네 물르민 채도 따로 돼어 가가고 쌀도 따로 돼어 가가긴 허는디.{아 겨가 아니고 연자매 가서 쪼어서. 집에 그것을 가져와서 멍석에 짹 너니까. 물에 젖은 것이니까 마르면 겨도 따로 되어 가고 쌀도 따로 되어 가기는 하는데.}

10321 #1 그 노물 또 바라메 불리든지 푸는체로 푸끄든지 두 가지에 혼 가지 해야돼.{그놈을 또 바람에 불리든지 키로 까부르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해야 돼.}

10321 #2 그때는 채 혼 가지뿐.{그때는 겨 한 가지뿐.}

10321 #1 채 떼여낼 연구를 해야. 채만 떼어내민 쌀 나오면 싸를 또 잘 몰라야 돼. 물류민 ㄴ레에 낱 골민 보리쌀 곤다고 허민 그걸.{겨 떼여낼 연구를 해야. 겨만 떼어내면 쌀 나오면 쌀을 또 잘 말려야 돼. 말리면 맷돌에 넣어서 갈면 보리쌀 간다고 하면 그것을.}

10321 #2 채도 나완쭈다게.{겨도 나왔잖아요.}

10321 #1 벌러져야주. 벌러질 때 이제 채도 흥뽀 나오곡 보미까르엔 혼 거 나와.{벌러져야지. 벌러질 때 이제 겨도 조금 나오고 쌀겨라고 한 거 나와.}

10321 @1 예.{예.}

10321 #1 그건 보미까르는 이치록 비온 땀 췌기떡 케영 먹꼬 보리썩른 밥 췌 먹꼭. 껌떼기는 도새기에 다메 드라정 객객 허는 거 주고. 그렇게.{그것은 쌀겨는 이렇게 비온 때는 췌기떡 해서 먹고 보리쌀은 밥 해서 먹고. 껌떼기는 돼지에 담에 매달려서 껌껌하는 것 주고. 그렇게.}

10321 @2 삼촌 보리에도 보미렌 험니까?{삼촌 보리에도 보미라고 하나요?}

10321 #1 아?{뭐?}

10321 @1 보리에도 보미렌 ㄴ라마씨?{보리에도 보미라고 말하나요?}

10321 #1 쌀 보미까루가 나오주게. 게난 그거를.{쌀 쌀겨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을.}

10321 #2 간 때 간 때.{갈 때 갈 때.}

10321 #1 보리 ㄴ레에 골면 겐디 쌀 허당 어떻 허당 그 노미 뿌서정 ㄴ루 웬 게 나와.{보리 맷돌에 갈면 그런데 쌀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놈이 부서져서 가루 된 것이 나와.}

10321 #2 골 때 가루 나온 거주 보미는 아니우다게.{갈 때 가루 나온 것이지 쌀겨는 아니지요.}

10321 #1 가루. 보미까루라고 헐쭈.{가루. 쌀겨가루라고 했지.}

10321 @2 보릿가루.{보릿가루.}

10321 @1 보릿가루.{보릿가루.}

10321 #1 보릿가루로 헐쭈.{보릿가루로 했지.}

10321 #2 보릿까르주 보미까르 아니.{보릿가루지 쌀겨가루 아니.}

10321 #1 겐디 그걸로 뭐 짐승을 주나 이제 ㄴ트면 짐승 줄 꺼주마는 췌기떡.{그런데 그것으로 뭐 짐승을 주나 이제 같으면 짐승 줄 것이지만 췌기떡.}

10321 @1 예.{예.}

10321 #1 저 무신 거 순다리 헐따가 그거 행으네 겐또 헤영 주민 만만 조키가 춤.{저 무슨 거 순다리 했다가 그것 해서 그것도 해서 주면 맛만 좋기가 참.}

10321 #2 조레기에 허영으네 봐두민 시득시득합니다.{작은바구니에 해서 봐두면 시득시득합니다.}

10321 @1 예. 그러민 보리가 그러코 그다음 나로긴 경우는. 나로긴 경우는 뭐 뭐 나오니까? 그걸 쫄로 멘들젠 허면?{예. 그러면 보리가 그렇고 그다음 벼인 경우는. 벼인 경우는

무엇 무엇 나오나요? 그것을 쌀로 만들려고 하면?}

10321 #1 아 나룩또.{아 벼도.}

10321 #2 물렁.{말려서.}

10321 #1 그 물렁으네 젤 쳐으메 나온 건 이제 방엔콩장에 강 그 아까 강메기라 헤가지고 방멩이로 두드리곡 커영 헌 거 졸랭이엔 허영 그것이 젤 구진 걸로 헤영.{그 말려서 젤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방앗간에 가서 그 아까 꼬투리라고 해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해서 한 것 껌질이라 해서 한 것 쪽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젤 굵은 것으로 해서.}

10321 #1 방엔콩장에 강 헤영으네 지민 왕께는 아예 방엔콩장에 내볼고.{방앗간에 가서 해서 쪼으면 왕겨는 아예 방앗간에 내버리고.}

10321 #1 이제 그 보믿깁루허곡 쌀 하고구근 가정오민 이제 첸나룩 헤근에 헨젠 허영 쓸 바블 혼번 허민 뭐 춤. 그 이제 쌀허고는 어떻 허연 그.{이제 그 쌀겨하고 쌀하고는 가져오면 이제 햇벼 해서 했다고 해서 쌀밥을 한번 하면 뭐 참. 그 이제 쌀하고는 어떻게 해서 그.}

10321 #2 향내가 나.{향내가 나.}

10321 #1 쿠싱헌 뭐 나룩 내가 폭커게 나곡 지름 논 거 모양에 을썸을썸을썸허지.{구수한 뭐 벼 내가 폭하게 나고 기름 넣은 거 모양에 을썸을썸을썸하지.}

10321 #2 게민 아버지네 지비도 으저가곡 우리도 헤영 먹꼭.{그러면 아버지네 집에도 가져가고 우리도 해서 먹고.}

10321 #1 흐꿈씩 명는 걸로 허당 봐도 아이더리 하노니까 뭐.{조금씩 먹는 것으로 하다 봐도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10321 @1 예예예.{예예예.}

10321 #1 명는 게 좀 딸릴 정도라나신디.{먹는 것이 좀 달릴 정도였었는데.}

10321 #1 고구마허영 구덕 승키꾸덕 그거세 흐나 내어 노민 혼 노미 하나씩 머그명 흐나는 두이로 슬슬 어떠케.{고구마 해서 바구니 나물바구니 그것에 하나 내어서 놓으면 한 놈이 하나씩 먹으면서 하나는 뒤로 슬슬 어떻게.}

10321 #2 감젠 어디 시난. 구감. {고구마는 어디 있으니까. 해묵은 고구마.}

10321 #1 \*\*\* 무사게 으근 후에 아이덜 다 헨쥬. 무사 아녀서?{\*\*\* 왜 큰 후에 아이들 다 했지. 왜 안 했나?}

10321 #1 감저뻔떼기 허영 일똥 헌 사르미 아이덜 머글 감저 어선편 마린가?{고구마고지 해서 일등 한 사람이 아이들 먹을 고구마 없었다고 말인가?}

10321 #2 체얌. 체얌.{처음. 처음.}

10321 #1 허나네 이러케 하나씨근 다 숨킬라고 헤.{하니까 이렇게 하나씩은 다 숨기려고 해.}

10321 #1 경 허영 숨켄땅 허곡.{그렇게 해서 숨겼다가 하고.}

10321 #1 정말로 야침 허는 거 보민 흑표 갈 때 혼 노른 아장 명는 놈 올명 가는 놈 혼 노른 또 돈 드렌 허는 놈. 아이고 춤.{정말로 야침 하는 것 보면 학교 갈 때 한 놈은 앉아서 먹는 놈 올면서 가는 놈 한 놈은 또 돈 달라고 하는 놈. 아이고 참.}

10321 #2 강 왕 보민 고무시늘양 멘도칼로 찰랑 그 저 미는 거 뭐시니? 지우개. 그게 어시민 고무신 뒤에 찰라그네 그걸로 미러.{가서 와 보면 고무신을요 멘도칼로 찰라서 그 저 미는 것 무엇이니? 지우개. 그것이 없으면 고무신 뒤 찰라서 그것으로 밀어.}

10321 @1 으으.{아아.}

10321 #2 게민 난 바쁘니까 아기덜 허곡 때 허곡 허젠 허믄 아방은 일허영 오믄 겐로 꼬시난 조근 게 책 검사를 가방 검사를 아침마다 해줍써. 저냐기나.{그러면 나는 바쁘니까 아이들 하고 때 하고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일해서 오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작은 것 책 검사를 가방 검사를 아침마다 해주세요. 저녁에나.}

10321 #2 날신딘 "뿔터는 사르미랑 날ㄱ라 허렌." 허민 혼변 허여. 그거 혼변. 다으멘 또 이저부러.{나한테 "무엇하는 사람이어서 나보고 하라고." 하면 한번 해. 그거 한번. 다음에는 또 잊어버려.}

10321 #2 경 허멍 그거 아이더리 커갈 때 지우개도 어성. 신바를 이런 데를 졸랑으네 그 지우개로 써.{그렇게 하면서 그것 아이들이 커갈 때 지우개도 없어서. 신발을 이런 데를 잘라서 그 지우개로 써.}

10321 #1 게난 아기 키우는데 사라미 너멍 보민 후훤쫑이 웨 마너느냐 허면.{그러니까 아기 키우는데 사람이 넘어서 보면 후회감이 왜 많은가 하면.}

10321 #1 이제 우리 큰따리 어서진는다.{이제 우리 큰딸이 없어졌는데.}

10321 #1 초등학교 텅길 때 돈 오천원을 주면서 이거 사먹꼭 아버지는 바쁘니까.{초등학교 다닐 때 돈 오천원을 주면서 이거 사먹고 아버지는 바쁘니까.}

10321 출허레.{꼴하러.}

10321 #1 뭐허다 헤네. 소 출 현 겐또 아니고 초를 끈난는디 물웅덩이(?) 간 검지를 어우글 비는다.{뭐하다 해서. 소 꼴 한 것도 아니고 꼴을 끝났는데 물웅덩이에 가서 검불을 억새를 베는데.}

10321 #1 초등학교에서 그 날씨가 조나네 운동허는 그 이제는 뭐 초등학교에 이제 손지때문 가 봐도 뭐 그러케 학부형이 막 물리지 아녀는디 엔나렌 그러케 뭐 운동나리민 엄청 학부형이 저 우리 중문초등학교에 물려신디.{초등학교에서 그 날씨가 좋으니까 운동하는 그 이제는 뭐 초등학교에 이제 손자 때문에 가 봐도 뭐 그렇게 학부형이 막 물리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뭐 운동날이면 엄청 학부형이 저 우리 중문초등학교에 물렸는데.}

10321 #1 돈 오천원을 쥘 놔두나네 그 도늘 시뵈도 안 써네 가전 완써. 그 다음부턴 정말 후훤해가지고 계속.{돈 오천원을 쥐서 놔두니까 그 돈을 십원도 안 써서 가져서 왔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후회해서 계속.}

10321 #2 어느 겐 사머글 처레 도는 아깝꼬 모른 거라.{어느 것을 사먹을 줄 돈은 안깝고 모른 거야.}

10321 #1 허여네 이제 그 이저불질 아녀는디.{해서 이제 그 잊어버리지를 앓는데.}

10321 #1 이제 우리 시에 딸쪼른 달리기 허민 무쭈껀 일등이라.{이제 우리 제주시 딸쪼른 달리기를 하면 무조건 일등이야.}

10321 #1 겐디 그 사름 춘끼를 헌디 교장니를 마침 표가 그 나완판. 교장님신디 막 뛰어간 나으렌 허난 교장니미 그 뭐 뒤에 영 안장 그 책쌍 바단 얼른 나와저게.{그런데 그 사람 찾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을 마침 표가 그 나왔다고. 교장선생님한테 막 뛰어가서 나오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뭐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그 책상 받아서 얼른 나와지는가.}

10321 불써 내려오란 판 아이더른 다 간 아자부런꺼든. 아이고 발버둥치멍 교장님 때문에 꼴똥헐. 그냥 달리기렌 허민 아리랑꼬개 불르멍 영 행 강 일똥해볼곡 허는다.{별써 내려오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가서 앉아버렸거든. 아이고 발버둥치면서 교장선생님 때문에 꼴똥했다고. 그냥 달리기라고 하면 아리랑고개 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가서 일똥해버리고 하는데.}



10321 #1 경 험 초등학교에 육학년 나오는 동안 그거 한 번 꼴똥허 ㄴ렌 허멍 이제도.{그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육학년 나오는 동안 그것 한 번 꼴똥했다고 하면서 이제도.}

10321 #1 달리기 선수로 허영 이제 고등학교 가네 저 제주여상 간 해도 춤 달리는데 대해서는 이 동네 왕으네 그 연나른 이젠 그런 머시 엄는다 체육대회 할 때. 그때도 왕 선수로 허영 스타트 빠렌 허민 천장만장 가부난.{달리기 선수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저 제주여상 가서 해도 참 달리는데 대해서는 이 동네 와서 그 옛날은 이제는 그런 무엇이 없는데 체육대회 할 때. 그때도 와서 선수로 해서 스타트 빠라고 하면 천장만장 가버리니까.}

10321 #2 천지연 다리 바라시네. 승자. 아이고.{천지연 다리 타고 다녔다. 승자. 아이고.}

10321 #1 게난 경차리 시머간덴 해봐도 천지연 다리 발지. 이제 아기 아덜 두 개 난 사르미 이제도 지붕 위의 가렌 허민 퍼딱 올라강 와랑와랑 들주.{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간다고 해도 천지연 다리 타고 다니지. 이제 아기 아들 두 개 낳은 사람이 이제도 지붕 위에 가라고 하면 활짝 올라가서 와랑와랑 달리지.}

10321 @1 웃음.

10321 #1 춤 벨 라이가 다 이서.{참 별 아이가 다 있어.}

10321 게난 똥 으손 아덜 하나니깐예. 그럼 다 이젠 거두웁 다 쌀로 멘든 거라예. 그럼 보리싸른 어디에 보관해날쑤강?{그러니까 딸 여섯 아들 하나니까요. 그럼 다 이제는 거두워서 다 쌀로 만든 거지요. 그럼 보리쌀은 어디에 보관했었습니까?}

10322 #2 항에.{항아리에.}

10322 #1 항아리.{항아리.}

10322 @1 으. 항아리.{아. 항아리.}

10322 #1 그건 똥 거에 안 노코 항아리에 봐야지. 깨뜨터지. 경 아녀민 자꾸 ㄴ라지는데 쥐가 똥 사방에 와글와글허니까 그거 정말.{그것은 다른 것에 안 놓고 항아리에 놓아야지. 깨끗하지. 그렇게 얹으면 자꾸 말해지는데 쥐가 똥 사방에 와글와글하니까 그거 정말.}

10322 @1 조는 마씨?{조는요?}

10322 #1 조도 항아리. 항아리 아니민 도로미깡.{조도 항아리. 항아리 아니면 드럼통.}

10322 @1 아까 뒤지도?{아까 뒤주도?}

10322 #2 뒤지도 만드랑.{뒤주도 만들어서.}

10322 #1 예. 두지도 그건 조허고 보리쌀 가튼 건 안 봐보고 건 보리가 양이 만허난 보린 낱짜마는 조는 양이 여기는 만치 아녀.{예. 뒤주도 그것은 조하고 보리쌀 같은 것은 안 넣어보고 그것은 보리가 양이 많으니까 보리는 넣었지만 조는 양이 여기는 많지 않아.}

10322 #2 보리가.{보리가.}

10322 @1 메근 안 씨 봄떠가? 맥.{먹서리는 안 씨 봤습니까? 먹서리.}

10322 #1 메게도 보리 낱땅도.{먹서리에도 보리 넣었다가도.}

10322 #2 저 물리기 저네 봐.{저 말리기 전에 넣어.}

10322 #1 툄릴 툄릴 때만 바껴떠.{말릴 말릴 때만 바깥에.}

10322 @1 잠시?{잠시?}

10322 #1 잠시에는 맥또 나도 즈르니까 맥또 이 지빈 할꼬.{잠시에는 먹서리도 나도 곁으니까 먹서리도 이 집에는 많고.}

10322 #2 마리에영 똥 보리가.{마루에랑 똥 보리가.}

10322 #1 멍석또 할꼬.{멍석도 많았고.}

10322 #2 열뎡 썸 요나른 썸 해노민.{열뎡 썸 여남은 썸 해놓으면.}

10322 #2 미삭미삭 보리가.{미삭미삭 보리가.}

@1 그 다으메 씨는 아까 부게기에 논 거고예? 씨는.{그 다음에 씨는 아까 부게에 넣은 거구요?}

10322 #2 씨는 허버게.{씨는 허벅에.}

10322 @1 허버게 아.{허벅에 아.}

10322 #1 아 거 저 좁씨는 그런 거세 노는디 보리씨는 향아리에.{아 거 저 조씨는 그런 것에 넣는데 보리씨는 향아리에.}

10322 #2 도레무깡 향아리에. 그 다으메 퍼내영으네.{드럼통 향아리에. 그 다음 퍼내서.}

10323 @1 그다음 아까 나룩농사를 지었으면 그 나룩농사에 찌블 가지고는 뭇뭇 멘드라납 떠강?{그다음 아까 벼농사를 지었으면 그 벼농사에 짚을 가지고는 무엇무엇 만들었었습니까?}

10323 #1 정무근 육씨는 지붕도 더편찌마는 우리 제주도는 지붕 더편 이리 업꼬 찌브로 낙람지 또 가을에 감저쥬 해당 놀면 소 맥이 허는 거 그거 또 만드랑 낙람지 만드랑 더끄고.{짚 못은 육씨는 지붕도 덮었지만 우리 제주도는 지붕 덮은 일이 없고 짚으로 이영 또 가을에 고구마줄 해다가 쌓으면 소 먹이 하는 거 그거 또 만들어서 이영 만들어서 덮고.}

10323 #1 또 그걸 중이 췌물지 아녀게 잘 보관해 낱땅 뒤테 보리 무끄는 께가.{또 그것을 쥐 쏘지 않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뒷해 보리 묶는 매끼가.}

10323 @1 아 께로.{아 매끼로.}

10323 #1 예. 그게 나룩찌가지.{예. 그것이 벳짚이지.}

10323 #1 게난 생수에 논 인는 사르미 다 우리 부락 사르미 다 인는 게 아니라 그 나룩헐 때는 께허고 낙람지 멘들라고 그 나룩 허는디 강으네 영 드러가며는 아이고 저 또 나룩찝 빌레 완꾸나 허명 뭇 강 거드러주곡 허여도 그걸 춤 흥뽀 덜 조아허지.{그러니까 생수에 논 있는 사람이 다 우리 마을 사람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벼할 때는 매끼하고 이영 만들려고 그 벼 하는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고 저 또 벳짚 빌러 오는구나 하면서 뭇 가서 거들어주고 해도 그것을 참 조금 덜 좋아하지.}

10323 @1 으음.{으음.}

10323 #1 그러면 나도 이제 노니 백팔십일 평 이제 그냥 데편 내부난 지금 막 노람쭈마는 어 나룩허며는 그 찌그로 다 사용이 댜어.{그러면 나도 이제 논이 백팔십일 평 이제 그냥 던져서 내버리니까 지금 막 놓고있지만 아 벼하면 그 짚으로 다 사용이 댜.}

10323 @1 예.{예.}

10323 #1 보리 무꺼불곡 이제 가으레 낙람지 메 파니 멘드라야.{보리 묶어버리고 이제 가을에 이영 뭇 장 만들어야.}

10323 #2 아이고 명서근 멘 께 준꼬.{아이고 명석은 뭇 개 견고.}

10323 #1 거허지. 명석 준찌 멩텅이 준찌 돌곶름착 준찌.{그것하지. 명석 견지 먹둥구미 견지 돼지거름착 견지.}

10323 @1 예. 곶름착 준찌.{예. 거름착 견지.}

10323 #1 신 준찌.{신 견지.}

10323 @1 예. 찢썸도 삼꼬예?{예. 짚신도 삼고요?}

10323 #1 예. 조리도 해야지.{예. 조리도 해야지.}

10323 #2 명석또 막 카영 허연 보리 다 너런쭈게. 마당 그득 널당 벳치믄양 저 올레궂장 간 너런쭈다.{명석도 막 많이 해서 보리 다 널었습니다. 마당 가득 널다가 부치면요 저 올

레까지 가서 넣었습니다.}

10323 #1 나로서 미테 아이더른 명석 즈르라 신 즈르라 허민 처음 영 만들 줄도 모를 꺼여. 신발 만드는 건또 처음 영 멘들 쭈를 몰라.{나로부터 밑에 아이들은 명석 겠어라 신 겠어라 하면 처음 이렇게 만들 줄도 모를 거야. 신발 만드는 것도 처음 이렇게 만들 줄을 몰라.}

10323 #1 멍텅이도 처음 시작할 쭈를 몰를 꺼여. 이제.{떡둥구미도 처음 시작할 줄을 모를 거야. 이제.}

10324 @1 아까 보리 허면 그 보리찌긴 경우는 땀까프로 지들커로?{아까 보리 하면 그 보릿짚인 경우는 땀감으로 땀감으로?}

10324 #1 예. 지들커로.{예. 땀감으로.}

10324 @1 그건 말고 무슨 지들커 헨 쓴 저근 인쑤가?{그것 말고 무슨 땀감 해서 쓴 적은 있습니까?}

10324 #2 지들커양. 그거 떼당으네 모잘려. 저 저을엔 가민 막 눈 녹꼬 추위가민 강 드르에 강 새. 새낭 막 바상헌 거 불 숨긴 분찌 아닙니다.{땀감요. 그것 때다가 모자라. 저 겨울에는 가면 막 눈 녹고 추워가면 가서 들에 가서 띠. 띠 막 바삭한 거 불 때기는 불지 않습니다.}

10324 #2 경 헌디 그거 호미로 비어 오곡.{그렇게 하는데 그것 낫으로 베어 오고.}

10324 #2 또 저 소나무. 소나무에 강 돌아아정 그 미테 까쟁이가 사근 거 이십니다. 게민 호미 막땡이 행 가그네 그거 걸령 등이든 똑똑 아래 터러지민 그거 허곡. 또 미테 저 이파리. 솔잎 이파리.{또 저 소나무. 소나무에 가서 매달려서 그 밑에 가지가 삭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낫 막대 해서 가서 그거 걸려서 당기면 똑똑 아래 떨어지면 그거 하고. 또 밑에 저 이파리. 솔잎 이파리.}

10324 @1 솔잎.{솔잎.}

10324 #2 그 글쟁이 오정강 막 글거냥. 꼭 네 개나 다섯 개나 놔그네 체얌 그 이파리 즈근 즈근하게 쭈커게 놔노민 그 우티렌 막 이마니 놔냥 땡허게 믱랑 그걸로 무끄민양 저음도 경조록.{그 갈퀴 가져가서 막 긁어놓아서. 칩 네 개나 다섯 개나 놓아서 처음 그 이파리 차근 차근하게 쭈하게 놓으면 그 위로는 막 이만큼 놓아서 땡하게 말아서 그것으로 묶으면요 저 오는 것도 그렇게 좋고.}

10324 @1 보달치는 거예?{보통이 치는 거요?}

10324 #2 지드미 그러케 조아마씨.{때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10324 @1 걸 보달 친덴 허지 아녜니까?{그것을 보통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324 #2 예예.{예예.}

10324 @1 보달예?{보통이요?}

10324 #2 경 허영 오랑으네 그거 허영 데명 놔두민 그거 온땅 저을에 때민 진기인꼬.{그렇게 해서 와서 그것 해서 쌓아 두면 그거 가져다가 겨울에 때면 진기 있고.}

10324 #1 이 김 교수니든 나이로 비허민 그런 거 저런 거 농초네 해난 거.{이 김 교수님은 나이로 비하면 그런 것 저런 것 농촌에 했던 거.}

10324 @2 나도 솔립또 글그레 가난쭈다.{나도 솔잎도 긁으러 갔었습니다.}

10324 #1 잘 몰를 건데.{잘 모를 텐데.}

10324 @2 다 아라마씨.{다 알아요.}

10324 @1 겨곡.{그러하고.}

10324 #2 어멍네 헐 때.{어머니네 할 때.}

10324 @1 거 삭파리 삭파리도 헐 거고. 아까 소나무 그 주근 거예. 삭파리.{그것 삭정이. 삭정이라도 한 것이고. 아까 소나무 그 죽은 거요. 삭정이.}

10324 #2 경 허곡양.{그렇게 하고요.}

10324 #1 그제 삭다리 만쭈.{그것이 삭정이 맞지.}

10324 #2 볼레낭. 볼레낭 강 미트로 꼬창으네 가시 문딱 다드마. 다드망으네 그거 즈근즈근 놔그네 이마니허게 허영 지어오곡. 저 돌오름 받떠 거자 가민 서리낭. 소리낭은 무겁찌양.{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가서 밑으로 꿇어서 가시 몽땅 다듬어. 다듬어서 그거 차근차근 놓아서 이만큼하게 해서 저오고. 저 돌오름 받떠 거의 가면 서어나무. 소리나무는 무겁지요?}

10324 #1 소리낭은 무겁꼬.{소리나무는 무겁고.}

10324 #2 서리낭으로 찰라그네.{서어나무로 찰라서.}

10324 #1 서리낭허고 종낭이 게겁고.{서어나무하고 때죽나무가 가볍고.}

10324 #2 나대로 깨여. 나대.{나대로 깨. 나대.}

10324 #1 또 이제 이제 다간주기낭이 우리 목장에 이제 과작해신디.{또 이제 이제 예덕나무가 우리 목장에 이제 곧게 있는데.}

10324 #2 이제 대간중낭 그뎨 어선쭈게.{이제 예덕나무 그때는 없었잖아요.}

10324 #1 거북고 그자 칼로라도 깨주 뭐.{가볍고 그저 칼로라도 깨지 뭐.}

10324 #2 경 허영 즈근즈근 놔 그디서 이딜 그걸 놀 거 경 저오고.{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놓아서 거기서 여기를 날 거 그렇게 저오고.}

10324 #1 아 그런 건 우서니고. 우서는 일차로는 보릿때가 땀감.{아 그런 것은 우선이고. 우선은 일차로는 보릿짚이 땀감.}

10324 #2 경 허영양 똥 팡팡. 파득파득파득.{그렇게 해서요 똥 팡팡. 파득파득파득.}

10324 @1 쉼똥은 안 씨뽕띠가? 쉼똥.{소똥은 안 씨뽕나요? 소똥.}

10324 #2 경 해가든 마당에 막 ㄱ라.{그렇게 해가면 마당에 막 깔아.}

10324 #1 아이고 출 끈나든 이제 판 사름보단 아피 가주. 딸파리 모랑으네 목장에 가가지고 계난 우리 아이드리 그걸 보아가지고 안 조아허는 게 그거야.{아이고. 풀 끝나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앞에 가지. 탈탈이 몰아서 목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아서 안 좋아하는 것이 그거야.}

10324 #1 이제 강 그 똥 주성으네 시렁 오는 거. 시렁 왕 굴묵.{이제 가서 그 똥 주워서 실어 오는 것. 실어 와서 굴묵.}

10324 @1 예.{예.}

10324 #1 게민 이제는 쉼메느로라도 헨파 그때는 흐그로 허민 흐기 짹짹 버러져노난 똥 연기가 그냥 평평 올라오곡.{그러면 이제는 시멘트로라도 했다 그때는 흙으로만 하면 흙이 짹짹 벌어져놓으니까 똥 연기가 그냥 평평 올라오고.}

10324 #2 불만 스만쭈가게. 부수와그네 퇴비 맨들켄허멍 막 헐까네 막 주서 다망 덩드랭마 깨로 막 뽕스고. 똥을.{불만 땀나요. 부수워서 퇴비 만들겠다고 하면서 막 헛간에 막 주워담아서 덩드랭마깨로 막 뽕고. 똥을.}

10324 @1 계난 굴무근 쉼똥으로도 허곡?{그러니까 굴묵은 소똥으로도 하고?}

10324 #2 쉼똥 똥똥. 똥똥이.{소똥 똥똥. 똥똥이.}

10324 #1 똥똥허고 쉼로. 견디 똥똥은 이제는 우리 제주도 그 경마장 생긴 난 므리 마니 생

겔쭈마는 그땐 우리 이기엔 므리 베톡 어썔쭈.{말똥하고 소로. 그런데 말똥은 이제는 우리 제주도 그 경마장 생기니까 말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 여기에는 말이 별로 없었지.}

10324 #2 춤 뭘 그때 할쭈다.{참 말 그때 많았습니다.}

10324 #1 아 여긴 베톡 어서.{아 여기는 별로 없어.}

10324 #2 뭘똥이 천지란쭈.{말똥이 천지였쭈.}

10325 @1 그다음 겨우레 멍는 채소는 어떤 게 이서신고예?{그다음 겨울에 먹는 채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0325 #1 차?{차?}

10325 @1 채소.{채소.}

10325 @2 노똥마썔.{나물요.}

10325 @1 겨우레 멍는 채소.{겨울에 먹는 채소.}

10325 #2 채수는.{채소는.}

10325 @1 늣뻘?{무?}

10325 #2 모똥팍똥. 모똥팍똥 강으네.{메밀밭에. 메밀밭에 가서.}

10325 #1 들머귀.{들머귀.}

10325 #2 늣똥 뿌렁. 게영 모똥 비여불른양 비료도 안 주고 허나네 늣똥이 빨강허여. 자주 새그로. 메줄라.{나물 뿌려서. 그렇게 해서 메밀 베어버리면요 비료도 안 주고 하니까 나물이 빨개. 자주색으로. 모종이 짧아서.}

10325 #2 게영 그런 거 캐여당 김치도 허곡 그걸로 국 끌렁.{그렇게 해서 그런 것 캐다가 김치도 하고 그것으로 국 끓여서.}

10325 #1 짐치는 만무허고 그자 구기나 허곡 데왕 먹썔.{김치는 만무하고 그제 국이나 하고 데쳐서 먹고.}

10325 #2 드른늣뻘.{들무.}

10325 #1 그자 베만 불민 조은 겨쭈 똥.{그제 배만 불면 좋은 겨지 똥.}

10325 #2 드른늣뻘 강으네 캐여당양 썬마. 썬망으네.{들무 가서 캐다가요 삶아. 삶아서.}

10325 @1 그제 드른늣뻘?{그제 들무?}

10325 #2 드른늣뻘 드르에 나는 늣뻘이 인쭈다. 이제 질레에 텅기당 보민 자주색 썬 썬 거.{들무 들에 나는 무가 있습니다.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자주색 썬 썬 거.}

10325 @1 썬근 거예?{작은 거요?}

10325 @1 아아. 예예예예.{아아. 예예예예.}

10325 #2 까릿까릿헌 거. 그제 그 늣뻘 해당으네 그제 캐여당은에 이제 문썬 슬망 썬장 썬 그명 먹썬. 주로 그제. 그제.{까릿까릿한 거. 그제 그 무 해당이 그제 캐다가 이제 썬 삶아서 썬장 썬으면서 먹고. 주로 그제. 그제.}

10325 @1 모똥팍똥 논 그 늣똥 이르미 배썬 배썬디 들무기라고 헌 마리 들무기. 저 들무기엔 헌 건디 그제 겔또 아무나 잘 몬 먹고.{메밀밭에 놓은 그 나물 이름이 배썬는 배썬인데 들무기라고 한 말이 들무기. 저 들무기라고 한 것인데 그제 그것도 아무나 잘 못 먹고.}

10325 #2 저 보리왈똥. 보리왈똥 가그네 늣똥 흥나썬양. 도난 거 그제 나곡. 드른마농 캐곡. 드른마농. 드른마농 인썬예?{저 보리밭에. 보리밭에 가서 나물 하나썬요 돈아난 거 그제 나고. 달래 캐고. 달래. 달래 있지요?}

10325 #1 이 썬마농엔 헌 건디. 그제 마농이 지그몬 이 저 제초제 해당난 영 어서전는다.

{이 달래라고 한 것인데. 그거 마늘이 지금은 이 저 제초제 해가니까 완전히 없어졌는데.}  
10325 #1 연나렌 여기 그 보리가 한번 갈고 혼 버는 안 가랑 봐두민 가슬왈 영 허는디. 그  
그 가슬왈때가 그 꿩마농이 마니 나가지고 칼 아정강 막.{옛날에는 여기 그 보리가 한번 갈  
고 한번은 안 갈아서 봐두면 가을밭 이렇게 하는데. 그 가을밭에가 그 달래가 많이 나와서  
칼 가져가서 막.}

10325 #2 티가 하.{티가 많아.}

10325 #1 케여당으네 다드망으네 콩주글 쭈나 그냥 뭐 구글 끌리나 허민 코승허영. 짐칠  
허난 뭐 이제도 그걸 인끼가 인는데.{캐다가 다듬어서 콩죽을 쭈나 그냥 뭐 국을 끓이나 하  
면 구수해서. 김치를 하나 뭐 이제도 그것이 인기가 있는데.}

10325 #1 그 연나른 경 마니 이선는디 이제는 받떠는 어서지고.{그 옛날은 그렇게 많이 있  
었는데 이제는 밭에는 없어지고.}

10325 #2 김치도 \*\*\* 노리롱허게.{김치도 \*\*\* 노르스름하게.}

10325 #1 이 우리 받떠 이제 올리 뎌 깨 나난 이 사름 건드리지도 말렌 헤연 그 구완헨  
봐두난 어서저신디 씨가 터러지나 뿌리가 받떠 백키나.{이 우리 밭에는 이제 올해 몇 개 나  
오니까 이 사람 건드리지도 말라고 해서 그 구완해서 봐두니까 없어졌는데 씨가 떨어지나  
뿌리가 밭에 박히나.}

10325 #2 뿌리 헤양 헐쭈다.{뿌리 하양 했습니다.}

10325 #1 이젠 내녀넨 이제 나오면. 아 혼번 머거질 쯔 모를 견데.{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나오면. 아 한번 먹어질 지 모를 것인데.}

10325 #2 제초제 해 불카부덴게.{제초제 해 버릴까봐.}

10325 #1 이제 제초제도 허지 말라. 그디 이제 뭐 딱 봉헨 이시나네 내년 내녀는 우리도  
꿩마농 혼번 먹거볼 꺼난.{이제 제초제도 하지 마라. 거기 이제 뭐 딱 봉해서 있으니까 내  
년 내녀는 우리도 달래 한번 먹어볼 것이니까.}

10326 @1 예. 그러믄 연나레 부른 어떤 거로 싸신고예?{예. 그러면 옛날에 불은 어떤 것  
으로 켜을까요?}

10326 #1 예?{예?}

10326 @1 불.{불.}

10326 @1 정기 드러오기 저네.{전기 들어오기 전에.}

10326 #1 저 아 계난 우린 돈 어스난 호야. 호야도 업씨네 각찌.{저 아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으니까 호롱. 호롱도 없어서 등잔.}

10326 @1 예. 각찼뵐.{예. 등잔불.}

10326 #1 각찌가 이 잔보단.{등잔이 이 잔보다는.}

10326 @2 흐썸 쪽찌예?{조금 작지요?}

10326 #1 족썸게. 예. 그거 헤영으네 견또 하.{작지. 예. 그거 해서 그것도 하.}

10326 #2 지름뵐 썸쭈다. 체얌.{기름불 썸습니다. 처음.}

10326 @1 지름뵐예.{기름불요?}

10326 #2 지름. 저 누물치름 낵.{기름. 저 나물기름 넣어서.}

10326 #1 누물치름 낵 접씨에 낵. 썸지 영 행 그견또 흐썸 싸고. 서규 살 톤도 혼 뵐빠기  
믄 서이나 너이나 갈라노민 그게 허당보민 떠러져불민 사레 몬 까믄 이제 썸씨에 그 끈 낵  
으네 썸 네 꺾 허영도 허곡.{나물기름 넣어서 접씨에 놓아서. 썸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  
금 켜고. 석유 살 돈도 한 되면 셋이나 넷이 갈라놓으면 그거 하다보면 떨어져버리면 사러

못 가면 이제 접시에 그 끈 넣어서 실 네 겹 해서도 하고.}

10326 @1 흑씨 백나브로 해본 저기 인쭈가? 백납.{흑씨 백랍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백랍.}

10326 @1 백납. 저 개팍낭 인찌 아녀우파? 개팍낭?{백랍. 저 쥐똥나무 있지 않습니까? 쥐똥나무?}

10326 #1 예.{예.}

10326 @1 거기 보민 하얀 거 인찌?{거기 보면 하얀 것 있지?}

10326 #1 예.{예.}

10326 @1 그걸 막 모아놔야 때면 꼭 양초 가태마씨?{그것을 막 모아놓아서 때면 꼭 양초 같아요?}

10326 #1 아 그건 개팍낭엔 켜 그 백뻘니엔 행으네.{아 그것은 쥐똥나무라고 그 백뻘이라고 해서.}

10326 @2 백뻘.{백뻘.}

10326 #1 이제 허멀 난 아이덜 그 옌나른 머리에도 허멀 잘 나곡 베에도 잘 나곡 허나네. {이제 헌테 난 아이들 그 옛날에는 머리에도 헌테 잘 나고 베에도 잘 나고 하니까.}

10326 #1 득진.{득창.}

10326 그 저 백뻘 노민 존넌 허영 백뻘느로 사용헐쭈. 불 썬 기어근 얻꼬.{그 저 백뻘 놓으면 좋다고 해서 백뻘으로 사용했지. 불 썬 기억은 없고.}

10326 @1 곁예. 꼭.{그거요. 꼭.}

10326 #1 소나무.{소나무.}

10326 #2 송진.{송진.}

10326 #1 깨영으네.{깨서.}

10326 @1 슬각.{관솔.}

10326 #1 슬각. 슬카기라고 해서 그걸로 부른 싸 봐신디 그거는 약제로만 썰쭈.{관솔. 관솔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불은 켜 봤는데 그것은 약제로만 썼지.}

10326 @1 계난예 건 어떤 거냐 허면 이러케 대나무를 영 두 개로 쪼겨. 걸 노으면 그 중가네 씨리 영 논 거라마씨. 계연 그 딱 종강 놔두면 양초처럼 쥔 거라. 양초처럼.{그러니까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그것을 넣으면 그 중간에 실이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딱 잠가서 놔두면 양초처럼 된 거야. 양초처럼.}

10326 #2 아 그런 거 아녜.{아 그런 것은 안 했어.}

10326 @1 으음.{으음.}

10326 #1 그건 이디 허는 거 구경도 못해보꼭 허여보도 못터고.{그것은 여기 하는 것 구경도 못해보고 해보는 것도 못하고.}

10326 #1 어떠튼 그 백뻘넌 헌 게 개팍낭에 아까 마러든 개팍낭에만 인는.{어떻든 그 백뻘이라고 한 것이 쥐똥나무에 아까 말하듯 쥐똥나무에만 인는.}

10326 @1 하얀 건테.{하얀 것인데.}

10326 #1 하얀헌 거 인는 건테 그거 다드망으네 겐또 야속썬 사르미 해당 놔두지 아무나 겐또. 또 경 만치도 안 허고.{하얀 것 있는 것인데 그것 다듬어서 그것도 야무진 사람이 해다가 놔두지 아무나 그것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안 하고.}

10326 @1 예. 만쭈다.{예. 맞습니다.}

10326 #1 예. 계난 슬카기엔 헌 겐또 그 이제는 뭐 세상 메딱 소나무디 이 소나무도 그 나

이 든 노미라야 술카기 돼지 어린 노멘 술각또 안 돼 이서마씨.{예. 그러니까 관솔이라고 한 것도 그 이제는 뭐 세상 모두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도 그 나이 든 놈이라야 관솔이 되지 어린 놈에는 관솔도 안 되어 있어요.}

10326 #1 아 십 년 이상 똥 노미라야 술카글 멘들 쭈가 이서.{아 십 년 이상 된 놈이어야 관솔을 만들 수가 있어.}

10326 @1 계난 여기 전기는 언제 드러왈쭈가. 색달리에.{그러니까 여기 전기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색달리에.}

10326 #1 전기가.{전기가.}

10326 #2 쓰레트 현 후제 드러왈쭈.{슬레이트 한 후에 들어왔지.}

10326 #1 아니 저 서넉 초지비서 전기 드러왈쭈.{아니 저 서쪽 초가에서 전기 들어왔지.}

10326 @3 육십팔년도.{육십팔년도.}

10326 #1 그제.{그것이.}

10326 @3 육십팔년도.{육십팔년도.}

10326 #1 어 그 쯔미라.{아 그 쯔이야.}

10326 @1 예.{예.}

10326 @3. 육십팔년. 칠공년.{육십팔년. 칠공년.}

10326 #1 혼 육십오 년도쯔미 가타 베네.{한 육십오 년도쭈 같아 보이네.}

10326 #1 우리 여기 쓰레트 지비 칠공년도에 지선쭈게. 계난 저 서넉 찌비 초집 이신 때 그 일보네서 상규허고 고창오 와네 헐 때.{우리 여기 슬레이트 집이 칠공년도에 지었지. 그러니까 저 서쪽 집에 초가 있을 때 그 일본에서 상규하고 고창호 와서 할 때.}

10326 #1 에이그. 그 명령쭈그로 돼야지 사네 정 글렌 허민 사네 정 글곡 허명. 우리 노동 해주면 그 돈 내난 이 전기를 교포가 거러준 건데.{아이고. 그 명령적으로 산에 돼지 산에 저서 가자고 하면 산에 저서 가고 하면서. 우리 노동해주면 그 돈 내놓아서 이 전기를 교포가 걸어준 것인데.}

10326 @1 예예예.{예예예.}

10326 #1 칠십. 아 육십팔 년도민 바로 두 태에 이디 나 집 찌서지지 아녀실 꺼고. 한 칠 육십 혼 오년도 쯔메 우리 전기 거러진 거 달문데.{칠십. 아 육십팔 년도면 바로 뒤 해에 여기 나 집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한 칠 육십 한 오년도 쯔메 우리 전기 걸어진 것 같은 데.}

10323 @1 예예예. 고맙습니다. 오느른 여기꺼지만 허쿠다. 수고하셧습니다.{예예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셧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1 오느른 쉼예. 소가 아니고 쉼. 쉼에 대해서 쭈 무리보쿠다. 엔라레 쉼은 어떻 길러신고예?{오늘은 소요. 소가 아니고 쉼. 소에 대해서 쭈 물어보셧습니다. 옛날에 소는 어떻게 길렀을까요?}

10327 #1 계난 연나른 쉼 질루젠 허민 이제추룩 경 뭐 혼 지비 멘 깨씩 허질 몬터곡 하영 현 지븐 야위 그 사삼사건 저네 야위는 뭐 뽕 머리꺼장도 현 사름 인쭈. 우리 부라게.{그러니까 옛날은 소 키우려고 하면 이제처럼 그렇게 뭐 한 집에 몇 개씩 하지를 못하고 많이 한 집은 야우 그 사삼사건 전에 야우는 뭐 백마리까지도 한 사람 있지. 우리 마을에.}



10327 @1 야우예?{야우요?}

10327 #1 예 야우로. 그냥 저 사네 그냥.{예. 야우로. 그냥 저 산에 그냥.}

10327 @1 올령 내부려.{올려서 내버려.}

10327 #1 으 올령 내부령으네 송아지가 나도 반. 백 개 나머지는 오십 개 살리기가 힘드런따미다. 이제는 백 개 나머지는 팔십 개는 살리고 경 허주마는 그때는 백 개 나도 오십 개 살리기도 힘들다 영 헨꼬.{으 올려서 내버려서 송아지가 낳아도 반. 백 개 낳으면 오십 개 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백 개 낳으면 팔십 개는 살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백 개 낳아도 오십 개 살리기도 힘들다 이렇게 했고.}

10327 #1 이제 그 후에 사삼사건 후엔 뭐 이 저 출도 허기도 힘들고 허나네 혼 지비 혼나 두 개가 하영 해야 두 개. 게민 다 혼 지비 혼나 거 일 시길라고.{이제 그 후에 사삼사건 후에는 뭐 이 저 풀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한 집에 하나 두 개가 많이 해야 두 개. 그러면 다 한 집에 하나 그것 일 시키려고.}

10327 @1 예.{예.}

10327 #1 거민 일 그리칠 땐 어떠케 허느냐하면 켈 처으른 질메.{그러면 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켈 처음에는 길마.}

10327 @1 예.{예.}

10327 #1 아 켈 처으메 코 께어가지고 코 께어가지고 순하게 멘드라 낳 질메 지왕 그디 이제 뭐 푸를 시끄든지 뭐 헐 께 곡식낭은 안 돼여 그 노미 막 들좌키니까 이제 검지를 허든지 뭐해가지고 시경 이제 연습 시켜 놔.{아 켈 처음에 코 께어서 코 께어서 순하게 만들어 놓아서 길마 지워서 거기 이제 뭐 풀을 싣든지 뭐 할 것 곡식나무는 안 돼. 그 놈이 막 날뛰니까 이제 검불을 하든지 무엇해서 실어서 이제 연습 시켜 놓아.}

10327 #1 또 다으멘 그거 질메를 뵈껴두고 멍에.{또 다음에는 그거 길마를 벗겨두고 멍에.}

10327 #1 멍에 썩왕 이제는 페다야가 참 마니 일쓰니까 허지마는 엔나레 페다야도 업꼭 허민 도를 이러케 쏘랑헌 노를 해가지고 모가지 요러케 만드라가지고 무경 도를 끄서가지고 이 막 드라덴이지.{멍에 썩워서 이제는 페타이어가 참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페타이어도 없고 하면 돌을 이렇게 기름한 놈을 해서 목 요렇게 만들어서 묶어서 돌을 끌어서 이 막 돌아다니지.}

10327 #2 토막낭으로도 끝꼬.{토막나무로도 끌고.}

10327 #1 이디 이제는 저 아스팔트 해부난 욱케영 몬터주마는 엔나른 뭐 다 비포장도로나 네 그치록 커영 막 돌려가며는 그때부턴 말도 잘 뜯꼬.{여기 이제는 저 아스팔트 해버리니까 욱해서 못하지만 옛날은 뭐 다 비포장도로이니까 그렇게 해서 막 돌려가면 그때부터는 말도 잘 듣고.}

10327 @1 흑씨 그게 곰또리우파짱?{흑씨 그것이 곰돌입니까?}

10327 #1 예?{예?}

10327 @1 그게 곰또리우파? 곰똥.{그것이 곰돌입니까? 곰돌.}

10327 @2 돌이름마썸?{돌이름요?}

10327 #1 돌리름?{돌 이름?}

10327 #2 돌 그냥. 저런 돌. 도리고.{돌 그냥. 저런 돌. 돌이고.}

10327 #1 돌.{돌.}

10327 #2 콩고리 아니.{콘크리트 아니.}

10327 @2 건 우리 동네선 그걸에 곰똥헐쭈게. 게니까 큰 도린데 고망 똥라정 거기다가 쉼  
안뻘 무꺼그네.{그것을 우리 동네에선 그것으요 곰돌하지요. 그러니까 큰 돌인데 구멍 뚫어  
쳐서 거기다가 참바 묶어서.}

10327 #2 만쭈게.{맞지.}

10327 @1 예. 행 이걸 끝께 허는 거라예. 이 도리 업쓰면 뭇로 헨나허면 그레착 중에 우  
착. 그레착 우착.{예. 해서 이것을 끝께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없으면 무엇으로 했냐하면 땃  
돌 중에 위쭈. 땃돌 위쭈.}

10327 #1 예.{예.}

10327 @1 거기 보른 구멍 인찌 아녀우파?{거기 보면 구멍 있지 않습니까?}

10327 #1 예.{예.}

10327 @1 그걸 또 행으네 끝께 멘드라예?{그것을 또 해서 끝께 만들어요?}

10327 #1 아 우리는.{아 우리는.}

10327 @1 걸 우리 쪼게선 곰똥 그럽쭈.{그것을 우리 쪽에서는 곰돌 그러지요.}

10327 #1 그 그런 뭇슨 그 그레착 끈는 건또 안 봐보고.{그 그런 뭇은 그 땃돌 끄는 것  
도 안 봐보고.}

10327 @1 예.{예.}

10327 #1 어쨌든 도를 그러케 강아지 모양에 소름허게 생긴 거 행으네 목 쪼끄만 또 다시  
리민 철사로 무꺼지게 땃 인쭈. 거른 그거 드랑으네 막 끌고 다니명 경 허곡.{어쨌든 돌을  
그렇게 강아지 모양에 기름하게 생긴 것 해서 목 조금만 또 다스리면 철사로 묶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거 매달아서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10327 #1 또 우리 백싸장.{또 우리 백사장.}

10327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27 #1 이제 우리 백싸장에 가가지고. 아주 불량허며는 백싸장 가가지고 모래바시니까  
이 노미 뭇 힘썰도 크게 뭇 쓰니까. 사람도 힘 뭇 쓰지마는 소도 그딘 가른 야코가 주거.  
바닷물 팍팍 올라오곡 허니까.{이제 우리 백싸장에 가서. 아주 불량하면 백사장 가서 모래  
받이니까 이 놈이 뭇 힘썰도 크게 뭇 쓰니까. 사람도 힘 뭇 쓰지만 소도 거기는 가면 기가  
죽어. 바닷물 팍팍 올라오고 하니까.}

10327 #1 거기서 또 교유글 시켜가지고 허며는 더 순내가지고.{거기서 또 교육을 시켜서  
하면 더 순해서.}

10327 @1 아 그러믄 아까 삼춘니미 지금 여기 조하뵈니 여덜 썩람 인쭈가?{아 그러면 아  
까 삼춘님이 지금 여기 조합원이 여덜 사람 있습니까?}

10327 #1 예. 여덜 썩람. {예. 여덜 사람.}

10327 @1 지금 목짱에 올린 거 아녀우짱예?{지금 목장에 올린 것 아닙니까?}

10327 #1 예. 다 목짱에.{예. 다 목장에.}

10327 @1 게민 지금 어떻 험쭈가?{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327 #1 어떻 허느냐고?{어떻게 하고 있냐고?}

10327 @1 예.{예.}

10327 #1 아. 이 목짱에 다 인쓰니까. 구좌별마다 이제 한 시빌 시보일 살며는 요 구좌는  
헝뽴 너르니까 한 시보일.{아.이 목장에 다 있으니까. 구역별마다 이제 한 십일 십오일 살면  
요 구역은 조금 넓으니까 한 십오일.}

10327 #1 요 구좌는 헝뽴 쪼브니까 혼 시 빌. 또 조근 디 일쭈일도 살령 너머가고 허는디

그 목장 당버니 가가지고 일리리 누구네 쉼 인나 업나 그거 화기늘 다 묻터곡.{요 구역은 조금 좁으니까 한 십일. 또 좁은 데 일주일도 살려서 넘어가고 하는데 그 목장 당번이 가서 일일이 누구네 소 있나 없나 그것 확인을 다 못하고.}

10327 #1 켈 우서는 뭐 이녁 쏘 보는 게 우서는 쉼짜 봐노코 다르문 이제 아 우리 쉼 어디사 이서신지 묻 츠자라. 영 허민 그건또 인나 언나 화긴헤 보곡 쉼 화긴헤 볼 꺼는 부롱이. 부롱이가 하나 목장에 인게 쉼 거난. 종우를 꼭 인나 업나 그거 화긴허는 게 그날 당번 목찌기.{쉼 우선은 뭐 이녁 소 보는 것이 우선은 첫째 봐놓고 다음은 이제 아 우리 소 어디 있었는지 못 찾아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쉼 확인해 볼 것은 수소. 수소가 하나 목장에 있게 된 것이니까. 종우를 꼭 있나 없나 그것 확인하는 것이 그날 당번 목적이.}

10327 @1 계난 옴나레도 경 해날쭈과?{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27 #1 아 옴날도 경 해썹쭈.{아 옛날도 그렇게 했었지요.}

10327 @1 옴날도.{옛날도.}

10327 @1 예. 옴날도 사삼사건 후에도 이 우리 목장 이르미 백마원케 이러케 해가지고 현 목장인데 이거 이제 대학교에 너머간따가 대학교에서는 도청으로 너머간따가 도에선 재무부로 너머가부런쎄.{예. 옛날도 사삼사건 후에도 이 우리 목장이름이 백만원 목장 이렇게 해서 한 목장인데 이거 이제 대학교에 넘어갔다가 대학교에서는 도청으로 넘어갔다가 도에서는 재무부로 넘어가버렸어.}

10327 #1 재무부에 문딱 재무부 소과느로 웨어 부런느디 나중은 이제 이 \*\*\*에서가 뭐 재무부에 간 산따 허느디 아지근 산쓰며는 우리가 도늘 대부료를 안 내는 건디 올리도 천백 쉼 썸마 뉘 뉘쎄.{재무부에 몽땅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버렸는데 나중은 이제 이 \*\*\*에서가 뭐 재무부에 가서 샅다 하는데 아직은 샅으면 우리가 돈을 대부료를 안 내는 것인데 올해도 천백 몇 십만 원 뉘어.}

10327 #1 그게 어떠케 내느냐. 재무부에서 나 생가겐 재무부에서 고지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시청에서 재무부로 행으네 고지서 흥나 만들고 흥 필지를. 받 하나를.{그것이 어떻게 내느냐. 재무부에서 내 생각에는 재무부에서 고지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청에서 재무부로 해서 고지서 하나 만들고 한 필지를. 받 하나를.}

10327 #1 또 시청에 얼마 내라 행으네 만들고 허는 게 뽕마 뉘이면 오십마 뉘씩 요러케 해가지고 시청에 오십 마뉘 재무부 오십마 뉘. 흥 바시. 그러케 해가지고 여선 필찌 도늘 내는데 천백 쉼 썸마 뉘 뉘쎄.{또 시청에 얼마 내어라 해서 만들고 하는 것이 백만 원이면 오십만 원씩 요렇게 해서 시청에 오십만 원 재무부 오십만 원. 한 발이. 그렇게 해서 여섯 필지 돈을 내는데 천백 몇 십만 원 뉘어.}

10327 @1 건 조하뵤니 하는 거고.{그것은 조합원이 하는 것이고.}

10327 #1 예. 조하뵤니.{예. 조합원이.}

10327 @1 그러문 이즈문 쉼을 목장에 올릴쎄 때고. 그 다음 받 깔젠 허문 쉼을 내려와야 쉼 꺼 아니우파예?{그러면 이썸은 소를 목장에 올렸을 때고. 그 다음 받 깔려고 하면 소를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10327 #2 받또 안 가람쭈다.{받도 안 깔고 있어요.}

10327 @1 그러면 그때는 지베서 어떻 매어날쭈가?{그러면 그때는 집에서 어떻게 땀었나요?}

10327 #1 아 그 이제는 뭐 소로 받 안 가난 허쭈. 요 중간까지도 소로 받 깔 때 목장에 뉘

때는 그 밭 까는 시저레는 목장에 널 때 이 개이니 흠저 우리 조하뵈니 당버늘 허지 아니고 목장 보는 목동이 인썸쥬.{아 그 이제는 뭐 소로 밭 안 가니까 하지. 요 중간까지도 소로 밭 갈 때 목장에 넣을 때는 그 밭 가는 시절에는 목장에 넣을 때 이 개인이 참 저 우리 조합원이 당번을 하지 않고 목장 보는 목동이 있었지.}

10327 @1 아 테우리.{아 목동.}

10327 #1 예. 테우리가 소테우리엔도 허곡 목동이엔도 허곡 허는디 그디 그 사르미 한 사르미 그 하루 종일 강 엔나른 지켰썸.{예. 목동이 소목동이라고도 하고 목동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거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하루 종일 가서 옛날은 지켰어.}

10327 #1 왜 지커느냐. 소 끄러가부는 수도 이션꼬. 이제는 그런 머시 업는데 헤가지고 하루 종일 지키는 사르미 이션는다.{왜 지키느냐. 소 끌어가버리는 수도 있었고. 이제는 그런 무엇이 없는데 해서 하루종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10327 #1 겨민 그 싸근 뭍스로 쥘느냐? 소 혼 마리당 보리 한 말 줄 때도 이션꼬 그 아피는 보리 두 뢰.{그러면 그 샀은 무엇으로 쥘느냐? 소 한 마리당 보리 한 말 줄 때도 있었고 그 앞에는 보리 두 뢰.}

10327 @1 아.{아.}

10327 #1 예 소 혼 머리가. 두 뢰 줄 때도 인꼬. 저 곧싸 우리 아더리 이 사름 쉼 본 갑 혼 말 쥐가난 무사 보리 놉 쥐부럼쑤가 허멍 막 켜 아더린다.{아 소 한 마리가. 두 뢰 줄 때도 있고. 저 아까 우리 아들이 이 사람 소 본 샀을 한 말 쥐가니까 왜 보리 남 쥐버리나 요 하면서 막 한 아들인데.}

10327 #2 마니 쥘뻔. 초등학교 때.{많이 준다고. 초등학교 때.}

10327 #1 우리 부라게 그 서기도 부락 서기연는디 이젠 뭍 사무장 이러는디.{우리 마을에 그 서기도 마을 서기였는데 이제는 뭍 사무장 이러는디.}

10327 #1 그뻔 부락 서기도 곡씨그로 한 말씩 이러케 쥐나신디. 이젠 뭍.{그때는 마을 서기도 곡식으로 한 말씩 이렇게 쥘었는데. 이제는 뭍.}

10327 @2 한 마른 며칠레 한 말마썸? 한 다레.{한 말은 며칠에 한 말요? 한 달에.}

10327 #1 뭍 보리 주는 거?{뭍 보리 주는 거?}

10327 @2 예.{예.}

10327 #1 목장에?{목장에?}

10327 @2 예.{예.}

10327 #1 그 혼 드리 아니고.{그 한 달이 아니고.}

10327 @2 일년?{일년?}

10327 #1 일년 치가.{일년 치가.}

10327 @2 예.{예.}

10327 #1 예. 만 일너니 아니고 겐또 오월 이럴 날 가면 구월 마레 소가 파둔해. 게난 그 공가네 꺼시 소 혼 머리당 혼 말.{예. 만 일년이 아니고 그것도 오월 일일 날 가면 구월 말에 소가 파둔해. 그러니까 그 공간에 것이 소 한 마리당 한 말.}

10327 #1 그디 이제는 글로 후엔 그 썸커는 게 또 도느로 얼마 이래가지고 또 허다가 이제는 그런 겐또 연꼬 목장 조하뵈니 합작뻬가지고 소 질루는 사르미 전부 어서지고 허나네 합작뻬연 당번 허는 건 이녁 조하뵈네서 날짜 일쥬이레 한번 딱 지정헸 그날만.{거기 이제는 그 이후에는 그 샀 하는 것이 또 돈으로 얼마 이래서 또 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목장 조합원이 합작뻬서 소 키우는 사람이 전부 없어지고 하니까 합작뻬어서 당번 하는 것

은 이녁 조합원에서 날짜 일주일에 한번 딱 지정해서 그날만.}

10327 #1 뭐 바뀌지지도 안 하고.{뭐 바뀌지지도 안 하고.}

10327 #1 계민 마냐게 내가 토요일날 그판 이리 인파. 일요일날 당번신디 아 나 영정혜영 그판 일 시나네 하루 바빠주라. 넌 이릴 날 허커메 영 허영 위료일 날 토요일날 강 해주라 바깥도 허는 식또 인꼬.{그러면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급한 일이 있다. 일요일날 당번한테 아 나 이러저러해서 급한 일 있으니까 하루 바꿔줘라. 내일 일일 날 하겠으니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해줘라 바꿔서도 하는 식도 있고.}

10330 @1 그럼 가끔 가다가예. 쉼 어신 사르미 이실 꺼 아니우까예? 쉼 인는 사름도 인꼬 쉼 업는 사름도 인꼬. 그러믄 쉼 어신 사르미 쉼 인는 사름안티 강으네 쉼을 어 일쫓에 빌려오는 거라예. 그럼 요샌말로 멤췌?{그럼 가끔 가다가요. 소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 있는 사람도 있고 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소 없는 사람이 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소를 아 일쫓에 빌려오는 거지요. 그럼 요샌말로 배넛소?}

10330 #1 예 멤췌도 인췌게.{아 배넛소도 있지.}

10330 @1 예 그걸 한번 어떻 해나신고예?{예. 그것을 한번 어떻게 했었는가요?}

10330 #1 거 멤췌엔 헌 건 암췌를 하나 멤췌 주며는 새끼 나민 하난 췌 임제 주곡 하난 키운 사름신디 주곡 그러케 허는 아 그런 세상은 참.{거 배넛소라고 한 것은 암소를 하나 배넛소 주면 새끼 낳으면 하나는 소 임자 주고 하나는 키운 사람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아 그런 세상은 참.}

10330 @1 예를 들면 한 마리가 나면?{예를 들면 한 마리가 낳으면?}

10330 #1 예. 아니 혼 빠네 한 머리빼피 두 머리 남니까? 췌가 혼나 나는 거주. 계난 올리 하나 난 거는 췌 임제신디 췌똥 다음 해에 새끼 난 건 소 키운 사름. 췌 키운 사르미 이제 안꼬.{예. 아니 한 번에 한 마리밖에 두 마리 낳는가요? 소는 하나 낳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하나 낳은 것은 소 임자한테 췌두고 다음 해에 새끼 낳은 것은 소 키운 사름. 소 키운 사람이 이제 가지고.}

10330 @1 거 보통 멘 년췌 계야글 허는고예?{그것 보통 몇 년췌 계약을 하는가요?}

10330 #1 계야근 그 두 번 낳으네 대랴근 끈날췌.{계약은 그 두번 낳아서 대략은 끝났지.}

10330 @1 두버니면예?{두번이면요?}

10330 #1 예. 거 왜 두버네 끈나느냐 허면 그거 정말 상당히 힘든 이리디 이제는 뭐 목장에 강 먹꼬 겨우레 뭐 다 또 용돈도 인꼬 허난 뭐 사료도 사당 다 주고 허난 허긴 허주만 그.{예. 거 왜 두번에 끝나느냐 하면 그거 정말 상당히 힘든 일인데 이제는 뭐 목장에 가서 먹고 겨울에 뭐 다 또 용돈도 있고 하니까 뭐 사료도 사다가 다 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

10330 #1 그 주로 멤췌 매는 시저른 정말 보릿고개라 참 잘 몬쌀 때나네.{그 주로 배넛소 매는 시절은 정말 보릿고개여서 참 잘 못살 때니까.}

10330 #1 참 멤췌도 그 오래 메제늘 아녀.{참 배넛소도 그 오래 매려고를 앓아.}

10330 @1 계난 그때.{그러니까 그때.}

10330 #1 계난 두 해 키워 송아지 하나 보민 그 송아지를 잘 키워 어떻 어떻 성공허는 사름도 인꼬 이거를 잘 몬테영 성공 몬터는 사름도 인꼬.{그러니까 두 해 키워서 송아지 하나 보민 그 송아지를 잘 키워서 어떻게 어떻게 성공하는 사름도 있고 이것을 잘 못해서 성공 못하는 사름도 있고.}

10330 #1 계난 사라미 신경 노력게 메연찌.{그러니까 사람의 신경 노력에 매였지.}

10330 @1 계난 혹시 그런 뽕뽕에 대한 거예? 혹시 이 동네에서라도 혹시 아라지는 이야기 인쓰면 좀 그라 줘써? 아까 재미인줄 꺼 가튼데. 어쩌케 어렵게 키워는지예? 뽕뽕을.{그러니까 혹시 그런 배넛소에 대한 거요? 혹시 이 동네에서라도 혹시 아는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렵게 키워는지요? 배넛소를.}

10330 #1 아 뽕뽕을 이제 마냐게 나가 뽕뽕을 가져온다. 나미 걸 개뽕이네 썬을 강 아정온다. 계난 썬 썬 나난 노미 인꼬 안 나난 노미 인써.{아 배넛소를 이제 만약에 내가 배넛소를 가져온다. 남의 것을 개뽕이네 소를 가서 가져온다. 그러니까 첫 새끼 낳았던 놈이 있고 안 낳았던 놈이 있어.}

10330 #1 계난 이제는 뽕 썬 새끼 나는 건또 겁 업써 안 뽕며는 수의사 다 이시난 헌디 우리 어린 때는 그 수의사가 인는 걸 몰랐찌.{그러니까 이제는 뽕 첫 새끼 낳는 것도 겁 없이 안 되면 수의사 다 있으니까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수의사가 있는 것을 몰랐지.}

10330 @1 예.{예.}

10330 #1 업는 걸 몰라.{업는 것을 몰라.}

10330 #1 계난 썬새끼 나는 건 흥뽕 겁났으네 새끼 흥 뽕 나난 게 조타 해영으네 이제 새끼 나난 걸로 돈 인는 사름네 지비 꺼 가져왕으네 걸 구완 잘 해가지고.{그러니까 첫새끼 낳는 것은 조금 겁나서 새끼 한번 낳았던 것이 좋다고 해서 이제 새끼 낳았던 것으로 돈 있는 사름네 집에 것 가져와서 그것을 구완 잘 해서.}

10330 #1 어떤 그 소 임제가 어떤 사름. 썬 임제가 어떤 사르믄 키우는 사름신디 너 새끼 나건 아피 아저라.{어떤 소 임자가 어떤 사름. 소 임자가 어떤 사름은 키우는 사름한테 너 새끼 낳거든 앞에 가져라.}

10330 @1 음.{음.}

10330 #1 너 아피 아저라. 영 허는 사름도 인꼬. 야 걸랑 날 줘두고 다으메 새끼 나거든 너 아저라. 이러면 흥뽕 그 거북케.{너 앞에 가져라. 이렇게 하는 사름도 있고. 야 그것일랑 나를 줘두고 다음에 새끼 낳거든 너 가져라. 이러면 조금 그 거북해.}

10330 #1 웨 거북커느냐 허면 일년 차이가 소는 뽕. 애기. 우리 사름도 일년 차이가 크는디 소는 일년 차이가 무지 큼쥬.{왜 거북하느냐 하면 일년 차이가 소는 뽕. 애기. 우리 사름도 일년 차이가 큰데 소는 일년 차이가 무지 크지요.}

10330 #1 계난 그 새끼 난 걸 처음 아지며는 에미허고 가치 키우며는 뽕 다음 해엔 재수조면 새끼가 또 뽕 썬가 인써. 그러며는 덕 뽕는 수가 인는디 그 썬 임제 따르메 매는 거니까.{그러니까 그 새끼 낳은 것을 처음 가지면 어미하고 같이 키우면 뽕 다음 해에는 재수 좋으면 새끼가 또 뽕 수가 있어. 그러면 덕 보는 수가 있는데 그 소 임자 따름에 매는 것이니까.}

10330 @1 아.{아.}

10330 #1 계난 건 조코 구진 사르미. 욱씨미 돈 인꼬 허난 욱썬 업는 사르믄 느 아피 아지라게 경 허민 나 다음 아지마게. 영 허민 뽕 상당이 조은 이룬디. 그러케 아녕 건또 사라메 따라 결쟁이 뽕는 거난.{그러니까 그것은 좋고 굿은 사름이. 욱심이 돈 있고 하니까 욱심 없는 사름은 너 앞에 가져라 그렇게 하면 나 다음 가지마. 이렇게 하면 뽕 상당히 좋은 일 인데. 그렇게 안 해서 그것도 사름에 따라 결쟁이 되는 것이니까.}

10332 @1 그러믄예 혹시 소를 부릴 때 예를 들면 받까리 하거나 할 때예?{그러면요 혹시 소를 부릴 때 예를 들면 받갈이 하거나 할 때요?}

10332 @1 게서 예를 들면 받까리 할 때는 오른쪼그로 가거라 왼쪼그로 가거라 도라서거  
라 해야 될 꺼 아니우파? 걸 기냥 숨비쫄로만 헐쭈가 아니면 소리로 헐쭈가?{그래서 예를  
들면 받갈이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돌아서거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붓쫄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소리로 했습니까?}

10332 #1 아니.{아니.}

10332 @1 받 깔 때마씨?{받 깔 때요?}

10332 #1 우리 여기 풍소근 받갈 때 허는 거 보든 쟁기 멩에 썩왕 쟁기 헤영으네 가린서  
기라고.{우리 여기 풍속은 받갈 때 하는 것 보든 쟁기 멩에 썩워서 쟁기 해서 가린석이라  
고.}

10332 @1 예. 가린석.{예. 가린석.}

10332 #1 인쭈다.{있습니다.}

10332 #1 예. 가린석. 가린서기 가린서겐 허난 양쪼게 다 인는 거라. 이쪼게도 가린석 이  
썩또 가린석. 가린서그로 좌우를 굴리멍 가는 거고.{예. 가린석. 가린석이 가린석이라고 하  
니까 양쪽에 다 있는 거야. 이쪼게도 가린석 이쪼게도 가린석. 가린석으로 좌우를 가리면서  
가는 것이고.}

10332 #1 또 그 소리는 받까는 소리는 뭉식께.{또 그 소리는 받가는 소리는 뭉식께.}

10332 @1 예.{예.}

10332 #1 뭉씩께 영 허멍.{뭉씩께 이렇게 하면서.}

10332 @1 건 아프로 가란 애기고.{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이야기이고.}

10332 #1 예. 소 가란.{예. 소 가라는.}

10332 #2 이 쉼야 도라오라 허멍 잘 헨게 멩에질 간 때.{이 소야 돌아와라 하면서 잘 하던  
데 받머리 갈 때.}

10332 #1 아 그 이 쉼야 도라오라 허는 거는 건 아까도 애기헐쭈마는 건 저 무슨 일 허멍  
이라도 피곤하니까 시가늘 때우기 위해서 그 허는 소리는 건 멩에에 강 소가 도라. "어 이  
쉼야 자기 도라오라." 영 허영.{아 그 이 소야 돌아와라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애기했지  
만 그것은 저 무슨 일 하면서라도 피곤하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하는 소리는 그것은  
받머리에 가서 소라 돌아. "아 이 소야 재우 돌아와라." 이렇게 해서.}

10332 #2 심심허난 심심푸리쭈.{심심하니까 심심풀이지.}

10332 #1 이제 제라허게 그 쟁기 자브민 소리가 조케 나와.{이제 제대로 그 쟁기 잡으면  
소리가 좋게 나와.}

10332 @1 아아.{아아.}

10332 #1 예. 경 허영 허는 소린디.{예. 그렇게 해서 하는 소리인데.}

10332 @1 게난 아까 아프로 가라.{그러니까 아까 앞으로 가라.}

10332 #1 그 소리도 절믄 사름더리나 아무나 몬터고 나는 나므 집 진는디 이 흑곶. 흑 이  
제는 뭉 쉼멘드로 허지마는 엔나른 흑곶터는 겐또 우리 부라게 흑곶또 마니 다년.{그 소리  
도 젊은 사름들이나 아무나 못하고 나는 남의 집 짓는데 이 흑곶. 흑 이제는 뭉 시멘트로  
하지만 옛날은 흑곶하는 것도 우리 마을에 흑곶도 많이 다녔어.}

10332 @1 게난 아까 쉼을 가라 헐 때는 머씩께 허고.{그러니까 아까 소를 가라 할 때는  
머씩께 하고.}

10332 #1 예. 머씩께. 머씩께. 영 허는.{예. 머씩께. 머씩께. 이렇게 하는.}

10332 @1 이버는 세우젠 허는 거라예.{이번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10332 #1 예?{예?}

10332 #2 왕허주.{왕 하지.}

10332 #1 왕.{왕.}

10332 @1 예. 왕.{예. 왕.}

10332 #1 왕 영 허민 탁 사주.{왕 이렇게 하면 탁 서지.}

10332 @1 계난 가린서그로 오른쪽 왼쪽?{그러니까 가린석으로 오른쪽 왼쪽?}

10332 #1 예. 오른 잘\*. 그걸로 허고.나 강완도는 말로 허곡. 이렇 이렇 이렇 좌로 좌로 좌로 영 허곡. 강완도에 저 그 군대생활할 때 보나네.{예. 오른. 잘\*. 그것으로 하고. 나 강원도는 말로 하고. 이렇 이렇 이렇 좌로 좌로 좌로 이렇게 하고. 강원도에 저 그 군대생활할 때 보니까.}

10332 @2 게든 오른쪼그로 허렌 혈 땀 뭘엔 헤마씨?{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10332 #1 예. 아 우로 우로 좌로 좌로 그 강원도에선.{예. 아 우로 우로 좌로 좌로 그 강원도에서는.}

10332 @2 아니 우린?(아니 우리는?)

10332 #1 아 우리는 가린석.{아 우리는 가린석.}

10332 #1 말 굳는 대로.{말 하는 대로.}

10332 #2 이레 도라오곡.{이리로 돌아오고.}

10332 #1 받쭈리 이쨌게 뿔. 뿌레 일로 무꺼 일로 헨 이시니까 우츠그로 가야 댜민 우츄꺼 땡기민 댜고 좌츠그로 가민 좌츄기 꺼 댜고. 차 운전허는 거 허고 비스데.{뱃줄이 이쪽에 뿔. 뿔에 이리로 묶어 이리로 해서 있으니까 우츄으로 가야 되면 우츄 것 당기면 되고 좌츄으로 가민 좌츄에 것 되고. 차 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해.}

10332 #1 췌게 둥겨부러도 췌가 버려불민 여기 톱 나부렁 안 댜고. 또 좌로 가는 겐또 이쨌 너무 췌게 둥겨불민 고지가 비트러져부렁 안 댜고. 계난 자동차허고 운전허는 거 살쨌살쨌.{췌게 당겨버려도 소가 버려버리면 여기 톱 나버려서 안 되고. 또 좌로 가는 겐또 이쨌 너무 췌게 당겨버리면 이렇이 비뿔어져버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운전하는 거 살쨌살쨌.}

10332 #1 뭘 돌릴 땀 팍 영 돌리주마는 그런 시그로 댜는 거.{뭘 돌릴 땀은 팍 이렇게 돌리지만 그런 식으로 댜는 거.}

10328 @1 그다음 소를 이제 질룰 때예 뭘뭘 도구가 피료한고예? 일단 췌마기 이서야 댜꺼고예? 췌 질루젠 허면?{그다음 소를 이제 기를 때요 뭘뭘 도구가 필요한가요? 일단 외양간이 있어야 댜 거고요? 소 기르려고 하면?}

10328 #1 아 췌 질루는 겐 뭘 춤 굳싸 우서는 췌막. 췌석.{아 소 기르는 겐은 뭘 참 아까 우선은 외양간. 소줄.}

10328 @1 예?{예?}

10328 #1 췌석.{소줄.}

10328 @1 예. 췌안뻘.{예. 참바.}

10328 #1 췌안뻘는 짐 시끌 땀 허는 거고.{참바는 짐 실을 땀 하는 것이고.}

10328 @1 아 췌석.{아 소줄.}

10328 #1 췌석. 그거 인쓰든 뭘 그냥 췌 질루는 거는.{소줄. 그겐 있으면 뭘 그냥 소 기르는 겐은.}



10328 @1 그냥 초른 그냥 무채 쥐마씨?{그냥 풀은 그냥 못째 주나요?}

10328 #1 예.엔나른 \*\* 문채만 주당 내중은 작또.{예. 옛날은 \*\* 못째만 주다가 나중은 작두.}

10328 @1 예.{예.}

10328 #1 작또를 그 쉼을 잘 메기자 해네덜 뭐 늬 혼 지비 하나 허는 거 달마가난 작또를 해가지고 작또로 출 씨렁 허다가 그 작또로 씨는 건또 힘드난 이제 기계.{작두를 그 소를 잘 먹이자 해서들 뭐 남 한 집에 하나 하는 것 닮으니까 작두를 해서 잘두로 풀 썰어서 하다가 그 작두로 씨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 기계.}

10328 #1 기계로 또 요즘 나온 기계더른 뭐 엄청 조치. 그냥 혼 단도 다 드러가게 돼 인 씨. 겐디 이젠 저 출 썰고 뭐허는 거슨 하나도 얻꼬. 사료 인끼 때무네 그건 얻꼬.{기계로 또 요즘 나온 기계들은 뭐 엄청 좋지. 그냥 한 단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는 저 풀 썰고 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사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10328 #1 또 출도 트럭차로 비며는 빌 때 막 허꺼지멍 뽕사지멍 비어정 그거 말르면 또 트럭차로 또 무끄니까 다니 크게 한 단.{또 풀도 트럭차로 베면 벨 때 막 흠어지면서 뽕아 지면서 베어져서 그것 마르면 또 트럭차로 또 묶으니까 단이 크게 한 단.}

10328 #1 게난 요즘 그 혼 다니 무끄고 비고 무끈 까비 이천오베 권. 혼 단.{그러니까 요즘 그 한 단이 묶고 베고 묶은 값이 이천오백 원. 한 단.}

10328 #1 예. 혼 무시엔도 허곡 혼 다넨도 허곡.{예. 한 못이라고도 하고 한 단이라고도 하고.}

10328 @1 게른 아까 시그로 그걸 작두에 씨렁 아까 시그로 거 보리채에 서경 허젠 허민 뒤에 주어날쭈가?{그러면 아까 식으로 그것을 작두에 썰어서 아까 식으로 그것 보릿겨에 섞어서 하려고 하면 무엇에 줬었습니까?}

10328 #1 아 거 저 참 이젠 도로미깥이 저 막 \*\*\*\*\* 그뎨 도로미깥 귀허레 막 뎡겨가지고 도로미깥 두 개로 딱 잘라가지고 그 우에서 출 혼 단 아저다 낱 작또로 씨렁 보릿까루 이러케 서경 머경 그러케 메기는 소는 마장동. 서울 마장동.{아 거 저 참 이제는 드럼통이 저 막 \*\*\*\*\* 그때는 드럼통 구하러 막 다녀서 드럼통 두 개로 딱 잘라서 그 위에서 풀 한 단 가져다 놓아서 작두로 썰어서 보릿가루 이렇게 섞어서 먹여서 그렇게 먹이는 소는 마장동. 서울 마장동.}

10328 @1 혹시 그걸 구시라 안 험니까? 구시.{혹시 그것을 구유라 안 하나요? 구유.}

10328 @2 게난 도로무깥 나기 저네는 뒤에 쥘쭈가? 출.{그러니까 드럼통 나오기 전에는 무엇에 줬습니까? 풀.}

10328 #1 나무.{나무.}

10328 @2 그 나무 이르른 뒤우파?{그 나무 이름은 뒤예요?}

10328 #1 밥통.{밥통.}

10328 @2 그냥 밥통이렌만 해?{그냥 밥통이라고만 해?}

10328 #2 짠. 짠. 나무 허여근에 널만 헨 짜.{짖어. 짖어. 나무 해서 널만 해서 짜.}

10328 #1 나도 돈 어시나네 저 사네 강 나무 허연 완 여기서 나냥으로 토브로.{나도 돈 없으니까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서 와서 여기서 나대로 톱으로.}

10328 @1 아 밥통.{아 밥통.}

10328 #2 쉼 밥통.{소 밥통.}

10328 #1 그 저 만드라네 널 만드란 거 짠 문딱 마드라네 딱 이시난 야네 아버지가 와네

영장 나왔잖 허난 실망이 탁 풀려가지고.{그 저 만들어서 널 만들어서 그것 짜서 몽땅 만들어서 탁 있으니까 애네 아버지가 와서 영장 나왔다 하니까 실망이 탁 풀려서.}

10328 #1 소 사다 노코 밥통 만드라 노코 아 이제 돈 벌 기회를 막 만드라 난는디 군인 영장이 탁 나오니까 그게 완전 그 고비 노쳐부런.{소 사다 놓고 밥통 만들어 놓고 아 이제 돈 벌 기회를 막 만들어 놔는데 군인 영장이 탁 나오니까 그것이 완전 그 고비 놓쳐버렸어.}

10328 #2 막 만드란 손 털멍 세수허젠 험시난 영장이여 허여 노나네.{막 만들어서 손 털면서 세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장이다 해 놓으니까.}

10328 @1 게른 흑씨 쉼죽또 썩 봄따가?{그러면 흑씨 소죽도 썩 봤습니까?}

10328 #2 아이고 썩고 말곡.{아이고 썩고 말고.}

10328 #1 죽? 아 주근 이 탄 부라근 몰라도 그건 얻꼬. 저 일 허젠 흥민 7시락 노코 보리.{죽? 아 죽은 이 다른 마을은 몰라도 그것은 없고. 저 일 하려고 하면 까끄레기 넣고 보리.}

10328 #2 쪽쟁이.{쪽정어.}

10328 #1 줌 노코 케영으네 죽쟁이 줌 그 보리도 나쁜 거 그거 낱 딸령 이제 반 깔레 갈텐 메기곡.{줌 넣고 해서 쪽정어 줌 그 보리도 나쁜 거 그것 넣어서 달여서 이제 밥 갈러 갈 때는 먹이고.}

10328 @1 게난 그 그걸 허면 뭐로 거러날썩가? 그 밥통더레.{그러니까 그 그것을 하면 무엇으로 떠났습니까? 그 밥통으로.}

10328 #1 밥통에 저 옴나른 남제.{밥통에 저 옛날은 국자.}

10328 @1 남제?{국자?}

10328 #2 남자. 남자.{국자. 국자.}

10328 #1 남자. 거 냥으로 만드란는데 이제 삭꾸 모양으로 생겼찌.{남자. 그것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삽 모양으로 생겼지.}

10328 으.{으.}

10328 #1 겐디 이제 그거 인는지? 배수기는 우리 지비 일썩.{그런데 이제 그거 있는지? 죽젓개는 우리 집에 있어.}

10328 @1 배수기?{죽젓개?}

10328 #1 예. 배수기는 게난 연날 그 놀레가 인썩.{예. 죽젓개는 그러니까 옛날 그 노래가 있지.}

10328 #1 부르뎡이. 부르뎡이는 몬 견디게 불 쏘게서 자꾸 이러케 허면서 해노민 내중은 배수기가 드러가가지고 흔들러부러.{부지깽이. 부지깽이는 못 견디게 불 속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해놓으면 나중은 죽젓개가 들어가서 흔들어버려.}

10328 #1 또 내중은 울그미가 가서 확 평 머거부러. 그러케 해가지고 그건또 그 의미가 인는 마를 해나신디.{또 나중은 밥자가 가서 확 떠서 먹어버려.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 의미가 있는 말을 했었는데.}

10333 @1 그다음 흑씨 쉼:. 새까레 따라서 거른 건 거른썩.{그다음 흑씨 소. 색깔에 따라서 검은 것은 검정소.}

10333 #1 예.{예.}

10333 @1 그다음엔 얼룩얼룩헌 소도 인썩 아너우파?{그다음에는 얼룩얼룩한 소도 있지 않습니까?}

10333 #1 어럭췌.{얼룩소.}  
 10333 @1 건 어럭췌우파?{그것은 얼룩소입니까?}  
 10333 #1 예.{예.}  
 10333 #2 속췌.{췌소.}  
 10333 #1 속췌는 또 터러기 속췌로 생겨 이서.{췌소는 또 털이 췌소로 생겨 있어.}  
 10333 @1 속췌는 어떤 거우파?{췌소는 어떤 겁니까?}  
 10333 #2 거믄 주레.{검은 줄에.}  
 10333 @1 예.{예.}  
 10333 #2 노랑 줄.{노랑 줄.}  
 10333 @1 예.{예.}  
 10333 #2 경 헤그네 혼 줄 혼 줄.{그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10333 @1 예.{예.}  
 10333 @2 숙췌.{췌소.}  
 10333 @1 저 호 호랑이.{저 호 호랑이.}  
 10333 #1 호랭이 새까리주게.{호랑이 색깔이지.}  
 10333 @1 예.{예.}  
 10333 #2 게민 흰 저메.{그러면 흰 점에.}  
 10333 #1 아 저 저 속췌 저디 인네.{아 저 저 췌소 저기 있네.}  
 10333 @2 예. 저치룩.{예. 저렇게.}  
 10333 #2 흰 점 이신 건 얼룩췌.{흰 점 있는 것은 얼룩소.}  
 10333 #1 저 흰 점만 빼어볼민 속췌.{저 흰 점만 빼버리면 췌소.}  
 10333 @1 예예예예. 길 속췌예?{예예예예. 그것을 췌소요?}  
 10333 #1 예. 속췌.{예. 췌소.}  
 10333 @1 아아.{아아.}  
 10333 #1 꺼믄췌 속췌 황새 어럭췌 이러케.{검정소 췌소 황소 얼룩소 이렇게.}  
 10333 @1 예. 어럭췌. 예예.{예. 얼룩소. 예예.}  
 10333 @2 게믄 세 가지라마씨?{그러면 세 가지인가요?}  
 10333 #1 흑씨 여기 이마에.{흑시 여기 이마에.}  
 10333 #1 황새 어럭췌 속췌 꺼문췌 네 가지.{황소 얼룩소 췌소 검정소 네 가지.} 10333  
 #2 태상베기.{대성소.}  
 10333 @1 여기 하얀 저미 인는.{여기 하얀 점이 있는.}  
 10333 #1 태상바기.{대성소.}  
 10333 @2 건 췌도 태상베기가 이십니까?{그것은 소도 대성소가 있습니까?}  
 10333 #1 아 이제도 인쭈 뭐.{아 이제도 있지 뭐.}  
 10333 @1 예. 흑씨 요러케 요 바레 하얀 털 인는 건또 인쭈가?{예. 흑시 요렇게 요 발에  
 하얀 털 있는 것도 있습니까?}  
 10333 #1 예. 그건또 인쭈.{예. 그것도 있지.}  
 10333 @1 건 뭇엔 험니까?{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333 #1 저 쪽빠레 회얼췌.{저 족발 하했다.}  
 10333 @1 예.{예.}  
 10333 #1 쪽빨 회얼췌.{족발 하했다.}

10333 @1 족빠기.{족백이.}

10333 #1 우리 소털 이제 네 개가 다 족발 다 히어.{우리 소들 이제 네 개가 다 족발 다 하애.}

10333 #2 일리불민 춘끼 쉽게.{잃어버리면 찾기 쉽게.}

10333 @1 족빠기에?{족백이요?}

10333 #1 예. 뒷발만 미테로 다 히니까 형님네 쉰 족발 다 히어 영. 게도 흰 쉰 안 난다 마려 . 영 허곡.{예. 뒷발만 밀으로 다 히니까 형님네 소는 족발 다 하애 이렇게. 그래도 흰 소는 안 낳는다 말야. 이렇게 하고.}

10333 #1 우리 쉰더른 그 어러기나 아직 온 굳게 나며는 이제 도늘 영 안 줘. 오시 고와야. 어러또 곧싸 태상베기도 안 돼고 속췌도 안 돼고 꺼문췌도 안 돼고 어떠튼 황으로 곱딱 커게 나야.{우리 소들은 그 얼룩소나 아직 옷 곱게 낳으면 이제 돈을 전혀 안 주지. 옷이 고와야. 얼룩소도 아까 대성소도 안 되고 휼소도 안 되고 검정소도 안 되고 어떻든 황으로 곱게 낳아야.}

10333 #1 경 오시 곱게 이브민 여자 요즘 처녀덜 온 곱게 이브민 총가기 빨리 붙뜨끼 오시 곱게 이버야 췌장시가 빨리 와.{그렇게 옷이 곱게 입으면 여자 요즘 처녀들 옷 곱게 입으면 총각이 빨리 붙듯이 옷이 곱게 입어야 소장수가 빨리 와.}

10334 @1 건 새까리고 이버는 빨. 빨도?{그것은 색깔이고 이번은 빨. 빨도?}

10334 #1 아 겐디 그거는 큰 요즘 크게 뭐 허질 안 하더라고. 빨 인꼬 얹는 거. 빨 얹는 췌도 인꼬 인는 췌도 인꼬.{아 그런데 그것은 큰 요즘 크게 뭐 하지를 안 하더라고. 빨 있고 없는 거. 빨 없는 소도 있고 있는 소도 있고.}

10334 @1 게난 빨도 영 도든 거 인꼬.{그러니까 빨도 이렇게 돌은 거 있고.}

10334 @2 여프로 영 현 겐또 인꼬.{옆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10334 @1 영 현 겐또 인꼬 영 오그라진 겐또 인꼬.{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10334 #1 엉게뿌리여 뭐.{엉게빨이다 뭐.}

10334 예?{예?}

10334 #1 엉게빨.{엉게빨.}

10334 @1 예.{예.}

10334 #1 엉게빨 이거 저 겐이 모양에 엉게빨 현 거여. 천상뿌리여 뭐 빨집제기 뭐 이러케 여러 가지로 겐또.{엉게빨 이거 저 게 모양에 엉게빨 한 거다. 곧추빨이다 뭐 빨집제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것도.}

10334 @2 천상뿌른 어떤 거우파?{곧추빨은 어떤 거예요?}

10334 #1 예?{예?}

10334 #2 천상뿌른?{곧추빨은?}

10334 #1 천상뿌른 우티레 영 허는.{곧추빨은 위로 이렇게 하는.}

10334 @2 빨집제긴?{빨집제기는?}

10334 #1 예. 이제 영 겐게뿌른 이렇게 영 오그라진 거고.{예. 이제 이렇게 겐게빨은 이렇게 이렇게 오그라진 것이고.}

10334 @1 영 오그라진 거.{이렇게 오그라진 것.}

10334 @1 예예. 또 이제 빨 두이로 제작킨 게 인는데.{예예. 또 이제 빨 뒤로 제쳐진 것 있는데.}

10334 #2 빨자치기.{빨제제기.}

10334 #1 그거는 만무하는데 저 지바네서 빨젹제기가 인쓰민 재수가 업써서 쉼도 잘 안 된다고 허더니. 마저. 나도 그 빨젹제기가 이시킨 마니 주겨머거신디.{그것은 만무하는데 저 집안에서 빨젹제기가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소도 잘 안 된다고 하더니. 맞아. 나도 그 빨젹제기가 있으니까 많이 죽어먹었는데.}

10334 @2 빨젹제기?{빨젹제기?}

10334 #1 예. 두이로 영 빨 제작헌 거.{예. 뒤로 이렇게 빨 제쳐진 것.}

10334 #1 겐디 뽀때도 업써. 웨레 빨 어신 건만 몬테.{그런데 뽀때도 없어. 외려 빨 없는 것만 못해.}

10334 @2 빨 어신 거는 또 부르는 이름 인썬가?{빨 없는 것은 또 부르는 이름 있습니까?}

10334 #1 두렁머리.{두렁머리.}

10334 @1 아.{아.}

10334 #1 두렁머리. 뿌리 업쓰니까 두렁머리.{두렁머리. 빨이 없으니까 두렁머리.}

10334 @2 두렁머리. 그냥 빨 이신 거는 다른?{두렁머리. 그냥 빨 있는 것은 다른?}

10334 #1 예. 다른 거 업꼬.{예. 다른 것 업고.}

10334 #2 빨로 허영 다 이름.{빨로 해서 다 이름.}

10334 #1 천상빨 뭘. 이제 빨 일름프로만 허곡. 그 두렁머리는 물 모양에 녹때 헤영 썬와야 되니까.{곧추빨 뭘. 이제 빨 이름으로만 하고. 그 두렁머리는 말 모양에 굴레 해서 썬와야 되니까.}

10334 @1 예.{예.}

10334 #1 흐썬 이 키우는 사르문 덜 조아허는데 그 소장시덜 막 커는 디서는 뭘 크게 무신 제지나는 아 너고 어럭 꺼문 거 이런 거는 제가 지는디 이런 거는 어러근 순노미나 프라 먹지 암노문 건 키우다가 자기가 자바멍는 거베피 잘 몬테. 가격 차이가 업청나.{조금 이 키우는 사람은 덜 좋아하는데 그 소장수들 막 하는 데서는 뭘 크게 무슨 제지는 안 하고 얼룩 검정 거 이런 것은 제가 지는데(?) 이런 것은 얼룩은 수놈이나 팔아먹지 암놈은 그것은 키우다가 자기가 잡아먹는 것밖에 잘 못해. 가격 차이가 업청나.}

10334 @1 건 어러근 무사 생검신고예?{그것은 얼룩은 왜 생기는가요?}

10334 #1 연나른 어럭또 쉼가 쉼차느며는 뭘 아라쥬신디 이젠 그 어러기엔 현 건 영.{옛날은 얼룩도 소가 괜찮으면 뭘 알아쥬는데 이제는 그 얼룩이라고 한 것은 전혀.}

10334 #2 부릴 땐 현디 이젠 프랑멍는 따문 그런 거는.{부릴 때는 하는데 이제는 팔아먹는 따문 그런 것은.}

10334 #1 겐디 자바멍는 디 그 고기는 나 ㄴ튼 걸로 아는데 어러글 영 안 아라쥬. 가격 차이가 업청나.{그런데 잡아먹는 데 그 고기는 나 같은 것으로 아는데 얼룩은 전혀 안 아라쥬. 가격 차이가 업청나.}

10334 @2 아까 부룽이도 ㄴ란게마는 부룽인 뭘우파?{아까 부록소도 말하던데 부록소는 뭘니까?}

10334 #1 부룽이는 수커.{부록소는 수컷.}

10334 @2 그다으메 암커는?{그다으메 암컷은?}

10334 #1 암췌.{암소.}

10334 #2 새끼 나는 건 암췌.{새끼 낳는 것은 암소.}

10335 @1 그럼 이제는 쉼 한 사를 뭐렌 부르니까?(그럼 이제는 소 한 살을 뭐라고 부르  
나요?)

10335 #1 금승.{금승.}

10335 @1 두 사른?(두 살은?)

10335 #1 다간.{두습.}

10335 @1 세 사른?(세 살은?)

10335 #1 사릅 나릅 다습.{사릅 나릅 다습.}

10335 @1 으선 싸른?(여섯 살은?)

10335 #1 으습.{여습.}

10335 #2 그치룩만 해가든.{그렇게만 해가면.}

10335 #1 일곱. 으답. 으답 너머가민 쉼을 아이고 나이 드런쨌. 이거 열 썰도 너먼쨌. 열두  
설도 쨌 거 담따. 이러케. 으답꺼지는 품주로 그냥 올라가고.{일곱. 여덟. 여덟 넘어가면 소  
를 아이고 나이 들었다. 이거 열 살도 넘었다. 열두 살도 된 거 같다. 이렇게. 여덟까지는  
품수로 그냥 올라가고.}

10335 @2 아홉 씨른 안 ㄱ라마씨?(아홉 살은 안 말하나요?)

10335 #1 으 아홉 설부터는 뭐 에이고 저거 아홉 씨리라도 아홉 썰 너른 거 담따. 열 설도  
너먼쨌. 열두 설 담따. 열세 설 담따.{아 아홉 살부터는 뭐 아이고 저거 아홉 살이라도 아홉  
살 넘은 것 닐다. 열 살도 넘었다. 열두 살 닐다. 열세 살 닐다.}

10335 #1 쉼가 여덟 씨를 너머가며는 열구리. 오닐 노래자랑에도 보나넌 열구리 서른 난  
사르른 막 어린아이 담꼬. 혼 쓰물두 설 난 사르른 막 늘그니로 보이든끼 소도 경 허는 거  
라.{소가 여덟 살을 넘어가면 열구리. 오늘 노래자랑에도 보니까 열구리 서른 된 사람은 막  
어린아이 같고. 한 스물두 살 된 사람은 막 늙은이로 보이듯이 소도 그렇게 하는 거야.}

10335 #1 으덱 씨리 너머가민 뿔때로 아라집쭈.{여덟 살이 넘어가면 뿔대로 알아지지요.}

10335 #1 두렁머리는 뿔로 모르는데 뿔 인는 소는 으덱 썰ㄱ지는 모자기 일췌.{두렁머리는  
뿔로 모르는데 뿔 있는 소는 여덟 살까지는 마디가 있어.}

10335 @1 아 뿔레.{아 뿔에.}

10335 #1 예예. 구브로 이거 툽툽툽툽 으덱 썰까지는 아라지는데 으덱 씨리 너머가며는 이  
제 해까닥허는 거.{예예. 밀으로 이거 툽툽툽툽 여덟 살까지는 알아지는데 여덟 살이 넘어  
가면 이제 헛갈리는 거.}

10335 @1 이빨론 보지 아넌니까?(이빨로는 보지 않나요?)

10335 #1 이빠른 저 다가네서 사릅 사이에 이빠를 ㄱ니까.{이빨은 저 두습에서 사릅 사이  
에서 이빨을 가니까.}

10335 @1 으.{아.}

10335 #1 그때는 뭐 그건 뭐 어린 때나네 그 헌디 내중은 이빨 혼 번 굴민 그것이 ㄱ시니  
까.{그때는 뭐 그것은 뭐 어린 때니까 그 하는데 나중은 이빨 한 번 갈면 그것이 끝이니  
까.}

10335 @1 아 그러우파?(아 그렇습니까?)

10335 #1 게난 니빨 ㄱ라가민 불췌 췌가 틀려. 풀 잘 몬 머그니까. 쭈러가지고.{그러니까  
이빨 갈아가면 불췌 소가 달라. 풀 잘 못 먹으니까. 여위어서.}

10335 @1 게른 췌 질드릴 뻔 뻔 싸레 질드림니까?(그러면 소 길들일 때 몇 살에 길들이  
나요?)

10335 #1 사르베 젤.{사릅에 젤.}

10335 @1 사르베?{사릅에?}

10335 #1 예. 숙썩헌 노른 다가네 허여야 더 잘 쥔덴 해도 다가는 어려노난 허고 사르비 젤 양오헌 때.{예. 숙성한 놈은 두습에 해야 더 잘 된다고 해도 두습은 어리니까 하고 사릅이 젤 양호한 때.}

10335 #1 짐 시끄는 거나 받 까는 거나 사르베 몬 ㄹ리치민 나릅 돼어가민 구눔 드렁 히미.{짐 싣는 것이나 받 가는 것이나 사릅에 못 가르치면 나릅 되어가면 궁흥 들어서 힘이.}

10336 @1 혹시 조은 소를 고르젠 허민 어떻 어떤 소를 고르면 조으코마씨?{혹시 좋은 소를 고르려고 하면 어떤 어떤 소를 고르면 좋을까요?}

10336 #1 게난 연날. 엔나른 그 잘사는 사릅더른 일 뭐 새끼 나킨 안 나킨 이 쟁기질 허는 걸 허곡 짐 싣른 거 생각케가지고 황소. 그 수눔. 부롱이 그런 거 허영으네 나릅 돼며는 불깡 중성기.{그러니까 옛날. 옛날은 그 잘사는 사람들은 일 뭐 새끼 낳든 안 낳든 이 쟁기질 하는 것을 하고 짐 싣는 거 생각해서 황소. 그 수눔. 부록소 그런 것 해서 나릅 되면 불까서 악대소.}

10336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336 #1 중성기 헤가지고 쉼가 불까며는 확 피어나지.{악대소 해서 소가 불까면 확 피어나지.}

10336 #1 확 피어나민 아픈 하지 안 허곡. 예 부롱이 땀 아피가 조록 뒤는 빨런따가 부를 까불며는 뒤도 퍼지곡 아픈 더 퍼지지. 경 허영 이제 \*\*\* 허켄 허멍 저 쟁기질 잘허곡. 힘 조아.{확 피어나면 앞은 많지 안 하고. 아 부록소 때는 앞이 좋고 뒤는 빨렸다가 불을 까버리면 뒤도 퍼지고 앞은 더 퍼지지. 그렇게 해서 이제 \*\*\* 하겠다고 하면서 저 쟁기질 잘하고. 힘 좋아.}

10336 #1 그 부롱이론 허며는 이 암썰 봐져가민 그냥 사라미 히프로 소 땡길 쑤가 업쑤게.{그 부록소로 하면 이 암소를 보이면 그냥 사람의 힘으로 소 당길 수가 없지.}

10336 #1 게난 코 꿰고 해도 그 부롱이 춘는 쉼가 여프로 너머가민 냄새가 탁 나는 모양이라. 땡기지 못터난 불까땡 순너게 허영 그런 쉼는 열다섯 스물까지도 마니 키완.{그러니까 코뚜레 꿰고 해도 그 부록소 차는 소가 옆으로 넘어가면 냄새가 탁 나는 모양이야. 당기지 못하니까 불까두고 순하게 해서 그런 소는 열다섯 스물까지도 많이 키웠어.}

10336 @1 그럼 아까 세 사레 쉼을 부리젠 길드릴 꺼 아니우파?{그럼 아까 세 살에 소를 부리려고 길들일 것 아닙니까?}

10336 #1 예.{예.}

10336 @1 그럼 그때 불까니까? 부른 땀 싸레?{그럼 그때 불까나요? 불은 몇 살에?}

10336 #1 아 나릅 나릅.{아 나릅 나릅.}

10336 @1 아 나르베?{아 나릅에?}

10336 #1 예.{예.}

10336 @1 아 나르베. 혹시 불 어떻게.{아 나릅에. 혹시 불 어떻게.}

10336 #1 이제는 불까는 거 금승에.{이제는 불까는 것 하릅에.}

10336 @1 예.{예.}

10336 #1 혼 서레. 금승에 햄쑤마는 그때는 혼 서레 불까는 건 몬 빠시난. 땀 부라겐 몰라도 이 중문 안네는 다 나가 아라지니까.{한 살에. 하릅에 하고 있지만 그때는 한 살에 불까는 것 못 봤으니까. 다른 마을에는 몰라도 이 중문 안에는 다 내가 알아지니까.}

10336 @1 계난 그때 부른 어떻 까난쭈가? 순설 혼번 ㄱ라봍썸?{그러니까 그때 불은 어떻게 잤었습니까? 순서를 한번 말해보십시오?}

10336 #1 걷또 불까젠 허면 사름 거 참 줌 썬에 대한 경녀 인는 사람.{그것도 불까려고 하면 사람 거 참 줌 소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336 #1 그걸 눅져 낱 하 상당히 힘드런쥬. 장남덜 막 비러다가 네 발 무꺼가지고 누르땡 눅질 때가 쥬 힘드러.{그것을 눅혀 놓아서 하 상당히 힘들었지. 장정들 막 빌려다가 네 발 묶어서 눌러서 눅힐 때가 쥬 힘들어.}

10336 #1 뉘 노키만 허민 돼는디 눅끼가 상당히 힘드는. 거 네 발 무경으네 그 뭐야. 썰로 그 참 썰로 무꺼가지고 불까네 약또 뭐냐면 연나레 그 저 뭐야?{누워 놓기만 하면 되는데 눅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것 네 발 묶어서 그 뭐야. 실로 그 참 실로 묶어서 불까서 약도 뭐냐하면 옛날에 그 저 뭐야?}

10336 @2 아까쟁기?{아까쟁기?}

10336 @1 옥또쟁기?{옥도쟁기?}

10336 #1 옥또쟁기 아까쟁기 건 업썸쑤. 저 아까 개팍낭. 개팍낭에 거 뭐 하얏헌 거 아라 집쭈. 거 무런는데.{옥도쟁기 아까쟁기 그것은 없었고. 저 아까 쥐똥나무. 쥐똥나무에 거 뭐 하얀 것 알쥬지요. 그것 물었는디.}

10336 @2 백뻔이라.{백번이야.}

10336 #1 백뻔.{백번.}

10336 @1 예예.{예예.}

10336 #1 그걸로 카바를 시키는 거.{그것으로 커버를 시키는 거.}

10336 #1 계난 연날 참 이 세상 발가오는 게 하루빠미는 확콱 발가점서.{그러니까 옛날 참 이 세상 밝아오는 것이 하룻밤에는 확콱 밝아지고 있어.}

10336 @1 아 계난 어떤 디 강 조사허다보민예 그걸.{아 그러니까 어떤 데 가서 조사하다 보면요 그것을.}

10336 #1 이제야 불까민 뭐 즉씨 그 옥또정기 그 수의사가 탁 아정왕 탁탁 처단 해부런 노난 뭐 걱쟁어시 뭐 후독이 하나도 업는디. 연나른 정말 허민 뭐 비린 사름도 몬 땡기고 상당히 고심썸쭈.{이제야 불까면 뭐 즉시 그 옥또정기 그 수의사가 탁 가져와서 탁탁 처단 해버려 놓으니까 뭐 걱정없이 뭐 후독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은 정말 하면 뭐 부정한 사람도 못 다니고 상당히 고심했지.}

10336 #1 이제는 뭐 소 하나 주근 거 아무 걷또 아닌디 연나른 소 하나 주건따 허면 황소 하나 주건따 허면.{이제는 뭐 소 하나 죽은 거 아무 것도 아닌디 옛날은 소 하나 죽었다 하면 황소 하나 죽었다 하면.}

10336 @1 거 재산난디.{그것 재산인데.}

10336 #1 음. 크닐 날쭈. 크닐.{음. 큰일 났지. 큰일.}

10336 @1 아 계난 어린 때 가보면 덩드렁에다가 덩드렁마께로 부를 깔따고 허는 거라예. 부를.{아 그러니까 어릴 때 가보면 덩드렁에다가 덩드렁마께로 불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불을.}

10336 #1 아 경은 아녀고. 아 그런 건 난.{아 그렇게는 앓고. 아 그런 것은 나는.}

10336 @1 그냥 썰로 무경.{그냥 실로 묶어서.}

10336 #1 예. 썰로 무경 거 불까뵤 그걸또 야기엔 그걸 씨썸쭈.{예. 실로 묶어서 거 불까 두고 그것도 약이라고 그것을 썼지요.}



10336 @2 그 쉼 키우젠 허면 아까 이 코 꿰는 거 인짜너우파예?{그 소 키우려고 하면 아  
 까 이 코 꿰는 것 있잖습니까?}

10336 #1 예.{예.}

10336 @2 건 뭐렌 해마씨? 일름.{그것은 뭐라고 하나요? 이름.}

10336 #1 코 꿰는 거 보고.{코 꿰는 것 보고.}

10336 @2 예.{예.}

10336 #1 아 건 코 꿰는 건디 코는 그 쉼 놀래엔 인쥬.{아 그것은 코 꿰는 것인데 코는 그  
 소 노래에는 있지.}

10336 #1 푸스므로 코 꿰곡 이제 소낭 질메에 보리낭 도고메 또 멍에는 이제 버드낭 멍에  
 에 이제 삼동낭 접게에 이러케 해서 해주며는 삼 녀늘 더 이를 해주겠다. 그런 놀래가 이션  
 는디.{오미자줄로 코 꿰고 이제 소나무 길마에 보릿대 땀치에 또 멍에는 이제 버드나무 멍  
 에에 이제 삼동나무 목대에 이렇게 해서 해주면 삼 녀늘 더 일을 해주겠다. 그런 노래가 있  
 었는데.}

10336 @2 그 노래 한번 불러 봅써?{그 노래 한번 불러 보십시오?}

10336 #1 예?{예?}

10336 @1 그 노래 한번 불러 봅써?{그 노래 한번 불러 보십시오?}

10336 #1 그게 몬딱 약컨 걸로만 만든 거라.{그것이 몽땅 약한 것으로만 만든 거야.}

10336 @1 건 놀래가 아니고 그러케 한단 애기지.{그것은 노래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애  
 기지.}

10336 #2 쉼에 드러가는.{소에 들어가는.}

10336 #1 그 쉼에 드러가는 게 그러케 거분 거. 보리낭 도고몬 아 짐 시켜도 그거 뭐 무게  
 가 업쓰난 보각커고 조코 또 소나무가 그 말르민 거봅써.{그 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가  
 베풀 거. 보릿대 땀치는 아 짐 실어도 그거 뭐 무게가 없으니까 보각하고 좋고 또 소나무  
 그 마르면 가볍지.}

10336 #1 게난 소나무로 질메 해주곡.{그러니까 소나무로 길마 해주고.}

10336 #1 이 멍에는 버드나무로 해주곡.{이 멍에는 버드나무로 해주고.}

10336 #2 코 꿰는 겐?{코 꿰는 거.}

10336 #1 푸슴. 겐또 푸스미엔 힌 게 고지 가며는.{푸슴. 그것도 푸슴이라고 한 것이 숲에  
 가면.}

10336 #2 너딩.{덩굴.}

10336 #1 너딩인데 그 저 영 문질문질허여. 문질문질허니까 그걸로 코 꿰고 해주며는 삼  
 녀늘 이를 더 해준다. 게난 소에게 폐난헌 거만 해달라는 거지.{덩굴인데 그 저 이렇게 미  
 끈미끈해. 미끈미끈하니까 그것으로 코 꿰고 해주면 삼 녀늘 일을 더 해준다. 그러니까 소  
 에게 편안한 것만 해달라는 것이지.}

10336 @1 무겁찌도 안코 \*\*\*\*.{무겁지도 않고 \*\*\*\*.}

10336 @2 너딩이 어떤 거우파?{덩굴이 어떤 것입니까?}

10336 #1 예?{예?}

10336 @1 너딩이?{덩굴이?}

10336 #2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서.{나무에 올라가는 것 있어.}

10336 #1 게난 그.{그러니까 그.}

10336 #2 줄ㄴ썩 쭉 올라가는 거.{줄처럼 쭉 올라가는 거.}

10336 #1 이르미 득렌빠렌 현 건디 득레나문데.{이름이 다래빨이라고 한 것인데 다래나무 인데.}

10336 @2 예.{예.}

10336 #1 뭐 강원도엔 그 득레도 흑꼬 제주 할라사네는 득렌빠리 득레가 흑찐 안 허는디 그 득렌빠리엔 현 노미 이디 호박줄 모양에 번는 중늬데.{뭐 강원도에는 그 다래도 굵고 제주 한라산에는 다랫발이 다래가 굵지는 안 하는데 그 다래나무라고 하는 놈이 여기 호박줄 모양으로 뻗는 종류인데.}

10336 #1 그 득레 저 득렌쭈른 해다가 해너덜 망사리 이러케 둘러진 겐또.{그 다래 저 다래나무는 해다가 해너덜 망사리 이렇게 둘러진 것도.}

10336 @2 예웁.{예웁.}

10336 @1 예. 망사리 예웁. 예 예웁.{예. 망사리 예웁. 아 예웁.}

10336 #1 예 예웁.{예 예웁.}

10336 @2 여긴 어우미렌 험신게.{여기는 예웁이라고 하네요.}

10336 #1 어웁.{예웁.}

10336 @1 음.{음.}

10336 #1 그걸 허곡. 그 빨리를 캐어다가 그걸 아까 덩드렁에 쉼 부를 묻는 게 아니고 그 너딩을 덩드렁에서 뺏사가지고 그걸 달랑 그걸로.{그것을 하고. 그 뿌리를 캐다가 그것을 아까 덩드렁에 소 불을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덩굴을 덩드렁에서 뺏아서 그것을 다루어서 그것으로.}

10336 #2 거죽 뻗겨부러야.{겉질 벗겨버려야.}

10336 #1 이제 쉼 멍에 허는 그 솜비줄.{이제 소 멍에 하는 그 붓줄.}

10336 @1 예예. 솜비줄.{예예. 붓줄.}

10336 #1 솜비주리 춤 뒤편 사름드른 그 나이롱 쥘 사당으네 요 정도 술진 노프로 그 나이롱 쭈른 히미 안 나.{붓줄이 참 뒤편 사람들은 그 나일론 줄 사다가 요 정도 굵은 놈으로 그 나일론 줄은 힘이 안 나.}

10336 #1 그 너딩으로 만드는 건 홀모기마니 허영 뻗뻗터머는 새바슬 가나 뿔터나 허면 쟁기를 툭툭 지쳐주머는 그 나무 모양에 삐쭉히니까 소가 한결허는디 나이롱 쭈른 꺾는 거 영 해노민 히미 굵 드러가지고 그 받 까는 타이비 안 마자.{그 덩굴로 만드는 것은 손목만 큼 해서 뺏뺏하면 띠발을 가나 무엇하나 하면 쟁기를 툭툭 지쳐주면 그 나무 모양에 뺏뺏히니까 소가 한가하는데 나일론 줄은 가는 것 이렇게 해놓으면 힘이 굵 들어서 그 밭 가는 타 입이 안 맞아.}

10336 #1 그래서 나는 그 사네 강 즈 자명 바메 돌트멍에서 즈자명 그 너딩 해당 문딱 헨 판 아 이 집 지을 때 우리 아이덜신디 몬 태우게 허단 보난 불써 부레 드러강 타부런.{그래서 나는 그 산에 가서 잠자면서 밤에 돌틈에서 잠자면서 그 덩굴 해다가 몽땅 했다가 아 이 집 지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못 태우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불에 들어가서 타버렸어.}

10336 @2 게문 그 너딩이 그 득렌빨 빨리가 너딩이우파?{그러면 그 덩굴이 그 다래나무 뿌리가 너딩입니까?}

10336 #1 득렌빨 빨리가 너딩.{다래나무 뿌리가 너딩.}

10336 @2 아 빨리가.{아 뿌리가.}

10336 #1 예. 너딩으로 솜비주를 만드런쭈.{예. 다래나무 뿌리로 붓줄을 만들었지.}

10336 @2 그러머는.{그러면.}

10336 #1 발 까는.{발 가는.}

10336 @2 득렘빠른 그 줄기로는 아까 어음하고 그 빨리로는.{다래나무 뿌리는 그 줄기로는 아까 에음하고 그 뿌리로는.}

10336 #1 녕쿨. 녕쿨은 녕쿨은 이제 어음 바다에 탕기는 어음허고.{덩굴. 덩굴은 덩굴은 이제 에음 바다에 다니는 에음하고.}

10336 @2 너덩은 빨리로는.{너덩은 뿌리로는.}

10336 #1 그 빨리는 너덩이라고 헤가지고 케어다가 그건또 저 올레만씩 허주.{그 뿌리는 너덩이라고 해서 캐다가 그것도 저 올레만큼씩 하지.}

10336 @2 아 빨리도마씨?{아 뿌리도요?}

10336 #1 예. 재수 조민 세 빨리만 허민 세 그 솜비줄 양조글 만들 쑤 인쑤. 그 양조기 일 메다 오십씩 만드는 걸 헐 쑤 인쑤.{예. 재수 좋으면 세 뿌리만 하면 소 그 붓줄 양쪽을 만들 수 있지. 그 양쪽이 일미터 오십씩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어.}

10336 @2 게몬 엔나레 그 너덩으로 뭐 굴체를 짜거가 저기 구덕또 짜거나 헐쑤가?{그러면 옛날에 그 다래나무 뿌리로 뭐 삼태기를 짜거나 저기 바구니도 짜거나 했습니까?}

10336 #2 구덕또 짜고.{바구니도 짜고.}

10336 #1 아 그거 말고 그건 딱난 거.{아 그것 말고 그것은 다른 거.}

10336 #2 겨우다게.{그겁니다.}

10336 #1 허이 춤. 줄갱이쑤.{아이 참. 으름덩굴 줄기.}

10336 @2 줄갱이쑤. 곧쑤 줄갱이쑤.{으름덩굴 줄기. 방금 으름덩굴 줄기.}

10336 #1 아이 그건.{아니 그것은.}

10336 #2 줄갱이쑤 ㄴ는 거 헤당으네 굴체도 허곡.{으름덩굴 줄기 가는 것 헤다가 삼태기도 하고.}

10336 #1 그거 줄갱이쑤. 줄 거더당 줄갱이쑤렌 안 허고 줄 거더당.{그거 으름덩굴 줄기. 으름덩굴 걷어다가 으름덩굴 줄기라고 안 하고. 으름덩굴 걷어다가.}

10336 @2 예. 줄.{예. 으름덩굴.}

10336 #1 에 저 솔떠 낵 쫄망 허민 허영케 꺾쪽 버스몬 송쿠리도 만들고 바굼지도 만들민 먼썰쑤.{에 저 솔에 넣어서 삶아서 하면 하얗게 꺾질 벗으면 소쿠리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들민 멋졌지.}

10336 #1 겐디 또 그걸로. 이제 굴체 만드는 건 야속커게 솜찌 아녕 그냥 거더왕 막빠로 굴체는 만드랑 돈결름 내곡.{그런데 또 그것으로. 이제 삼태기 만드는 것은 야무지게 삶지 않고 그냥 걷어와서 막바로 삼태기는 만들어서 돼지거름 내고.}

10336 #2 막 잘허는 사르미나 걸로 헐쑤. ㄸ그로 즈랑으네.{막 잘하는 사람이나 그것으로 했지. 찢으로 걸어서.}

10336 @2 ㄸ그로도 줄고?{찢으로도 걸고?}

10336 #1 겐디 ㄸ근 무리 머그민 무거운디 조른 무겁찌 절때 무겁찌 아녀.{그런데 찢은 물을 먹으면 무거운데 으름덩굴은 절때 무겁지 않아.}

10336 #2 야속컨 사르미.{야무진 사람이.}

10336 #1 게난 굴체가 세 가지로 만드는 건디. 아 네 가지로구나.{그러니까 삼태기가 세가지로 만드는 것인데. 아 네 가지로구나.}

10336 #1 찢그로 만드는 게 인꼬 ㄸ그로 만드는 게 인꼬 대로 만드는 게 인꼬 줄로 만드는 게 인는다.{짚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찢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대로 만드는 것이 있고 으름

덩굴로 만든 것이 있는데.}

10336 #1 그 젤 오래 못 쓰는 건 대. 그다음은 젤 오래 써지는 건 줄. 게부면서 오래 써져.{그 젤 오래 못 쓰는 것은 대. 그다음은 젤 오래 써지는 것은 으름덩굴. 가벼우면서 오래 써져.}

10336 @1 아아.{아아.}

10336 #1 대는 박커게 쓰민 뭐 몰르른 거꺼지꼭 부서지고 이러는디 그자 야속커게 고치나 다망 텅기꼭 간판넌 용은 대가 조꼭.{대는 박하게 쓰면 뭐 마르면 꺾어지고 부서지고 이러는데 그저 야무지게 고추나 담아서 다니고 간단한 용은 대가 좋고.}

10336 #1 그 조른 찢기고 돌결름도 내당 도래 탁 부쳐도 머 터러정 조꼭 다 조꼭.{그 으름덩굴은 질기고 돼지거름도 내다가 돌에 탁 부딪쳐도 뭐 떨어져서 좋고 다 좋고.}

10336 #1 끄근 일넌. 이노프 게 썩길 제게 써거부러. 저지면 그냥 써그민 빌빌.{썩은 일넌. 이놈의 것이 썩기를 재우 썩어버려. 젓으면 그냥 썩으면 빌빌.}

10336 #1 찌그로 굴체를 만든 건 보민 또 무겁기만 하고 오래가지 안코. 비 마지민 건 끄시여.{짚으로 삼태기를 만든 것을 보면 또 무겁기만 하고 오래가지 않고. 비 맞으면 그것은 끝이야.}

10336 #1 게난 요즈믄 나이롱 줄은 비 마자도 조코 베퍼 상는 건데. 이 찌근 비 마지민 안웨고 뻔뻔 조아.{그러니까 요즘은 나일론 줄은 비 맞아도 좋고 별에는 삭는 것인데. 이 짚은 비 맞으면 안 되고 별에는 좋아.}

10336 #1 게난 연날 쉼 질를 땀 찌그로 쉼썩글 만들민 머거부러. 멍는 쉼가 일썩.{그러니까 옛날 소 기를 때는 짚으로 쇠줄을 만들면 먹어버려. 먹는 소가 있어.}

10336 @2 예예예예.{예예예예.}

10336 #2 찌그로 굴체도 허여.{짚으로 삼태기도 해.}

10336 #1 어이 굴체 허주.{아이 삼태기 하지.}

10336 #2 푸지게 헐쭈. 돌 지는 거.{푸지게 했지. 돌 지는 거.}

10336 #1 푸지게는 돌 질 때 건 뭐 간판니 만드는 이리고. 굴체는 그 노짱 다 헤영으네 멍텅이 줄든 여깡 허는 거.{푸지게는 돌 질 때 그것은 간단하게 만드는 일이고. 삼태기는 그 노꼬아서 다 해서 먹둥구미 겹듯 엮어서 하는 거.}

10336 #1 게난 이제 그 연날 이거 곧는 거는 내가 즈신히고 다 헤지는 거.{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이거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신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10336 @2 예예예예.{예예예예.}

10336 #1 굴체건 너딩 거더오는 거건 솜비줄 만드는 거건 쟁기건 멍에건 그건 나가 다 만들 쭈 인는 거. 연날 물거는.{삼태기든 다래나무뿌리 걸어오는 것이든 붓줄 만드는 것이든 쟁기든 멍에든 그것은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옛날 물건은.}

10336 @2 아까 그 쉼. 쉼 키우젠 허면 쉼석 피료허덴 허지 아너우파예? 줄 매러 갈 때 영메는 건 뭐우파?{아까 그 소. 소 키우려고 하면 소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줄 매러 갈 때 이렇게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336 #1 아 줄대.{아 줄대.}

10336 @2 줄대렌 험니까?{줄대라고 하나요?}

10336 #2 쉼줄.{소줄.}

10336 #1 쉼줄.{소줄.}

10336 @2 쉼줄. 쉼주른 이러케 주리고 그다음 이러케 방는 거 인짜너우파?{소줄. 소줄은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 이렇게 박는 것 있잖습니까?)

10336 #1 아 건 이제는.{아 그것은 이제는.}

10336 #2 말톡.{말톡.}

10336 #1 이제는 그 췌로 헤가지고 불미왕에 강 꼬부런 헨쭈마는 엔나른 나무 만들 땀 그 말토기 뭐로 허느냐면 틀낭이라야 돼. 틀나무. 틀낭이 찢기고 그 돌맹이로 때려도 제기 벌러지지 아녀.{이제는 그 쇠로 해서 대장간에서 가서 꼬부려서 했지만 옛날은 나무 만들 때는 그 말톡이 뭐로 하느냐하면 산딸나무라야 돼. 산딸나무. 산딸나무가 찢기고 그 돌맹이로 때려도 빨리 벌어지지 않아.}

10336 #1 게난 틀낭 몬턴 사르른 솔피낭. 솔피낭은 쟁기 만드는 낭인데.{그러니까 산딸나무 못한 사람은 솔비나무. 솔비나무는 쟁기 만드는 나무인데.}

10336 @1 예예예.{예예예.}

10336 #1 그 솔피낭으로도 만들고.{그 솔비나무로도 만들고.}

10336 #1 아까 그럼 뭐 말톡마씨?{아까 그럼 뭐 말톡이요?}

10336 #1 말톡.{말톡.}

10336 #2 췌 메는 말톡. 주레 연결헌 췌 메는 말톡.{소 매는 말톡. 줄에 연결한 소 매는 말톡.}

10336 @2 게른 뭇 메는 말토근 뽀우짜?{그러면 말 매는 말톡은 뽀니까?}

10336 #2 뭇 메는 말토기나 췌 메는 말토기나 꼭ㄴ타.{말 매는 말톡이나 소 매는 말톡이나 똑같아.}

10336 #1 주리민 ㄴ타.{줄이면 같아.}

10336 #2 게영 저디 강으네 어디 출 이신 디 강 그거 바강 뽀땅 게민 그 줄 안네만 뽀뽀 돌멍 머그민 그디 초리 판칙 어서. 또 나진 강으네 뽀 디레 출 인는 디레 이제 이꺼당으네 고췌 메여.{그래서 저기 가서 어디 끌 있는 데 가서 그것 박아서 놓았다가 그러면 그 줄 안에만 뽀뽀 돌면서 먹으면 거기 끌이 판칙 없어. 또 낮에는 가서 다른 데로 끌 있는 데로 이제 이끌어다가 고쳐 매.}

10336 #1 게난 아까 뭇 메는 건 뽀 주른 다 ㄴ튼디 서근 췌췌 뭇췌 뭇췌 이런 마른 흥 췌 췌췌 차이나주 뽀 그 주른 뽀ㄴ타.{그러니까 아까 말 매는 것은 뽀 줄은 다 같은데 고 뽀는 소고뽀 말고뽀 말굴레 이런 말은 조금 조금은 차이나지 뽀 그 줄은 똑같아.}

10336 #1 뽀라. 제주도도 조븐 디가 아니고 너른 디난 북꾼허고 여기도 틀리고 바로 여기서 대정허고도 틀려.{뽀라. 제주도도 좁은 데가 아니고 넓은 데니까 북꾼하고 여기도 다르고 바로 여기서 대정하고도 달라.}

10336 @1 예.{예.}

10336 #1 그 뽀슬포는 우리 서귀포 이 팔래인데 틀리고 또 성산허고 여기 또 틀리고. 뽀든.{그 뽀슬포는 우리 서귀포 이 팔래인데 다르고 또 성산하고 여기 또 다르고. 뽀든.}

10336 @2 이 동네 마리 막 틀리우다.{이 동네 말이 막 틀리네요?}

10336 #1 말허는 거나 뽀든 거나 성산허고.{말하는 것이나 뽀든 것이나 성산하고.}

10336 #2 뽀른 디서 온 사름 말 틀리덴 우리 막 운췌게.{다른 데서 온 사름 말 다르다고 우리 막 웃지.}

10336 @1 게난 지금 우리는 사실 여기 조사를 잘해지는 거 가태마씨.{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여기 조사를 잘해지는 것 같아요.}

10336 @2 아까 올그미. 우린 우금 하는데 여기 올그미도 나오고예.{아까 올금이. 우리는

우금 하는데 여기 울금이기도 나오고요.}

10336 @1 울금도 나와.{울금도 나와.}

10336 @2 울그미엔 아까 헐짜나예?{울금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10336 #2 우그미엔도 허곡 울그미엔.{우금이라고도 하고 울금이라고.}

10336 @2 아 우금도 험니까?{아 우금도 하나요?}

10336 #2 예.{예.}

10336 @2 우금도 하고.{우금도 하고.}

10336 @1 보통 우금하지.{보통 우금하지.}

10336 #1 아 대략근 여기선 울구미엔.{아 대략은 여기서는 울금이라고.}

10336 #2 밥우그미엔 헐주게.{밥주걱이라고 했지.}

10336 @2 밥우금.{밥주걱.}

10336 #1 부지땡이. 배수기.{부지깹이. 죽젓개.}

10336 @2 아까 부르땡이렌도?{아까 부지깹이라고도?}

10336 #1 예?{예?}

10336 @2 부르땡이렌 헐게?{부지깹이라고 하던데?}

10336 #2 부지땡이.{부지깹이.}

10336 #1 부지땡이.{부지깹이.}

10336 @2 부르땡이가 아니고?{부지깹이가 아니고?}

10336 #2 때여불명 몬 어더머그는{지피면서 못 얻어먹는.}

10336 #1 젤 슷몬 몬 전디게 이룬 젤 하영 허는 건디 몬 머거.{젤 사뭇 못 건디게 일은 젤 많이 하는 것인데 못 먹어.}

10336 #1 내중 배수기도 게도 흥뽀 마스 보는 거.{나중 죽젓개도 그래도 조금 맛은 보는 거.}

10336 @2 저스명.{저으면서.}

10336 #1 철 빼네 드렁 내중은 머거부는 건 울그미 다 머거부러.{첫 번에 들어서 내중은 먹어버리는 것은 밥주걱 다 먹어버려.}

10336 #2 엔나른 부지땡이. 경 허민.{옛날에는 부지깹이. 그렇게 하면.}

10336 #1 놀래가 이션쥬. 할망더리 그 엔나렌 일 어시민 아이고 부지땡인 때불명 들구 일만 허영 몬 먹꼭.{노래가 있었지. 할망들이 그 옛날에는 일 없으면 아이고 부지깹이는 때버리면서 마구 일만 해서 못 먹고.}

10336 #1 배수긴 강 막 저스명 게도 흥뽀 만 봐서.{죽젓개는 가서 막 저으면서 그래도 조금 맛 봤어.}

10336 #1 울그몬 다 퍼당 머거불꼭.{밥주걱은 다 퍼다가 먹어버리고.}

10336 #1 이런 놀래가 이션는다. 게난 이런 울그미나.{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밥주걱이나.}

10336 #1 이 땡 만드는 겐또 요 대정허고 여기 트나는데 말허는 음성이나 뭐 사라가는 엔날 사라난 거난 모든 거 말허민 저 이거 다 틀린 건 확실헌 거 달마. 저가 아니까. 틀리미. {이 떡 만드는 것도 요 대정하고 여기 다른데 말하는 음성이나 뭐 살아가는 옛날 살았던 것이나 모든 거 말하면 저 이거 다 다른 것은 확실한 것 달마. 저가 아니까. 다름이.}

10337 @1 흑씨 여기도 머슴사리 이서나신가마씨?{흑씨 여기도 머슴살이 있었나요?}

10337 #1 예게.{예.}

10337 @1 케민 머슴사리엔 험니까 아니면 장남미렌 험니까?{그러면 머슴살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장남이라고 하나요?}

10337 #1 장나넨도 허곡 머스멘도 허곡.{장남이라고도 하고 머슴이라고도 하고.}

10337 @1 득사리도?{득사리도?}

10337 #1 득사리엔도 허곡.{득사리라고도 하고.}

10337 #2 세 가지로 ㄴ랄쭈. 거 마자. {세 가지로 말했지. 그것 맞아.}

10337 #1 득사리. 머슴. 장남. 우리지비 장남 봐져 영도 허고.{득사리. 머슴. 장남. 우리집에 장남 봐져 이렇게도 하고.}

10337 #1 우리 득사리 봐져 허는 마른 잘 아녀.{우리 머슴아이 보이던가 하는 말을 잘 안 해.}

10337 #1 우리지비 머스몬 어디레 가부러신고 영.{우리집에 머슴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렇게.}

10337 @1 장남예.{장남요?}

10337 #1 머스멩 현 마른 잘 아녀. 허진 허는디 잘 허진 아녀.{머슴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해. 하기는 하는데 잘 하지는 않아.}

10337 @1 켄디 장나물 득랑 살 때 어떤 조꺼니 분는고예?예를 들면 그냥 밥만 메겨줘마 썸 아니면 밥 메겨주고 돈도 줘마썸?{그런데 머슴을 데려서 살 때 어떤 조건이 붙는가요? 예를 들면 그냥 밥만 먹여주나요 아니면 밥 먹여주고 돈도 주나요?}

10337 #1 어 돈 줘야주.{아 돈 줘야지.}

10337 @1 돈.{돈.}

10337 #1 예.{예.}

10337 #1 이 얼마 계약기 뭐 도느로 허민 마 뉘니냐 이마 뉘니냐.{이 얼마 계약이 뭐 돈으로 하면 만 원이냐 이만 원이냐.}

10337 #1 거 아니민 송아지 새끼를 하나 주느냐. 뭐 케민 어디 바슬 하나 주느냐 계약기 인쭈.{그것 아니면 송아지 새끼를 하나 주느냐. 뭐 그러면 어디 밭을 하나 주느냐 계약이 있지.}

10337 #1 그냥 인는 건 아니.{그냥 있는 것은 아니.}

10337 @1 케난 계약کم에 따라서예?{그러니까 계약함에 따라서요?}

10337 #1 예. 건 아이 노동자 그 뭐에도 메열꼬.{예. 그것은 아니 노동자 그 무엇에도 메열꼬.}

10337 #1 마냐게 이 사름 개똥이냐 쉼똥이 쫘에 아 이른 이 사르미 잘허느냐 몬터느냐 이 건또 관계뉼열꼬.{만약에 이 사람 개똥이냐 쇠똥이 중에 아 일은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관계되었고.}

10337 #1 그 저 득사리냐 장남 비렁 험도 일 농땡이 청 잘 아년디 싸근 하영 줄 썸가 업찌 아녀우파게.{그 저 머슴아이냐 머슴 빌려서 함도 일 농땡이 쳐서 잘 안 하는데 샅은 많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337 #1 그건또 관계가 인꼬 그 결쟁할 때 얼마짜리냐 이걸 곤는 겁쭈.{그것도 관계가 있고 그 결정할 때 얼마짜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10337 #1 요즘 뭐 일허는 디 용역 빌민 뭐 그저넌 용마 뉼 허단 이젠 칠마 뉼 해도 건 일 잘 허건 몬터건 칠마뉼을 줘야 뉼지마는 연나른 사라메 팔라 헐쭈 경.{요즘 뭐 일하는 데 용역 빌리면 뭐 그전에는 육만 원 하다가 이제는 칠만 원 해도 그것은 일 잘하든 못하든 칠

만 원을 줘야 되지만 옛날은 사람에 따라서 했지 그렇게.}

10337 #1 이제추루근 안 돼긴 안 허지게. 중무니 싸름도 모른 사람도 이시난 허는디 옛나  
른 안 사람 웨에는 경 모른 사람 비러당 뭐 허긴 힘드러난.{이제처럼은 안 되기는 안 하지.  
중문 사람도 모른 사람도 있으니까 하는데 옛날은 안 사람 외에는 그렇게 모른 사람 빌려다  
가 뭐 하기는 힘들었어.}

10337 @1 계난 장나민 경우는 남자우짱 여자우짱?{그러니까 장남인 경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10337 #1 아 남자.{아 남자.}

10337 @1 여자는 어신가마씨?{여자는 없을까요?}

10337 #2 여자도 설쭈다.{여자도 있었습니다.}

10337 #1 이 여자도 이설쭈.{이 여자도 있었지.}

10338 @1 여자도예. 그러믄 그 쿠믄 다를 꺼 아닌가마씨? 예를 들면 아까.{여자도요. 그러  
면 그 샐은 다른 것 아닌가요?}

10338 #2 쿠믄 그때엔 굴물 때난 머거만저도 조코 허난 계난 쿠믄 벨로 다른 게 어시.{샐  
은 그때에는 굽을 때니까 먹어만저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샐은 별로 다른 것이 없이.}

10338 @1 예.{예.}

10338 #1 다른 게 아니라 쿠믄 흐꼬를 바다도 바닷쭈 안 바다?{다른 것이 아니라 샐은 조  
금을 받아도 받았지 안 받는가?}

10338 #2 남진 쉼 메기곡.{남자는 소 먹이고.}

10338 @1 예.{예.}

10338 #1 지비서 그냥 하간 일 짝 두드리곡 그런 거 뭐 허곡. 여저는 그디 강 밥퍼곡. 밥  
페영 식구들 몬 메기곡 설거지 방에 뭐 방에 몬 방 청소.{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일 쥔 두드  
리고 그런 것 뭐 하고. 여자는 거기 가서 밥하고. 밥해서 식구들 모두 먹이고 설거지 방에  
뭐 방에 몽땅 방 청소.}

10339 @1 그럼 아까 쉼 어신 사르믄 쉼을 빌려당 병작커는 수가 인꼬예?{그럼 아까 소  
없는 사람은 소를 빌려다가 병작하는 수가 있고요?}

10339 #1 예.{예.}

10339 @1 이버는 받 업는 사라미 받 인는 사람안테 바슬 빌령 병자글 헐 게 아니우파예?  
게믄 병자근 어떤 시그로 헤신고예?{이번은 받 없는 사람이 받 있는 사람한테 받을 빌려서  
병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병작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10339 #1 어이고. 나도 그 받 떠신 뎌 나미 받 비러당 병작커며는 어 나 헤여난 대로.{아  
이고. 나도 그 받 없을 때는 남의 받 빌려다가 병작하면은 아 나 했던 대로.}

10339 @1 예.{예.}

10339 #1 보리를 가라신디.{보리를 갈았는데.}

10339 @1 예.{예.}

10339 #1 보리를 가라가지고 비연 무꺼가지고 딱 일 때 일 일 때 일 허다보니까 혼 단이  
나만. 혼 무시 나마. 저 혼 다니 아니고 혼 문. 저 다니 아니라 혼. {보리를 갈아서 베서 묶  
어서 딱 일 대 일 일 대일 하다보니까 한 단이 남았어. 한 뭇이 남아. 저 한 단이 아니고  
한 뭇. 저 단이 아니라 한.}

10339 #1 혼 무시 나쁘니까. 아 이거 정시미나 그 우린 몬 머그명도 곤쌀 하나씩 넣으네  
정시를 잘해 봐. 그 저 보리 혼 단 나쁜 건 줄 꺼라.{한 뭇이 남으니까. 아 이것 점심이나



그 우리는 못 먹으면서도 흰쌀 하나씩 넣어서 점심을 잘해 봐. 그 저 보리 한 단 남은 것은 줄 거야.}

10339 #2 득 자방 강 주곡.{답 잡아서 가서 주고.}

10339 #1 계난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 완느냐 허면 저 광평. 이제 골프장 이 살록또로로 가다보며는 광평엔 헌 디 싸름네 바슬 어던 헨. 정심 잘해연 주곡 다 헨ندي 아 그 보리 혼 단도.{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걸어서 왔느냐 하면 저 광평. 이제 골프장 이 산록도로로 가다보면 광평이라고 한 데 사람네 밭을 얻어서 했어. 점심 잘해서 주고 다 했는데 아 그 보리 한 단도.}

10339 #2 으저가부런.{가져가버렸어.}

10339 #1 갈랑 저 날 주카부덴 허난 혼 문 주카부덴 허단 보난 ㄱ저가부런.{갈라서 저 날 줄까보다 하니까 한 못 줄까보다 하다 보니까 가져가버렸어.}

10339 #2 막 우리날쥬. 우리. 보리 혼 무시 그러케 커서.{막 울었었지. 우리. 보리 한 못이 그렇게 컸어.}

10339 @2 으음.{으음.}

10339 #1 이러케 사라미.{이렇게 사람이.}

10339 @1 야속카게도.{야속하게도.}

10339 #1 참 업씬 사르른 몬살겐따.{참 없는 사람은 못살겠다.}

10339 #1 그때부떠도 더 정신을 차려 이를 해야웨겐따 허는 생가글 그때도 가져난 예가 인는다.{그때부터도 더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도 가졌던 예가 있는데.}

10339 #1 계난 요거 그 보리 혼 무셴 헌 거 잘허면 두 뢰 나와. 두 뢰.{그러니까 요것 그 보리 한 못이라고 한 거 잘하면 두 뢰 나와. 두 뢰.}

10339 #1 두 뢰 나오는 건 존 거라야. 혼 뢰 반. 막 안 뢰 건 혼 뢰. 그 저 뢰빠그로 말하는 건데. 경 허는 건또 안 쟁으네 가져가부는 수.{두 뢰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한 뢰 반. 막 안 된 것은 한 뢰. 그 저 뢰로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줘서 가져가버리는 수.}

10339 @1 건 완전히 반벙자기다예.{그것은 완전히 반병작이네요?}

10339 #1 예.{예.}

10339 @1 일 때 일.{일 대 일.}

10339 #1 예. 일 때 이리니까. 반벙자게 혼 무시 남는 건데도 그건또 가져가부려.{예. 일 대 일이니까. 반병작에 한 못이 남는 것인데도 그것도 가져가버려.}

10339 @1 계난 보통 벙작하민 일 때 일이우짜?{그러니까 보통 병작하면 일 대 일입니까?}

10339 #1 예. 일 때 일.{예. 일 대 일.}

10339 #1 겐디 이제는 뭐 이 선생도 알다시피 미깡냥반 천 쩡 주며는 잘 받 천 쩡을 빌리민 춤 잘 바드민 돈 벙마 뉘 바드나마나.{그런데 이제는 뭐 이 선생도 아다시피 굴밭 천 쩡 주면 잘 받 천 쩡을 빌리면 참 잘 받으면 돈 백만 원 받으나마나.}

10339 #1 으 그런 실정인디 옴나른 너무나.{아 그런 실정인데 옛날은 너무나.}

10339 @1 계난 받 땀제허고 여기 버러멍는 사름 인쓰면 요 버러멍는 사르미 다 씨안또 당하고 검질도 매고.{그러니까 밭 임자하고 여기 벌어먹는 사람 있으면 요 벌어먹는 사람이 다 씨앗도 당하고 김도 매고.}

10339 #1 아이고 다.{아이고 다.}

10339 @1 다 하고.{다 하고.}

10339 #1 예. 받 땀젠 가마니 인따가 보리 왕 다 헤시난 갈라 갑써 허며는 왕 갈라 갈 때.{예. 받 임자는 가만히 있다가 보리 와서 다 했으니까 갈라 가십시오 하면 와서 갈라 갈 때.}

10339 #1 춤 샘 인는 사르른 혼 묻 안나마도 자기 찍시에 일 때 일 현 디서도 다섯 묻또 주는 사름 인꼬 열 묻또 주는 사름 인꼬 게도 서너 묻 주는 사름도 이선는다 그거 안 허민 뭘 그냥 가져가도 뭐라고 말 못터지.{참 샘 있는 사람은 한 못 안 남아도 자기 뭇에 일 대 일 한 데서도 다섯 못도 주는 사람 있고 열 못도 주는 사람 있고 그래도 서너 못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면 뭘 그냥 가져가도 뭐라고 말 못하지.}

10339 #1 게난 우리 아버지 때부터 광평 싸름 바슬 마니 벌고 논도 마니 버려받는다.{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광평 사람 받을 많이 벌고 논도 많이 벌어왔는데.}

10339 #1 춤 그 광평에 소를 쉼을 마니 질루난 그 돈 마니 버린 해변 바슬 존 바슬 몬 사 노난 그때도 그 부니 참 사라미 조나네 보리를 타작해그네 얼마씩 쥐두고 가곡.{참 그 광평에 소를 소를 많이 기르니까 그 돈 많이 벌어서 해변 받을 좋은 받을 몽땅 사놓으니까 그때도 그 분이 참 사람이 좋으니까 보리를 타작해서 얼마씩 쥐두고 가고.}

10339 #1 그 광평서 온 사람더리 톨 모랑 왕으네 므레 짐 시경 그냥 내불민 지비 몬 드러 간덴. 드러가는양 짐 평 놔두누레 허는다. 참 이제 생각커면 아이고.{그 광평에서 온 사람들이 말 몰아서 와서 말에 짐 실어서 그냥 내버리면 집에 몽땅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대로 짐 퍼서 놔두었다고 하는데. 참 이제 생각하면 아이고.}

10339 @1 아 그 혼 묻예. 혼 묻. 아.{아 그 한 못요. 한 못. 아.}

10339 #2 게난 다음해에 또 벌젠 허민양 경 어굴해도 득 자방으네 짐 시꿀 땐 골르레 놔. 쉼 골르레 몰르로. 경 가민.{그러니까 다음해에 또 벌려고 하면요 그렇게 억울해도 닭 잡아서 짐 실을 때는 골에 넣어. 소 골에 모르게. 그렇게 가면.}

10339 #1 짐 시끄기 저네 쉼질메가 요러케 두 개 허민 요 트메.{짐 싣기 전에 소 길마가 요렇게 두 개 하면 요 틈에.}

10339 @1 예.{예.}

10339 #2 다음 보젠. 다음해 보젠.{다음 보려고. 다음해 보려고.}

10339 #1 경 와이로 썩 놔뵤.{그렇게 놔물 써서 놔두고.}

10339 #2 \*\* 버려야 머글 꺼난.{\*\* 벌어야 먹을 것이니까.}

10339 #1 탄 사름 받 쥐불카덴. 그런 뭇또 이선꼬. 정말.{다른 사람 받 쥐버릴까봐. 그런 무엇도 있었고. 정말.}

10339 @2 아까 쉼 골로로마썩? 거기 트를 쉼 골로렌 힘니까?{아까 소 골로요? 거기 틈을 소 골아라고 합니까?}

10339 #2 쉼 골.{소 골.}

10339 @2 쉼 골?{소 골?}

10339 #1 쉼 고랑.{소 골.}

10339 @2 쉼 고랑엔 해마썩?{소 골 하나요?}

10339 #1 거기 질메가 요러케 해서 영 허난 그 질메까지 트멍이 이마닌 공가니 인썩. 예. 겨른 짐 시러불민.{거기 길마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길마까지 틈이 이만큼 공간이 있지. 예. 그러면 짐 실어버리면.}

10339 #2 모르주.{모르지.}

10339 #2 생전 어드레 도망 안 강 지비 강.{생전 어디로 도망 안 가서 집에 가서.} 웃음.

10339 @2 지베 가면 거기 이제 득 자른 게 딱 이신 거.{집에 가면 거기 이제 닭 잡은 것이 딱 있는 거.}

10339 #1 다기 나오게 댜 거지.{닭이 나오게 된 것이지.}

10339 @1 아 그러니까 새해도 받 버러 먹젠 험꾸나 허영 주는 거고예?{아 그러니까 새해도 받 벌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주는 것이고요?}

10339 #1 예.{예.}

10339 @1 아아.{아아.}

10339 #1 아 겨난 바슬 땀 사라를 주지 말라 하는 뜨이지.{아 그러니까 발을 다른 사람을 주지 말라 하는 뜻이지.}

10339 #2 굴머도 그 밥폐영 잘행 메기곡 경 아너민 벌질 몬터니까.{굴머도 그 밥해서 잘해서 먹이고 그렇게 앓으면 벌지 못하니까.}

10339 #1 정말 그까지 거렁 가곡.{정말 거기까지 걸어서 가고.}

10340 @1 이버는 수느는 건 험쭈예? 예를 들면 보리바슬 험 때에 수눌젠허면 검질멜 때만 수눔니까?{이번은 품앗이 하는 것 하지요? 예를 들면 보리밭을 할 때에 품앗이하려면 김멜 때만 품앗이하나요?}

10340 #1 검질멜 땀 수누러도 아 돌결름 보리 갈 때도 수누는 수 인쭈.{김멜 때는 품앗이해도 아 돼지거름 보리 갈 때도 품앗이하는 수 있지.}

10340 @1 아 갈 때도예?{아 갈 때도요?}

10340 #1 예. 여자는 뭐여 예를 들어 혼자마는 그 결름 뿌리곡 간 고랑에 거름 낳으네 이거 혹 더프고 허젠 허민 엄창 바쁜 이리라.{예. 여자는 뭐야 예를 들어 혼자만은 그 거름 뿌리고 간 고랑에 거름 넣어서 이거 흙 덮고 하려고 하면 엄청 바쁜 일이야.}

10340 #2 난 놉 빠러 보지 아년.{나는 놉 빌려 보지 않았어.}

10340 #1 으 참 놉 비렁도. 저 사람 비렁젠 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부락 실정을 말허렌 허는 겨난 놉 빠령 그 수누령 허는 사름도 마니 인썰꼬.{으 참 놉 빌려서도. 저 사람 빌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마을 실정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놉 빌려서 그 품앗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10340 @1 반 톨을 때도 수눌고예?{밭 밟을 때도 품앗이하고요?}

10340 #1 예?{예?}

10340 @1 반 톨을 때?{밭 밟을 때?}

10340 #1 아아 뭐.{아아 뭐.}

10340 @2 여기는 보리는 잘 안 톨르니까 허고.{여기는 보리는 잘 안 밟으니까 하고.}

10340 #2 톨르지 아너.{밟지 않아.}

10340 #1 보리 톨르는 거?{보리 밟는 거?}

10340 @2 예.{예.}

10340 #1 아이 그런 건 안 해보고.{아니 그런 것은 안 해보고.}

10340 @1 겨난 주로 검질멜 때예?{그러니까 주로 김멜 때요?}

10340 #1 예.{예.}

10340 @2 검질멜 때.{김멜 때.}

10340 #1 검질멜 때. 조검질 멜 때.{김멜 때. 조김 멜 때.}

10340 @1 그러면 예 들면 수눌 때 수눌지 묻터면 쿠물 줘야할 꺼 아니우짱예?{그러면요 예 들면 품앗이할 때 품앗이 못하면 샅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10340 #2 예.{예.}

10340 @1 그러면 콤도 다 다른 거 아니우짜? 예를 들면 받 간 장남안테는 쿠물 얼마 쥘쭈가? 옴나레.{그러면 샅도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받 간 장정한테는 샅을 얼마 줬습니까? 옛날에.}

10340 @1 검질맨 사름도 다를 꺼고예?{검맨 사람도 다른 것이고요?}

10340 #2 얼마 바둑디까?{얼마 받았나요?}

10340 @1 웃음.

10340 #2 가라봐시메 알주.{갈아봤으니까 알지.}

10340 #1 아이 게난 나가 노미 받 깔렌 마니 텅긴 사르민디.{아니 그러니까 내가 남의 받 갈러는 많이 다닌 사람인데.}

10340 @1 예. 그뎜 도느로 바단쭈가? 아니면 쫄로 바둑떼가?{예. 그때는 돈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쌀로 받았나요?}

10340 #1 도느로 바단.{돈으로 받았어.}

10340 @1 도느로예?{돈으로요?}

10340 #1 예.{예.}

10340 @1 켜디 받 간 장나민 경우는 쉼도 가정가곡 허민 두 노미역 주지 아녜니까?{그러는데 받 간 장정인 경우는 소도 가져가고 하면 두 놈 샅을 주지 않습니까?}

10340 #1 예예. 쉼 가정강 허곡 쉼 아니 아정가는 수도 인꼬.{예예. 소 가져가서 하고 소 아니 가져가는 수도 있고.}

10340 @1 예.{예.}

10340 #1 아 몬 살 땐 쉼도 어시나네 그 지비 쉼 인는 지비 강 받 하루 가라주곡 쉼 흔 번 아저당 이녁 받 흐르 갈곡.{아 못 살 때는 소도 없으니까 그 집에 소 있는 집에 가서 받 하루 갈아주고 소 한 번 가져다가 이녁 받 하루 갈고.}

10340 @1 아아.{아아.}

10340 #1 아 그런 건또 허곡 내중은 쉼이 인쓰니까 쉼 아정강 이제 쉼 업는 지비 강 받 까라 주기도 허곡. 아 헨디 돈 얼마 바든 기어근 잘 안 나네.{아 그런 것도 하고 나중은 소가 있으니까 소 가져가서 이제 소 없는 집에 가서 받 갈아 주기도 하고. 아 한테 돈 얼마 받은 기억은 잘 안 나네.}

10340 @2 한 번 가라쥬 한 번 쉼 비렁 오곡.{한 번 갈아주서 한 번 소 빌려 오고.}

10340 #1 예.{예.}

10340 #2 그냥 보리가뜯 조ㄴ뜯 나록ㄴ뜯 건 흔 말.{그냥 보리같은 조같은 벼같은 것은 한 말.}

10340 @1 예.{예.}

10340 #2 곡씨그로.{곡식으로.}

10340 @1 예.{예.}

10340 #2 한 말. 아이고 흔 말 주민 거 꺼랭이 단 말 단 빨씩 현 거.{한 말. 아니고 한 말 주면 그것 까끄라기 닷 말 닷 발씩 한 것.}

10340 #1 건디 보리도 잘 흘튼 사르민 흔 말 더 쥘쭈게.{그러는데 보리도 잘 훑은 사람은 한 말 더 줬지.}

10340 #2 검질맨 사름 거 여자.{검맨 사람 거 여자.}

10340 #1 아 난.{아 나는.}

10340 #2 여자 쿨. 여자.{여자 샀. 여자.}

10340 @1 예를 들면 보리 홀트는 건 남자가 헐 꺼 아니우파?{예를 들면 보리 훑는 것은 남자가 할 거 아닙니까?}

10340 #1 예.{예.}

10340 @1 게른 두 노미역 허든지 혼 노미역 반 허영 더 주긴 헐 꺼라예?{그러면 두 놈 역 하든지 한 놈역 반 해서 더 주기는 하겠지요?}

10340 #1 어 켜디 보리 홀트는 거라고 뭐 남자만 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잘 홀탄쥬게.{아 그런데 보리 훑는 것이라고 뭐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잘 훑었지.}

10340 #1 게난 그 홀튼 능려게 따라 그 주인이 생각커는 게 부잔찌빈 흥뽀 옥썴헤영 더 잘 쥬직케도 잘 안 주곡 흥뽀 중간 정도에 사는 사르미 일당은 잘 쥬신디.{그러니까 그 훑는 능력에 따라 그 주인이 생각하는 것이 부잣집에는 조금 욕심 해서 더 잘 쥬 것같아도 잘 안 주고 조금 중간 정도에 사는 사람이 일당은 잘 쥬는데.}

10340 @2 부자드른.{부자들은.}

10340 #2 주가 곡씨그로 바단쥬. 곡시그로. 도니 어실 때난.{주가 곡식으로 받았지. 곡식으로. 돈이 없을 때니까.}

10341 @1 일단 노블 빌 꺼 아니우팡예? 그러면 메겨야 헐 꺼 아니우파?{일단 놈을 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먹여야 할 것 아닙니까?}

10341 #2 아이 아침 나지만.{아니 아침 낮에만.}

10341 @1 나지만.{낮에만.}

10341 #2 예. 아침 머경 왕. 머경 왕 헤영 나진 우리가 밥페영 가그네 나진 점심만 머거. 저녁기는 또 거기서 헤어정 이녁만씩 왕.{예. 아침 먹어서 와서. 먹어서 와서 해서 낮에는 우리가 밥해서 가서 낮에는 점심만 먹어. 저녁에는 또 거기서 헤어져서 이녁만씩 와서.}

10341 @1 아 그러우파? 흑씨 중서근 안 메겨마씨?{아 그럼습니까? 흑시 간식은 안 먹이나요?}

10341 #2 중서근 그때 중식 뭐 셴쥬가? 밥또 몬 머거네.{간식은 그때 간식 뭐 있었습니까? 밥도 못 먹어서.}

10341 #1 이제는 미깡 타젠 허민 오저네 우등이나 짜장이나 불령 뭐 메기곡 점심 메기곡 또 오후 뒤편.{이제는 굴 타려고 하면 오전에 국수나 자장이나 불려서 뭐 먹이고 점심 먹이고 또 오후 되면.}

10341 @1 중식 메기고.{간식 먹이고.}

10341 #1 아무런 거라도 메기고 커피 쥬야 돼곡 이런디 옴나른 어느 저르에.{아무런 것이라도 먹이고 커피 쥬야 되고 이러는데 옛날은 어느 겨를에.}

10341 @1 게난 옴나른 게른 정시몬 바브로예?{그러니까 옛날은 그러면 점심은 밥으로요?}

10341 #2 바브로 허영양 차룽 흥나에 거리민 이제 너이 머거지카. 여른 머거도 남쥬. 그 밥. 경 헌디양 너이가 박박 글거 머거. 차룽을.{밥으로 해서요 채룽 하나에 뜨면 이제 넷이 먹을 수 있을까. 열은 먹어도 남지. 그 밥. 그런데요 넷이 박박 곱아서 먹어. 채룽을.}

10341 @1 보리밥.{보리밥.}

10341 #1 밤 모지리카부텐 쥬 걱쩡허는디.{밥 모자랄까봐 쥬 걱정하는데.}

10341 #2 계영 친구덜.{그렇게 해서 친구들.}

10341 #1 이젠 바비 남는다.{이제는 밥이 남는데.}

10341 #2 검질메렌 가민 밥 나쁘덴 막 글거 머경으네 압반떡레 차룽 아상 던져부러. 밥 족  
 께 해완쥔. 경 막 장난 치곡.{김매리 가면 밥 나쁘다고 막 굶어 먹어서 앞밭으로 채룽 가져  
 서 던져버러. 밥 적게 해왔다고. 그렇게 막 장난 치고.}

10341 #1 웬장. 웬장이 그 잘 아너는 지바니 인썸.{웬장. 웬장이 그 잘 안 하는 집안이 있  
 어.}

10341 #1 거든 그 베랭이가 와글와글 현 거 그냥 아저간 지반. 켜디 그 뭐 이제 가트면 베  
 랭이 하나만 나오민 뭐 아무도 안 머글 켜디.{그러면 그 벌레가 와글와글 한 것 그냥 가져  
 간 집안. 그런데 그 뭐 이제 같으면 벌레 하나만 나오면 뭐 아무도 안 먹을 것인데.}

10341 #2 어쩔 쥬 어서게.{어쩔 수 없어.}

10341 #1 어 다 베랭이 그냥 아사쥔 다 먹꼬.{아 다 벌레 그냥 가져두고 다 먹고.}

10341 @1 계난 그 버랭이 이는 지븐 말장시 인는 지빈디예?{그러니까 그 벌레 이는 집은  
 말쟁이 집인데요?} }

10341 #2 예. 만쥬다. 웃음. 속파를 다 아란.{예. 맞습니다. 웃음. 속담을 다 알아서.}

10341 @2 건 무슨 거렌 굶니까?{그것은 무슨 것이라 말합니까?}

10341 #2 아?{아?}

10341 @2 베랭이 이신 지븐 뭐렌 ㄴ라?{벌레 있는 집은 무엇이라고 말해?}

10341 #2 말 존 지비 장 고린다.{말 좋은 집에 장 고린다.}

10341 @2 경 굶니까? 말 존 지비 장?{그렇게 말하나요? 말 좋은 집에 장?}

10341 #2 말 존 지빈 장 고린다. 말도 조코 얼굴도 굶꼭 현 지비가 몹치 아정가민 몹치 우  
 터레 데가리 영영영 허멍 장빠랭이가 올라와.{말 좋은 집에는 장 고린다. 말도 좋고 얼굴도  
 굶고 한 집에서 모자반장아찌 가져가면 모자반장아찌 위로 데가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  
 면서 가시가 올라와.}

10341 #1 술찌기 마리주. 웃음.{술직히 말이지. 웃음.}

10341 #2 진짜.{진짜.}

10341 31 말 존 지비가 장 고리는 건 마자. 말로는 헨는데 실찌는 그 지비.{말 좋은 집에  
 가 장 고리는 것은 맞아. 말로는 헨는데 실체는 그 집에.}

10341 #2 장만 고리질 아녀고 모든 계양 모든 게 경 해마썸. 사라가는 게. 사라가는 게 말  
 존 지비가 아메도.{장만 고리지 않고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해요.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말 좋은 집에가 아마도.}

10341 #1 이제도 마찬가지로.{이제도 마찬가지로.}

10341 #1 이제도 놀레 강으네 막 떠들고 허는 지비 강 보면 청소도 아녕 인꼬. 날 달몬 사  
 림.{이제도 놀러 가서 막 떠들고 하는 집에 가서 보면 청소도 안 해서 있고. 나를 닮은 사  
 람.}

10341 @1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341 #1 나가 청소도 아녀민 할망 아녀민 크닐나지.{내가 청소년 안 하면 할머니 아니면  
 큰일나지.}

10341 #2 계난 말 존 지비 장 고렘쥬. 웃음.{그러니까 말 좋은 집에 장 고렸지. 웃음.}

10341 #1 나강 저디 강 떠들기나 허지.{나가서 저기 가서 떠들기나 하지.}

10341 청술 아너주게.{청소를 안 하지.}

10341 @1 계난 주로 그냥 바블 헐꾸나예?{그러니까 주로 그냥 밥을 했군요?}

10341 #2 예.{예.}

10341 @1 예. 뭐 국수 가튼 건 아녀보고예? 계난 이제는 뭐 중국찌비서 불령도 메긴다고?{예. 국수 같은 것은 안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국집에서 불려서도 먹인다고?}

10341 #2 예게.{예.}

10341 #1 아이구 뭐 점심도 식당에 전좌허민 뭐 반찬 잘 찰리곡.{아이고 뭐 점심도 식당에 전좌하면 뭐 반찬 잘 차리고.}

10341 #2 경 허곡 중석또양 이제 우등허여그네 국수허여그네 중석 주곡. 이젠 경 허곡. 짜장도 불령 주곡. 짜장 불르는 게 흥끔 생각컨 디고. 우리.{그렇게 하고 간식도요 이제 우등해서 국수해서 간식 주고.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자장도 불려서 주고. 자장 부르는 것이 조금 생각한 데고. 우리.}

10341 #1 생각커나마나 안 너민 다신 타레 안 와.{생각하나마나 안 하면 다시는 타러 안 와.}

10341 #2 빵도 사당 주곡. 그런 거 주로. 아녕 너머가진 못텐니께.{빵도 사다 주고. 그런 거 주로. 안 해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10341 #1 아넝땅은 뭐 다음.{안 했다가는 뭐 다음.}

10341 #2 오후에도 커피 행 먹꼬. 단가미라도 막 베경으네 더우믄 아장 먹꼭.{오후에도 커피 해서 먹고. 단감이라도 막 벗겨서 더우면 앉아서 먹고.}

10341 @2 반 깔레 가면 그래도 다른 거 보다는 쫘 잘해주지 아넝쭈가? 밥들.{발 갈러 가면 그래도 다른 거 보다는 쫘 잘해주지 았았나요? 밥들.}

10341 #2 반 깔.{발 갈.}

10341 @2 반 깔레 갈 때.{발 갈러 갈 때.}

10341 #1 잘 잘허는 지비고.{잘 잘하는 집이고.}

10341 #2 반갈 장나메.{발갈 장정예.}

10341 #1 영 못턴 지비 인꼬. 점심 굴명도 해보고.{전혀 못한 집이 있고. 점심 굶으면서도 해보고.}

10341 @1 음.{음.}

10341 @2 여긴 조 불리젠 허면 연날 몰 허영 조 하영 불련짜나예? 조 불리는 사름안티는 특별히 음시글 해쥬헐 허는데. 따른 동네 가면?{여기는 조 밍으려고 하면 옛날 말 해서 조 많이 밍았잖ాయ오? 조 밍는 사름한테는 특별히 음식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동네 가면?}

10341 #1 아 여긴 조 불린다고 뭐 특별리.{아 여기는 조 밍는다고 뭐 특별히.}

10341 #2 조 이넝냥으로 불려신디.{조 이넝대로 밍았는데.}

10341 #1 아 현 거 얻꼬.{아 한 것 없고.}

10341 @1 계난 우리 동넨예 받 까는 사름안티 더 해쥬꼬예? 그다으메 씨 뿌리는 사름.{그러니까 우리 동네는요 발 가는 사름한테 더 해쥬고요? 그다으메 씨 뿌리는 사름.}

10341 #2 예. 씨와치.{예. 씨 뿌리는 사름.}

10341 @1 예. 씨 뿌리는 사름안테 더 해주곡.{예. 씨 뿌리는 사름한테 더 해 주고.}

10341 #2 받 까는 사라미 씨 뿌리고.{발 가는 사름이 씨 뿌리고.}

10341 @1 그다으메 보리 홀트는 사름안티 더해 주고. 예. 경 헐쭈다. 웨냐 하면 아마 그거 시 힘든 모양이지예?{그다으메 보리 홀는 사름한테 더해 주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마 그것이 힘든 모양이지요?}

10341 #1 아이 보리 홀트는 거야 힘드런찌마는 받 까는 거하고 씨 뿌리는 건 뭐 그 씨 뿌리는 건 아무 걸또 아니라.{아니 보리 훑는 거야 힘들었지만 밭 가는 거하고 씨 뿌리는 것은 뭐 그 씨 뿌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10341 #2 씨 뿌려뒀으네 바슬 가난. 여긴.{씨 뿌려두고 밭을 가니까. 여기는.}

10341 @1 아 게난 씨 뿌리는 사람한테 더 준 걸로예.{아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한테 더 준 것으로요.}

10341 @2 여기는 씨 뿌리는 걸 남자가 험니까?{여기는 씨 뿌리는 것을 남자가 하나요?}

10341 #2 아방이.{아버지가.}

10341 아니.{아니.}

10341 #2 빼어뒀으네.{뿌려두고.}

10341 #1 남자만 허는 게 아니라 나가 바쁘면 할망ㄴ라도 허렌 허고.{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면 할머니보고도 하라고 하고.}

10341 #1 겐디 우리 할망은 빠미는 좀 준게 빼여부러. 마니 빼여. 그건 뿌니지 뭐 이걸또 허고 저걸또 허고.{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뿌리며는 좀 베게 뿌려버려. 많이 뿌려. 그것 뿐이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0341 #2 마니 현 건 스끄민 뒀난.{많이 한 것은 숨으면 되니까.}

10341 #1 다 험니다.{다 합니다.}

10341 @2 음.{음.}

10341 @1 예. 좀 쉬얼따 하겐.{좀 쉬었다가 하겠.}

10341 #1 이제 우리 그 저디 우영에 꿰씨는 요디 혈 꺼만 서귀포오일짱에 간 산는다.{이제 우리 그 저기 텃밭에 참깨씨는 여기 할 것만 서귀포오일장에 가서 샀는데.}

10341 #1 그걸로 저조게영 다 나가 걸 빼나네.{그것으로 저쪽이랑 다 내가 그것을 뿌리니까.}

10341 #1 아아 처으믄 너미 드무렁 안 웰 꺼 간느디 거 아라마꽈가지고 착 거런. 흐 노미 세 개 두 개 다 거리니까 이젠 듬북커게 보여가지고 할망 누네 드난 매날. 오늘 아침도 간 일 헐쥬.{아아 처음은 너무 드물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것 알아맞춰서 짹 뺏으니까. 한 놈에 세 개 두 개 다 뺏으니까 이제는 듬북하게 보여서 할머니 눈에 드니까 매일. 오늘 아침도 가서 일 했지.}

## 1.4. 의생활

### 1.4.1. 목화 삼 모시의 재배와 길쌈

10401 @1 이버는 무명천 얘기 쯤 무러보쿠다예. 무명. 모와는 언제 갈곡 장만하는고예? 목와?{이번은 무명천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명. 목화는 언제 갈고 장만하는가요?}

10401 #2 갈 때 언제 가라신고? 갈 때 이저부런찌.{갈 때 언제 갈았지? 갈 때 잊어버렸다.}

10401 #1 보메.{봄에.}

10401 #2 보메. 보메 갈민양 가라그네 그거 저 가랑 김질메영 놔두며는 끝. 모와끝.{봄에. 봄에 갈면요 갈아서 그거 저 갈아서 김대서 놔두면 꽃. 목화꽃.}

10401 @1 예.{예.}



10402 #2 끝 피민 그 다으멘 쏘 이시민 그 목좌 그 득레.{꽃 피면 그 다음에는 좀 있으면 그 목좌 그 다레.}

10402 @1 예.{예.}

10402 #2 득레가 그 버러지지 아년 득레가 이서. 그 득레 으이랑 쏘 더 이시민 목좌가 그냥 탁 피어.{다레가 그 벌어지지 았은 다레가 있어. 그 다레 열어서 좀 더 있으면 목좌가 그냥 탁 피어.}

10402 #2 경 허민 그거 가그네 막 타. 구덕 차그네. 구덕 창 허영 왕 이 베세 막 몰랑. 몰라그네 그 다으멘 이젠 몰레. 영 돌르는 몰레. 그때.{그렇게 하면 그것 가서 마구 따. 바구니 차서. 바구니 차서 해서 와서 이 별에 마구 말려서. 말려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몰레. 이렇게 두르는 몰레. 그때.}

10402 #2 몰레 헤어그네 그거 이제 불이라. 불르민 씨 트로 모좌 그.{몰레 해서 그것 이제 발라. 바르면 씨 따로 목좌 그.}

10402 #1 멘네.{목좌.}

10402 #2 소게 트로. 소게 트로. 숨 트로 이제 씨 트로 트로트로 떼어집니께.{숨 따로. 숨 따로. 숨 따로 이제 씨 따로 따로따로 떼어집니다.}

10402 #2 경 허민 그때는 저 테우는 디 강 테우는 디 강 그걸 테와.{그렇게 하면 그때는 저 타는 데 가서 타는 데 가서 그것을 타.}

10402 #2 테와그네 숨 멘드라그네 허민 그디서 이제 영 찌저냥. 찌저와그네 저 그 대망뎡 이우좌?{타서 숨 만들어서 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찢어놓아. 찢어놓아서 저 그 대망대기 입니까?}

10402 #1 으.{그래.}

10402 #2 아니우다.{아닙니다.}

10402 #1 대망뎡이.{대망대기.}

10402 #2 대죽 소독.{수수 속대.}

10402 @2 으.{아.}

10402 #1 대망뎡이.{대망대기.}

10402 #2 대죽소독.{수수 속대.}

10402 #1 대죽소\*.{수수 속\*.}

10402 #2 그걸로 허여그네 영 낱양 그 소메. 숨 질게 그거 낱 영영 몰민 그게 정이엔 허여.{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놔서요 그 숨에. 숨 질게 그것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말면 그것이 정이라고 해.}

10402 @1 예. 정.{예. 정.}

10402 #2 그것이 정. 정 허영 이 지럭씨 허영 노록 노록 커영. 노록 노록 허영 그 다으메 어멍네 허는 거 보민 바민 이제 그 가레기.{그것이 정. 정 해서 이 길이 해서 놓고 놓고 해서. 놓고 놓고 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네 하는 것 보면 밤에는 이제 그 가락.}

10402 @1 가레기 예예.{가락 예예.}

10402 #2 가레기 그거양 코쟁이 난 거. 그거 영허영 메와그네 이제 돌르는몰레 영영 아장 영영 둘루멍 짝 저레 막 빼어 가.{가락 그것요 고리 난 것. 그것 이렇게 메워서 이제 몰레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두르면서 짝 저리로 막 빼 가.}

10402 #2 이마니 헤지민 가레기레 또 둘르멍 허민 가레기레 뱅뱅 가마집떠다. 경 허영 흥곡 흥곡 케영 그 가레기 헤어낱으네 이젠.{이만큼 헤지면 가락에 또 두르면서 하면 가락에

뱅뱅 감아지대요. 그렇게 해서 하고 하고 해서 그 가락에 해놓아서 이제는.}

10402 #1 그제 고제기. 고적.{그것이 고제기. 고적.}

10402 #2 막 마드그민 걸 빼어. 빼여뒀 또 허여. 경 허민 그걸 꼬리 가마. 꼬리나 모동이. 모동이엔 현 거 영영 허영 동고롭허게 감꼭 꼬리는 영영영영 소름허게 가마.{막 가득하면 그것을 빼. 빼두고 또 해. 그렇게 하면 그것을 꼬리 감아. 꼬리나 몽당이. 몽당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그스름하게 감고 꼬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름하게 감아.}

10402 #2 경 허여그네 가마 놔그네 이젠 또 다으멘 저 메여. 그걸 풀 허영. 풀 허영 땔 땔 풀 가시리풀.{그렇게 해서 감아 놓아서 이제는 또 다음에는 저 때. 그것을 풀 해서. 풀 해서 땔 때는 풀 풀가사리풀.}

10402 #1 가시리풀.{풀가사리풀.}

10402 #2 그거를 저 그 메는 거는 학썰리 그걸 모르는디양 어떻 영영 걸려당양 영허게 어우러지게 허연 험띠다게. 경 허영 질게 저레 행으네 도꼬마리.{그것을 저 그 매는 것은 확실히 그것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걸려다가요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서 하대요. 그렇게 해서 질게 저리로 해서 도투마리.}

10402 @1 예.{예.}

10402 #2 도꼬마리에 가마그네 저디 놔둬서 그 아래 똥불 살라.{도투마리에 감아서 저기 놔두면서 그 아래 똥불 살라.}

10402 #2 똥불 살라근에 이제 그걸 이제 그 영 폐와진 썰르레 그걸 지슬 메겨. 영 그 그거 시 뉘신고 술. 술 일르미.똥불 살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이렇게 퍼진 실에 그것을 짓을 먹여. 이렇게 그 그것이 뉘더라 술. 술 이름이.}

10402 #1 아 소리주 뉘라.{아 술이지 뉘야.}

10402 #2 경 허영양.{그렇게 해서요.}

10402 #1 게난 브디가 인는디 브디를 완따간따.{그러니까 바디가 있는데 바디를 왔다갔다.}

10402 #2 브디 메영.{바디를 매어서.}

10402 #1 으 브디가 완따간따 허명. 소를 술로 그 가시리를 잘 칠해야 그 미녕이 질기니까.{아 바디가 왔다갔다 하면서. 술을 술로 그 풀가사리풀을 잘 칠해야 그 무명이 질기니까.}

10402 #2 잘 칠허민 그 아래 똥으로 그걸 바상허게 몰라. 과썩커여. 씨리. 경 허민 도꼬마리레 영 허영 가마뒀 또 이젠 쪽 땡겨 낱 이젠 불 신 디레 허여 낱으네 또 지슬 메기고.{잘 칠하면 그 아래 똥으로 그것을 바삭 말려. 곧아. 실이. 그렇게 하면 도투마리에 이렇게 해서 감아두고 또 이제는 쪽 당겨 놓아서 이제는 불 있는 데로 해서 놓아서 또 짓을 먹이고.}

10402 경 허명 허여네 막 그 막 커여지민 말째엔 도꼬마리 헤그네 그 미녕 차는 클.{그렇게 하면서 해서 막 그 막 해지면 말째에는 도투마리 해서 그 무명 짜는 틀.}

10402 @1 네.{예.}

10402 #2 그레 강 메와그네 브디. 브디레 영 허영 신 썩썩 영 발러레 영 허영 그 크레 드라메둬서 영 허민 터신\*. 눈 터신가. 영 허민 곱곡.{그리고 가서 메워서 바디. 바디에 이렇게 해서 신 쥔신 이렇게 발에 이렇게 해서 그 틀에 달아매 두고서 이렇게 하면 뉘는가. 눈 뉘는\*. 이렇게 하면 감고.}

10402 #2 경 행은에 그 브디로 영 드리청 혼번 탁 두드리곡 영 드리청 혼번 두드리곡 경

허는 거 나가 본 거.{그렇게 해서 그 바다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탁 두드리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본 것.}

10402 #1 등기민 터지곡 놔도 터지곡 허는 건디 그 도라가는 게 멍에주게. 멍에 이제 이제 도꼬마리 허리떠 뭐 그 미녕 차는 디도 상당히 목저기 으이라 개주.{당기면 떠지고 놓아도 떠지고 하는 것인데 그 돌아가는 것이 멍에지. 멍에 이제 이제 도투마리 부터 뭐 그 무명 짜는 데도 상당히 목적이 여러 개지.}

10402 #2 어멍허곡 할머니가 나 어린 때 봤쑤다. 허는 거. 일곱 쑤 으.{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나 어릴 때 봤습니다. 하는 것. 일곱 살 여.}

10402 #1 드리치는 겐또 거 북. 부기라고 영 완따갸따 허는 게 부기지. 그 쏘게 꼬리 낳으네 완따갸따.{집어넣는 것도 그것 북. 북이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북이지. 그 속에 꼬리 넣어서 왔다갔다.}

10402 #2 옛말 ㄹ르멍 졸지말젠 미녕 즈스멍 막 옛말 ㄹ라주멍 나신디 그 모동이 가므라 그 꼬리 가므라 허민 조라가미 막 졸지 몬터게 허쟁 옛날레 어떻 헨쑤 즈충비가 어떻 헨쑤 막 그 옛말 ㄹ라주멍 경 헨. 바미양 어린 때라도 거 가마나서.{옛말 말하면서 졸지 않으려고 무명 짜면서 막 옛말 말해주면서 나한테 그 몽당이 감아라 그 꼬리 감아라 하면서 돌아가면 졸지 못하게 하려고 옛날에 어떻게 했다 즈비가 어떻게 했다 막 그 옛말 말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밤에 어릴 때여도 그것 감았었어.}

10407 @1 게른 그 아까 이러케 씨하고 숨하고 분리하는 그 불느는물레. 건 어떤 어떤 걸로 웨어 인쑤가?{그러면 그 아까 이렇게 씨하고 숨하고 분리하는 그 물레. 그것은 어떤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10407 #1 그 아무 냥이나 안 웨는 거고.{그 아무 나무나 안 되는 것이고.}

10407 @1 예.{예.}

10407 그 불느는물레가 그 물렛퀴엔 현 게 인는디 그 물렛퀴는 이거 영 도라가게 흐나 돌리나네 두 개가 도라가게 웨는 건디 그 냥이 된 냥으로 허느냐면 굴무기로 해.{그 씨아가 그 물렛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 물렛퀴는 이것 이렇게 돌아가게 하나 돌리니까 두 개가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로 하느냐 하면 느티나무로 해.}

10407 @1 예 굴무기.{예 느티나무.}

10407 #1 예. 굴묵냥이 그 냥이 아무 냥이나. 경 헤영 그 멘네도 잘 머거주지 아녕 밍끌밍 끌허영 안 웨머는 토브로 영영 그걸 허머는 그 사락사락. 경 허민 멘네가 또 잘 머거주고. {예. 느티나무가 그 나무가 아무 나무나. 그렇게 해서 그 목화도 잘 먹어주지 않아서 미끌 미끌 해서 안 되면 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하면 그 사락사락. 그렇게 하면 목화가 또 잘 먹어주고.}

10407 #2 물렛퀴가 어멍허영 떼아젼쑤가?{물렛퀴가 어떻게 해서 틀어졌습니까?}

10407 #1 으?{뭐.}

10407 #2 귀?{귀?}

10407 #2 귀는 흐나는 반대 흐나는 영 허니까 하나 돌리니까 가치 영. 요즘 ㄹ트민.{귀는 하나는 반대 하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 돌리니까 같이 이렇게. 요즘 같으면.}

10407 #2 떼와져서 권.{틀어졌어. 귀는.}

10407 #1 자동차에 뭐야.{자동차에 뭐더라.}

10407 @1 베아링.{베어링.}

10407 #1 비아링 모양에.{베어링 모양에.}

10407 #2 귀는 떼와지고 이 멘네 메기는.{귀는 틀어지고 이 목화 먹이는.}

10407 #1 기아. 비아로는.{기어. 베어링은.}

10407 @1 아 기아.{아 기어.}

10407 #1 짜는 돌게만 허는 거고.{짜는 돌게만 하는 것이고.}

10407 #1 기아 모양으로 웬 거주. 그 물렌뛰가. 기아 모양으로 영 물러가지고 하나 돌리니까 두 개가 도라가게. 반대로 요 노른 영 돌곡 요 노른 영 돌곡 해야 그 멘네를 차먹게 웬.{기어 모양으로 된 거지. 그 물렛뛰가. 기아 모양으로 이렇게 물려서 하나 돌리니까 두 개가 돌아가게. 반대로 요 노른 이렇게 돌고 요 노른 이렇게 돌고 해야 그 목화를 차먹게 됐어.}

10407 #1 아랜 노미 돌리는 건디 아랜 노른 영 돌리나네 저레 도라가고 우에 노른 나신디레 오곡 경 허민 그치 멘네가 영 차머경 가게 웬는 거.{아래 노미 돌리는 것인데 아래 노른 이렇게 돌리니까 저리로 돌아가고 위에 노른 나한테로 오고 그렇게 하면 같이 목화가 이렇게 차먹어서 가게 되는 것.}

10407 #1 그 굴무기낭 아니민 그걸 똬지 아녀. 낭이 워낙 쉼 낭이라야.{그 느티나무 아니면 그것이 되지 않아. 나무가 워낙 쉼 나무라야.}

10407 @1 그러믄 아까 예를 들면 꼬리 차고 요쪽 몽실몽실하게 걸 멘들.{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꼬리 짜고 요쪽 몽실몽실하게 그것을 만들.}

10407 #2 꼬리밥.{실꾸리.}

10407 @1 예 씨를 멘들 꺼 아니우짱예. 그러믄 베트레 놔야 무명이 똬 꺼 아니우꽈?{예 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베틀에 놓아야 무명이 될 것 아닙니까?}

10407 #1 예. 베트레.{예. 베틀에.}

10407 @1 예.{예.}

10407 #1 베트레 올라올 땐 그 곧싸 발로 영 뎡이곡 똬 텐느데 건또 멩에낭이라고 그 베틀 우에 영 현 게 영 허민 요디 열려절땅 또 놔도 열려지곡 게난 그 완따간따 이레 갈 뎡 등기곡 요레 갈 뎡 놔주곡 허민 그 미녕이 영 벌려절따 똬와절따.{베틀에 올라올 때는 그 아까 발로 이렇게 당기고 무엇 했는데 그것도 멩에나무라고 그 베틀 위에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하면 여기 열려졌다가 또 놓아도 열려지고 그러니까 그 왔다갔다 이리로 갈 때는 당기고 요리로 갈 때는 놓아주고 하면 그 무명이 이렇게 벌려졌다 틀어졌다.}

10408 @1 게난 그 미명 찰 때 그 기구. 그 기구는 똬렌 불러마씨? 걸 베틀?{그러니까 그 무명 찰 때 그 기구. 그 기구는 똬라고 부르나요? 그것을 베틀?}

10408 #2 베클.{베틀.}

10408 #1 아 베.{아 베.}

10408 @1 여긴 베클.{여기는 베틀.}

10408 #1 베클. 베클.{베틀. 베틀.}

10408 @1 게난.{그러니까.}

10408 #1 멩에 또 뵈디.{멩에 또 바디.}

10408 @1 예.{예.}

10408 #1 북 . 허리띠.{북. 부티안개.}

10408 @1 도꼬마리.{도투마리.}

10408 #2 도꼬마리.{도투마리.}

10408 #1 뭐시 그 이르미 모르커라. 대로 영 갈라주는 게 인논디 그 대 이르미 뭔지?{무엇이 그 이름이 모르겠어. 대로 이렇게 갈라주는 것이 있는데 그 대 이름이 무엇인지?}

10408 #2 어디로 갈른 거?{어디로 가른 것?}

10408 #1 아 이 저 벌러지곡 또 이러케 벌러지곡 이러케 벌러지논디 대가 두 개 인짜나. 하난 우티레.{아 이 저 벌러지고 또 이렇게 벌러지고 이렇게 벌러지논데 대가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위로.}

10408 #3 베영때게?{뱍댕이요?}

10408 @2 베영때.{뱍댕이.}

10408 #2 예. 베영때.{예. 뱍댕이.}

10408 #1 대가 인논디.{대가 있는데.}

10408 # 베영때. 두 개. 그거 뭘 때부터 그 대를 놔서.{뱍댕이. 두 개. 그거 뭘 때부터 그 대를 놔어.}

10408 @2 베영때렌마씨.{뱍댕이라네요.}

10408 #1 게난 그 대 이르미 인쭈게. 그냥 대가 아니고.{그러니까 그 대 이름이 있지. 그냥 대가 아니고.}

10408 #2 어린 때 드러나도 생각나멘.{어릴 때 들었어도 생각나네.}

10408 @1 예. 베영때. 삼춘니미 기어기 조은 거라. 지금. {웃음.} 예예.{예. 뱍댕이. 삼춘이 기억이 좋은 거야. 지금. {웃음.} 예예.}

10408 #2 아니 그때양 막 어린 때 드러나고 할망네 허는 거 영 강 보곡 헤나서. 조금 기어기 남신게. 이즐 켜 이저부러도.{아니 그때요 막 어릴 때 들었어도 할머니네 하는 것 이렇게 가서 보고 했었어. 조금 기억이 나네요. 잊을 것은 잊어버려도.}

10408 @1 예예.{예예.}

10408 #1 겐디 이 부라게도 춤 언제까지는 다 그걸 미녕을 헐꼬. 우리도 멘네를 가라네 똥 경미 풀 때 7진 멘네로 해서.{그런데 이 마을에도 참 언제까지는 다 그것을 무명을 했고. 우리도 면화 갈아서 딸 경미 팔 때까지는 면화로 했어.}

10408 #2 다 허열쭈게.{다 했습니다.}

10408 #1 겐디.{그런데.}

10408 #2 인자만 아년.{인자만 안 했어.}

10408 #1 경우기허고 인자만 아년찌.{경옥이하고 인자만 안 했지.}

10408 #2 경오긴 허고.{경옥이는 하고.}

10408 #1 어어?{뭐라고?}

10408 #2. 허여서. 가인.{했어. 그 애는.}

10408 #1 아 게민 은자만 아년 거라. 똥 으슨. 다슨 개는 해주고 하나만 아년파는 거라. {아 그러면 은자만 안 한 거야. 딸 여섯. 다섯 개는 해주고 하나만 안 했다는 거야.}

10408 #2 다 저왈쭈다. 무겁뎌 허명.{다 저왔습니다. 무겁다고 하면서.}

10408 @2 음.{음.}

10408 @1 음.{음.}

10408 #2 요즘.{요즘.}

10408 @2 이제는 다 무겁뎌 저와부런꾸나.{이제는 다 무겁다고 저와버렸군요.}

10408 #2 다 무겁꼭 이건 다 저갑쎌 허연 나 이제 7랑 늑꼭 더껌쭈다.{다 무겁고 이것은 다 저가라고 해서 나 이제 깔아서 늑고 똥습니다.}

10408 @1 숨니부리.{숨이불이.}

10408 #2 이제양 게벼운 건떨양 존 건떨 텡이멍 정 나곡 허나네 다 설러갑써. 베게영 몬딱 저완.{이제요 가벼운 것들 좋은 것들 다니면서 그렇게 나고 하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베게랑 몽땅 저왔어.}

10408 #1 그 멘네 탈 때가 켈 바쁜 때라.{그 면화 탈 때가 켈 바쁜 때야.}

10408 @1 아.{아.}

10408 #1 이제는 뭐 이제도 가을 뜯민 이제도 미깡 타젠 허민 바쁘주마는 그뎨 뭐 고구마도 케야지 콩도 해야지 뭐 조도 해오지.{이제는 뭐 이제도 가을 들면 이제도 굴 타려고 하면 바쁘지만 그때는 뭐 고구마도 캐야지 콩도 해야지 뭐 조도 해오지.}

10408 #1 아 멘네도 받떠 허영케 케영 인찌. 이견또 멘네도 그 허영케 켜 때 빨리 안 타면은.{아 면화도 밭에 허영케 벌어져 있지. 이것도 면화도 그 허영케 벌어진 때 빨리 안 타면.}

10408 #2 자네 멘네 하영 헨쭈.{재네 면화 많이 했지.}

10408 #1 막 브름 불민 먼지가 막 부트거든.{마구 바람 불면 먼지가 마구 붙거든.}

10408 #1 게난 야네 어명도 급퍼민 강 드레채 막 탕은네 \*\*\* 일 빠른 짜르미난 바민 아방이영 툇리가 아장 불 쌍으네 그 노를 티 다드무멍 불이랑.{그러니까 애네 어머니도 급하면 가서 다래채 마구 타서 \*\*\* 일 빠른 사람이니까 밤에는 아버지랑 둘이 앉아서 불 켜서 그 놈을 티 다듬으면서 발라서.}

10408 #2 막 티가 부뜨주게.{마구 티가 붙지.}

10408 #1 각진 데껴불곡 멘네는 허곡 해신디. 참말 그 사름 바쁘디 그거 환장허게 쉼어럭 쉼 보민 목장에 강 흰허게 보이든 이 노른 멘네가 허영허난 받떠 케민 놈 보기실케 스방이 허영허게 보여.{각지는 던져버리고 면화는 하고 했는데. 참말 그 사람 바쁘디 그거 환장허게 쉼소 보민 목장에 가서 흰허게 보이든 이 놈의 면화가 하애니까 밭에 벌어지면 남 보기 싫게 사방이 허영게 보여.}

10408 @1 아.{웃음}.{아. {웃음}.}

10408 #1 꺼꺼헌디도 받떠 허영해분다 마려. 게민 그걸 안 허민 아이고 아무 지비 저 멘네도 몬 탐선게.{꺼꺼했는데도 밭에 허애버린다 말야.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아이고 아무 집에 저 면화도 못 타던데.}

10408 @1 게을렁.{게을러서.}

10408 #1 예. 게을렁. 그런 게 이션쭈.{예. 게을러서. 그런 것이 있었지.}

10408 #2 멘네도 잘도 케어서라.{면화도 많이 벌어졌더라.}

10408 #1 너미 말가부난.{너무 맑아버리니까.}

10408 #1 이거 이제 말로 ㄱ를 때 심상해도 정말 멘네 온받떠 가랑으네 세상 흰헌 뎨. 아 그걸 베리민 전부 온통 다 흐꿈 헌 생각또 뉘고. 겨니 그뎨 가으렌 다 바빠시난.{이거 이제 말로 말할 때는 심상해도 정말 면화 온밭에 갈아서 세상 흰할 때는. 아 그것을 보면 전부 온통 다 조금 한 생각도 되고. 그러니 그때는 가을에는 다 바빴으니까.}

10408 #2 경 아녀도 뉘는디.{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10408 #2 {웃음}. 경 아녀도 이젠 사라지는데. 더 존 거 더끄곡.{그렇게 안 해도 이제는 살아지는데. 더 좋은 것 댜고.}

10408 @1 예.{예.}

10408 #2 경헌디양 그뎨 그 무신.{그런데요 그때는 그 무슨.}

10408 #1 게도 이제 저 모실포 가며는 “에이고 그디 싸름덜 빈다리ㄴ찌 놀당 미깡만 베령 먹꼬 사라점시카.”{그래도 이제 저 모슬포 가면 “아이고 거기 사람들 빈털터리같이 놀다가 굴만 봐서 먹고 살아지는가”}

10408 #2 경 ㄴ라.{그렇게 말해.}

10408 #1 아 험디 우린 또 그 서촌 사름덜 뺑 “아이고 저영 일 아너민 먹꼬 몬 싸라. 흑뻔 띠 강 메날.”{아 하는데 우리는 또 그 서촌 사람들 봐서 “아이고 저렇게 일 안 하면 먹고 못 살아. 흙밭에 가서 만날.}

10408 #2 두 동이주게. 두 동이고 우린 일년.{이모작이지. 이모작이고 우리는 일년.}

10408 #1 어 허염젠 허는디.{아 한다고 하는데.}

10408 #1 지끔 제주시 보며는 대정읍부터 할림읍까지 싸라미 마니 시에 투자헌 건 마자. {지금 제주시 보면 대정읍부터 한림읍까지 사람이 많이 시에 투자한 것은 맞아.}

10408 #1 겐디 이 동춘 싸르른 남원 싸름더른 그런 대로민디. 투자헌 거 가튼디 그 다음 저레는 그 지형으로 허는 거 달마.{그런데 이 동쪽 사람은 남원 사람들은 그런 대로인데. 투자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저리로는 그 지형으로 하는 것 같아.}

10408 #1 그 저 사망쪽 그 동쪼그로 허고 이 서촌 싸르른 신제주 금방 과양 금방 이쪽디 레. 그 저 그거 경계가 똑 이신 거 ㄴ트더라고. 대략 무리보난.{그 저 삼양쪽 그 동쪽으로 하고 이 서쪽 사람은 신제주 금방 광양 금방 이쪽으로. 그 저 그거 경계가 꼭 있는 것 같더라고. 대략 물어보니까.}

10408 @2 게난 동쪽 싸르른 동쪼게만 살고 서촌 싸르른 서쪼게 살고.{그러니까 동쪽 사람은 동쪽에만 살고 서쪽 사람은 서쪽에 살고.}

10408 #1 어떠든 동쪽 싸름도 시에 마니 부터 인는 거나네.{어떻든 동쪽 사람도 시에 많이 붙어 있는 거니까.}

10408 @2 게난 그 기주니 관덕정어우다게. 관덕정을 중시므로 헤가지고 동쪽 싸르른에 관덕정을 너머가지 몬테. 또 서쪽 싸라른 관덕정을 너머가지 몬테.{그러니까 그 기준이 관덕정입니다. 관덕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사람은요 관덕정을 넘어가지 못해. 또 서쪽 사람은 관덕정을 넘어가지 못해.}

10408 #1 아 집 살 때도 그러케.{아 집 살 때도 그렇게.}

10408 @1 예. 마주다.{예. 맞습니다.}

10408 #1 허영 사는 거 가타.{해서 사는 것 같아.}

10408 @1 예. 관덕정 중시므로 헤여예.{예. 관덕정 중심으로 합니다.}

10408 #1 게난 우리 제주도 싸름만 그 도시 집쪼헌 게 아니라 육찌에서도 오긴 완쪼마는 대략근 이 농촌 싸르른 서귀포로는 벨로 안 부뻐는디 제주시는 쪼끔만 여유 이시면 제주시론 부튼 건 마자.{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사람만 그 도시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오기는 왔지만 대략은 이 농촌 사람은 서귀포로는 벨로 안 붙었는데 제주시는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제주시로는 붙은 것 맞아.}

10408 #1 겨난 사망이엔 허난 사망쪽또 그 엔날 우리 그디 삼춘 이선 간 뻔 사망이 뉘 그 런대로 뉘 헤선게 이젠 뉘 완전.{그러니까 삼양이라고 하니까 삼양쪽도 그 옛날 우리 거기 삼춘 있어서 갈 때 삼양이 뉘 그런대로 뉘 했던데 이제는 뉘 완전.}

10408 @1 지금 삼화개발 그 택찌개발 헤가지고예 지금 막 아파트덜 진젠 험쪼다.{지금 삼화개발 그 택지개발 해서요 지금 막 아파트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408 #1 아 진젠 허는 게 아니라 그디 막 개발.{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막

개발.}

10408 @2 지금도 막 개발돼부런지 뭐.{지금도 마구 개발되어버렸지 뭐.}

10408 #1 개발 돼어부런주게. 게난 이제 저.{개발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저.}

10408 #2 바당 인꼬.{바다 있고.}

10408 #1 애월읍비 지형은 엄청 우리 색딸리도 널르주마는 애월읍또 엄청 너르지. 애월 솔  
또에서 애월 그 맨사무소 강 오젠 허민 하루 해원 거렁 강 와야 돼여. 그 키로쭈 엄청 먼  
거릴 꺼야. 키로는 확씨리 모르겐는데.{애월읍이 지형은 엄청 우리 색달동도 넓지만 애월읍  
도 엄청 넓지. 애월 솔도에서 애월 그 맨사무소 가서 오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어서 가서  
와야 돼. 그 킬로 수 엄청 먼 거리일 거야. 킬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0408 #1 이제 게난 애월읍또 그 어떻 어떻헌 게 그만 이제 경마장까지 이어져부럼직켄게.  
게문.{이제 그러니까 애월읍도 그 어떻게 어떻게 한 것이 그만 이제 경마장까지 어어져버릴  
것 같던데. 그러면.}

10408 @1 만쭈다.{맞습니다.}

10408 #1 엄청난 인구가. 이젠 저 조천느비 떠러져. 애월읍쁘다.{엄청난 인구가. 이제는 저  
조천읍이 떨어져. 애월읍보다.}

10408 #2 이제 이레 이어집니다.{이제 이리로 이어집니다.}

10403 @1 게난 아까 목과 농사를 하고. 이젠 흑씨 삼도 가라뽑떠가? 삼.{그러니까 아까  
목화 농사를 하고. 이제는 흑씨 삼도 갈아봤습니까? 삼.}

10403 #2 삼?{삼?}

10403 @1 삼베. 삼베 멘드는 삼.{삼베. 삼베 만드는 삼.}

10403 #2 삼베는 아녀도 삼 가란 우리 뭇쨌쨌가? 그때.{삼베는 안 해도 삼 갈아서 우리 뭇  
엇했습니까? 그때.}

10403 #1 삼 가랑으네. 신 뒤텔기 텅기허곡 또 늘허곡 쉼 쉼안빠.{삼 갈아서. 신 뒤텔  
기하고 또 날 하고 소 참바.}

10403 #2 삼. 어주에 두 가지. 그 뭇 쭈께로 쪽쪽해그네.{삼. 어저귀 두 가지. 그 뭇 쭈  
께로 쪽쪽해서.}

10403 #1 이제 육찌엔 허는 거.{이제 육찌에는 하는 거.}

10403 @1 게문예. 한번 삼농사 한번 지언뎌 거 생가글 해서 그라쭈쭈?{그러면요. 한번 삼  
농사 한번 지었던 거 생각을 해서 말해주십시오?}

10403 #2 그냥 \*\*\* 해네 그 쉼석 그튼 거 허젠 아방이 헌 거. 그거.{그냥 \*\*\* 해서 그 굴  
레 같은 거 하려고 아버지가 한 거. 그것.}

10403 #1 이 저 뭇 여기 이제 텔레비 나오든 육찌에서 삼 해가지고 뭇 베 만들고 이런 거  
는 여기서 기어기 하나 얻꼬. 그거 연나래는 이제는 나이롱베가 마니 나오난 뭇 안심헌쭈마  
는 연나렌 제일 조은 베가 뭇냐. 저 신사라.{이 저 뭇 여기 이제 텔레비전 나오듯이 육찌에  
서 삼 해서 뭇 베 만들고 이런 것은 여기서 기억이 하나 없고. 그거 옛날에는 이제는 나일  
론바가 많이 나오니까 뭇 안심하지만 옛날에는 제일 좋은 바가 뭇냐. 저 신사라.}

10403 @1 예예.{예예.}

10403 #1 신사라가 제일 조은 걸로 허곡 그 다으른.{신사라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그  
다음은.}

10403 #2 망사리도 허곡.{망사리도 하고.}

10403 @1 어 꼭커고 이제 그 삼 그거를.{아 췌하고 이제 그 삼 그것을.}



10403 #2 삼허곡.{삼하고.}

10403 #1 또 억새.{또 억새.}

10403 @1 예.{예.}

10403 #1 억새가 그 얘기 뽕그랑이 벤 때 그 억새꽃 안 나온 때.{억새가 그 아기 뽕뽕하게 벨 때 그 억새꽃 안 나올 때.}

10403 @1 미뽕쟁이.{새품.}

10403 #1 예. 바께 안 나온 때 그 억새를 뽕바당 베 만들고. 그걸로 신발도 저 신날도 만드랴쭈. 초신할 때 늘. 신날.{예. 밖에 안 나올 때 그 억새를 뽕아다가 바 만들고. 그것으로 신발도 저 신날도 만들었지. 짚신할 때 날. 신날.}

10403 @1 예.{예.}

10403 #1 예. 그 억새 얘기 벤 때. 나오기 저네.{예. 그 억새 아기 벤 때. 나오기 전에.}

10403 #1 경 허곡 이 저 삼도 그걸 목적해네 헛는디 이 베 만드나 이런 거는.{그렇게 하고 이 저 삼도 그것을 목적해서 했는데 이 바 만드나 이런 것은.}

10403 @1 벤 안 만들고예?{바는 아니 만들고요?}

10403 #1 여기는.{여기는.}

10403 #2 꼭또 해날쭈다. 꼭 술마네 막 무레 간 두드리멍.{취도 했었습니다. 취 삶아서 막 물에 가서 두드리면서.}

10403 #1 계난 꼭. ㄴ람쭈게. 꼭또 그.{그러니까 취. 말하고 있지. 취도 그.}

10403 @1 꼭커고 삼하고 어주예.{취하고 삼하고 어저귀.}

10403 @2 어주에는 뽕우짜?{어저귀는 무엇입니까?}

10403 #2 어주엔 현 게 으름 동글락동글락 올이고.{어저귀라고 한 것이 열매 동글락동글락 열고.}

10403 @1 저 식물 이름 일썤. 어주예.{저 식물 이름 있어. 어저귀.}

10403 #2 으르미 뽕글락케영 저 고장.{열매가 동그래서 저 꽃.}

10403 #1 그거는 베 만드나 뽕 몬터곡.{그것은 바 만드나 무엇을 못하고.}

10403 #1 건 기냥 그 이제도 도냥 그건 허는 거쭈게. 현디 ㄸ근 저 거더다가 솟띠 낱으네 불체.{그것은 그냥 그 이제도 저절로 나와서 그것은 하는 것이지. 한데 취은 저 걷어다가 술에 ㅼ서 재.}

10403 @1 예. 불치 낱.{예. 재 놓아서.}

10403 #1 불체 낱으네 쓸망 무레 강 때리멍 꺾쭈를 번경 잘 몰라노론 먼썰쭈. 그걸로 베 만들민 정말 요즘 나이롱베 모양으로 깨끗터게 보이긴 현디.{재 넣어서 삶아서 물에 가서 때리면서 꺾질을 벗겨서 잘 마르면 멋졌지. 그것으로 바 만들면 정말 요즘 나일론바 모양으로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10403 #2 해양해. 막 두드리멍 뽕랑. 오랑 너러그네.{하예. 막 두드리면서 빨아서. 와서 널어서.}

10403 #1 계난 취고로 조은 거는.{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은.}

10403 @1 신사라.{신사라.}

10403 #1 신사라. 신사라로 허민 신사라도 귀허니까 아까 그 억새 해당으네 난 신사라도 어스난 억새 신날 허영 신 사망 시너.{신사라. 신사라로 하면 신사라도 귀하니까 아까 그 억새 해다가 나는 신사라도 없으니까 억새 신날 해서 신 삼아서 신어.}

10403 @1 계난 그 얘기벤 때 그 하얀 걸 여기선 뽕엔 ㄴ라마썤? 미?{그러니까 그 아기벤

때 그 하얀 것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

10403 #2 미빠쟁이.{새품.}

10403 #1 예. 미빠쟁이.{예. 새품.}

10403 @1 미빠쟁이?{새품?}

10403 #2 그건또 피료.{그것도 필요.}

10403 #1 억새엔 곧지 아녕으네 어욱 미빠쟁이 뽀바당.{억새라고 말하지 않고 억새 새품 뽑아다가.}

10403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403 #1 억새엔 허는 건 이제 말허는 거고.{억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이고.}

10403 #2 꼭 깨영으네 뱅뱅 그 올라왕. 억새꼬시 막 피민 거 영 노멍 노멍 뱅뱅 가므멍 헤 그네 불. 성냥 으신 때. 성냥 으신 때 그거세 불 부쩍땅.{침 깨서 뱅뱅 그 올라와서. 억새꽃 이 막 피면 이렇게 그것 놓으면서 놓으면서 뱅뱅 감으면서 해서 불. 성냥 없을 때. 성냥 없을 때 그것에 불 붙였다가.}

10403 예.{예.}

10403 #1 거 화승.{그것 화승.}

10403 #2 화승. 멘드랑 화승.{화승. 만들어서 화승.}

10403 #1 그거는 저 어욱꼬시 막 만발헌 걸 허여당.{그것은 저 억새꽃이 막 만발한 것을 해다가.}

10403 @1 꼭쫄로.{침쫄로.}

10403 #1 이제 꼭.{이제 침.}

10403 #2 아니.{아니.}

10403 #1 꼭 깨영으네.{침 깨어서.}

10403 @1 예.{예.}

10403 #2 그 놈을 툄툄툄툄 믋라가지고 요마니 뚜끼로 믋랑 화승이라고 만드랑 옛날 불 어신 뎡 그거에 아치미 받 깔레 갈 때도 그 꼬세 불 부쩍 받띠 강 떡 놔둬서 담배를 피완 꼬.{그 놈을 툄툄툄툄 말아서 요만한 두께로 말아서 화승이라고 만들어서 옛날 불 없을 때는 그것에 아침에 받 갈러 갈 때도 그 끝에 불 붙여서 발에 가서 떡 놔두고 담배를 피웠고.}

10403 @1 젠디 화승이렌 헐쭈가?{그런데 화승이라고 했습니까?}

10403 #2 화승.{화승.}

10403 #1 우린 화승.{우리는 화승.}

10403 @1 아 화심 안 허고{아 화심 안 하고.}

10403 #1 예. 화승.{예. 화승.}

10403 @1 아 화승.{아 화승.}

10403 @2 화승이라고 헌 데도 이서.{화승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10403 #1 으 화승. 그 우린 그 화승이라고만 헐찌.{예 화승. 그 우리는 그 화승이라고만 했지.}

10403 @1 게난 그건예. 삼촌님 뭐냐 허면 꼭도 늘 걸로 해야돼마씨.{그러니까 그것은요. 삼촌님 뭐냐 하면 침도 날 것으로 해야돼요.}

10403 #2 늘 거 깨영.{날 것 깨서.}

10403 @1 예. 늘 걸로 해야 이노미 몰라가멍 바짝 분는다고.{예. 날 것으로 해야 이놈이

말라가면서 바짝 붙는다고.}

10403 #2 잘 아람서.{잘 아네.}

10403 #1 깨영.{깨어서.}

10403 @1 예. 만쭈다. 깨영.{예. 맞습니다. 깨어서.}

10403 #1 웃음. 겐또 온통으로 아너고.{웃음. 그것도 온통으로 앓고.}

10403 @1 깨영예.{깨어서요.}

10403 #1 바레 영 해둬서.{발에 이렇게 해두고서.}

10403 @1 예. 영 영 영 영 나사시그로.{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사식으로.}

10403 #1 어욱 그 미빠쟁이. 그거 허영 영 영 허영 가르민 요 정도씩 다 만드라. 요 정도씩 다 허민 요거 하루 분. 하루 어둡도록 받떠 강 계속 이쓰난.{억새 그 새폼. 그것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으면 요 정도씩 다 만들어. 요 정도씩 다 하면 요거 하루 분. 하루 어둡도록 발에 가서 계속 있으니까.}

10403 @2 아 하나가 하루 분이라예?{아 하나가 하루분이라고요?}

10403 #1 예. 그 불 부짱 야치미 딱 아정가민 나마도 무신 거 혼 뽐 정도 나르나마나. 게민 지비 왕 어찌어찌 허당 보민 그날 거 혼 \*\* 추분.{예. 그 불 붙여서 아침에 딱 가져가면 남아도 무슨 거 한 뽐 정도 남으나마나. 그러면 집에 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면 그날 그거 하나 \*\* 추분.}

10403 #2 불 으시난 그거.{불 없으니까 그거.}

10403 #2 잘헌 사름드른 혼 지비 어떤 혼 오십 깨써근 만드랑 이서. 그겐또 업는 지븐 언꼬.{잘한 사람들은 한 집에 어떤 한 오십 개씩은 만들어 있어. 그것도 없는 집은 없고.}

10403 @1 여자만 인는 지븐 뭐 어십쭈게.{여자만 있는 집은 뭐 없지요.}

10403 #1 예. 게난 그 이젠 뭐 나이타여 뭐여 헐쭈마는 그 당신 뭐 불 헐. 겐디 나도.{예. 그러니까 그 이제는 뭐 라이터다 뭐다 했지만 그 당시는 뭐 불 할. 그런데 나도.}

10403 #2 ㄴ시락또 불 피왕 놔둬서 불 부렁.{까끄라기도 불 피워서 놔두고서 불 붙어서.}

10403 #1 어떠냐 허면.{어떻게 하나 하면.}

10403 #2 모기 방지허곡. ㄴ스락 뽐 허영.{모기 방지하고. 까끄라기 불 해서.}

10403 #2 연날 그 내승 내승 다마. 깡통 똥글락헌 거 요마니 헌 거. 그거에 숨 넣으네 저 큰동산 가민 부들 인써. 그걸로 호미 꺼꺼진 거 허영 탁탁 따리민.{옛날 그 내승 내승 친구. 깡통 동그란 것 요만큼 한 거. 그것에 숨 넣어서 저 큰동산 가면 부싯들 있어. 그것으로 낫 꺾어진 것 해서 탁탁 때리면.}

10403 #2 부리 나와.{불이 나와.}

10403 @1 밀뽐 해영으네 그 소메 부뜨민 담배 피우곡 나도 그거 아정 땡기멍ㄱ진 해봐신디.{밀불 해서 그 숨에 붙으면 담배 피우고 나도 그거 가져서 다니면서까지는 해봤는데.}

10403 #1 사그마치. 사발 벌러진 걸로도 이거 때리민 불 부뜨곡.{사금파리. 사발 벌러진 것으로도 이거 때리면 불 붙고.}

10403 #2 부세엔 헌 게 이선쭈다. 불내는 거.{부시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 내는 거.}

10403 #1 아 게난 부세는 하르방. 위낙 급쭈킨 돈 인는.{아 그러니까 부시는 할아버지. 위낙 급쭈킨 돈 있는.}

10403 #2 우리 하르방은 부세.{우리 할아버지는 부시.}

10403 #1 부세 이선찌. 나사 부세 사곡 헐 정시니 업는 사르미나네 호미 꺼꺼진 거 내분 거 해네 영 두드리니까.{부시 있었지. 나야 부시 사고 할 정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낫 꺾어

진 것 내버린 것 해서 이렇게 두드리니까.}

10403 @1 예. 게난 어떤 모시를 찔려고 사들 가라본 건 아니구나예?{예. 그러니까 어떻게 모시를 찔려고 삼을 가라본 것은 아니군요.}

10403 #1 아 그런 건 우리 부라겐 아무 디도.{아 그런 것은 우리 마을에 아무 데도.}

10407 @1 예 예 예 예 예. 그러문 길쌈을 할 때 쓰는 도구드른 어떤 거 이신고마씨? 불르는물레도 인씨야 웰 꺼고 베틀도 인씨야 웰 꺼고.{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길쌈을 할 때 쓰는 도구들은 어떤 것 있나요? 씨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베틀도 있어야 될 것이고.}

10407 #2 테우는 클도 인꼬.{타는 틀도 있고.}

10407 @1 테우는 클.{타는 틀.}

10407 #2 숨 테우는 거.{숨 타는 거.}

10407 @1 예예.{예예.}

10407 #1 영 준는물레 불르는물레 뭐.{이렇게 물레 씨아 뭐.}

10407 #2 브르는물레 준는물레.{씨아 물레.}

10407 #1 이르른 뭐 다 거저 거저 ㄴ튼 일름.{이름은 뭐 다 거의 거의 같은 이름.}

10407 @2 틀려마씨.{달라요.}

10407 #1 겐디 모양은 딱난딘.{그런데 모양은 다른데.}

10407 @2 또 쪽 ㄴ라뽑씨?{또 쪽 말씀해보십시오?}

10407 @1 게난 물레도 불르는 거 인꼬. 트는.{그러니까 물레도 바르는 거 있고. 타는.}

10407 #1 준는물레 인꼬.{물레 있고.}

10407 @1 준는물레 인꼬.{물레 있고.}

10407 #2 준은 거 인꼬.{жат는 것 있고.}

10407 @1 예. 그럼 다시 한번만예? 그 불르는물레는 영 영 돌리는 걸 뭐엔 ㄴ라마썸?{예. 그럼 다시 한번만요. 그 씨아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0407 #2 즈록. 즈록.{자루. 자루.}

10407 @1 즈록. 영 똥글랑헌 거 마씨?{자루. 이렇게 둥근 것은요?}

10407 #2 똥글랑헌 거 이짜게는 물레귀.{둥근 것 이쪽에는 물레귀.}

10407 @1 예. 물렛귀.{예. 물렛귀.}

10407 #2 영 메기는 딴 물레.{이렇게 먹이는 데는 물레.}

10407 @1 예.{예.}

10407 #2 이짜겐 뱅뱅 도라가는 건 귀.{이쪽에는 뱅뱅 돌아가는 것은 귀.}

10407 #1 또 물레지둥 인꼬.{또 물렛기둥 있고.}

10407 @1 예.{예.}

10407 #1 양폐니 영 세와져야.{양편에 이렇게 세워져야.}

10407 #2 지둥. ㄴ라안는 디.{기둥. 깔아얹는 데.}

10407 #1 ㄴ라안는 틀.{깔아얹는 틀.}

10407 @1 예.{예.}

10407 #2 틀.{틀.}

10407 #1 요거 반마닌 헌 거 이레 ㄴ라안게 영.{요것 반만큼 한 것 이리로 깔아얹게 이렇게.}

10407 #2 요마니 질게 허영 ㄴ라아자알 꺼.{요만큼 길게 해서 깔아얹아야 할 것.}

10407 #1 ㄴ라안지 아녀민 이노미 혼드니까.{깔아얹지 않으면 이놈이 혼드니까.}

10407 #2 널. 널파니주 널판. 나무로 멘드랑.{널. 널판이지 널판. 나무로 만들어서.}

10407 @1 예. 그 다으메 또 차는 물렌마씨?{예. 그 다음에 또 짜는 물레는요?}

10407 #1 예?{예?}

10407 @1 차는 물레도 인찌 아너우짱?{짜는 물레도 있지 않습니까?}

10407 @2 여긴 준는물레. 여긴.{여기는 물레. 여기는.}

10407 @1 아 준는물레?{아 물레?}

10407 #1 예. 준는물레.{예. 물레.}

10407 #2 차는 건 미녕 차는 거베피.{짜는 것은 무명 짜는 것밖에.}

10407 #1 준는물렌 ㄱ라 알찌 아너도 똬여. 여기 그 가레기 끼우는 걸 뽀고 뉘엔 허는고?  
{물레는 깔아 앉지 않아도 돼. 여기 그 가락 끼우는 것 보고 뭐라고 하는가?}

10407 #2 가레기 끼우는 거.{가락 끼우는 것.}

10407 #1 아니 가레기 말고. 그 물레레 영 끼왕.{아니 가락 말고. 그 물레에 이렇게 끼워서.}

10407 @1 요거 요거 보십씨예.{요것 요것 보십시오.}

10407 @1 요건 아까 멘네 멘네를 타다그네에 꼰커고 씨하고.{요것은 아까 면화 면화를 타다가 꽃하고 씨하고.}

10407 #2 터는 거.{떠는 거.}

10407 #1 분혜허는 거. 이거 둘렁 이진 ㄱ라 아장 허는 거고.{분리하는 거.이거 둘러서 이것은 깔아 앉아서 하는 것이고.}

10407 #2 저건 즈루기고.{저것은 자루고.}

10407 #1 이진.{이것은.}

10407 #2 이진 귀답따. 이거.{이것은 귀같다. 이거.}

10407 #1 저 준는물레 달믄디.{저 물레 같은데.}

10407 @1 예. 준는물레 마자.{예. 물레 맞아.}

10407 #2 도로기 뱅뱅 도라가는 거.{바퀴 뱅뱅 돌아가는 거.}

10407 #1 아 켄디 이게 그리프론 이상허네.{아 그런데 이것이 그림으로는 이상하네.}

10407 #2 어떻허연 이상허우파?{어떻게 해서 이상합니까?}

10407 #1 가레기 끼우는 트리 이 물레레 영 끼와져실 꺼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르미 뉘라. 이 이르미.{가락 끼우는 틀이 이 물레에 이렇게 깨워졌을 것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름이 뭐야. 이 이름이.}

10407 @1 이거시.{이것이.}

10407 @2 준는물레.{물레.}

10407 #1 요거 가레기고.{요거 가락이고.}

10407 @1 예. 준는물레.{예. 물레.}

10407 #1 이진 준는물레.{이것은 물레.}

10407 #2 이진 모르커라.{이것은 모르겠어.}

10407 #1 이 이 틀.{이 이 틀.}

10407 #1 이게 이레 끼여지난 이거 둘러도 움직꺼리질 아너지. 요 틀 때무네.{이것이 이리로 끼워지니까 이거 둘러도 움직꺼리지 않지. 요 틀 때문에.}

10407 @1 예.{예.}

10407 @2 이게 가레기 아니우파예?{이것이 가락 아닙니까예?}

10407 #1 그거 췌고 그거.{그거 쇠고 그거.}

10407 @2 췌 가레기고. 이거는?{쇠 가락이고. 이것은?}

10407 #1 게메 이 틀 이르미 인는다. 웃음.{그러게 이 틀 이름이 있는데. 웃음.}

10407 #2 틀 이르문 몰라.{틀 이름은 몰라.}

10407 @2 이거는?{이것은?}

10407 @1 게난 다크 오겔랑 쫘 그라줍써예?{그러니까 다음에 오면은 쫘 말해주십시오?}

10407 @2 이 질게.{이 길게.}

10407 #2 이 거는 저 뭐. 이어진 거 저 줄 거시기.{이것은 저 뭐. 이어진 것 저 줄 거시기.}

10407 #1 어쨌든.{어쨌든.}

10407 #2 썰 담파. 썰.{실 담다 실.}

10407 #1 아이 썰 아이.{아니 실 아니.}

10407 @1 썰 아래 꺼마썰.{실 아래 거예요.}

10407 #2 아래.{아래.}

10407 @2 요 썰 아래 낭.{요 실 아래 나무.}

10407 #2 아 나무.{아 나무.}

10407 #1 이거는 이 거에 감겨다네 가레기허고 영결헌 씨리 만는데 이걸또 이르미 이실 꺼라.{이것은 이것에 감겨다가 가락하고 연결한 실이 맞는데 이것도 이름이 있을 거야.}

10407 @1 예. 게난 다크 오겔랑 그라줍써예? 한번 튼넹.{예. 그러니까 다음에 오거든 말씀해주십시오. 한번 떠올렸다가.}

10407 #1 이진 이 씨른 뭘 메긴 거냐면 벌, 벌 그 저 쭈시.{이것은 이 실은 무엇을 먹인 것이냐면 벌, 벌 그 저 지꺼기.}

10407 @1 밀납.{밀납.}

10407 #1 밀. 그걸로 씨를 막 달화가지고 찢기게 \*\*커게 해넌 이 가레기허고 요 물레허고 연결허면 이거 돌리민 이 가레기가 도라가게 뒤텔썰.{밀. 그것으로 실을 마구 달루어서 찢기게 \*\*해서 이 가락하고 요 물레하고 연결해서 이거 돌리면 이 가락이 돌아가게 되었어.}

10407 #2 썰 춤 저 인찌 아녀파? 이견뎌. 나무. 트로트로 안 나게 허는 건또 그 줄로 허는 거 아니?{실 참 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나무. 따로따로 안 나게 하는 것도 그 줄로 하는 것 아니?}

10407 #1 아니. 이거는 저 푸는체 멘드는.{아니. 이것은 저 키 만드는.}

10407 #2 게난 그거.{그러니까 그거.}

10407 #1 무신 낭이냐.{무슨 나무냐.}

10407 #2 나문 나문디.{나무는 나무인데.}

10407 #1 그걸로 만드라네 이제 일로 연결허는 건 그로 영 영 영 영 연결 쉰썰. 이제는 장귀는 요즘 조은 노로 영 영 영 영 쉰썰마는 엔나른 나이롱 노가 어시난 요 그로 영 . {그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리로 연결하는 것은 줍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어. 이제는 '장귀'는 요즘 좋은 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옛날은 나일론 노가 없으니까 요 줍으로 이렇게.}

10407 #2 그로만 문뜰 쉰썰. 그로만.{줍으로만 몽땅 했지. 줍으로만.}

10407 #1 허연는데 요 나무가 자귀낭이라.{했는데 요 나무가 자귀나무야.}

10407 #1 겐디 요 틀허고 요거 허곡 요 트른 단단한 나무나네.{그런데 요 틀하고 요것 하고 요 틀은 단단한 나무니까.}

10407 #2 이거는.{이것은.}

10407 #1 이거 즈베낭. 이겜또 즈베낭. 즈베낭인데 나무는 요거만 이제 저 뭐야. 자귀낭. 그 자귀낭이.{이것 구슬잣밤나무. 이것도 구슬잣밤나무. 구슬잣밤나무인데 나무는 요것만 이제 저 뭐야. 자귀나무.}

10407 @2 요즘 꼴 피는 거예?{요즘 꽃 피는 거지요?}

10407 #1 예. 뭘또 댜. 저 푸는체 어음도 자귀낭. 총체나 대체나 요런 체 어음도 자귀낭이 그 알따라허게 깨어지는 따문 자귀낭.{예. 무엇도 되어. 저 키 가장자리도 자귀나무. 총체나 대체나 요런 체 가장자리도 자귀나무가 그 얇게 깨어지는 따문 자귀나무.}

10407 #1 게난 요겜또 자귀낭인데 요 썰 이름허고 요 틀 이름허고 이거는 버텅.{그러니까 요것도 자귀나무인데 요 실 이름하고 요 틀 이름하고 이것은 버텅.}

10407 #1 이거 버텅 아닌가?{이것 버텅 아닌가?}

10407 @2 버텅?{버텅?}

10407 #2 버텅 이거양 가레기 끼우는 디라.{버텅 이거요 가락 끼우는 데야.}

10407 #1 버텅.{버텅.}

10407 #2 게난 버텅 여기 영 안썰 놔. 버텅이라.{그러니까 버텅 여기 이렇게 얹혀 놔. 버텅이야.}

10407 #1 이거 버텅일 꺼라.{이거 버텅일 거야.}

10407 #2 저 이거 가레기 끼우젠 허난에 혼드니까. 가레기가 탈탈 흥그니까 이거 버텅 영 췌췌허게 허게.{저 이거 가락 끼우려고 하니까 혼드니까. 가락이 탈탈 혼드니까 이거 버텅 이렇게 평평하게 하게.}

10407 @1 예.{예.}

10407 #1 아 게난 요거영 다 한빠네 버텅을 허니까 흔들진 아녀메. 이거 이겜또.{아 그러니까 요것이랑 다 한번에 버텅을 하니까 흔들리진 않아. 이거 이것도.}

10407 #2 이겜또 이거 흔들카부덴 이거 버텅 헛 거.{이것도 이거 흔들릴까봐 이거 버텅 한 거.}

10407 #1 허나네.{하니까.}

10407 @1 예 조쭈다. 버텅 게난 다텔메 한번 무러보쿠다예.{예 좋습니다. 버텅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407 #1 아 버텅이 마질 꺼여. 뜰림어시. 게난 요 썰 이름만 알른 댜는디.{아 버텅이 맞을 거야. 뜰림없이. 그러니까 요 실 이름만 알면 되는데.}

10409 @1 그 다텔메예 무명 혼 피리면 얼마쭈 댜니까?{그 다음에요 무명 한 필이면 얼마쭈 되나요?}

10409 #2 혼 필 열대 자.{한 필 열대 자.}

10409 #1 서른 자가.{서른 자가.}

10409 #2 춤 서른, 서른 자, 서른 네 자.{참 서른, 서른 자. 서른네 자.}

10409 #1 서른 자가 혼 필게. 미녕이나 베나.{서른 자가 한 필이야. 무명이나 베나.}

10409 #2 서른 자? 서른네 잔 중 아란.{서른 자? 서른네 자인 줄 알았어.}

10409 @1 아 서른 자가 혼 필.{아 서른 자가 한 필.}

10409 #1 여기 선 혼 필.{여기서는 한 필.}

10409 @1 건 무명이나 뭐 삼베나 모시나?{그것은 무명이나 뭐 삼베나 모니사?}

10409 #2 혼 피른 꼭ㄱ따.{한 필은 똑같아.}

10409 @1 아 그러우파?{아 그렇습니까?}

10409 #1 광모근 틀리지.{광목은 다르지.}

10409 @1 아 광모근 어떻 틀림니까?{아 광목은 어떻게 다릅니까?}

10409 #2 필로 허난.{필로 하니까.}

10409 #1 광모근 얼마가 혼 피린지 모르겠는데.{광목은 얼마가 한 필인지 모르겠는데.}

10409 #2 그냥 필로 허곡 마로 허니깐.{그냥 필로 하고 마로 하니까는.}

10409 #1 건 마로 대랴근 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کن게.{그것은 마로 대략은 하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네.}

10409 #1 여기서 허기는 미녕 베 다 거 저 서른 자가 혼 피리나넨.{여기서 하기는 무명 베 다 거 저 서른 자가 한 필이니까.}

10409 #2 드리보주마는 서른네 자 아닌가?{들어보겠지만 서른네 자 아닌가?}

10409 #1 아니 서른 자.{아니 서른 자.}

10409 @2 드리뵈써?{들어보십시오?}

10409 #1 사람 도라가성 베 혼 피리며는 다 무끝 쑈 인쥬.{사람 돌아가셔서 베 한 필이면 다 묶을 수 있지.}

10409 @1 예예.{예예.}

10409 #1 일곱 매하고 우 알 혼번 영 돌려 인는 거 허고, 그게 그 사름 무끄는 건또 등신 큰 사르문 그 두 자 반 든덴 허는디.{일곱 매듭하고 위 아래 한번 이렇게 돌려 있는 것 하고, 그것이 그 사람 묶는 것도 몸통 큰 사람은 그 두 자 반 든다고 하는데.}

10409 @1 그러믄예?{그러면요?}

10409 #2 두 자 반 안 듬니까?{두 자 반 안 드나요?}

10409 저 미녕, 저 미녕인 경우 그 씨리 촛촛촛 늘 가튼 거 촛촛머게 논 건또 인꼬 그러지 아는 건또 인쑈 꺼 아니우짱예? 게영 율쑤미녕이니 일곱쑤미녕이니.{저 무명, 저 무명인 경우 그 실이 촛촛촛 날 같은 거 촛촛하게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옛새무명이니 일곱새무명이니.}

10409 #2 예예. 저 홀근 거는 단쑤미녕도 인꼬 들들헌 거. 율쑤미녕. 일곱쑤미녕은 아주 줍진 거.{예예. 저 굵은 것은 닛새무명도 있고 들들한 것. 옛새무명. 일곱새무명은 아주 자잘한 것.}

10409 @1 아주 줍진 거.{아주 자잘한 것.}

10409 #2 예. 중쑤. 단쑤미녕.{예. 중쑤. 닛새무명.}

10409 #1 게난 그 홀근 게.{그러니까 그 굵은 것이.}

10409 #2 율쑤미녕은 중쑤.{옛새무명은 중쑤.}

10409 @1 예예.{예예.}

10409 #1 그 갈중이가.{그 갈중의가.}

10409 #2 일곱쑤미녕은 쑤 줍진 거.{일곱새무명은 쑤 자잘한 것.}

10409 @1 아아.{아아.}

10409 #2 덜덜헌 거 단쑤미녕.{덜덜한 것 닛새무명.}

10409 #1 줍진 거 보단 홀근 게 갈중이 멘들민 더 쑤기곡.{자잘한 것 보다는 굵은 것이 갈중의 만들면 더 질기고.}



10409 #2 씨리 그거 왕쌀로 멘드란젠 해서. 왕쌀. 훌근 쌀.{실이 그것 왕쌀로 만들었다고 했어. 왕쌀. 굵은 실.}

10409 #1 감모시엔 헌 게 저 황토 해단도 허고 무슨 야채로도 허곡 다 험쭈마는 진짜로 가물 드리면 그 오시 비올 때도 팡팡헤영 조코.{감옷이라고 한 것이 저 황토 해다가도 하고 무슨 야채로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로 감을 들이면 그 옷이 비올 때도 단단해서 좋고.}

10409 @1 비도 안 셀고예?{비도 안 새고요?}

10409 #1 또 저 출발띠 강 일해도 따미 안 차.{또 저 풀밭에 가서 일해도 땀이 안 차.}

10409 @1 땀미 안 차.{땀이 안 차.}

10409 #1 겐디 요즘 그 저 황토로 허나 약푸르로 헨 헌 그 갈중이는 이병 비 마지민 모메 막 부뜨고.{그런데 요즘 그 저 황토로 하나 약품으로 해서 한 그 갈중의는 입어서 비 맞으면 몸에 막 붙고.}

10409 #2 모메 부뜨지 아녀주게. 엔나른.{몸에 붙지 않지. 옛날은.}

10409 #1 그 팬트가 마냐게 힌 거 이번따 허민 오피 갈중이 돼부러.{그 팬티가 만약에 흰 것 입었다고 하면 그만 갈중의 되어버려.}

10409 @1 으음.{으음.}

10409 #1 비 마즈른. 땀 차고 뭐 허든.{비 맞으면. 땀 차고 뭐 하면.}

10409 #1 게난 옛날 진짜 감오슨 팬티가 힌 거 이버도 물 안 드릴써.{그러니까 옛날 진짜 감옷은 팬티가 흰 것 입어도 물 안 들었어.}

10410 @1 그러든 아까 혼 피리 서른 자면요 흐룬빠미면 멘 피를 짜신고예? 할머니 멘 필 째텐 헉디까?{그러면 아까 한 필이 서른 자면요 하룻밤이면 몇 필을 짤까요? 할머니 몇 필 짤다고 하던가요?}

10410 #2 혼 빌. 혼 빌베끼 몬 짜.{한 필. 한 필밖에 못 짜.}

10410 #1 흐루?{하루?}

10410 #2 아니. 밤메. 저녁게.{아니 밤에. 저녁에.}

10410 #1 혼 필 짜지는가?{한 필 짤 수 있는가?}

10410 #2 밤메 무사 몬 짬니까?{밤에 왜 못 짜나요?}

10410 @1 아이고.{아이고.}

10410 #2 혼 피른 짬니다게. 바멘. 나진 헤도.{한 필은 짬니다. 밤에는. 낮에는 헤도.}

10410 #1 그러치 아녀실 꺼라.{그렇지 않았을 거야.}

10410 #2 필 차는 거는 확씨리 몰라.{필 짜는 것은 확실히 몰라.}

10410 @1 음.{음.}

10410 #1 나도.{나도.}

10410 @1 흐룬빠미든 혼 필 짜?{하룻밤이면 한 필 짜?}

10410 #2 서른 자 몬 짬니까게.{서른 자 못 짬니까?}

10410 #1 아이고 우리 어머니.{아이고 우리 어머니.}

10410 #2 막 제여. 우리 할망. 완전 영 노록 영 노록.{막 제어. 우리 할머니. 완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10410 @2 막 잘 헤날쭈나예?{막 잘 했었군요?}

10410 #2 아이고 우리 할머니예.{아이고 우리 할머니요?}

10410 @1 무명이나 모시나 삼베나 꼭가틀 끼우짱? 차는 건?{무명이나 모시나 삼베나 똑 같을 겁니까? 짜는 것은?}

10410 #2 예.{예.}

10410 @1 아아.{아아.}

10410 #2 아니 경헌디야 그디 자가 좀 모자랜 겐또 이서. 어떤 디 우리가 사당으네 영 해보며는 모시도 모자랜 게 인꼬 멩지도 모자랜 게 인꼬. 쫘쫘쫘. 그 피레서 좀 모자랜 거시 이서. 자에서.{아니 그런데요 거기 자가 좀 모자란 것도 있어. 어떨 때 우리가 사다가 이렇게 해보면 모시도 모자란 것이 있고 멩주도 모자란 것이 있고. 조금씩은. 그 필에서 좀 모자란 것이 있어.}

10410 #1 그 미녕도 썰 놀 때 그게 다 제여네 기럭썰 제여네 저디 그 쉼 ㄱ리칠 때 저 ㄱ레착 헨젠 행게 그 ㄱ레차게 그 ㄱ록뜨레 강 썬를 걸릴 때도 그 거리를 딱 제연.{그 무명도 실 날 때 그것이 다 재서 길이를 재서 저기 그 소 가르칠 때 저 멩돌 했다고 하던데 그 멩돌에 그 자루에 가서 실을 걸릴 때도 그 거리를 딱 재서.}

10410 #2 양 그거 무신 겨우파?{여보세요. 그것 무엇입니까?}

10410 #1 어.{뭐?}

10410 #2 미녕 찰 때 저 양페니 쉼 헤어지고 현 꼬부랑헌 망텅이 미명을 벌겨지렌. 짜지멍.{무명 찰 때 저 양편에 쇠 해지고 한 꼬부랑한 막대 무명을 벌여지라라고. 짜지면서.}

10410 #1 게 버, 버통. 버텅.{그게 버, 버텅. 버텅.}

10410 #2 버텅이 아닐 꺼디. 벌겨진. {버텅이 아닐 텐데. 벌어진.}

10410 #1 게 버텅.{그것이 버텅.}

10410 #2 양페니 영 썰렁. 또 마니 짜지민 도꼬마리에 가마뒤그네 또 그걸 고쟁 썰렁 허는 게.{양편에 이렇게 썰러서. 또 많이 짜지면 도투마리에 감아두고 또 그것을 고쳐서 썰러서 하는 거.}

10410 #1 도꼬마리엔 현 거는 썰 놀 때 썰 감는 게 도꼬마리고 또 여기 베에 가물 땀 허는 건 거 이르른 뭐라?{도투마리라고 한 것은 실 날 때 실 감는 것이 도투마리고 또 여기 베에 감을 때는 하는 것은 그것 이름은 뭐야?}

10410 #2 감는 거. 몰라.{감는 거. 몰라.}

10410 #1 아 그걸 또 이르미 인는다.{아 그것을 또 이름이 있는데.}

10410 @1 거 그냥 허리 아니우팡?{그것 그냥 허리 아닙니까?}

10410 #2 아니 여긴.{아니 여기는.}

10410 #1 이거 허리땀 인꼬.{이것은 허리땀은 있고.}

10410 #2 허리땀은 여기 두이로 허리땀도 허리땀이 아니라. 그게 저 무시거 푸는체 멩그는 그 나무 넓썩썩 나무 달마.{허리땀은 여기 뒤로 허리땀도 허리땀이 아니야. 그것이 저 무슨 거 키 만드는 그 나무 넓적한 나무 같아.}

10410 #1 아니 그건 저 뭐로 만드라네?{아니 그것은 저 무엇으로 만들어서?}

10410 #2 뭐로?{무엇으로?}

10410 #1 이 저 미녕으로 만든 건 낭 아니.{이 저 무명으로 만든 것은 나무 아니.}

10410 #2 아이고 우리 하르방 몰람꾸나. 그거 낭 이디 탁.{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모르는구나. 그것 나무 여기 탁.}

10410 #1 하이고 낭허민 그 가마지는 게 양페느로 요러케 두 개로 이비 벌런썬. 영 이비 벌런 인는다 이거 가망 그 허리땀이 영 등경 이레 콧 걸리메. 아이고 그거 낭이른 이거 걸려지는가?{아이고 나무하면 그 감아지는 것이 양편으로 요렇게 두 개로 입이 벌어졌어. 이렇게 입이 벌여 있는데 이거 감아서 그 허리땀이 이렇게 당겨서 이리로 콧 걸려. 아이고 그

것 나무면 이거 걸러지는가?)

10410 #2 낭이 아니고 팡팡헌 낭이 아니고양 이제 저.{나무가 아니고 단단한 나무가 아니  
고요 이제 저.}

10410 #1 건 절때 낭은 아니고 띠.{그것은 절대 나무는 아니고 띠.}

10410 (웃음)

10410 #2 아니.{아니.}

10410 #2 내가 그.{내가 그.}

10410 #2 그 저 \*\*\*\* 푸는체 버텨헌 거 인쥬게. 그치록 알븐 거 그런 거 꼬부랑허게 허리  
안개 탁 해서.{그 저 \*\*\*\* 키 버텨헌 것 있지요. 그렇게 얇은 거 그런 것 꼬부랑하게 부티  
탁 해서.}

10410 #1 저 요즘 ㄱ트민 뭐 걸렁이 해영 막 누비든 넓긴 허더라고. 게난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영 막 누벼절꼬 이디 끄시 영 고리 모양으로 이러케 생겼써. 이러케. 이러케 생기나  
네 요러케 낭이 영 허민 흥번 영 등겨당 톡 걸리나네 웨더라고.{저 요즘 같으면 뭐 띠 해서  
막 누비듯 넓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구 누벼졌고 여기 끝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  
기니까 요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당겨다가 톡 걸리니까 되더라고.}

10410 #2 그거예양. 그거예.{그것예요. 그것에.}

10410 #1 게난 이거 이름도 인쥬.{그러니까 이것 이름도 있어.}

10410 #2 노끄네기. 그 저 썰로 멘그랑 노 멩그란 그거세 톡커게 영 해영 멩그라서 친. 경  
허연 걸런 영 영 가든 거라.{노. 그 저 실로 만들어서 노 만들어서 그것에 톡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끈. 그렇게 해서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감은 거야.}

10410 #1 나 안 ㄱ람쥬가게. 낭이면 이 씨리 가지 못테요. 그게 햄버기난 요러케 요러케  
누벼진 거쥬.{나 아니 말하나요. 나무면 이 실이 가지 못해요. 그것이 형겅이니까 요렇게 요  
렇게 누벼진 것이지.}

10410 @1 흑씨 그.{흑씨 그.}

10410 #2 어디에 뭐슬 가마.{어디에 무엇을 감아.}

10410 #1 이 두에 허리띠가 요러케. 영 영 영 영.{이 뒤에 허리띠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  
게 이렇게 이렇게.}

10410 #2 말째에 보든.{말째에 보면.}

10410 #1 저 사름 보든.{저 사람 보면.}

10410 @1 거 허리안개 가태.{그것 부터 같아.}

10410 #1 옛날 우리.{옛날 우리.}

10410 #2 허리안개.{부티.}

10410 #1 걸렁이 어신 때.{띠 없을 때.}

10410 #2 걸렁이로 허지 아녜쥬다. 우리.{띠로 하지 않았습시다. 우리.}

10410 #1 저 걸렁이 멘들 때 저 사름 영 영 영 아녜나게?{저 띠 만들 때 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했나?}

10410 @2 허리안개엔 ㄱ라?{부티라고 말해요?}

10410 #2 게난 그게 허리띠로 허질 아녜쥬게.{그러니까 그것이 허리띠로 하지를 않았지.}

10411 @1 예 조쥬다. 흑씨 길쌈할 때 어떤 추억꺼리는 어쥬가?{예. 좋습니다. 흑씨 길쌈할  
때 어떤 추억거리는 없습니까?}

10411 @2 재미난 얘기.{재미있는 얘기.}

10411 @1 재미난 얘기{재미있는 얘기.}

10411 @2 할머니 얘기 ㄹ라줍써?{할머니 얘기 말씀해주십시오?}

10411 #2 할머니.{할머니.}

10411 @1 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꺼 가쭈다.{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411 #2 할머니가 할머니영 재미인는 애긴 어린 때난. 그냥 애껴주고 혼 으둑 써레 강 물 정 오다그네 대배길 벌러부러.{할머니가 할머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린 때니까. 그냥 애껴주고 한 여덟 살에 가서 물 저 오다가 대배기를 깨버려.}

10411 @1 아니 케난 길쌈할 때.{아니 그러니까 길쌈할 때.}

10411 #2 예.{예.}

10411 @1 영 영.{이렇게 이렇게.}

10411 @2 미녕 찰 때 미녕 찰 때.{무명 찰 때 무명 찰 때.}

10411 @1 썰 가마가면 막 조루우면 할머니 즈청비가 어떡코.{실 감아가면 막 졸리면 할머니 자청비가 어떡고.}

10411 #2 할머니는 아녀신디 어머니가 옰 얘기를 저 졸지마라그네 그 꼬리 가므라. 나 옰 말 ㄹ라주마 허멍 막 연말 ㄹ라난 그 생가근 나.{할머니는 안 했는데 어머니가 옛 얘기를 저 졸지말고 그 꼬리 감아라. 나 옛말 말해주마 하면서 막 옛말 말했던 그 생각은 나.}

10411 #1 난 잘 모르겐는디 이 저 미녕에 대해서 뭐 헐 때는 미녕 ㄴ는 나른 그 집쭈인 혼자 허는, 허는, 몬터고 동네 싸름 멧 싸르를 청헤다 헐 때 뭐 행 멍는 겐또 가트고.{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저 무명에 대해서 뭐 할 때는 무명 나는 날은 그 집쭈인 혼자하는, 하는, 못하고 동네 사람 멧 사람을 청헤다 할 때 뭐 해서 먹는 것도 같고.}

10411 #1 나 보기옰. 난 뭐 어멍 어스난 그런 디 잘, 잘 안 봐난 모르겐는데.{나 보기에는. 나는 뭐 어머니 없으니까 그런 데 잘, 잘 아니 보았으니까 모르겠는데.}

10411 #2 솔로 영 영 헐 때에.{솔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에.}

10411 #1 또 술허는 거 영 그 가시리 메기는 겐또 아무러케나 메기민 안 췌텐 허옰. 그겐 또 춤 상당이 그 심각커게 헤옰 허는 거 가트고.{또 술하는 것 이렇게 그 풀가사리풀 먹이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이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참 상당히 그 심각하게 해서 하는 것 같고.}

10411 #1 아래 그 불 피우고 허니까 잘몬 췌민 그 썰 타부러도 안 췌게 췌고. 또 가다가 썰 한 겐만 탈루뷔 부러도 춘찌 몬터영 막 그 허는 겐또.{아래 그 불 피우고 하니까 잘못 되면 그 실 타버려도 안 되게 되고. 또 가다가 실 한 겐만 탈루뷔 버려도 찾지 못해서 막 그 하는 것도.}

10411 #2 잘 츠장 그겐양 잘 이서가야지 그거 옰나 ㄸ차져 불민 새 서꺼져부러.{잘 찾아서 그것옰요 잘 이어가야지 그것 하나 끊어져 버리면 사이 섞여버려.}

10411 #1 텔레비에도 보나네.{텔레비전에도 보니까.}

10411 #2 새 서꺼져부렁 그거시 옰옰.{새 섞이어서 그것이 조금.}

10411 #1 막 우슴 말 허곡 무슨 즈미진 말 허곡 또 뭐 헌 먹꼬 그러면서 그 미녕 메는 겐 봐신디. 메는 거라고 헤신디.{막 웃긴 말 하고 무슨 재미있는 말 하고 또 무엇 해서 먹고 그러면서 그 무명 매는 것을 봤는데. 매는 것이라고 했는데.}

10411 @2 새 서꺼진 거예?{새 섞인다고요?}

10411 #2 예. 새 서꺼전. 흥나만 꼬차지민 새가 서꺼져부리.{예. 새 섞이어서. 하나만 잘라지면 새가 섞이어버려.}

10411 @2 게른 아까 그 미녕 놀 때 뭐 행으네 머건쭈가?{그러면 아까 그 무명 날 때 무엇 해서 먹었습니까?}

10411 #2 뭐 헤영 머경.{무엇 해서 먹어서.}

10411 #1 게난 이 사르미나 나는 뭐 다 가튼 사라민데.{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나는 뭐 다 같은 사람인데.}

10411 #1 뭐 헤영 먹고 모른 건. 그 이제 어멍 어신 사르른 그디 강 얼러 봐야.{무엇 해서 먹고 모른 것은. 그 이제 어머니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얼쩡거려 봐야.}

10411 #2 막쌍 머건짜 지슬 ㄱ튼 거나 술망 먹쭈. 췌기떡.{막상 먹어봐도 감자 같은 것이나 삶아서 먹지. 췌기떡.}

10411 @2 췌기떡.{췌기떡.}

10411 #2 췌기떡 그 저.{췌기떡 그 저.}

10411 #1 저.{저.}

10411 #2 저 가루로.{저 가루로.}

10411 #1 어멍 어신 사름 와도. 야 흥나 머그라. 영 허주마는. 연나른 어멍 업쓰른.{어머니 없는 사람 와도. 야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하지만. 옛날은 어머니 없으면.}

10411 #2 ㄱ르로 췌기떡기나 허영으네 구더게 드라맨땅.{가루로 췌기떡이나 해서 구덕에 달아뒀다가.}

10411 #1 노르 지베 강 어더머거지카부텐 꾸메도 꾸른 안 돼지.{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어질까 꿈에도 꾸면 안 되지.}

10411 #1 이 사름 알지마는 니네 김치비 영대 어멍. 떡커는 딴 판 사르미 몬 몽직꼬 그 어른만 몽지가꺼든. 게니 영대가 페나니 살기 때무네 제게 간 거라. 내중은 고생끼리 열리니까.{이 사람 알지만 너의 김집에 영대 어머니. 떡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못 만지고 그 어른만 만졌거든. 그러니 영대가 편안히 살기 때문에 재우 간 거야. 나중은 고생길이 열리니까.}

#### 1.4.2. 누에치기와 비단 짜기

10413 @1 혹씨 누에도 쳐봄따가?{혹시 누에도 쳐봤습니까?}

10413 #1 예?{무엇이라고요?}

10413 @1 누에.{누에.}

10413 #1 아 누에.{아 누에.}

10413 @1 예.{예.}

10413 #1 아 누에. 누에도 난 몬 질화본 사름.{아 누에. 누에도 나는 못 키워본 사람.}

10413 @2 여기는 질화받텐마씨.{여기는 키워봤다네요.}

10413 #2 어멍 질루는 거 봐난쭈.{어머니 키우는 것 봤었지.}

10413 @1 아 그 얘기 쯔 헤줍써예.{아 그 이야기를 쯔 해주십시오.}

10413 #2 그 누에를양.{그 누에를요.}

10413 @1 예.{예.}

10413 #2 줍쌀 흥 착 달마.{줍쌀 한 짝 같아.}

10413 @1 음.{아.}

10413 #2 채얌예. 그 요마니헌 종이 그 팽떼기. 그거세 어멍이 가정와.{처음에. 그 요만큼 한 종이 그 골판지 그것에 어머니가 가져와.}

10413 #2 경 혜영 이거 누에씨여 경 혜영.{그렇게 해서 이것 누에씨다 그렇게 해서.}

10413 #2 가정왕 놔두민양 글로 켜쎌 베리지 몬터는 게 데강이 메실메실허게양 나와.{가져와서 놔두면 그리로 켜쎌 보지 못하는 것이 데가리 메실메실하게 나와.}

10413 @1 음.{아.}

10413 #2 겨민 무신 막 저 순헌 걸로 영 영 씨러놔.{그러면 무슨 막 저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쓸어놓아.}

10413 #2 씨러놔그네 차룽에 무신 거 ㄱ랑 씨러놔 놔두민양 혼 일쭙일 돼가든 막 커. 커그네 또 흐쑈 서가민 커그네양 한밤 먹넌.{쓸어놓아서 차룽에 무슨 것 깔아서 쓸어놓아서 놔두면요 한 일쭙일 되가면 막 커. 커서 또 조금 있어가면 커서요 한밤 먹는다고.}

10413 @1 으음.{아아.}

10413 #2 한밤 명넌 현 뎡양 이만씩 케여.{한밤 먹는다고 할 때는요 이만씩 해.}

10413 @1 아아.{아아.}

10413 #2 경 혜영으네 우영에 뽕 저치록 가란땅으네 막 트다당 이치록 비 저지민양 수거네 막 영 영 씨러불명.{그렇게 해서 터알에 뽕 저렇게 갈았다가 막 뜯어다가 이렇게 비 쫓으면 수건에 막 이렇게 이렇게 쓸어버리면서.}

10413 #2 베 아픈덴. 누에가 베 아픈덴.{베 아프다고. 누에가 베 아프다고.}

10413 #2 영 영 씨러 팍팍 너러. 흐나 흐나 널라 허영 마리에. 너러그네 이젠 온땅그네 주민.{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바삭 널어. 하나 하나 널어라 해서 마루에. 널어서 이제는 가져다가 주면.}

10413 #2 영 허영 알리레 머거. 또 우로 강 영 허영 머거오곡. 우로 알리레 머거오곡. 경 허명양 막 재미잡니다게. 그 누에 뽕 머글 때.{이렇게 해서 아래로 먹어. 또 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먹어오고. 위에서 아래로 먹어오고. 그렇게 하면서요 막 재미있습니다. 그 누에 뽕 먹을 때.}

10413 #2 경 혜영양 한밤 머검저. 소리가 와상와상와상. 경 하영 구들로 하나 질화그네. 경 허여그네양 허영 허민 또 이제 한밤 잘 머거사 고치가 뎡넌.{그렇게 해서요 한밤 먹는다고. 소리가 와상와상와상. 그렇게 해서 방으로 하나 키워서. 그렇게 해서요 해서 하면 또 이제 한밤 잘 먹어야 고치가 된다고.}

10413 @1 예.{예.}

10413 #2 경 허영 시민 아피 잘 머거진 건 고치를 거미줄 달든 거. 영 영 허명 그거시 저 무시거 유채.{그렇게 해서 있으면 앞에 잘 먹은 것은 고치를 거미줄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저 무슨 것 유채.}

10413 @1 예.{예.}

10413 #2 유채 터러난 나무에 강 영 영 허민 그레 강 올리민 그뎡양 히미 어서. 누에가. 막 뎡민. 경 허민 그걸따레 영 영 기여. 이브로.{유채 떨어진 나무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리로 가서 올리면 그때는요 힘이 없어. 누에가. 막 되면. 그렇게 하면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기여. 입으로.}

10413 @1 으음.{아아.}

10413 #2 이브로 썰 네우명 그레 영 영 기려가근에 그 안네 강 드러아장 이젠 그걸따레 드러 영 영 헤 가민 고치가 뎡여.{입으로 실 내면서 그리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서 그 안

에 가서 들어앉아서 이제는 그것에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고치가 되어.}

10413 @1 예예.{예예.}

10413 #2 고치가 돼민 막 이젠 돼여그네 구드민 이젠 그걸 하나씩 타그네.{고치가 되면 막 이제는 되어서 굳으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씩 따서.}

10413 #2 게영 물 소왕소왕 꿔와가민 무신 큰 소세 낵그네 뒤로 영 영 전갈로. 영 영 밀리멍 해가민.{그렇게 해서 물 소왕소왕 끓어가면 무슨 큰 술에 넣어서 무엇으로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리면서 해가면.}

10413 #2 이딘 아까 그 저 미녕 즈사난 물레양. 그거세 영 영 그 চে암 영 해당 썰 등여당 그레 가마낵으네 그거 영 무래서 밀리멍 그 썰 나오는양 영 영 가르민 멍지썰.{여기는 아까 그 저 무멍 찼던 물레요. 그것에 이렇게 이렇게 그 처음 이렇게 해다가 실 당겨다가 그리로 감아놓아서 그거 이렇게 물에서 밀리면서 그 실 나오는대로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명주실.}

10413 @1 예.{예.}

10413 #1 경 해연 멍지 차는 기어근 안 나고.{그렇게 해서 명주 찼던 기억은 안 나고.}

10413 @1 계난.{그러니까.}

10413 #2 그ㄱ장은 아라질 꺼.{그까지는 알아지는 거.}

10413 @1 예. 누에 키워.{예. 누에 키워서.}

10413 #2 음. 키우는 거.{음. 키우는 것.}

10413 @1 예.{예.}

10413 #2 게연 씨로 허여네 그치록 한밤 머건 고치 돼언 타네. 경 해영 허여가민 나가 번데기 머거난 생각ㄱ장은 망 나.{그래서 씨로 해서 그렇게 한밤 먹어서 고치 되어서 따서. 그렇게 해서 해가면 내가 번데기 먹었던 생각까지는 막 나.}

10413 @1 예.{예.}

10413 #2 번데기는 막 머거십쥬게. 데가리 꼬차똥.{번데기는 막 먹었지요. 대가리 끊어두고.}

10413 @1 젠디 영 누에가 아까 눈 \*\*\* 영 영 막 혈 꺼 아니우짱예. 그때마다 이르미 달르게 이신가마씨?{그런데 이렇게 누에가 아까 눈 \*\*\* 이렇게 이렇게 막 할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름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10413 #2 어떻 달라?{어떻게 달라?}

10413 @1 쪼끄만 거 혈 때는 뭐 사름 가트민 예기여 요건 물예기여.{조그만한 것 할 때는 뭐 사람 같으면 아기다 요것은 갓난아기다.}

10413 #2 저 চে야메 어린 때에는 예기.{저 처음에 어릴 때에는 아기.}

10413 @1 예.{예.}

10413 #2 말째에라가민 중절 돼민 또 중절 똥 땀 무신 거엔 ㄱ라신디 몰른디. 한밤 머검젠 현 때엔.{말짜에는 중절 되면 또 중절 된 때는 무슨 것이라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한밤 먹는다고 할 때에는.}

10413 @1 막 큰 땀예.{막 클 때에는요.}

10413 #2 막 큰 땀. 망물. 망물꼬치 이제 돼열쥬 혈 때에는 고치 돼영으네 문 땀 때.{막 클 때는. 막물. 막물고치 이제 되었다고 할 때에는 고치 되어서 모두 땀 때.}

10413 @1 예예.{예예.}

10413 #2 그ㄱ장양 어린 때난 그냥 그 세밀히 봐난 이제도 생각이 나난.{그까지요 어린 때니까 그냥 그 세밀히 봤으니까 이제도 생각이 나니까.}

10415 @1 케난 그 고치가 돼고 난 다투메 무레 쓸물 꺼 아니우짱예?{그러니까 그 고치가 되고 난 다음에 물에 삶은 것 아닌가요?}

10415 #2 에 무레 막 슬므멍.{아 물에 막 삶으면서.}

10415 @1 케른 무레 막 슬므 그 상태에서 씨를 뽀바마씨? 뽕지씨를.{그러면 물에 막 삶은 그 상태에서 실을 뽑나요? 명주실을.}

10415 #2 체얌 놔그네. 무루기 그 놔그네 영 영 물 수왕수왕 꿰여 끄러가민 그거시 그 큰 즈보므로 영 영 고치를 밀리멍 영 영 헤가민 그 씨리난 영 모두와그네 썰 흐끔 어우러진 거 영 모두왕 뽕겨.{처음 놓아서. 가득 그 놔서 이렇게 이렇게 물 수왕수왕 끓어 끓어가면 그것이 그 큰 것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치를 밀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헤가면 그 실이니까 이렇게 모아서 실 조금 어우러진 것 이렇게 모아와 당겨.}

10415 @1 예.{예.}

10415 #2 뽕겨그네 물레레 강 물레 헤가민 그 고치 영 영 밀리멍 둘러가민 씨리 뽕뽕뽕 가마져.{당겨서 물레에 가서 물레 헤가면 그 고치 이렇게 이렇게 밀리면서 두르면 실이 뽕뽕뽕 감아져.}

10415 #2 경 허민 말제인 그거시 강통디레 똑 가른 거 달마마씨. 어멍 혈 때. 강통에 가마냥 말제엔 꼬릴 헤신가 모동일 헤신가 야튼 경 헤연.{그렇게 말제는 그것이 강통에 똑 감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할 때. 강통에 감아놓아서 말짜에는 꼬리를 했는가 몽당이를 했는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415 #2 경 헤영 차는 거는 잘. 참도 헤실 건디 아메도.{그렇게 해서 짜는 것은 잘. 짜기도 했을 것인데 아마도.}

10416 @1 겐또 아마 베트레 영영 헨게찌예? 예예.{그것도 아마 베틀에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요? 예예.}

10416 #2 우리 어멍허고 저 할무니는 질싸물 막 헤난쭈다.{우리 어머니하고 저 할머니는 질쌘을 막 했었습니다.}

10416 @1 예 혹씨.{예. 혹시.}

10416 #1 느네 어멍도 막 헤신디. 그 베트리 저기 이서난. 넌 물을 꺼라. 사삼사건 후에는 그 베트리 어신 거 가타. 허는 길 본 기어기 어시니까. 그 저네는 느네 지비도 해서.{너의 어머니도 막 했었는데. 그 베틀이 저기 있었서. 너는 모를 거야. 사삼사건 후에는 그 베틀이 없는 것 같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너의 집에도 했어.}

10416 @3 다 주서 가부린쭈게.{다 주워 가버렸잖아요.}

10416 @1 으?{뭐?}

10416 @3 다 주서가부린. 열짱시가.{다 주워가버렸어요. 열장수가.}

10416 #1 나는 우리지빈 그 초석 차고 가마니 짜는 트리 이선는다. ㅼ디. 다 이선는다 이 집 지슬 때 그냥 부레 다 테우지마랑 그게 이제 ㅼ디ㄱ튼 거 서시민. 아 초석또 이제 하나 탁 창 이런 때 배우곡 허민 졸 건디 마려. 아 초석크른 테와분 게 상당히 어긋해.{나는 우리집에는 그 초석 짜고 가마니 짜는 틀이 있었는데. ㅼ디. 다 있었는데 이 집 지슬 때 그냥 불에 다 테우지말고 그것이 이제 ㅼ디같은 거 있었으면. 아 초석도 이제 하나 딱 짜서 이럴 때 보이고 하면 좋을 것인데 말이다.}



### 1.4.3. 옷 만들기

10418 @1 그러믄 이제는예. 아까 저 미녕도 메 필 짠 거고예. 그 다으메 모시도 짜고 멍지도 짜고예. 이젠 그걸로 어떤 오슬 멘드런쭈장?{그러면 이제는요. 아까 저 무명도 몇 필 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시도 짜고 명주도 짜고요. 이제는 그것으로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418 #2 멍진양 짜놔그네 저 켤낭 스라.{명주는요 짠 다음에 저 참갯대 살라.}

10418 @1 예.{예.}

10418 #2 켤낭 스랑 그거를 저 진체꺼나네. 지체 꺼. 그 지체 꺼엔 헌 건 진 메겨네 허난. 미녕으로 진 메건 허난 켤낭 스랑 그 재 무레 낱으네 끄러가믄 그거 흥나 흥끔 놔그네 영영 놀르곡 놀르곡 해가민 멍지가 와상헐만 게 멘지락커여.{참갯대 살라서 그것을 저 깃째 것이니까. 깃째 것. 그 깃째 것이라고 한 것은 깃 먹여서 하니까. 무명으로 깃 먹여서 하니까 참갯대 살라서 그 재 물에 넣어서 끓어가면 그거 하나 조금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해가면 명주가 와상헐던 것이 만질해.}

10418 #2 경 허민 이제 멍지 뉘열썸.{그렇게 하면 이제는 명주 누였다.}

10418 #2 미녕도 짜 놔그네 막 진 브며. 진 브며그네 막 뺨라가민 헤양게 바라. 게민 이제 진 브비나네 바라멘 막 고완썸. 경.{무명도 짜 놓아서 막 깃 비며. 깃 비며서 막 빨아가면 하양게 바라. 그러면 이제는 깃 비비니까 바래서 막 고왔어. 그렇게.}

10419 @1 예. 그러믄 그 멍지로는 무슨 온 무슨 오슬 멘드라날쭈가?{예. 그러면 그 명주로는 무슨 옷 무슨 옷을 만들었습니까?}

10419 #2 멍지는양. 멍지는 이제 이제ㄴ트민 멍지는 저 겨론헐 때. 겨론헐 때 이제 저 장운. 여자 장운.{명주는요. 명주는 이제 이제같으면 명주는 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이제 저 장옷. 여자 장옷.}

10419 #2 남즈도 장운.{남자도 장옷.}

10419 @1 예.{예.}

10419 #2 이제 바지저구리. 남자 바지저구리. 여즈도 고장중이. 고장중이 안네 입는 쪽꼴. 그런 거 다 주로 그런 거. 치마. 여잔 치마영 저구리. 그런 거 만드라.{이제 바지저고리. 남자 바지저고리. 여자도 고쟁이. 고쟁이 안에 입는 속옷. 그런 것 다 주로 그런 거. 치마. 여자는 치마랑 저고리. 그런 것 만들어.}

10419 @1 그 다으메 아까 또 모시도 짜지 아녜쭈가예? 모시론 어떤 오슬 멘드런쭈가?{그 다음에 아까 또 모시도 짜지 않았습니까? 모시로는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419 #2 모시는 그냥 저 온또 모시오시엔 헤영양 만드랑 입쭈게.{모시는 그냥 저 옷도 모시옷이라고 해서요 만들어서 입지요.}

10419 @1 예. 게난 적싸믄 멘드런쭈가?{예. 그러니까 적삼을 만들었습니까?}

10419 #2 적삼도 만들곡 치마도 허곡.{적삼도 만들고 치마도 하고.}

10419 @1 아 예.{아 예.}

10419 #2 예. 치마도 허곡 이제 경 헤네 그 그거나 ㄴ썸. 아니 멍지론 저승오슬 마니 허곡 입따그네 저승 갈 땐 입젠 경 헌 걸 마니 헤신디 모시는 저승오세 안 놔.{예. 치마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것이나 같이. 아니 명주로는 수의를 많이 하고 입다가 저승 갈 때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모시는 수의에 안 놔.}

10419 @1 예.{예.}

10419 #2 저승 갈 때 몬 놔니께.{저승 갈 때 못 놓지요.}

10419 #2 경 허난 그냥 이버. 그냥 이블 때. 곱게 입는 사름덜.{그러니까 그냥 입어. 그냥 입을 때. 곱게 입는 사름들.}

10419 @2 모시는 무사 저승온 안 멘든텐 험니까?{ 모시는 왜 수의 안 만든다고 합니까?}

10419 #2 모시는 어떤지 저승 갈 때는 과네 노치도 아년텐.{모시는 어떤지 저승 갈 때는 관에 놓지도 않는다고.}

10419 @1 예.{예.}

10419 #2 과네 안 놔. 다른 오슨 놔도. 경 허영 허곡.{관에 안 넣어. 다른 옷은 넣어도. 그렇게 해서 하고.}

10419 #2 미녕은 그냥 우리 어린 때에 어머니가 파랑헌 물도 드령 치마도 해주고. 이제. {무명은 그냥 우리 어릴 때에 어머니가 파란 물도 들여서 치마도 해주고. 이제.}

10419 #1 이제는 나이가 칠십비여 팔십비여 백까지 막 사난 현디 연나른 겨론식컬 때 멍지로 만들면 그 오스로 주경 갈 때 가정가게꾸리 다 뒀었는데.{이제는 나이가 칠십이다 팔십이다 백까지 막 사니까 하는데 옛날은 결혼식할 때 명주로 만들면 그 옷으로 죽어서 갈 때 가져가게끔 다 되었는데.}

10419 #1 저 나 경우도 그때 만든 오시 우리 아버진 뭐 주경 갈 때 이 옷 이블 꺼엔 헨는디 이봄이랑마랑 짜그난 버릴 쟁도 뒀부난에 이 그 연나른 사르미 오래 살민 오십 쉼 사시보 세 뭐 육십 쉼 뒀민 흠치 몽둥이 지평 하르방 헨는데.{저 나 경우도 그때 만든 옷이 우리 아버지는 뭐 죽어서 갈 때 이 옷 입을 것이라고 했는데 입기는커녕 작으니까 버릴 정도 되니까 이 그 옛날은 사람이 오래 살면 오십 세 사십오 세 뭐 육십 세는 되면 아예 몽둥이 짚어서 할아버지 했는데.}

10419 #1 요즈믄 우리 동세가 이제 아은인디 뭐 고작 사그네 거딱거딱 걷는다. 아은에. 날보다 딱 스무 살 우엔데.{요즘은 우리 동서가 이제는 아흔인데 뭐 곧게 서서 거딱거딱 걷는데. 아흔에. 나보다 딱 스무 살 위인데.}

10419 #1 그럴 시대가 뒀어부니까 이제는 그 멍지로 온 만드랑 겨론힐 때 만든 오시 주경 갈 때 몬 입찌.{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그 명주로 옷 만들어서 결혼할 때 만든 옷이 죽어서 갈 때 못 입지.}

10419 @1 게민 치메는 뭐로 뭐로 멘드라뵈쭈가? 치메.{그러면 치마는 무엇으로 무엇으로 만들어봤나요? 치마.}

10419 #2 치메. 치메는 쪽치마도 허곡. 저승갈 때 입는 건.{치마. 치마는 속치마도 하고. 저승 갈 때 입는 것은.}

10419 @1 아니. 아니우다. 예를 들면 치메도 멍지치메도.{아니.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치마도 명주치마도.}

10419 #2 \*\*\*\*{\*\*\*\*}

10419 @1 아 그러우파?{아 그럼니까?}

10419 #2 예. 광모그로 허리허고 저 깍치마. 터그네. 통치마 말고. 경 해영 입곡.{예. 광목으로 허리하고 저 풀치마. 터서. 통치마 말고. 그렇게 해서 입고.}

10419 #2 저구리도 멍지저구리.{저고리도 명주저고리.}

10419 @1 예.{예.}

10419 #2 예. 멍지저구리 허곡.{예. 명주저고리 하고.}

10419 @1 모시.{모시.}

10419 #2 고장중이엔 현 거 영 미테 터진 거. 연날은양 터진 거. 그거 속꼴.{고쟁이라고

한 것 이렇게 밑에 터진 것. 옛날은요 터진 것. 그것 속곳.}

10419 @1 모시도 모시로도.{모시도 모시로도.}

10419 #2 모시는 그냥 이불 꺼. 꿩양 임는 사름덜 해양게 그 모시는 꿩양 임는 사름덜 해 그네 하르방덜 이병 텅기고 저구리도 저 미승 신 디 강 비러그네 곱딱커게 저 적삼. 적삼 만드랑.{모시는 그냥 입을 거. 고이 입는 사람들 하얏게 그 모시는 고이 입는 사람들 해서 할아버지들 입어서 다니고 저고리도 저 재봉틀 있는 데 가서 빌려서 곱게 저 적삼. 적삼.}

10419 #1 우리 부라게 모시로 온 테영 이븐 사름 맨 싸름 업쭈.{우리 마을에 모시로 옷 해서 입은 사람 몇 사람 없지.}

10419 @1 두루마기는 뭐로 멘드런쭈가? 두루막. 후리메.{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두루마기. 두루마기.}

10419 #2 남자 거?{남자 것?}

10419 @1 예.{예.}

10419 #2 저 온팡목. 오강목.{저 광목. 옥양목.}

10419 @1 오강목.{옥양목.}

10419 #2 오강목 그거 줌진 거. 온팡목에서 줌진 거. 막 줌진 거.{옥양목 그것 자잘한 것. 광목에서 자잘한 것. 막 자잘한 것.}

10419 @1 도포는마씨?{도포는요?}

10419 #2 도포는 멍지.{도포는 명주.}

10419 @1 멍지로. 예 조끼는?{명주로. 예 조끼는?}

10419 #2 멍지 어성 못턴 베로도 허곡 베는 놔도 이제 모신 안 놔. 주그민.{명주 없어서 못한 베로도 하고 베는 넣어도 이제 모시는 안 넣어. 죽으면.}

10419 #1 요즈믄 나일롱 든 건 일절 몬 노록.{요즘은 나일론 든 것은 일절 못 놓고.}

10419 @2 엔나레 멍지가튼 거는 크닐 인쉴 때예. 겨론식 켄 때나 주경이나 그 오시 그 오 시니까 허고 평상시에는 저기 뭘로 헌 거 아니마씨? 무명으로.{옛날에 명주같은 것은 큰일 있을 때요 결혼식 할 때나 죽어서나 그 옷이 그 옷이니까 하고 평상시에는 저기 무엇으로 한 것 아닌가요? 무명으로.}

10419 #2 미녕게.{무명.}

10419 @1 미녕으로.{무명으로.}

10419 #2 미명으로 감몬또 허고 바지저구리 저 종이적삼.{무명으로 감옷도 하고 바지저고 리 저 중의적삼.}

10419 @2 다 그걸로 헐짜누파예.{다 그것으로 했잖아요.}

10419 #2 안 안 논 거. 종이적삼도 해영 입꼭 하르방덜 뭘. 절몬. 막 절몬 사르몬 해도 대부분 미녕으로 이븐쭈게.{안 안 놓은 거. 중의적삼도 해서 입고 할아버지들 뭘. 젊은. 막 젊은 사람은 해도 대부분 무명으로 입었지.}

10419 @2 미녕으로 이븐쭈예?{무명으로 입었지요?}

10419 #2 맨날 그거 허영 힌 체도 입꼭 또 감 드령 마니 일헐 때 입꼭 경 허영 그거.{만날 그것 해서 흰 쟈도 입고 또 감물 들여서 많이 일할 때 입고 그렇게 해서 그것.}

10419 #1 칠십 프로는 미녕 삼십 프로는 광목. 광모글 이븐 사름 보며는 아 저 지빈 흥뽀 켜찬게 사람꼬나.{칠십 프로는 무명 삼십 프로는 광목. 광목을 입은 사람 보면 아 저 집에는 조금 괜창게 사는구나.}

10419 #2 노동 일뽀기주. 멍지는.{노동 일복이지. 명주는.}

10419 #1 게난 그 광모근 돈 쥘 사와야 돼고.{그러니까 그 광목은 돈 줘서 사와야 되고.}

10419 #2 보통으로 이병 텅기지는 아녀.{보통으로 입어서 다니지는 않아.}

10419 @2 그러치. 보통으론 안 입꼬예.{그렇지. 보통으로는 안 입고요.}

10419 #2 보통으로 안 이버.{보통으로는 안 입어.}

10420 @1 여기 여기 저 뭐냐. 저고리가 이서예. 저고리. 영 보면 여기를 이건 뭐엔 험니까. 저고리면 여기를.{여기 여기 저 뭐야. 저고리가 있어요. 저고리. 이렇게 보면 여기를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고리면 여기를.}

10420 #2 팔 스미.{팔 소매.}

10420 @1 스미예.{소매요.}

10420 #2 스미.{소매.}

10420 @1 그 다으메 요긴마씨?(그 다음에 여기는요?)

10420 #2 여기는 어깨. 독지.{여기는 어깨. 어깨.}

10420 @1 요게 독찌고.{요것이 어깨이고.}

10420 #2 예.{예.}

10420 @1 요기마씨?(여기요)

10420 #2 이거는 스미. 스미 부치는 딴 뭐센 ㄴ라?(이것은 소매. 소매 붙이는 데는 무엇이라고 말해?)

10420 @2 진동?(진동?)

10420 @1 진동.{진동.}

10420 #2 진동.{진동.}

10420 @1 요기는마씨. 요 아피는?(여기는요. 요 앞에는?)

10420 #2 요거는 아페 저.{요것은 앞에 저.}

10420 #2 섭?(설?)

10420 #2 여기.{여기.}

10420 #2 압썸. 압썸븐 딱로 들리는 거.{앞섭. 앞섭은 따로 달리는 것.}

10420 @1 예.{예.}

10420 #2 압썸 들리는 거. 등.{앞섭 달리는 것. 등.}

10420 @1 예. 등.{예. 등.}

10420 #2 여긴 등. 압썸.{여긴 등. 앞섭.}

10420 @1 그 다으메 영 영 혜영 무끄는 거마씨. 건 고름?(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는 거요. 그것은 고름?)

10420 #2 아 골름.{아 고름.}

10420 @1 예?(예?)

10420 #2 골름.{고름.}

10420 @1 예.{예.}

10420 #2 골름.{고름.}

10420 @1 예. 골름.{고름.}

10420 @1 무끄는 거 골름. 요건 진. 요거는 동저네 진.{묶는 것 고름. 요것은 것. 요것은 동정에 것.}

10420 @1 그 다으메 요긴마썸?(그 다음에 여기는요?)

10420 #2 요거는 우머니 돌쩐 거나 허민 허주마는 이거는 그냥 이거는 소미.{요것은 우머

니 돌친 것이나 하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것은 소매.}

10420 @1 그냥 소미예.{그냥 소매요.}

10420 #2 이치룩 현 건 소미.{이렇게 한 것은 소매.}

10420 @1 네. 그 다오메 이젠 치마로 온 거라예. 치메. 요기 허리 부분?{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치마로 온 거예요. 치마. 여기 허리 부분?}

10420 #2 요거는 허리고.{요것은 허리고.}

10420 @1 겐또 무끄는 거 인짜년우파? 끈.{그것도 묶는 것 있잖습니까? 끈.}

10420 #2 아 그건 골롬.{아 그것은 고름.}

10420 @1 겐또 골롬?{그것도 고름?}

10420 #2 치만 꼴롬.{치마 고름.}

10420 @1 예예.{예예.}

10420 #2 치만 꼴롬. 이건 허리.{치마 고름. 이것은 허리.}

10420 @1 예.{예.}

10420 #2 허리에 치만 꼴롬 드는 거.{허리에 치마 고름 다는 것.}

10420 @1 그 다오메 영 미테까지 가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까지 가는 것.}

10420 #2 이건 치마폭. 치마폭. 알 단. 게난 치만 끈나는 거.{이것은 치마폭. 치마폭. 아래  
단. 그러니까 치마는 끝나는 것.}

10420 @2 아까 까근 어디우파?{아까 선단은 어딥니까?}

10420 #2 으?{뭐?}

10420 @2 치마 까근 어디우파?{치마 선단은 어딥니까?}

10420 #2 치마 깍. 까근 깍 튼 거. 통치마는 영 다 부땡으네 동고름현 거고. 까근 친 건까  
치마 깍. 깍치마.{치마 선단. 선단은 선단 튼 것. 통치마는 이렇게 다 붙어서 동그스름한 것  
이고. 선단은 벌어진 것이 치마 선단. 풀치마.}

10420 @1 게서 영 영 돌르지예?{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르지요?}

10420 #2 예예. 깍치마.{예예. 풀치마.}

10420 @1 예예.{예예.}

10420 @1 그 다오메 이버는 남자라예? 남자. 남자 저고리도 마찬가지로 겐짜예?{그 다음에  
이번은 남자예요? 남자. 남자 저고리도 마찬가지로 겐짜요?}

10420 #2 예.{예.}

10420 @1 그 다오멘 바지는 다른 거 아닌가마씨?{그 다음에는 바지는 다른 것 아닌가요?}

10420 #2 바지는. 바지는 허리허고 여기가 잘 모르커라?{바지는. 바지는 허리하고 여기가  
잘 모르겠어.}

10420 #2 여긴 어디 섯뽀기여 뭐야.{여기는 어디 사폭이다 뭐야.}

10420 @1 예. 섯뽀.{예. 사폭.}

10420 #2 예. 섯뽀. 이런 디가양 잘 모르커라.{예. 사폭. 이런 데가요 잘 모르겠어.}

10420 @1 대림도 일꼬예. 대님.{대님도 있고요. 대님.}

10420 #2 다리문 여기 치는 거.{대님은 여기 매는 거.}

10420 #1 대니미 아니고 다림.{대님이 아니고 다림.}

10420 #2 다림.{대님.}

10420 @1 예. 다림. {예. 대님.}

10420 #2 다리미고 여기 치는 거고. 섯. 이거 허리고 섯뽀기 여기 큰 거시 섯뽀 달마.{대

님이고 여기 매는 것이고. 사. 이거 허리고 사폭이 여기 큰 것이 사폭 같아.}

10420 @1 예. 예.{예예.}

10420 #1 게난 이제 절른 사름덜 그 한복 입젠 허민 다림 칠 쥘 몰르난 단추 드란 나완는 다.{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그 한복 입으려고 하면 대님 땀 줄 모르니까 단추 달아서 나왔는데.}

10420 #2 다림 허여부럼쭈다.{대님 해버리고 있습니다.}

10420 #1 이 저 연나른 이 저 바지에 중시미 썰빠비 딱 내려강 바르게 땅 땡 탁 케영 이 걸 바께레 탁 돌령 드르믈 쳐야 오른 건데 거 다림 칠 쥘 몰랑 장게갈 때도 다림 몬터영 허는 노미 인꼬.{이 저 옛날은 이 저 바지에 중심이 실밥이 딱 내려가서 바르게 딱 놓아서 탁 해서 이것을 밖으로 딱 돌려서 대님을 매야 옳은 것인데 그것 대님 땀 줄 몰라서 장가갈 때도 대님 못 해서 하는 놈이 있고.}

10420 #1 이제도 넥타이 땀 줄 모른 사름도 이서. 절른 사름덜.{이제도 넥타이 땀 줄 모르는 사름도 있어. 젊은 사름들.}

10420 #2 건 넥타이 안 메영 텅기는 사름 아니우꽈?{그것은 넥타이 안 매서 다니는 사름 아닙니까?}

10420 #1 웃음. 그런 사름도 인꼬.{웃음. 그런 사름도 있고.}

10421 @1 이제는 아까는 치메저고리를 다 만든 거라예. 그러면 치메저고리를 멘들젠 허면 온까미 인짜누꽈?{이제는 아까는 치마저고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치마저고리를 만들려고 하면 옷감이 있잖습니까?}

10421 @2 몰르는 거.{마르는 것.}

10421 @1 몰 몰라야 뽀쭈예.{마름질해야 되지요.}

10421 #2 몰르는 거.{마름질하는 거.}

10422 @1 게른 돌르젠 허민 뭘 뭘가 피료헌 겨우꽈?{그러면 마르려고 하면 무엇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10422 #2 가위.{가위.}

10422 @1 예. ㄹ세.{예. 가위.}

10422 #2 가위허고 ㄹ세허고 자.{가위하고 가위하고 자.}

10422 @1 예. 자.{예. 자.}

10422 #2 옛날 자. 자로 제영으네 영 영 마추멍 이제 그걸로 혼 허여그네 땀 치. 어디가 땀 치. 어디가 얼마. 경 허여그네 이제 가위로. ㄹ세로 쥘이라. 게나네 자허고 ㄹ세만 들민 다으믄 바눔 들민 멘들 꺼.{옛날 자. 자로 재서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그것으로 가늠 해서 몇 치. 어디가 몇 치. 어디가 얼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위로. 가위로 잘라. 그러니까 자하고 가위만 들면 다음은 바늘 들면 만들 거.}

10422 @1 예. 게니까 이제 영 영 다 몰라서예? 게른 한번 치메를 멘드라 보젠 허면 이러케 바느지를 듬성듬성허게 헐 꺼 아니우꽈예? 게른 온 바느지를 하젠 허면 뭘 뭘가 피료허 우꽈?{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다 마름질했어요. 그러면 한번 치마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이렇게 바느질을 듬성듬성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옷 바느질 하려고 하면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10422 #2 썰.{실.}

10422 @1 예. 썰.{예. 실.}

10422 #2 바눔.{바늘.}

10422 @1 바농.{바늘.}

10422 #2 ㄴ세.{가위.}

10422 @1 ㄴ세예. 또.{가위요. 또.}

10422 @2 소네 끼는 건 뭐우꽈?{손에 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422 @1 소니 아프면.{손이 아프면.}

10422 #2 골메는 아녀나난. 골메. 골메 끼는 사름빼끼 우린 안 꺾환.{골무는 안 했었으니까. 골무. 골무 끼는 사람밖에 우리는 안 끼어봤어.}

10422 @2 으음.{으음.}

10422 #2 골메.{골무.}

10422 @2 골메예.{골무요.}

10422 #2 으음. 골메가 인는디 골메를 안 끼어난.{으음. 골무가 있는데 골무를 안 끼었어.}

10422 @2 게문 바농허고 썰 노는 거는?{그러면 바늘하고 실 놓는 것은?}

10422 #2 으음. 바농허고 썰만 드러.{으음. 바늘하고 실만 들어.}

10422 @1 게난 바농허고 썰허고 ㄴ세도 어디 놔야 썰 꺾 아니우꽈?{그러니까 바늘하고 실하고 가위도 어디 놔야 썰 것 아닙니까?}

10422 #2 예예.{예예.}

10422 @1 뭐에 놅띠가?{무엇에 놓았습니까?}

10422 #2 바농쌍지.{반진고리.}

10422 @1 예.예.예.예. 조쭈다.{예.예.예.예. 좋습니다.}

10422 #2 바농쌍지 우리 헐 때엔 바농쌍지 우리 헐 때 차룽 풀 불랑으네 그거 바농쌍지엔 허영 그레 ㄴ세도 농곡 실패도 노크 든 헐쭈게.{반진고리 우리 할 때는 반진고리 우리 할 때 채룽 풀 발라서 그것 반진고리라고 해서 그리로 가위도 놓고 실패도 놓고 모두 했지.}

10423 @1 예. 이제는예 치메를 치메나 저고릴 멘드러 뵙쭈예. 그럼 영 몰라그네 영 영 듚성듬성 허게 허는 걸 뭐엔?{예. 이제는데요. 치마를 치마나 저고리를 만들어 보지요. 그럼 이렇게 마름질해서 이렇게 이렇게 듚성듬성 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10423 #2 호우는 거.{호는 거.}

10423 @1 예. 호는 거예? 그다음에 요기 허영 영 앞뒤로 영 영.{예. 호는 거요? 그다음에 여기 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10423 #2 땡침.{온박음질.}

10423 @1 예?{예?}

10423 #2 땡침.{온박음질.}

10423 @1 땡침. 예예.{온박음질. 예예.}

10423 @2 땡침허는 게 어떤 뭐가 땡침?{온박음질하는 것이 어떤 무엇이 온박음질?}

10423 #2 땡치른 호오질 아녀고 이러케 줘 놔그네 썰 빼영. 또 두 불 가운데로 찢렁 또 허여. 경 허민 건 땡침.{온박음질은 호질 앓고 이렇게 기운 후에 실 빼서. 또 두 벌 가운데로 찢러서 또 해. 그렇게 하면 그것은 온박음질.}

10423 @2 땡침?{온박음질?}

10423 #2 음.{음.}

10423 @1 감치는 건 어떤 거?{감치는 것은 어떤 거?}

10423 #2 감치는 건 이러케 영 시멍 그냥.{감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그냥.}

10423 @2 단 허는 거?{단 하는 거?}

10423 #2 응. 이러케.{응. 이렇게.}

10423 @2 음.{음.}

10423 #2 감침.{감침.}

10423 @1 누비는 건마씨?{누비는 것은요?}

10423 #2 누비는 건 줌질줌질허게 막 비짜.{누비는 것은 자잘자잘하게 막 바짝.}

10423 #1 뒤으로 혼번 바느리 아플로 뺀디 또 두이로 찢렁 아프로 빠곡 그제 누비는.{뒤로 한번 바늘이 앞으로 뺐는데 또 뒤로 찢러서 앞으로 빼고 그제 누비는.}

10423 #2 땡침.{온박음질.}

10423 #1 땡침.{온박음질.}

10423 #2 직각커는 게 땡침.{단단히 하는 것이 온박음질.}

10423 @1 예예.{예예.}

10423 #2 예. 들상들상허질 아녀고 저 거시기 누빈텐 허지 아녀난?{예. 들성들성하지 않고 저 거시기 누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423 @1 게난 누비 끝레이블 멘들젠 허면 땡침 해야 뛴는 거구나예?{그러니까 누비 누비이불 만들려고 하면 온박음질 해야 되는 것이군요?}

10423 #2 아니.{아니.}

10423 @2 건 누비는 거.{그것은 누비는 것.}

10423 #2 그건 누비는 거.{그것은 누비는 것.}

10423 @1 아 그러우파?{아 그럼니까?}

10423 #2 예. 땡치믄.{예. 온박음질은.}

10423 @1.{예.}

10423 @2 바금질.{박음질.}

10423 @2 이제 이런 몸빼나 뭐 허젠허민 이런 밍.{이제 이런 몸빼나 뭐 하려고 하면 이런 밍.}

10423 @1 예.{예.}

10423 @1 미시 잘 찌저지나네 땡치믄 막 허여야 든든허니.{밍이 잘 찢어지니까 온박음질을 막 해야 단단하니.}

10423 @1 아아.{아아.}

10423 #2 이거 이 미시양 찌저지민 보기 실르니까 이제 그 땡침을 그딘 중요허게 땡치믄 해.{이거 이 밍이요 찢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 온박음질을 거기는 중요하게 온박음질을 해.}

10423 @1 으음.{으음.}

10423 #2 경 험쭈게.{그렇게 하지요.}

10423 @2 게난 바농지를 헐 때예에 방는 게 일짜누파? 이러케 누빔허는 거는 요러케 줄 이러케 해서 누비는 거 자나예. 이러케 증가네 버러지게 해서. 아까 땡치믄 이러케 여기 왕 또 노곡. 바금질허고 땡침허고 ㄱ튼 거우파?{그러니까 바느질을 할 때요 박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누빔하는 것은 요렇게 줄 이렇게 해서 누비는 거 잼아요. 이렇게 중간에 벌어지게 해서. 아까 온박음질은 이렇게 여기 와서 또 놓고. 박음질하고 온박음질하고 같은 겁니까?}

10423 #2 딱나주게.{다르지.}



10423 @2 뒀빠농지른 뒀우파?{뒀바느질은 뒀니까?}

10423 #2 뒀빠농지리. 그거시 뒀빠농지런 현 건가. 땡침엔 현 거.{뒀바느질이. 그것이 뒀바느질이라고 한 것인가. 온박음질이라고 한 거.}

10423 @2 뒀빠농질 허영으네 강으네. 이견또 일로 오기도 허주만 중가느로 강 이리케 또 이리케 허는 게 땡침. 바늘 뒀빠농질 허영.{뒀바느질 해서 가서. 이것도 이리로 오기도 하지만 중간으로 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온박음질. 바늘 뒀바느질 해서.}

10423 #2 그거나 그거나 ㄴ뽀든 거.{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거.}

10423 #1 바늘이 아프로 나간는다.{바늘이 앞으로 나갔는데.}

10423 @2 또 뒤로.{또 뒤로.}

10423 #1 또 두이로 찢렁 아프로 빼는 거.{또 뒤로 찢려서 앞으로 빼는 거.}

10423 #2 게나네 그게 뒀빠농지리엔 허는 거고 말투로 ㄴ뽀든 마린디 ㅈ난 거 달마.{그러니까 그것이 뒀바느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투로 같은 말인데 다른 것 같아.}

10423 @1 으음. 땡침허고 뒀빠농질허고 ㄴ따 베고.{으음. 온박음질하고 뒀바느질하고 같아 보이고.}

10423 #2 ㄴ뽀든 건디. ㄴ뽀든 건디 그게 말로 ㅈ난 거. 경 험쭈다게.{같은 것인데. 같은 것인데 그것이 말로 다른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423 @1 게난 예를 들면 통두거늘 ㅈ방 영 영 썰로 허는 건. 건 뭇엔 험니까?{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두건을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실로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423 #2 통두건?{통두건?}

10423 @1 예.{예.}

10423 #2 통두거는 줌는 거엔 허주.{통두건은 접는 것이라고 하지.}

10423 @1 겐디 거 바늘으로 영영 가야 뒀지 아녀마씨?{그런데 그것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10423 #2 우에.{위에.}

10423 @1 예.{예.}

10423 #2 우에는 으펜 해도 우에는 땡침 험니까?{위에는 옆에는 해도 위에는 온박음질 합니다.}

10423 @1 아아.{아아.}

10423 #2 ㄷㄷ허렌.{단단하라고.}

10423 @1 으피는?{옆에는?}

10423 #2 으피는 그냥 호아.{옆에는 그냥 호아.}

10423 @1 아 호아예.{이 혼다고요?}

10423 #2 호아그게 영 허영 우에 조라지게 허젠 허민 조라지게 허젠 허민 구작 박 쥘 안 뒀주게. 경 허민 그걸 조령. 이렇게 줘바.{호아서 이렇게 해서 위에 좁아지게 하려고 하면 좁아지게 하려고 하면 곧게 박 기워서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좁게해서 이렇게 접어.}

10423 #1 아덜 상제는 우를.{아들 상제는 위를.}

10423 #2 영 줘방으네.{이렇게 접어서.}

10423 #1 오그려불지 아녀고 그냥 그냥 쥘꼬. 그냥 우리 복친 두거는 이리케 ㅈ아서 오그려주언꼬.{오그려버리지 않고 그냥 그냥 기웠고. 그냥 우리 복친 두건은 이렇게 놓아서 오그려서 기웠고.}

10423 @2 아들 꺼는 아녕으네.{아들 것은 안 해서.}

10423 #1 예. 아덜 낀 그냥 올라간양 그냥 통두건 영 허영 썬땅 그냥 영 허영 그걸로 아더를 아랴쭈.{예. 아들 것은 그냥 올라간대로 그냥 통두건 이렇게 해서 썼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아들을 알았지.}

10423 #2 두건 멘드는 시글 굳는 거 아니우파? 경 허난 그 두건 멘든 게 우의 꾸작커게 아녕으네 영 으피 쥐나그네 저 영 반대로 꺼끄곡 또 반대로 꺼끄곡 해영 줍쭈게게.{두건 만드는 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두건 만든 것이 위에 곧게 안 해서 이렇게 옆에 기워서 저 이렇게 반대로 꺾고 또 반대로 꺾고 해서 집잖아요.}

10423 @1 예. 존쭈다예.{예. 좋습니다.}

## 제2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나락
		나로기 잘 뒤편
20102	이삭	나록 고고리가
20103	볍씨	나록씨해가지고
20104	못자리	멘자리
		몬자리 만드랑
20105	모판	*
20106	쟁기	이걸또 쟁긴게
20107	보습	보습
20108	벚	벤
20108-0-1	-이	베시 뿌러전따
20109	극쟁이	골갈리
20110	씨레	서레
20111	번지	밀레에
20112	모내기	모 갈라 심끼
	모내기	모내기 해서
20113	흙덩어리	병에
20114	고무래	당그네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그네
20114-2	고무래(재 용도)	불근네
20114-3	고무래(흙 용도)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
20115	쇠스랑	소스랑은
		쉐스랑
20116	곡쟁이	이건 몬쟁이
20117	쟁이	쟁이
20118	삽	이거슨 사비고
		갈레주기
20119	호미	굴쟁이
20120	농기구	연장허며는
20121	검	검질 지서노나네
		검질매는 디

20122	김매다	조킴질 매젠 허난
20123	애벌 매다	초불킴질
20123-1	두벌 매다	두불킴질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불킴질
20124	논두둑	두둑
		논두둑
		논뚜둑
		논시둑
20124-1	논두렁	논꼴
20125	밭둑	칭계가
20125	밭둑	시둑
20126	밭두둑	두둑 웨니까
20127	밭고랑	고랑
		반꼬랑
20128	밭이랑	그 고지에
		이렁
		고지
20128-1	(밭이랑을) 타다/ 갈다/째다/파다	계간 받 까는 디도
20128-2	이랑밟기	불바주고 허는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
20130	보리쌀	보리썰
20131	가을갈이	번허는 거
20132	감부기	감비역
20133	두엄	퇴비
20134	거름	걸름

## 2.1.2 타 작

20201	추수하다	ㄱ슬쥔 다 웨엇젠도 허고 ㄱ슬 다 헐완는디
20202	벧단	나룩무시라고
20202-1	벧단(한 줌정도)	나룻물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나룻물
20202-3	벧단(한 아룻정도)	*
20203	가리(積)	누리라고
20204	가리다(積)	데미는 거 아니믄 누는 거
20205	벧가리	나룻눌
20206	날가리	니네 노넌 나룩 눌러서라이

20207	타작	태작허는 거
20208	벼훑이	나록 고고리 홀트는 째게
20208-1	그네	나록클
		가레기클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깨	도께
20210-1	도리깨장부	도께어시
20210-2	도리깨열	도께아덜
20210-3	도리깨꼭지	도께트레
20211	벧짚	나록짚
20211-0-1	-을	나록짚 아정 왕
20211-0-2	-에	나록찌게 불
20212	새 꺾기	소독
20213	쭈정이	나록쭈랭이
		쭈쟁이엔도 허곡 쭈랭이엔도 허여
		쭈정이 쭈레
20214	티	꺼랭이 느람쨌도 허곡
20215	까끄라기	ㄱ스락
20216	풍구	풍기
20217	원두막	웨마기엔 허는디
20218	허수아비	허제비
20219	흥년	송년 드런찌
20220	머슴	득사리
20221	놉	놉
20221-0-1	-을	노블 비러야지
20222	폼앗이	수눔
20223	폼삿	폼싸기엔 허는디
		쿰이엔도 허곡 폼싸기엔도 허고
20223-0-1	으로	폼싸그로
		쿠므로

### 2.1.3. 방아짚기

20301	방아	물뱅이 아니면 남방에
20302	디딜방아	*
20303	방앗공이	뱅인뀌
		방엔뀌
20304	방아확	돌호근
20305	물레방아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물뽕이 물ㄴ레
20307	절구	ㄴ싸 남방에영 ㄴ튼 스추닌게
20308	절구통	방엿돌
20309	절굿공이	뱅인꺀
20310	절구질	방에 점쥔
20311	겨	체
20312	보릿겨	막ㄴ르로
20313	왕겨	왕개
		나록체로
20314	등겨	보미
20315	검불	검부락
		검부라긴
20316	껍질	미깻 꺀질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식
20402	참쌀	츰쌀
20403	멥쌀	모인쌀
20403	멥쌀	입쌀
20404	쌀보리	살보리
		슬보리는
		슬루리
20405	조	조
20406	차조	흐린조
20407	메조	모인조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잘주 뒸.
20409	잘다	즈라.
20410	조이삭	조코고리
20411	수수	그냥 대죽
20411-1	붉은색 수수	아즌베기 대주근
		쓰리 잘 나오니까 쫄대주기엔도 허주.
20411-2	장목수수	살레대주근 웨냐면 살락커게 고고리 등이니까 살레대죽.
		비대죽
20411-3	찰수수	쫄대죽또 인꼬.
20411-4	메수수	*
20412	수수깁	대죽대
20413	옥수수	강냉이
		강냉대죽 뿌리기엔 헐쭈 강냉대죽뿌레기

20413-1	찰옥수수	그건 찰옥썩수가 인찌.
20413-2	메옥수수	*
20414	귀리	대우리
20415	메밀	메밀 모밀
20416	콩	콩
20417	콩각지	콩각찌기엔도 허곡 콩겹찌렌도 허곡
20418	메주	메주 드라멘 거
20419	매달다	메주 드라멘 거
20420	떡우다	그 떡우난
20421	곰팡이	곰팡이가
		곰생이엔도 허곡 곰팡이엔도 허곡
20422	강낭콩	두불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췌
20424-1	참깨	췌가
20424-2	들깨	유
20425	고소하다	쿠시주
		쿠승허게

## 2.1.5. 채소

20501	채소	연날말로 승키
		채수
20502	나물	늑물
20502-1	나물(밭 재료)	*
20502-2	나물(밭 반찬)	*
20502-3	나물(들 재료)	*
20502-4	나물(들 반찬)	*
20502-5	나물(산 재료)	*
20502-6	나물(산 반찬)	*
20503	푸성귀	푸습췌
20504	다듬다	다듬망으네
20505	반찬	반차니 이서야
20506	무	그냥 늑빠
20507	썰다	췌렁
20508	무청	무수이파리
20509	시래기	쓰레기
20510	무말랭이	생기리
20511	장다리무	씨늑빠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깡이	송넙
20514	오이	오이
20515	오이지	웨지
20516	오이소박이	웨짐치
20517	가지(茄子)	가지
20518	호박	그냥 호박
20519	고구마	감저
20520	감자	지슬
20521	우엉	*
20522	파	이건 쪽파 패마농
20523	고추	고치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미네기
20526	부추	새오리
20527	상추	부루
20528	마늘	콥데생이 콥데사니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난지
20531	달래	뽕마농 드른마농
20532	도라지	이건 도라지
20533	더덕	던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곤밥
20602	찬밥	시근밥
20602-1	더운밥	더운밥
20603	조밥	조팝
20604	누룽지	누녕이엔도 허곡 누녕지엔도 허곡
20605	눌은밥	누룽지물 누룽지바빈디 누렁지밥 누녕이바벤도 허곡 누룽지바벤도



20606	승능	승능
20607	뜨물	튼무리엔도 허곡
20608	김(蒸氣)	짐 나온다
20609	갱죽(羹粥)	그거시 국쭈기고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쭈엔도 허곡
20612	칼국수	칼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건 국쭈
20613	건더기	건데기
20613	건더기	건데기만 나물꺼주
20613-1	국물	궁물만 남찌
20614	고명	양념
20615	꾸미	양녀므로
20616	미역	메역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제베기
20619	끼니	때 꺄썌글 허지 말라
20620	미음	미엄
20620-1	(미음을) 끓이다/ 쭈다/삶다	쭈는 거
20621	옛기름	꼴
20622	식혜(食醴)	동동 뜨는 거 시퀘
20623	식혜(食醴)	*
20624	달다(甘)	감주도 톨고
20625	가루	ㄱ르
20625-0-1	-에	ㄱ르에 물 뵤라
20625-0-2	-을	ㄱ르를 가져오라
20625-0-3	-도	ㄱ르도 곱따
20626	밀가루	밀까로
		밀ㄱ르
20627	밀기울	밀체
20628	미숫가루	개역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물
20702	된장	웬장
20703	고춧가루	고찢까로
20703	고춧가루	고찢ㄱ르
20704	고추장	고치장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김치
		김끼
20707	김장	김장김치
20708	깍두기	깍두기김치
20709	나박김치	물김치
		나박김치
20710	담그다	김치 다맘찌
20710-0-1	고	김치 다맘찌게
20710-0-2	어라	김치 다므라
20711	양념	양념 버무린 거
20712	버무리다	양념 버무린 거
20713	버섯	초기
20713-0-1	-이	초기 잘 자람찌
20714	콩나물(재료)	콩늑물
20714	콩나물(재료)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콩지름 무친 거
20714-2	숙주(나물)	녹띠지름
20715	두부	두부
20715	두부	둠비
20716	비지	비제기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득썰기
20718	가래떡	떡국 썬다
20719	시루떡	시리떡
		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송편 만들게
		송편 즈바
20722	흰떡	메떡
20723	고물	쉬 무철찌
20724	팔죽	폰죽
20725	새알심	즈베기 헤 놔신게
20726	백설기	제편
20727	튀밥	평튀기
		곤설 튀운 거
20728	술	취허는 건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부침
		부치메도 인꼬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손떡
20802	가마솥	가마
20802-0-1	-을	소슬 시스라
20802-0-2	-에	중소세
20803	아궁이	아궁지
		아궁이
20803-0-1	-이	아궁지가 좁따
20804	그을음	끄스렁
2		그시렁
20805	불쏘시개	불쏘스개
20806	연기	연기
		네가
20806-1	내(煙氣)	내가
20807	그을리다	천장이 그스런 안 뒹켜
20808	부지깽이	부지땡이
20809	부삽	불싸브로 다마내어
		불쌈
20810	넙다	누니 메와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그릇
20812-0-1	-을	그른 싸오게
20813	뚜껑	넙비뚜껑
20814	주발 뚜껑	가진깽이
20815	사발 뚜껑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술뚜껑
20817	밥주걱	울금
		우굼
		울구멘
20818	숟가락	수까락
20819	젓가락	젠까락
20820	종지	종지
20821	보시기	보시
20822	뚝배기	뚝배기
		독싸마리
20823	접시	이게 접씨
20824	조리	조로
20825	이남박	박썰기 답따
		남바기엔도 허곡 남박썰기엔도
20826	바가지	쿨락박썰기

20827	행주	상빼
20828	행구다	영영 행구멍
		활활 해우멍
20829	설거지	사발 시시라
20830	개숫물	구정물
		구진물
20831	찌꺼기	구진물 아쟁이
20832	화로	화리
20833	화룻불	화린빨
20834	부젓가락	불집깨고
		불줍깨
		불제까락
20834-0-1	-이	화리에 불줍깨 어디 가시니?
20834-1	불숟가락	불수꾸락
20835	다리쇠	적썰
20836	석쇠	적썰
20837	도시락	동고량착
20838	바구니	ㄱ는대구덕
20839	뒤주	두지
20840	찬합	반찬통이로구나
20841	강판	갈판
20842	개다리소반	웨상엔 헤

## 2.3. 가 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땡
		큰구들
20902	벽	백
		베젠도 허곡 백백르미엔도 헨쭈게
20903	다락	다락
20904	벽장	백짱 우의
20905	감추다	굽찌라 허곡
20906	흙	흙 난찌
20907	돌찌귀	도철귀
20907-1	암짜	암톨철귀
20907-2	수짜	순톨철귀
20908	미닫이	밀문

20909	여닫이	웨다지
20910	덧문	*
20911	열다	여랑 드러강
20912	문고리	문꼬리엔도 허곡 걸췌엔도 허곡
20913	자물쇠	통세
20914	간히다	돈통에 가두완짜 이제
20915	열쇠	열췌
20916	잠그다	문 더건 중갈짜
20917	구멍	고망
20917-1	취구멍	취구멍
		췌이고망엔
20918	찢다	찌저부런짜
20919	구들	구들 놔
20920	흙받기	췌멘판데기
20921	흙손	손카리고
20922	흙칼	췌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낭카른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췌손
20923	바르다	백 브른다
20924	장판	장판지
20925	종이	종이
20926	도배	도비
20927	구석	구석
20928	굽도리	걸레바지
20929	깨끗하다	깨끗터다
20930	문지방	문지방 아니
20930-0-1	-에	문지방 우에엔도 허곡
20931	틈	트멍 난 거주
20932	가장자리	가생이
20933	가운데	가운디
20934	시렁	선반
20935	살강	살레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빼다지
		설랍
20938	경대	정대엔 헨쭈
20939	거울	색경 보라
		거울 색경
20940	걸다	걸라
20941	호룽	등판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우에 올라가지 말라.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포
21007 서까래	서리
21008 추녀	추년
21009 처마	가지
21010 오두막	우막
21011 초가집	초집
21012 이엉	늑람지
21012-0-1 -에서	늑람지 우에 놀지 말라
21013 용마름	용므르가
21014 기스락	지스물 떠러지는 디
	지슬
21015 낙숫물	지스물 떠러진다
21015-1 기스락물	지스물 진 건
21016 사닥다리	사다리엔도 허곡 산태엔도 허곡
21017 용마루	주네므르
21018 토방	낭간
21019 댕돌	연똥
21019-1 섬돌	연똥
	팡또를
21020 마루	마루
	마리
21020-0-1 -에	마리에 안지라
21021 뿔마루	뿔무똥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주춧똥
21023-0-1 -을	주춧또를 놔야
21024 굴뚝	굴뚜기엔도 허곡 연또기엔도 허곡
	굴또기

### 2.3.3. 마당

21101 뜰	*
---------	---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마당을 너르게 허라
21103-0-1	-어서	마당이 널러사
21104	넓히다	마당을 더 넓혀야 허커
21105	곶간	곶까니엔도 허고 창고엔도 허고
21106	외양간	쉐막
21107	마구간	*
21108	광	안방
		고광
21109	헛간	헛간
21110	쓰레기	쓰레기
21111	장독대	장광뛰
21112	장독 뚜껑	장뚜껑
		황뚜껑이엔도 허곡
		장항뚜껑
21113	변소	돈통
21113-1	똥장군	*
21114	올타리	올타리
21115	담	담
21115-0-1	에	담 우에 올라가지 말라 담 너러진다
21115-0-2	-도	담 너러전져
21116	사립문	살체기
21117	뒤결	뒤뛰영
21117-0-1	-에	*
21118	바깥	바깥띠
21118-0-1	-에	바깥띠 강 놀라
21119	모퉁이	귀퉁이엔도 허곡
21120	모서리	모사리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동네
		믄을
21202	윗마을	웃똥네
21203	이웃	이우시 조아야 허곡
21203-0-1	-이	이우시 조아야 한다
21203-0-2	-에	이우세도 강
21204	마을가다	믄슬카왈찌
21205	우물	우물
21206	두레박	두룽박

21207 샘(泉)	산물 남찌
21208 가(邊)	근빠우
	ㄱ시엥도 허곡
21208-0-1 -을	우물근 떨 보라
21208-0-2 -에	근띠 사지 말라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상점엔도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흥정	흥성부찐다
21214 중매인(거간꾼)	흥성부찌는 사름
	그 중매쟁이
21215 잔돈	즌도느로 바짱오라
21216 에누리	에누리 안 뉘 쭈다
21217 거스름돈	거스름돈 드라 이레
21218 거스르다	거설라주난
21219 꾸다(借)	돈 꾸우라
21219-0-1 -어야	평오랑 썸
	꿔와사
21220 구두쇠	뿐쟁이엔 헤신가
21220 구두쇠	웬사람
21221 말기다	ㄱ칭 놔뉘
21221 말기다	머치진 아녀
21222 나머지	나머지엔 허주 나머지
	남제기엔도 헐쭈게 할망덜
21223 덤	부찌준 거
21224 몫	쩍시
	쩍시
21224-0-1 -을	나 찌시 드라.
21225 빚	빈제왕 주거지켜
21225-0-1 -을	비슬 다 가판찌
21225-0-2 -에	비세 얼머경
21226 이자(利子)	이쭈와리
	벨리
21227 심부름	부름씨
21228 두름	열 께가 혼 두름
21228-1 축	두 무께미
21228-1 축	께미로
21228-2 꿔	겂또 혼 두름 아니.
21228-3 접	혼 접
21228-4 씹	혼 씹



21228-5 두릅	*
21228-6 단/뭇(작은 묶음)	흔 졸레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열 깨민 흔 문
	흔 깨미
21228-8 툇	흔 단 흔 단
21228-9 모슌	흔 줌
21229 켄레	흔 베
21230 마지기	받또 흔 말지기 두 말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백오십 평
21231 꾸러미	흔 다느로 헤여실 꺼라
21232 그루	흔 그루
21233 포기	흔 푸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로
	찰리엔도 허곡
	잘리
21235-0-1 -을	찰리 아저오라
21235-0-2 -에	잘리에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한 개
21236-2 한-되	흔 뒬
21236-3 한-말	흔 말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 개
21237-2 두-되	두 뒬
21237-3 두-말	두 말
21238 셋	셴
21238-1 세-개	세 개
21238-2 세-되	석 뒬
21238-3 세-말	서 말
21239 넷	넨
21239-1 네-개	네 개
21239-2 네-되	넉 뒬
21239-3 네-말	너 말
21240 다섯	다슨
21240-1 다섯-개	다슨 깨
21240-2 다섯-되	단 뒬
21240-3 다섯-말	단 말
21241 여섯	으서
21241-1 여섯-개	여슨 깨
21241-2 여섯-되	을 뒬

21241-3 여섯-말	은 말
21242 일곱	일구
21242-1 일곱-개	일곱 개
21242-2 일곱-되	일곱 뻬
21242-3 일곱-말	일고 말
21243 여덟	으답
21243-1 여덟-개	으덟 개
21243-2 여덟-되	으답 뻬
21243-3 여덟-말	으덜 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 개
21244-2 아홉-되	아홉 뻬
21244-3 아홉-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개	열 개
21245-2 열-되	열 뻬
21245-3 열-말	열 말
21246 스물	쭈물
21246-1 스무-개	쭈무 개
21246-2 스무-되	쓰무 뻬
21246-3 스무-말	쭈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른 개
21247-2 서른-되	서른 뻬
21247-3 서른-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은
21248-1 마흔-개	마은 개
21248-2 마흔-되	마은 뻬
21248-3 마흔-말	마은 말
21249 쉰	췌
21249-1 췌-개	췌 개
21249-2 췌-되	췌 뻬
21249-3 췌-말	쉬은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순 개
21250-2 예순-되	예순 뻬
21250-3 예순-말	예순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이른 개
21251-2 일흔-되	이른 뻬
21251-3 일흔-말	이른 말

21252	여든	으든
21252-1	여든-개	으든 개
21252-2	여든-되	으든 뉘
21252-3	여든-말	으든 말
21253	아흔	아은
21253-1	아흔-개	아은 개
21253-2	아흔-되	아은 뉘
21253-3	아흔-말	아은 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 깨
21254-2	백-되	백 뉘
21254-3	백-말	백 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들	흔들
21256-1	한두-개	흔두 개
21256-2	한두-되	흔두 뉘 아저오라
21256-3	한두-말	흔두 말 아저오라
21257	두셋	두세
21257-1	두세-개	두세 개 아정 오라
21257-2	두세-되	두세 뉘 아저오라
21257-3	두세-말	두세 말 아저오라
21258	두서넛	두서너
21258-1	두서너-개	*
21258-2	두서너-되	*
21258-2	두서너-되	*
21258-3	두서너-말	*
21259	서넛	서너
21259-1	서너-개	서너네 개 아정 오라
21259-2	서너-되	서너 뉘 아저오라
		서너네 뉘 아저오라
21259-3	서너-말	서너 말
21260	네댓	너넨
21260-1	네댓-개	너넨 깨 아정 오라
21260-2	네댓-되	너넨 뉘
21260-3	네댓-말	너넨 말 아저오라
21261	대여섯	대으슬
21261-1	대여섯-개	대으슬 깨 아정 오라
21261-2	대여섯-되	대으슬 뉘 아저오라
21261-3	대여섯-말	대으슬 말 아저오라
		대으슬 말
21262	예닐곱	예슬곱

21262-1 예닐곱-개	예슬곱 깨
21262-2 예닐곱-되	예슬곱 뻬 아저오라
21262-3 예닐곱-말	예슬곱 말 아저오라
	예실곱 말
21263 일여덟	일고으답
21263-1 일여덟-개	일고으답 깨 아정 오라
21263-2 일여덟-되	일고으답 뻬 아저오라
21263-3 일여덟-말	일고으답 말 아저오라
	일고으답 말
21264 여덟아홉	으더아웁
21264-1 여덟아홉-개	으더아웁 깨 아정 오라
21264-2 여덟아홉-되	으더아웁 뻬 아저오라
21264-3 여덟아홉-말	으더아웁 말 아저오라
21265 여남은	여나믄
21265-1 여남은-개	여나믄 개 아정 오라
21265-2 여남은-되	으나믄 뻬 아저오라
21265-3 여남은-말	으나믄 말 아저오라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메
21302 길이	기리가 질다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저고리
21305 두렁이	베부레기
21306 무늬	무니
21307 고쟁이	고장중이 달믄게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후리메
21310 의복	저디 가는 사름 입쌩도 조케 출런쩌
21311 구겨지다	보벼진 거옴
21312 옷고름	골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진
21315 겹	베꼇
21315-0-1 -에	거터 뉘 무덜쩌
21315-0-2 -을	안파껴슬 모르켜

21316	홀웃	혼뜯
21317	겹웃	겹본
21318	잠방이	점벙이
21319	누더기	준논
21320	거지	거지덜
		동녕바치
21321	구걸	동녕허레
21322	조끼	쥬께
21323	내의	속꼴
		내복 혼 불
21324	껴입다	주겨 임는 거. 끼와 임는 거
21325	소매	스미
21326	주머니	주멩기
21327	호주머니	게아쑥
		게와
21328	허리띠	허리띠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큰논
21331	삿갓	사깁
21331-0-1	-에	사까세
21332	고깔	송낙
21333	사모	사모 관디
21334	유건	아 유건 마자 유건
21335	대님	다림
21336	감발	*
21337	짚신	쩍신
21337	짚신	초신
21338	미투리	*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 트다/결다	삼는 거
21339	나막신	이거 남신 우리도 시너난 거
21340	설편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멩지
21401-1	명주실	멩지썰
21402	목화	멘네
21402-1	목화다래	드레

	멘넨뜨레
21403 무명	미녕
21403-1 무명실	미녕실
21404 씨아	브르느물레
21405 자새	*
21406 물레	물레
21406 물레	즌느물레
21407 베	베로
21408 길쌈	질쌈
21409 골무	손골메
21410 반진고리	바농쌍지
21411 가위	ㄱ세
21411-0-1 -을	ㄱ세 가정 오라
21411-0-2 -에	ㄱ세로 손 그찬저
21412 마르다(裁)	온 물르곡
21412-0-1 -고	보선 물르고 햄저
21412-0-2 -어라	온 물라보라
21413 형겔	험벅 대영
21413-0-1 -을	험벅 대영
21413-0-2 -에	험버게
21414 바늘	바농
21415 꿰다	꿰영
21415-0-1 -고	방농꾸 꿰엄저
21415-0-2 -어라	방농꾸레 실 꿰라
21416 바느질	바농질 잘허는 사름
21417 재봉틀	자봉틀
21418 끈	친
21419 노끈	노끄넨도 허고 노엔도 허고
21420 참바	삼갑드린 베
	짐페
21421 매듭	ㄱ작
21421-1 (매듭을) 땀다/짓다/ 엮다/묶다	ㄱ작 지우는 거
21422 보자기	포따리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게
21425 포근하다	포근허곡
21426 홉이불	홉띠불
21427 겹이불	겹빼불
21427-1 솜이불	소게이불
21428 누비이불	꺄레이불허곡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베게꺼죽
21430	베갯잇	베젠넙
21430-0-1	-에	베개꺼주게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목치메 수거느로나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서답퍼는 거
21436	빨랫방망이	물마께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랫줄
		서답빼
21439	다리미	다리웨
21439-1	다림질	다리웨질허게
21440	인두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민마께
21442	다듬잇돌	요건 안반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 한다

## 2.5. 민속

### 2.5.1. 세시풍속

21501	설날	설날
21502	설	정월초하루
21503	선달 그믐날	선뜰그믐날
21504	목은세배	*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올리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새해
21505-3	내년	내년넌도 곤쭈게
21505-4	후년	내후년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윤 놀게
		윤꾸라근

21507-0-1 -을	유슬 던지라
21507-0-2 -에	유세 마자
21507-1 윗놀이	윤노리
	넉똥배긴
21508 윗가락	윤꾸락 만드라 오라
21508-1 도	토
21508-2 개	케
21508-3 걸	걸
21508-4 옷	운
21508-5 모	모
21509 단동	웨지
21509-1 외동무니	웨지로 감찌
21509-2 두동무니	두지 무꺼네
21509-3 석동무니	석찌 무건 감찌
21509-4 넉동무니	넉찌로
21509-5 막동	막찌 한 물 하나 나만찌
21509-6 단동무니	무지막찌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흐로보름
21511 추석	파월맹질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자근자
	조근자
21514-2 긴막대	큰자
21515 수수께끼	예숙제끼는 거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땡가리엔도 허곡
21518 장구	장권디
21519 결두리	중석
21520 무당	건 심방
21520-1 박수	여자심방 남자심방 헛주게
21521 고수레	세번 케우려십쭈게
	잡씩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점쟁이엔도 허곡
21523 상여(喪輿)	상여
	화단니연을 마니 랐쭈
21524 굴건	굴건
21525 제사	식계



21526	제기	제기
		찢끄른
21527	귀신	귀시니
		구신
21528	도깨비	도체비

## 2.5.2 농경 용품

21601	고삐	몰아근 끈넌 헨는디
		물석
21602	굴레	녹떼
21603	명에	명에
21604	길마	질메
21605	부리땅	망울
21606	구유	밥통
21607	작두	작또
21608	꼴	출 써러
21609	여물	썬출 주라
21610	쇠죽	쉐죽
21611	쇠죽바가지	남자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끄성 가
21613-0-1	-고	끄선 감십쭈게
21614	바퀴	철바꾸
21615	새끼(繩)	새끼 꼬안찌 노 꼬안찌
21615	새끼(繩)	손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줍씨망탱이
21617	떡등구미	멕
21617	떡등구미	멥탱이
21618	거적	거적 달쁘니
21619	가마니	가마니
		가멥이
21619-1	가마니틀	가멥이클
		가멥이틀
21620	돛자리	초석
21621	자리틀	초석클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 만들다/결다	차는 거
21622	왕골	왕골로 이건 만든 거네

21623 삼태기	굴채
21623-1 쥘 삼태기	썩굴채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맹이
21625-1 고운채	총체가
	쥘 줌진체가 이서신디
21625-2 굵은채	중채
21626 대장장이	불미대장
21627 대장간	대장까넨도 허곡
	불멎까니엔도 허곡
21628 풀무	불미
21629 모루	모람또렌도 허고 모랴또렌도 허고
21630 모루채	쥬망치
21631 갈퀴	글갱이
21632 집게	집게
21633 장도리	빠루망치
21633-1 노루발	몬빼기
21634 툇	툇
21634-0-1 -에	토베
21635 도끼	도끼
	도치
21636 자루(柄)	즈록
21636-0-1 -을	도치쯔록 끼어라
21636-0-2 -에	즈로게 금 갠찌
21637 갈고리	깎꾸리
21638 썰기	세감
21639 송곳	송곧또
21639-0-1 -에	송고세 손 다첸찌
21640 뽕죽하다	뽕쪽헌 건또 인꼭
21641 솥돌	싣똥
21641-0-1 -에	싣도레
21642 맷돌	ㄱ레
21642-1 수쇠	중소리
21642-2 암쇠	중소리꾸멍
	중소랴꼬망
21643 지게	지게
21644 밧채	바작
	바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작썩
21646 막대기	막뽕이나

21647	몽둥이	쉐 모는 망뎡이 몽둥이
-------	-----	-----------------

### 2.5.3. 생활 용품

21701	빗자루	비치락
21702	광주리	광주린게
21703	소쿠리	송코리
21704	함지	남박썰기
21705	풀비	솔
21705-1	귀알	풀메기는 솔
21706	독	황
21706-0-1	-에	항에
		황에
21707	물독	물항
21708	항아리	항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물똥이
21711	짜리	바침 아닌가 방석 ㄱ짜 사려 아장
21712	옹기	옹기가 항더리주
21713	표주박	건 작빠 쿨락빠 아니 쿨락박썰기
21714	키(箕)	푸는채
21715	떡살	떡뿐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 ㅎ정오라
21717-0-2	-에	시리에
21718	시룻밑	고망 막는 늬뻬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시린마게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	싯돌 아져오라
21721	부시	부세
21722	부싯깃	불찍
21723	담배	담베
21724	담뱃대	통때
21725	담배설대	그게 대

21726	담배통	통
21727	물부리	물뿌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선제
21729	부채	폰채
21730	토시	손또메
21731	벼루	베리
21732	가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빈네
21734	창빔	창빔
21734-0-1	-을	창빔 가져오라
21734-0-2	-에	창비세 머리까라기 부턴찌
21735	얼레빗	건 얼레긴디
21736	세숫대야	세숫때양
21737	비누	비노
21738	도투마리	도꼬마리
21739	활대	멍에활때
21740	잉앗대	이거 응에때
21741	부티	허리안개 아니
21742	도롱이	줍세기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임텅이
21802	이마빼기	이마뺏 버서전
21803	눈자위	쏘게 눈꽁죽
		눈꽁죽
21804	검은자위	검은꽁죽
21805	흰자위	흰꽁죽
21806	눈꺼풀	눈빠위
21806	눈꺼풀	눈뚜께
21807	거적눈	더께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히연찌
21809	속눈썹	쫑눈썹비 이신 거 달마
21809-0-1	-이	쫑눈썹비에 허민
21810	눈두덩	눈뚜께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집
21813	돋보기	돋보기
21814	주름살	주름 산찌
		주름살도 얻꼬 젊게 보염찌
21814-0-1	-이	주름싸리 하주
21815	엣되다	점게 보염찌
21816	수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녹때쉬염
21817-0-1	-을	녹때쉬염 까까야켜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콘썬염
21820	코딱지	코푼제기
21821	콧구멍	콘꾸멍
		콘꼬망
21821-0-1	-을	콘꼬망 마가야주
21821-0-2	-에	콘꼬망에서
21822	콧물	콘물
21823	입술	입쭈리
21823-0-1	-에	입빠위에
21824	다물다	입 다드라
		입 따물라 입 다드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썩빠람
		썩백름 부는 거
21828	침	춤
21829	삼키다	춤 숨지라
		숨키라
21830	가래(痰)	가래
		게춤 나왓젠도 허곡 가래 나왓젠도 허곡
21831	빨다	바트렌 허는 디.
21832	혀	세
21833	혓바늘	셋빠농
		세아덜 난젠 허자나
21834	귓볼	귓뽕이라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마기
21836	귀지	귓뺨
21837	귀이개	귓뺨 내는 거

21838	소리	소리 듣는
21839	엿듣다	여상듣는 거
21840	귀청	귀창 터지켜
21841	귀밑	귀통이에
21841-0-1	-을	귀통이에 점 날찌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지미
21844	주근깨	주근깨
21845	턱	턱가리
21846	턱수염	턱쉬염
21847	뺨	뺨얌
21847-1	불	불
21848	가름하다	소랑ㅎ다
21849	보조개	보조기
21850	머리카락	머리꺼울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총	이발총
21853	정수리	머리상감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뽑쓸머리가
21856	가르마	가메 갈르는 거
21856-1	가르마 타다/ 가르다/하다	상가메 갈랄찌
21857	가마	상가메
21857-1	가마(鼎)	가마
21857-2	가마(轎)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엔도 허곡
21857-4	가마(가마니)	흔 가마 두 가마 허긴 헤서
21858	뒤통수	뒀머리
21859	뒀덜미	모가지
		뒀야게기
21860	목	목
21861	먹살	멕싸리나 모가지나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독지엔도 허곡 어깨엔도 허곡
21902	밑치다	밑치지 말라

21903	겨드랑	저갱이
21904	등	등뎡이
21905	가슴	압까슴
		가슴
21906	결리다	가슴 아팜쩌
21907	갈비뼈	갈빈때
21908	허파	허파
21909	쓸개	므른 실게가 업따
21910	콩팔      콩	콩꼭시 나쁘난
21910-0-1	-에	콩꼭세
21910-0-2	-을	콩꼭
21911	팔	폴
21912	팔꿈치	폴꿈치
21913	팔짱끼다	폴짱찌지 말라
21914	손톱	손콥
21915	오른손	느단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뜨나다
21917-0-1	-아서	뜨나난 잘 아라지켜
21917-1	틀리다	뜨리니까
21918	왼손잡이	웬등이
21918	왼손잡이	웬손제비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손까락
21920	집게손가락	안주에기
21921	가운뎃손가락	상손꾸락
21922	약손가락	노네기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손꾸락
21924	생인손	생손 알런쩌
21925	사마귀	사막
21926	손아귀	손아귀
21927	손목	홀목
21928	뺨	한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막뎡이엔도 허곡 지팽이엔도 허곡
		주랑이엔도 허주
21931	옆구리	옆꾸리가 아프다
21932	간지럽다	즈글람쩌
21933	간지럼	엔날은 조곰덜
21934	잔허리	즌등이나 허리나
21935	근육	그늑
21936	배꼽	배또롱
21937	목물	등에 물 노라

### 2.6.3. 하체

22001	복사뼈	귀마리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창
22004	발톱	발콧
22005	냄새	냄세 마튼다
22006	고린내	발똥내
		발꼬랑내엔도 허곡 발똥내 마니 남찌
22007	굳은살	멍구쟁이 찔찌
22008	정강이	정강빠
		정쟁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판지	주슬
22011	회초리	훼초리
22012	무릎	무릅
22012-0-1	-을	무릅 다천찌
22012-0-2	-에 무	르베 중기 남찌
22013	오금	오곰테기
22014	엉덩이	엉둥이
22015	궁둥이	궁둥이
22016	볼기	볼기작
22017	멍	멍 드런찌
22018	멍울	멍얼 산찌
22019	가랑이	강알
		가랭이
22020	사이	트멍
		사이
22021	살	강아레 멍얼이나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저곰테기로
22023	가래툫	멍얼 산찌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22025	넓적다리	허벅찌
22026	가부좌(跏趺坐)	복씨떼완 아잔찌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 앉다/트다/꼬다/하다	복씨떼완 아잔찌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감기
22102	기침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헛개기
22104	사레	살레
22104-1	(사레) 들리다/ 만나다/걸리다	살레에 드린 ㄴ끼엄찌
22105	딸꾹질	툄구지
22106	트림	트림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마누라 헤가지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10	학질	학찌린가
22110-1	하루거리	*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홍역
22112	볼거리	*
22113	땀띠	땀띠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즘
22115-1	마른버짐	군버즘
22115-2	진버짐	*
22115-3	도장 버짐	도리버즘
22116	문둥이	용다리엔도 허곡
22116-1	문둥병	용달뽕
		문둥뽕 걸리난
22117	부스럼	부스럼지 남찌
22117-1	종기	종기
		구진허멸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골마사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눈감개기
22122	언청이	얼챙이
22123	소경	봉스
22123-1	당달봉사	튼봉스게
22124	애꾸	짱눈 아니
22125	눈곱	눈콍제기

22126	다래끼	둘러시엔도 허곡
22126-1	다래끼(눈 위쪽)	개존 생겔찌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개썸 생겔찌
22127	절름발이	절룩빠리
22128	굽사등이	등굽쟁이
22128	굽사등이	굽새
22129	귀머거리	귀마구리
22130	말더듬이	말더듬
22131	병어리	모르기
		말모로기
22132	잠꾸러기	잠꾸레기
22133	줄리다	줄린다
		조랍따
22134	하품	하위염 현다
22135	줄음	조름 완찌
22135-0-1	-을	조름 이기지 몬터켄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잠꼬대(22135→22136)
		현말 ㄱ람찌(22135→22136)

## 2.7. 육아

22201	입땃	입떠시주
22201-0-1	-을	입떠슬 심머게 현다
22202	갓난아이	물에기
22203	어린아이	어린에기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돌쥬 험샤
		정끼허쥬 험샤
22205	눅히다	눅찌라
22206	계집아이	지집빠이
22207	예쁘다	아까완 곱따
22208	사내아이	스나이
22209	아우 타다	아이고 아긴 먹찌 몬테연 쥬 굴머네 수견 이번찌
22209	아우 타다	아래 탈찌
22209-1	아우보다	아이고 아시 동생 봐부난 이치록
22210	야위다	주런
22211	쌍둥이	쌍둥이
		글레기
22212	오줌	오줌

22213	똥	똥 싸주기
22214	기저귀	지성기 채완찌
22215	뉘다(排便)	야의 강 오줌 세와불라
22216	방귀	똥을 마니 편다
22216-1	뀌다	방구를 마니 편다 험쭈마는 똥을 마니 편다
22217	구린내	똥내가
22218	구리다	데립께 굳따
22219	포대기	뜨데기에 뚜데기
22220	기지개	질 트는 거
22220-1	기지개를 켜다/ 하다/쓰다/펴다	질 트는 거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눔부치르는 거
22223	겹쟁이	겹쟁이 겹썬
22224	불쌍하다	불쌍허다
22225	죄암죄암	챜챜 즈매즈매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선:데 선:데
22228	도리도리	마니마니
22229	짹짹	짹짹 짹짹 던데던데허라
22230	부라부라	거르메거르메 허멍 걸루는 거
22231	걸음마	흔 자국 낄쭈다
22232	아장아장	자글자글 걸어감찌
22233	넘어지다	탁 드러아자 씨러지주게 예기 푸더절찌
22234	곤두박질	곤작삼쨌도 허고
22235	안기다	엄마푸메 안지주기
22236	바람개비	브롬또레기
22237	호드기	주네사네 주네부는 거주
22238	숨바꼭질	굽을락
22239	소꿉놀이	흑뽕
22240	사금파리	사그마치 사그망치
22241	연	연도
22241-1	방패연	들연

22241-2 가오리연	게오리연
22242 걸리다	막 노끈 낭우의 강 거러져부러
22243 고누	꼰 뛰는 거
22244 땅뺏기	땅떼여먹을락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빤짱칙
22247 구슬	다마칙
22248 그네	그네
	굴메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 /구르다	굴메 뛰는 거
22249 밀신개	그네판데기
	굴메판데기
22250 굴렁쇠	췌도레기
22251 굴리다	둥올리는 거
22251-0-1 -고	도레기 둥그런 감썰
22251-0-1 -고	도레기 둥그리멍 감썰
22251-0-2 -어야	둥그려야
22252 자전거	자전거
	즈옹게
22253 목말	청게고게
22254 말타기	말탈락
22255 달음박질	드름박쩔 잘험썰
22256 썰매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 타다	썰매는 타는 거
22256-2 송곳	송곳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 피우다/떨다/하다	엄살 부리는 거
22258 부아	부아가 나주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님
22302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엔

22303	할아버지	하르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르버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엔
22305	남편	남편이주
22305-1	남편(호칭)	하르방 어이
22306	아내	각시
22306-1	아내(호칭)	어이
22307	형	형님
22307-1	형(호칭)	형니미엔
22308	아우	동생
22308-1	아우(호칭)	이젠 아시
22309	누나	누님
22309-1	누나(호칭)	누님헨
22310	누이	누이동생
22310-1	누이(호칭)	누이엔도
22311	자식	자시기라고
22312	만아들	큰아덜
22313	만딸	큰딸
22314	막내	망내
22315	오빠	오라방이우다
22315-1	오빠(호칭)	오라바니
22316	언니	우리 성니미우다
22316-1	언니(호칭)	성님
22317	아비	누게 아방
22317-1	아비(호칭)	민수 아방엔
22318	어미	민수 어멍
22318-1	어미(호칭)	이젠 민수 어멍아
22319	손자	손지
22320	손녀	견또 손지 여손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누게 아방 경도 부르곡
22322	외손자	웨손지
22323	외손녀	견또 웨손지지
22324	꾸짚다	혼내야주 어떻허여
22324-0-1	-고	*
22324-1	나무라다	야단청으네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겨륜험쩌

22327-1 혼인식	겨룬식
22328 혼인 잔치	잔치 험젠
22329 장가가다	장게감찌
22329-1 시집가다	씨집감찌 허주기
22330 혼숫감	살럼사리 문 출런
	혼순까문 이불 ㄱ튼 거
22331 함	함
22332 곁사돈	부찌사돈
22333 새 색시	새 각씨
22333-1 새 색시(호칭)	새 각씨야
22334 시아버지	우리 씨아부집니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버지엔
22335 시어머니	우리 씨어머니우다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머니
22336 비위	비유를 맞추와야
22337 아주버니	씨아주버니우다
22337-1 아주버니(호칭)	씨아주바님
22338 서방님	씨아주방
	남편 동생이우다
22338-1 서방님(호칭)	아지방 혜영 불런쭈
22339 도련님	도려니미라고
22339-1 도련님(호칭)	아지방
22340 형님	우리 큰동세우다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씨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성니멘
	야 혜영
22341-2 아가씨	아래 씨누이가 처녀우다 이제
22341-3 아가씨(호칭)	*
22342 올케	아지망
22342-1 올케(호칭)	아지망 헐쭈
22343 매형	우리 매형
22343-1 매형(호칭)	매형
22344 매제	아래 매비
22344-1 매제(호칭)	매부엔 불르주
22345 큰아버지	큰아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아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센파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자근아버지
22346 큰어머니	큰어머니우다 영
22346-1 큰어머니(호칭)	큰어머니엔 부르주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센떠머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말쨤떠머니
22347 큰집	종손칩
22348 작은아버지	자근아버지
	조근아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조근아버지
22349 작은어머니	조근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조근어머니
22350 삼촌	조근아버지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오촌숙쥬간
22351-1 아저씨(호칭)	그냥 삼촌이예만 험쥬
22352 아주머니	여즈신디도 삼촌
22352-1 아주머니(호칭)	삼추니옴 헤야지 뭇
22353 조카	조케
22354 조카딸	여자조케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님
22357 고종	웨스춘형제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님
22360 이종	다 웨스춘
22361 외삼촌	웨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삼춘
22362 외숙모	웨숙모옴도 허여
22362-1 외숙모(호칭)	삼추니 빨라
22363 외종	웨스춘으로
22364 외할아버지	웨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르버님
22365 외할머니	웨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할머니
22366 장인	장인인옴도 허곡 가시아방이옴도 허곡
22366-1 장인(호칭)	아바님
22367 장모	건 가시어머니
22367-1 장모(호칭)	어머님

22368	처남	큰처남
22368-1	처남(호칭)	형님
22369	처남댁	아지망
22369-1	처남댁(호칭)	이제도 아지망 허연 불러
22370	홀아버	홀아방
22371	홀어미	홀어멍
22372	계모	새어머니
		다슴어멍
22372-1	계부	다슴아방
22373	아저씨	동네어른
22373-1	아저씨(호칭)	삼촌
22374	아주머니	삼추니옌도 허고 할머니옌도 허곡
22374-1	아주머니(호칭)	삼촌행 부르는 이리 만코
22375	사나이	스나이주
22376	영감	하르방
22376-1	할망구	요 사름 경
		할망구 아이고 저 할망 보라
22377	나이	나이 혼 살씩 머그난
22377-0-1	-를	나이 혼 설씩 더 머검저
22378	환갑	한갑
22378-1	환갑 잔치	환갑잔치
22379	사투리	우리 제주도 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떼기
22402	민물고기	민물꼬기
22403	피라미	*
22404	지느러미	요게 놀게기고
22405	아가미	구생이
		아가미
22406	창자	창자
22407	송사리	송사리
22408	헤엄	히엄 청 텅겨
22409	메기	메기가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이거시 거부기 담꾸나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개가비엔도 허곡
22414	올챙이	멘주기
22415	두꺼비	두테비엔도 허곡
22416	거머리	거멀
22417	다슬기	*
22418	우렁이	노네 사는 우렁이엔
22419	고등	거 보말
22420	달팽이	이건 들벥인가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민물새우
22421-2	새우(민물 소)	*
22421-3	새우(바다 대)	바당새우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우젓	새우젼
22422-0-1	-이	짜다 새우저시
22423	가재	새우가재 달믄게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고등에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웨누베기우다게
22428	멸치	멜
22429	명태	멘테고
22429-1	동태	그거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
22429-4	복어	부거
22429-5	생태	생태
22430	조기	저 조기 아니
22431	도미	솔나니
		생성
22432	뺨장어	베엎짱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니껍
22435	낙싯대	낙싯때
22436	얼레	얼레
22437	조개	아 조개
22438	소라	구제기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베랭이
22502	날벌레	날뽕레
22503	파리	프리
22503-1	쉬파리	쉬프리
22504	쉬슬다	쉬싼찌
22505	가시	장뽕랭이
22506	진딧물	진쉬 일민 개미가 올라 강 춤 머거
22506-1	(진딧물이) 끼다/ 얹다/생기다	진딘물 생겨노난 진쉬 생겨부난
22507	잠자리	밥쭈리
22508	방아깨비	심방만촉
22508-1	암컷	암심팡심방만촉
22508-2	수컷	수심방만촉
22509	메뚜기	말촉
22510	여치	*
22511	사마귀	건 국췌기 산바틀 국췌기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 기르다/키우다	*
22513	땅벌	땅뽕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누네누니
22516	풍뎅이	두메기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장굴레비
22519	매미	재열
22520	개똥벌레	불한디
22521	반딧불	불한딘뿌리주게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똥뽕랭이
22525	노래기	구뒤에기
22526	그리마	구데기
22527	지네	주냉이
22528	개미	왕게염지
22529	바구미	남췌
22530	진드기	진독 늘그민 부구리
22531	벼룩	베룩
22532	이	니 니

22532-1 서캐	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소낭뻔랭이
22534 귀뚜라미	공중이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누에꼬치
22537 번데기	번데기
22538 지렁이	게우리
22539 회충(蛔蟲)	견또 게우리주
22540 소금쟁이	소금바치
22541 방개	물빵석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다 인찌
22602 암소	암췌
22603 송아지	송아지
	송아기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멍
22605 황소	부룻이
	받깁췌엔도 허곡
22606 길들이다	ㄱ리치는게 받깁때 질뜨리는 거
22606-1 소 모는 소리 (앞으로 가라)	머식 이러
	이식
22606-2 소 모는 소리 (그 자리에 서라)	왕
22606-3 소 모는 소리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사라 영허멍 가린서글 땡기는 거고
22606-4 소 모는 소리 (왼쪽으로 돌아)	느려사라 허영으네 가린서그로 조질헛찌
22606-5 소 모는 소리 (뒤로 물러나라)	우측 꺼 땡기멍 양진머리 미테 낱으네 짹 땡기민 두터레 물러삼췌게
22607 쇠고기	췌췌기
22608 고기(肉)	췌기
22609 돌치	지지랭이
22610 꼬리	꼴리
22611 망아지	몽생이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리
		갈비엔도 허곡
22614	돼지	도새기
22614-1	멧돼지	산똥야지
		산도새기
22615	주둥이	주둥이
22616	돼지 머리	도새기데맹이를 쓰고
22617	돼지우리	돈통
22617-1	오래오래	꼭꼭
		꼭꼭케가민
22618	개(犬)	개
22618-1	수개	수개
22618-2	암개	암개
22619	강아지	강아지
		강생이
22620	염소	염송아기
22621	고양이	고녕이
22621-1	수고양이	수코녕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녕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거위
22624	암탉	암툑
22625	병아리	빙에기
22626	모으다	모다왁쩌
22627	수탉	장득
22627-0-1	-이	장득기
22628	벼슬(鷄冠)	고달
22629	부리	입쭈둥이 주둥이
22630	모이	빙에기 줄 곡석
22630-0-1	-을	곡씨글 주서 멍는 거
22630-1	모이다	모다왁쩌
22631	닭털	득터럭
22632	닭똥	득똥
22633	어리	득망
22634	닭장	*
22635	둥우리	득팅에엔도 허곡
22636	날개	늘개
22637	깃	득진
22637-0-1	-을	득지슬 뽀바라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버미 몬난젠
		호랭이
22702	살쾡이	식
22703	여우	여우
		여시엔도 허고 여우엔
22704	원숭이	원숭이
		원생이
		즌나비떠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루	노리
22706-0-1	-이	노리가 하다
22706-0-2	-를	노리 잡찌 말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들쫘이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버염
22711	도마뱀	독따구리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독싸
		물폐기라고
22714	생쥐	ㄱ랑중이
22715	박쥐	박쥬
22716	거꾸로	거꾸로
22717	다람쥐	드람지는 딱로 이서
22718	새(鳥)	날짐승
22719	꿩	제비새 끌렝이
		꼬리엔도 허곡
22720	솔개	똥소로기
22721	독수리	독쭈리도
22722	제비(燕)	제비새
22723	두루미	두루미새
22724	소쩍새	*
22725	꿩	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암꿩
22727-1	꺼병이	꿩빙에기 깨와서라
22728	중달새	비실생이
22729	빼꾸기	빼꾸기가 울며는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
22732	올빼미	옥뺨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남도로기새
22735	덧	덧
22735-0-1	-을	쥐더슬 노민
22736	올가미	코 하나씩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철쭉꽃
22803	민들레	우영에 신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만드레기꽃
22805	봉선화	봉숭아
22806	파리	푸계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봉오리 산 거
22809	시들다	시드러부러
22810	질경이	베채기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빨기	뽕이
22812	비름	비눔
22813	쇠비름	췌비눔
22814	썸바귀	수웨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베염고사리
22818	도깨비바늘	개범불레
22819	도꼬마리	개즈봄
22820	억새	어욱꼰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늘
22823	아주까리	피만지

22824	담쟁이	담쟁이
22824	담쟁이	눈벨레기
22825	수세미	스가웨
22826	덩굴	줄 버더가는 게
22827	덤불	덤벌
22827-1	가시덤불	가시낭덤벌
22828	잔디	테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낭
22902	솔방울	솔똥
22903	관솔	솔각 그건
22904	솔가리	솔니비 떠러지며는
22905	그러모으다	글거다가 지들커
22906	뽕나무	뽕낭
22907	오디	뽕낭열매엔만 허여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츠낭
22910	상수리	츠낭
22911	옻	오슬 올라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드낭인가
22913	느티나무	굴무기낭
22914	그림자	굴메
22914-1	그늘	그느리 생겨
22915	숯	곧뻐
22915-0-1	-을	곧뻐 다 캄찌
22915-0-2	-에	곧받떡 강 왕
22916	시원하다	씨원허여
22917	찔레	도꼬리낭
22918	쭈	꼭
22918-0-1	-에	끄게 발 걸런
22919	가지(枝)	가지
		낭까쟁이 가쟁이
22920	끝	가지 끝
22920-0-1	-이	가쟁이 끄시 노프다
22920-0-2	-을	낭까쟁이 끄슬 찰랑 오라
22920-0-3	-에	낭까쟁이 끄세 여니 걸런찌
22921	삭정이	주근 가쟁이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 꺾다/하다	땡경으네 꺾끄는 거
22922	나무	낭
22922-0-1	-을	고지 강 낭을 행 와야
22922-0-2	-에	낭에 연 거러전져
22923	나무하다	지들커허레 가완져
		낭허레 낭꼬지 감쩌
22924	그루터기	낭둥치기
		굽똥이엔도 허곡 등체기엔도 허곡
22924-1	그루터기 (베어내고 남은 부분)	조크르
22925	등걸	그르
22926	장작	장자기엔도 허난
22927	패다	도치로 깨어 낭을 깨어
22928	부스러기	낭피죽 느라날쩌
		주적
22929	숯	아 숯
22929-0-1	-이	수시 꺼멍허여
22929-0-2	-을	숯 까저오라
		숯짱시는 수슬
22929-0-3	-에	수세 불 부찌라
22930	불잉걸	잉경
22931	쌈	쌈 나완쩌
22932	잎	이파리
22932-0-1	-을	이파리 땅 오라
22932-1	잎사귀	호방넙
22933	가랑잎	츄낭입 떠러전쩌
22934	뿌리	빨리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베
23003	복숭아	봉숭게
23004	곶감	곶깸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곶깸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
23011	석류	성뉴
23012	모과	모과차 허연
23013	과일	과일
		과실
23014	꼭지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엔
23015-2	곶밤	*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둥밤	쌍둥이밤
23016	보늬	새겹폴
23017	호두	호도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
23020	머루	멀리
23021	다래	드레
23022	청미래덩굴	벨레기낭
		벨랑귀낭이이엔 연나른
23023	으름	줄갱이
23024	참외	츄메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
23025-2	"딸기(밭 야생)"	보리탈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한탈
23025-4	"딸기(들 야생)"	가문탈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틀
23026	뱀딸기	게염지탈
23027	마름(菱)	물망쉬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꼬지
23102	기슭	산굽

23102-0-1 -에	산꾸베 가보라
23103 골짜기	산꼴짜기
23104 메아리	메아리
23105 고향	큰소리
23105-1 (고함) 치다/ 지르다/하다	큰소리 찜찌
23106 묘	묘
	산
23107 뫓자리	산터 보레 감찌
23107-1 광중	개광
23108 구덩이	구텡이
23109 비탈	비크레긴 올라가기 힘들
23110 가파르다	고바이가 너무 쎄니까
23111 언덕	동산
23112 낭떠러지	기정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드르에 간 보난
23114 별	*
23115 갈림길	쌍갈레길
	갈렐끼레 오니까
23116 헤어지다	가르강으네
23117 바위	왕서기엔도 허고 왕도리엔도 허고
23117-0-1 -을 왕	서글 몬 뜰러
23117-0-2 -에	바위위에 안잔찌
23118 돌(石)	돌
23118-0-1 -을	도를 아저오라
23118-0-2 -에	도레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살
	모래
	몰래
23120-0-1 -를	진모살 모래 강 다망 오라
	몰래를
23121 진흙	질흑
23121-1 찰흙	춘흑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23202 거품	게끔

23203	개운하다	씨원한다
23204	도랑	넝쫄짜
		또랑으로 물 흘림짜
23204-1	봇도랑	논쫄 마그라
23205	둑	두둑
23206	잠기다	물 중견짜
		등가진
23207	개울	넝쫄챙이
23208	내(川)	큰내
23209	미역 감다	몸ㄹ맘짜
23210	발가숭이	몬들레기 버성 허고
23211	목욕하다	몸ㄹ맘짜 모욕헬짜
23212	수채	물또랑 판
23213	개골창	개울창
23214	시궁창	시궁
23215	웅덩이	구덩이
23215	웅덩이	물구텅이 판
23216	수렁	넝 쫄챙이엔도 허곡
23217	늪	비습편다
		비습찌에서
23217-0-1	-에	비습찌에서 바퀴 빠전
23218	배(船)	베
23219	나루터	나루터엔도 허곡
23220	돛	돈
23220-0-1	-에	도세 마진 거
23221	돛대	돈때에
23222	돛배	돈베
23223	돛 줄	돈쫄
23224	돛 줄	단쫄
23225	거루	건 나룬베
23226	상앗대	밀뎨가
23227	개(펄)	개뻘 어서
23228	물	믄른 받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들물
23230	썰물	쌀물
23231	가라앉다	글라아잔짜
23232	그물	그물로 잡는 게 인꼬
23233	해녀	죤네

### 2.11.3. 시후

23301	새벽	세베기 이러난찌
23302	새벽밥	조반밥
23303	아침	아치미 다선찌
		아치미 이러나주
23304	아침밥	아침밥
23305	점심	정심
23306	저녁	저냐게
23307	설핏하다	해저가난 어슬어슬험찌
		어스렁해부런찌
23308	노을	해지기가 벌경헨찌
23308-0-1	-을	해지기를 뵈찌
23309	불그레하다	빨경허영
23309	불그레하다	빨그롱허고
23310	해거름	해질무려비엔 허주
23311	땅거미	어스름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위 머건찌
23315	추위	추위 탐찌
23316	가을	가을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울
		저슬 드럼찌
23317-0-1	-에	저으레
23318	얼음	무리 얼민 어름 웨
23319	오늘	오넬
23320	내일	넬
23321	모레	모리
23322	글피	글피
23323	그글피	저냥날
23324	어제	아시날
23325	그저께	또아시날
23325	그저께	아시아시날
23325	그저께	그지게
23326	그그저께	그끄지게
23327	훗날	훈날랑 만나게이
23328	하룻날	호룬날
23329	이튿날	이튼날
23330	사흘날	사흔날

23331	나흔날	나흔날
23332	닷셋날	다췌날
23333	옛셋날	으췌날
23334	이렛날	일렌날
23335	여드렛날	으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으렌날
23337	열흘날	열흘날
23338	하루	हरु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을
23341	나흘	나을
23342	닷새	단췌
23343	옛새	은췌
23344	이레	일레
23345	여드레	으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난쩐닐빼끼 몬테엄찌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구믐
		구무메
23349-1	그믐께	구믐쭈메
23350	지금	지금헐 이른 지금 헤야헙쭈
23351	아직	아지근 안 뤼언쭈
23352	이제	이제
23353	이미	이미 때가 느전찌
23354	요즈음	요즘
23355	금방	금방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베시
23401-0-1	-이	베시 췌게 나야
23401-0-2	-을	벤 췌우곡
23402	따스하다	돋뜨턴디 완찌
23403	아지랑이	아지랑이
23404	응달	응지 췌찌
23405	양달	양기 발른 디
		양지 바른 디
23406	비(雨)	비 온다

23407	가랑비	가랑비
		ᄃ랑비
23408	이슬비	안개비
23409	안개	안개
		이남 끼얹찌
		중방이
		중뱅비 산산 완찌
		중방비
23411	무지개	항고지 산찌
23412	소나기	쏘낙빠
		췌네기
23413	갑자기	그 갑작시리 쏘낙빠 와가지고
23414	홍수	홍수 전찌
		물랄리 난찌가 마니 헨쭈
23415	번개	편끼
23416	천둥	천둥
		천두룽
23417	벼락	베라기
23418	무섭다	ᄃ스왕으네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스레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구기 쟁겨
23422	진눈깨비	멀루지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동곤
23425	햇무리	헤도 간 썬찌
23426	달무리	드레 간 쓴 거
		들간
23427	등글다	등굴락커게
23428	은하수	미린내
23429	금성	세별
23430	가뭄	가무란
23430	가뭄	ᄃ뭄탄찌
23431	마르다	잘 물르곡
23431-0-1	-어서	잘 틀랑
23432	위	밥쌍 우의
23433	아래	밥쌍 알
23434	왼쪽	웬작
23435	오른쪽	오른작
23435	오른쪽	늑단작
23436	결	즈끈띠

23436-0-1 -에	죽 끝띠 안잔짜
23436-0-1 -에	여피 안잔짜
23437 회오리바람	훼오린빠람
	돈쟁이쭈제 불먼
23438 북풍	하니브름
23439 남풍	마브름
23440 동풍	샌빠람
23440 동풍	샌백름
23441 서풍	서갈브름

## 제3편 음운

### 3.1. 음운 목록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저 테보다 이 테가 더 곱따
31001-0-2	테(輪)-보다	저 테보다 이 테가 더 곱따
31002-0-1	태(胎)-이/가	아들 보시 똥본뽀단 족따.
31002-0-2	태(胎)-보다	아들 보시 똥본뽀단 족따.
31003-0-1	떼(群)-이/가	기러기 떼보다 가마기 떼가 더 한다.
31003-0-2	떼(群)-보다	기러기 떼보다 가마기 떼가 더 한다.
31004-0-1	때(時)-이/가	아침 때가 정심 때보다 더 중요하다.
31004-0-2	때(時)-보다	아침 때가 정심 때보다 더 중요하다.
31005-0-1	틀(機)-이/가	이 크리 저 클 보단 크다
31005-0-2	틀(機)-보다	이 크리 저 클 보단 크다
31006-0-1	털(毛)-이/가	이 터리 저 털 보단 검따.
31006-0-2	털(毛)-보다	이 터리 저 털 보단 검따.
31007-0-1	글(文)-이/가	이 그리 저 글보단 잘 썬쩌.
31007-0-2	글(文)-보다	이 그리 저 글보단 잘 썬쩌.
31008-0-1	겉(옷)-이/가	이번 겉보다 저번 꺼리 더 조타.
31008-0-2	겉(옷)-보다	이번 겉보다 저번 꺼리 더 조타.
31009-0-1	기(旗)-이/가	이 기가 저 기보단 크다.
31009-0-2	기(旗)-보다	이 기가 저 기보단 크다.
31010-0-1	귀(耳)-이/가	이 귀보다 저 귀가 참 더 조타.
31010-0-2	귀(耳)-보다	이 귀보다 저 귀가 참 더 조타.
31011-0-1	시(生時)-이/가	이 시가 저 시보단은 좀 조타.
31011-0-2	시(生時)-보다	이 시가 저 시보단은 좀 조타.
31012-0-1	쉬(蠅卵)-이/가	이 쉬가 저 쉬보단 하다.
31012-0-2	쉬(蠅卵)-보다	이 쉬가 저 쉬보단 하다.
31013-0-1	쇠(鐵)-이/가	이 췌가 저 췌보다는 강하다.
31013-0-2	쇠(鐵)-보다	이 췌가 저 췌보다는 강하다.
31014-0-1	외:국(外國)-이/가	웨구기 우리나라마니 몬터다.
31014-0-2	외:국(外國)-보다	웨국뽀다 우리가 더 잘 산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왜국이 조타
31015-0-2	왜국(倭國)-보다	왜국보다는 우리나라가가 잘 살 꺼여.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 개
31035-0-2	여럿(多)-보다	여러이보다 혼자 조타.
31035-0-3	여럿(多)-을/를	으라이 불렁 오라.
31036-0-1	물결(波)-이/가	저리 팡팡 우로 너머라.
31036-0-2	물결(波)-보다	이 절보단 저 저리 크다.
31036-0-3	물결(波)-을/를	노끈 절 보라.
31037-0-1	예:의(禮儀)-이/가	자이 예이가 업따.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의보다 예저리 곧기보다 조타
31037-0-3	예:의(禮儀)-을/를	사라몬 예의를 잘 지켜야 한다
31038-0-1	계:획(計劃)-이/가	계획보다 실처니 중요하다
31038-0-2	계:획(計劃)-보다	계획기 인쥬
31038-0-3	계:획(計劃)-을/를	계획글 잘 세와보라
31039-0-1	규칙(規則)-이/가	어디든 규칙근 이서야 웬다
31039-0-2	규칙(規則)-보다	이 규칙기 저 규칙보단 날따
31039-0-3	규칙(規則)-을/를	규치글 잘 멘드라야 웬다
31040-0-1	휴일(休日)-이/가	난 휴이리 막 조타
31040-0-2	휴일(休日)-보다	휴일보다 조은 게 언저.
31040-0-3	휴일(休日)-을/를	휴이를 어떻게 보내여.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혼잡퍼다.
31041-0-2	교통(交通)-보다	교통보다는 질씨를 잘 지켜야 한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차가 교통을 마비 시켄저.
31042-0-1	효:자(孝子)-이/가	우리 동네에 효:자가 난저.
31042-0-2	효:자(孝子)-보다	효:자보다 효녀가 조타.
31042-0-3	효:자(孝子)-을/를	아들 ㄱ르쥌 효:자를 만드라야 할 켜디.
31043-0-1	웬일(何事)-이/가	*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좌)(櫃)-이/가	이 궤가 조타.
31044-0-2	궤:(좌)(櫃)-보다	이 궤가 저 궤보다 크다.
31044-0-3	궤:(좌)(櫃)-을/를	저 궤를 가정오라.
31045-0-1	왜란(倭亂)-이/가	웨라니 난텐 헤라.
31045-0-2	왜란(倭亂)-보다	웨란보단 병나리 먼저여.
31045-0-3	왜란(倭亂)-을/를	웨나늘 만난 주견젠 헤라.
31046-0-1	헛대(鷄架)-이/가	우리집또 궤가 이서 난쥬.
31046-0-2	헛대(鷄架)-보다	이 궤가 저 궤보다 돈돈허다.
31046-0-3	헛대(鷄架)-을/를	저 궤를 치와불라.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이 저영 하신고.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망보단 칭차늘 허라.
31047-0-3	원망(怨望)-을/를	노미 원망을 사지 말라.

31048-0-1	권:투(拳鬪)-이/가	권투가 박치기만 못터다.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투보다 축구가 더 조타.
31048-0-3	권:투(拳鬪)-을/를	저 권투를 어떻게 배와신고.
31049-0-1	의논(議論)-이/가	웨논보다 의노니 크다.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논보다 더 조은 거 얻따.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노늘 허당보민 아라질 꺼여.
31050-0-1	무늬(紋)-이/가	이 무늬가 막 조타.
31050-0-2	무늬(紋)-보다	이 무늬가 저 무늬보다 크다.
31050-0-3	무늬(紋)-을/를	이 무늬를 뭐엔 곤는고.
31051-0-1	왕(王)-이/가	그 왕이 이를 하영 헐쩌.
31051-0-2	왕(王)-보다	그 왕이 아피 왕보다 더 일 마니 헐쩌.
31051-0-3	왕(王)-을/를	저 왕을 몬 바다사 한다.
31052-0-1	과자(菓子)-이/가	사탕보다 과자가 조타.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자보다 사탕이 조타.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자를 먹판보민 이 상한다.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이보다 이리 족따.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이가 크다.
31054-0-1	일:(事)-이/가	이리 하다.
31054-0-2	일:(事)-보다	이 일보다 저 이리 수월허다.
31055-0-1	매(鞭)-이/가	이 매가 아프다.
31055-0-2	매(鞭)-보다	매보다 칭찬이 더 조타.
31056-0-1	매:(驚)-이/가	이 매:가 더 크다.
31056-0-2	매:(驚)-보다	이 매:보다 저 매:가 더 크다.
31057-0-1	밤(夜)-이/가	바:미 어둡따.
31057-0-2	밤(夜)-보다	밤보다 나지 조타.
31058-0-1	밤:(栗)-이/가	간바:미 비싸다.
31058-0-2	밤:(栗)-보다	이 바미 저 밤보다 흑따.
31059-0-1	눈(眼)-이/가	나 누니 크다.
31059-0-2	눈(眼)-보다	나 눈보다 저 아이 누니 더 곱따.
31060-0-1	눈:(雪)-이/가	누니 히영허다.
31060-0-2	눈:(雪)-보다	이 눈보다 저 누니 더 히다.
31061-0-1	말(馬)-이/가	이 므리 더 크다.
31061-0-2	말(馬)-보다	이 몰보다 저 므리 더 검따.
31062-0-1	말(斗)-이/가	흔 마리 두 말보다 족따.
31062-0-2	말(斗)-보다	두 말보다 흔 마리 족따.
31063-0-1	말:(言)-이/가	저 사름 마리 조타.
31063-0-2	말:(言)-보다	이 사름 말보다 저 사름 마리 드림직커다.

31064-0-1	손(客)-이/가	오느를 소니미 하다.
31064-0-2	손(客)-보다	이 소니미 저 소님보다 몬저 오란찌.
31065-0-1	손(手)-이/가	나 손보다 느 소니 더 곱따.
31065-0-2	손(手)-보다	나 손보다 느 소니 더 곱따.
31066-0-1	손:(孫)-이/가	이 사는 소니 한 사니여.
31066-0-2	손:(孫)-보다	이 손보다 저 소니 온때여.
31067-0-1	배(梨)-이/가	이 배가 저 배보다 만 조타.
31067-0-2	배(梨)-보다	이 배가 저 배보다 만 조타.
31068-0-1	배:(倍)-이/가	흔 배가 두 배 보다 족따.
31068-0-2	배:(倍)-보다	흔 고비 두 곱뽕단 족따.
31069-0-1	벌(罰)-이/가	이 버리 더 무겁따.
31069-0-2	벌(罰)-보다	이 벌보다 더 우리 버리 더 무겁따.
31070-0-1	벌:(蜂)-이/가	이 버리 더 흑따.
31070-0-2	벌:(蜂)-보다	이 버리 저 벌보다 흑따.
31071-0-1	솔(松)-이/가	이 소나가 크다.
31071-0-2	솔(松)-보다	이 소나보다 저 소나가 더 크다.
31072-0-1	솔:(刷)-이/가	이 소리 더 조타.
31072-0-2	솔:(刷)-보다	이 소리 저 솔보다 더 곱따.
31073-0-1	줄(鉉)-이/가	이 주리 더 흑따.
31073-0-2	줄(鉉)-보다	이 주리 저 줄보다 더 흑따.
31074-0-1	줄:(연장)-이/가	이 주리 더 잘 드림찌.
31074-0-2	줄:(연장)-보다	이 줄보다 저 주리 새 거여.
31075-0-1	돌:(石)-이/가	이 도리 더 무겁따.
31075-0-2	돌:(石)-보다	이 도리 저 돌보다 더 무겁따.
31076-0-1	담(牆)-이/가	이 다미 더 노프다.
31076-0-2	담(牆)-보다	이 다미 저 담보다 더 노프다.
31077-0-1	담:(膽)-이/가	다미 크다.
31077-0-2	담:(膽)-보다	나 담보다 더 조근 사름 시카.
31078-0-1	들:(野)-이/가	이 드르가 저 들보다 더 멀다.
31078-0-2	들:(野)-보다	이 드르가 저 들보다 더 멀다.
31079-0-1	달-(懸)-고	문패 들곡 못 빼라.
31080-0-1	달-(甘)-고	이 애근 들고 씨고 머그라.
31081-0-1	달:-(熱)-고	이 약 딸리곡 행 머그라.
31082-0-1	갈-(換)-고	이걸로 굴곡 저걸로 굴곡 허라.
31083-0-1	갈-(磨)-고	크게 굴곡 가져가라.
31084-0-1	갈:-(耕)-고	받 갈곡 쉬라.
31085-0-1	걷-(收)-고	날레 걷꼭 잘 더끄라.
31086-0-1	걸:-(步)-고	걸꼭 거리도 몬 미치켜.
31087-0-1	적-(書)-고	공체게 글씨도 적꼭 허라.
31088-0-1	적:-(小)-고	우리집 고친 족꼭 맴나.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쉐 막찌 말라.
32001-0-2	막-(防)[ㄱ]-고	쉐 마강 시라.
32001-0-3	막-(防)[ㄱ]-더라	저 아이가 쉐 잘 마가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쉐 잘 마가부난 가지 몬터다.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잘 마강 시라.
32002-0-1	흐르-(流)[ㅡ]-지	물 흘르지 몬터게 허라.
32002-0-2	흐르-(流)[ㅡ]-고	물 흘렁 가지 몬터키여.
32002-0-3	흐르-(流)[ㅡ]-더라	물 잘 흘럼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물 잘 흘르난 조으켜.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물 흘렁 막찌 몬터키여.
32003-0-1	오-(來)[ㅇ]-지	자주 오지 몬텐쑤다.
32003-0-2	오-(來)[ㅇ]-고	오곡 말곡 헐 이리 아니우다.
32003-0-3	오-(來)[ㅇ]-더라	매날 우리지비 오라.
		매날 우리지비 오라라.
32003-0-4	오-(來)[ㅇ]-으니까	매날 오난 차큰 이리주.
32003-0-5	오-(來)[ㅇ]-아/어(왔/었다)	지비 왕 시라.
32004-0-1	듣-(聞)[ㄷ변]-지	말 잘 듣찌 몬터키여.
32004-0-2	듣-(聞)[ㄷ변]-고	말 잘 듣곡 말곡 헐 이리라.
32004-0-3	듣-(聞)[ㄷ변]-더라	가이 말 잘 드러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말 잘 드러난 착커다.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말 드렁 손해 안 본다.
32005-0-1	많:-(多)[ㄴᄇ]-지	돈 하지 아여다.
32005-0-2	많:-(多)[ㄴᄇ]-고	돈도 하곡 받또 하곡.
32005-0-3	많:-(多)[ㄴᄇ]-더라	그 지베 돈도 하서라.
32005-0-4	많:-(多)[ㄴᄇ]-으니까	도니 하난 부제여
32005-0-5	많:-(多)[ㄴᄇ]-아/어(왔/었다)	돈도 하영 버런꾸나.
32006-0-1	말-(任)[ㅌ]-지	이장 마트지 말라.
32006-0-2	말-(任)[ㅌ]-고	이장 마트곡 일허라.
32006-0-3	말-(任)[ㅌ]-더라	말텐 허명도 이장 마타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이장 마트난 일 허여사주.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이장 마탄 소감꼬.
32007-0-1	알:-(知)[ㄹ]-지	잘 알지 몬터키여.
32007-0-2	알:-(知)[ㄹ]-고	잘 알곡 말곡.
32007-0-3	알:-(知)[ㄹ]-더라	몬딱 잘 아라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잘 아난 선생이주.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잘 아랑 바다 먹짜.

32008-0-1	감:- (閉眼)[口]-지	눈 감찌 말라.
32008-0-2	감:- (閉眼)[口]-고	눈 감꼭 줌자라.
32008-0-3	감:- (閉眼)[口]-더라	헤뻐만 나도 눈 ㄱ마라.
32008-0-4	감:- (閉眼)[口]-으니까	눈 ㄱ므난 곱생이 누니여.
32008-0-5	감:- (閉眼)[口]-아/어(왔/었다)	눈 ㄱ망 시믄 웬다.
32009-0-1	벗:- (脫)[ㅅ]-지	온 막 확확 벗찌 말라.
32009-0-2	벗:- (脫)[ㅅ]-고	온 번꼭 이블 건또 챙겨라.
32009-0-3	벗:- (脫)[ㅅ]-더라	흐끔 취허민 온 잘 버서라.
32009-0-4	벗:- (脫)[ㅅ]-으니까	온 버스난 씨원허주.
32009-0-5	벗:- (脫)[ㅅ]-아/어(왔/었다)	온 버성 사라지카.
32010-0-1	옴:- (可)[ㅍ]-지	그 말 올치 아녀다.
32010-0-2	옴:- (可)[ㅍ]-고	올코 그른 건 몰라부런.
32010-0-3	옴:- (可)[ㅍ]-더라	말 오르난 천냥 뻔 갑쥬.
32010-0-4	옴:- (可)[ㅍ]-으니까	말 올란 칭찬 바단쥬.
32010-0-5	옴:- (可)[ㅍ]-아/어(왔/었다)	*
32011-0-1	입:- (着衣)[ㅂ]-지	온 켁 입찌 못터켜.
32011-0-2	입:- (着衣)[ㅂ]-고	온 입꼭 신 시느라.
32011-0-3	입:- (着衣)[ㅂ]-더라	막 큰 온또 이버라.
32011-0-4	입:- (着衣)[ㅂ]-으니까	온 이브난 뜯뜯슨 허켜.
32011-0-5	입:- (着衣)[ㅂ]-아/어(왔/었다)	온 이병 구드레 강 시라.
32012-0-1	바꾸:- (換)[ㄷ]-지	준도느로 바꾸지 마랑 시라.
32012-0-2	바꾸:- (換)[ㄷ]-고	돈 바꾸곡 말곡 헐 껴 얹따.
32012-0-3	바꾸:- (換)[ㄷ]-더라	아까 준도느로 바짜라.
32012-0-4	바꾸:- (換)[ㄷ]-으니까	준돈 바꾸난 얻쥬.
32012-0-5	바꾸:- (換)[ㄷ]-아/어(왔/었다)	준돈 바짱 시라.
32013-0-1	덮:- (覆)[ㅍ]-지	이불 더끄지 말라.
32013-0-2	덮:- (覆)[ㅍ]-고	이불 더끄곡 허영 자라.
32013-0-3	덮:- (覆)[ㅍ]-더라	일년내낭 이불 더꺼라.
32013-0-4	덮:- (覆)[ㅍ]-으니까	이불 더끄난 뜯뜯터다.
32013-0-5	덮:- (覆)[ㅍ]-아/어(왔/었다)	이불 더꺽 추우카.
32014-0-1	묻:- (問)[ㄷ변]-지	말 묻찌 말라.
32014-0-2	묻:- (問)[ㄷ변]-고	그 사름신디 말 묻꼭 해곡 허지 말라.
32014-0-3	묻:- (問)[ㄷ변]-더라	맨날 말 무러라.
32014-0-4	묻:- (問)[ㄷ변]-으니까	말 무르난 대답웁쥬.
32014-0-5	묻:- (問)[ㄷ변]-아/어(왔/었다)	말 무렁 손해 안 본다.
32015-0-1	낫:- (癒)[ㅅ변]-지	빨리 낫찌 아념쥬다.
32015-0-2	낫:- (癒)[ㅅ변]-고	빨리 낫꼭 이러납쥬.
32015-0-3	낫:- (癒)[ㅅ변]-더라	거 부치민 잘 나사라.
32015-0-4	낫:- (癒)[ㅅ변]-으니까	잘 나시난 여기주.
32015-0-5	낫:- (癒)[ㅅ변]-아/어(왔/었다)	병 나상 이러납쥬.
32016-0-1	닫:- (閉)[ㄷ]-지	문 더끄지 말라.

32016-0-2 닫-(閉)[ㄷ]-고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7-0-1 쫓-(追)[ㅈ]-지  
 32017-0-2 쫓-(追)[ㅈ]-고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32018-0-1 베-(枕)[베]-지  
 32018-0-2 베-(枕)[베]-고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5 베-(枕)[베]-아/어(았/었다)  
 32019-0-1 깨-(破)[깨]-지  
 32019-0-2 깨-(破)[깨]-고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5 깨-(破)[깨]-아/어(았/었다)  
 32020-0-1 펴-(伸)[펴]-지  
 32020-0-2 펴-(伸)[펴]-고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5 펴-(伸)[펴]-아/어(았/었다)  
 32021-0-1 밝-(明)[ㄹ]-지  
 32021-0-2 밝-(明)[ㄹ]-고  
 32021-0-3 밝-(明)[ㄹ]-더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32021-0-5 밝-(明)[ㄹ]-아/어(았/었다)  
 32022-0-1 삶-(烹)[ㄹ]-지  
 32022-0-2 삶-(烹)[ㄹ]-고  
 32022-0-3 삶-(烹)[ㄹ]-더라  
 32022-0-4 삶-(烹)[ㄹ]-으니까  
 32022-0-5 삶-(烹)[ㄹ]-아/어(았/었다)  
 32023-0-1 읊-(吟)[읊]-지  
 32023-0-2 읊-(吟)[읊]-고  
 32023-0-3 읊-(吟)[읊]-더라  
 32023-0-4 읊-(吟)[읊]-으니까  
 32023-0-5 읊-(吟)[읊]-아/어(았/었다)  
 32024-0-1 밟-(踏)[밟]-지  
 32024-0-2 밟-(踏)[밟]-고

문 더끄곡 허영 눈다.  
 그 시가니민 문 더꺼라.  
 문 더끄난 오라버린다.  
 문 더경 안장 시라.  
 어멍 조치지 말라.  
 어멍 조치곡 우렁 몬 살키여.  
 어멍 볼 찍마다 바짝 조차라.  
 어멍 조치난 머글 꺼 나왓쥬.  
 \*  
 베게 모로 베지 말라.  
 베게 베고 이불 더경 자라.  
 노픈 베게도 베어라.  
 노픈 베게 베난 고개 아프쥬.  
 잘 베영 자라.  
 줌지리 깨지 말라.  
 낭 깨곡 데미곡 허라.  
 낭 줌지리 잘 깨어라.  
 낭 깨난 바블 먹쥬.  
 낭 깨연 돈 버런쥬.  
 잘 폐우지 몬터키여.  
 폐우곡 고비치곡 협쥬.  
 강 보민 맨날 폐왓시라.  
 잘 폐우난 곱딱커다.  
 잘 폐왕 앓쥬.  
 날 북찌 아녀쥬다.  
 날 북곡대곡 헐 꺼우파.  
 그 때민 헤 불가라.  
 헤 불그난 빨리 가사키여.  
 날 불강 지비 아자저.  
 슬 조강 잘 숨찌 몬터키여.  
 너미 조간 숨꼭대곡 헐 꺼 얻쥬.  
 웨기 하영 슬마라.  
 하영 슬므난 남쥬.  
 잘 슬망 머급쥬.  
 사설 읊프지 말라  
 사설 읊프곡대곡 헐 꺼 얻파.  
 잘 읊피라.  
 매날 읊프난 돈도 나왓쥬.  
 매날 읊평 도니 나오카.  
 잘 불르지 몬터키여.  
 끈꼭 불르곡 커라.

32024-0-3	밟:-(踏)[ㄹ]-더라	반만 잘 불라라.
32024-0-4	밟:-(踏)[ㄹ]-으니까	잘 불르난 곡썩 뉘주.
32024-0-5	밟:-(踏)[ㄹ]-아/어(왔/었다)	잘 불령 손해 안 본다.
32025-0-1	하-(爲)[ㅏ 변]-지	말 하영 허지 말라.
32025-0-2	하-(爲)[ㅏ 변]-고	말 흥곡 말곡.
32025-0-3	하-(爲)[ㅏ 변]-더라	일 잘 흥여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일 하영 허난 부제로 사람쭈.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일 하영 허영 몬 싸는 사름 얻쎄.
32026-0-1	맺-(結)[ㅈ]-지	막작 지우지 몬터키여.
32026-0-2	맺-(結)[ㅈ]-고	막작 지우곡 돈 바다 지카.
32026-0-3	맺-(結)[ㅈ]-더라	곱딱커게 막자글 지우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막작 지우난 몬 돈 주쭈.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몬 막작 지왕 시라.
32027-0-1	없:-(無)[ㅂ]-지	나신디 돈 얻쎄 아녕 서.
32027-0-2	없:-(無)[ㅂ]-고	돈 얻쎄 사람도 얻쎄.
32027-0-3	없:-(無)[ㅂ]-더라	간 때마다 돈 어서라.
32027-0-4	없:-(無)[ㅂ]-으니까	돈 어시난 주거지켜.
32027-0-5	없:-(無)[ㅂ]-아/어(왔/었다)	돈 어성 사라지카.
32028-0-1	앉-(坐)[ㅅ]-지	무똥에 안쎄 말라.
32028-0-2	앉-(坐)[ㅅ]-고	간 보난 안쎄 사곡 헤여서라.
32028-0-3	앉-(坐)[ㅅ]-더라	방서게만 아지라.
32028-0-4	앉-(坐)[ㅅ]-으니까	강 볼 때마다 방서게만 아자라.
32028-0-5	앉-(坐)[ㅅ]-아/어(왔/었다)	방석 우의 아지난 폐난허다.
32029-0-1	비비-(刮)[ㅣ]-지	이리 아장 시라.
32029-0-2	비비-(刮)[ㅣ]-고	손 비비지 말라.
32029-0-3	비비-(刮)[ㅣ]-더라	손 부비곡 발 부비곡.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본 적마다 손 잘 부벼라.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손 비비난 노픈 자리 올라가신가.
32030-0-1	끄-(消)[ㅡ]-지	부병 잘도 아프키여.
32030-0-2	끄-(消)[ㅡ]-고	불 끄지 말라.
32030-0-3	끄-(消)[ㅡ]-더라	불 끄곡 안장 시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간 보난 불 꺼서라.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불 끄난 사람쭈.
32031-0-1	꺾-(折)[ㄱ]-지	불 꺾 줌자라.
32031-0-2	꺾-(折)[ㄱ]-고	우로 꺾끄지 말라.
32031-0-3	꺾-(折)[ㄱ]-더라	고사리 꺾끄고 숨썩 물리곡 헐쎄.
32031-0-4	꺾-(折)[ㄱ]-으니까	잘도 꺾꺼라.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곱게 꺾끄난 보기 조쭈.
32032-0-1	신:-(履)[ㄴ]-지	고사리 꺾꺾 갑쭈.
32032-0-2	신:-(履)[ㄴ]-고	신 신쎄 몬터키여.
		신 신쎄 어디 가젠.

32032-0-3	신:-(履)[ㄴ]-더라	초신도 시너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신 시느난 돈젠만 헤라.
32032-0-5	신:-(履)[ㄴ]-아/어(았/었다)	신 잘 시녕 글라.
32033-0-1	보-(視)[ㄱ]-지	잘 베리지 몬터키여.
32033-0-2	보-(視)[ㄱ]-고	베리곡 먹꼭 안자 인찌.
32033-0-3	보-(視)[ㄱ]-더라	강 보민 잘 베려라.
32033-0-4	보-(視)[ㄱ]-으니까	어멍 베리난 지꺼지켜.
32033-0-5	보-(視)[ㄱ]-아/어(았/었다)	할망도 베령 가라.
32034-0-1	추-(舞)[ㅈ]-지	경 나상 추지
32034-0-2	추-(舞)[ㅈ]-고	춤추곡 헤염젠 헤라.
32034-0-3	추-(舞)[ㅈ]-더라	춤 잘 추어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춤추난 기분 조아라.
32034-0-5	추-(舞)[ㅈ]-아/어(았/었다)	춤추영 기분 나쁘카.
32035-0-1	피우-(吸煙)[ㅈ]-지	담배 피우지 말라.
32035-0-2	피우-(吸煙)[ㅈ]-고	담배 피우곡 술도 먹꼭 험찌.
32035-0-3	피우-(吸煙)[ㅈ]-더라	지반 안네서도 담배 피와라.
32035-0-4	피우-(吸煙)[ㅈ]-으니까	담배 피우난 욱든쥬.
32035-0-5	피우-(吸煙)[ㅈ]-아/어(았/었다)	담배 피왕 욱 든나.
32036-0-1	서-(立)[ㄱ]-지	그디 사지 말라.
32036-0-2	서-(立)[ㄱ]-고	간 보난 안 사곡 안꼭 헤서라.
32036-0-3	서-(立)[ㄱ]-더라	문똥에도 사서라.
32036-0-4	서-(立)[ㄱ]-으니까	문똥에 사난 욱든쥬
32036-0-5	서-(立)[ㄱ]-아/어(았/었다)	문똥에 상 베려보라.
32037-0-1	기-(匍腹)[ㅣ]-지	잘 기지 몬터키여.
32037-0-2	기-(匍腹)[ㅣ]-고	애기 기곡 걷곡 뛰곡 헤영 크는 거여.
32037-0-3	기-(匍腹)[ㅣ]-더라	이젠 잘잘 기어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잘잘 기난 곧 거르키여.
32037-0-5	기-(匍腹)[ㅣ]-아/어(았/었다)	그디랑 기영 드러가라.
32038-0-1	이-(戴)[ㅣ]-지	머리에 여지지 몬터미여.
		머리에 이지 말라.
32038-0-2	이-(戴)[ㅣ]-고	머리에 옆꼭 등에 지곡 헤염찌.
		머리에 일꼭 등에 지곡 헤염찌.
32038-0-3	이-(戴)[ㅣ]-더라	욕찌싸르미난 머리에 여저라.
		욕찌싸르미난 머리에 이어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머리에 여지난 머리가 아프쥬.
		머리에 이난 아프다.
32038-0-5	이-(戴)[ㅣ]-아/어(았/었다)	머리에 여정 글라.
		머리에 이영 글라.
32039-0-1	아니-(否)[ㅣ]-지	그게 아니지 아녀우팡.
32039-0-2	아니-(否)[ㅣ]-고	그게 아니곡 이거라마썸.
32039-0-3	아니-(否)[ㅣ]-더라	사란 보난 그게 아니라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그게 아닌 이거란 마립쥬.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여 기영 말라.
32040-0-1	되-(升)[니]-지	짐자그로 돼지 말라.
32040-0-2	되-(升)[니]-고	그거 돼곡 말곡 헐 꺼 얻쥬다.
32040-0-3	되-(升)[니]-더라	소느로도 돼어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돼로 돼난 정웁헐 꺼여.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돼로 돼영 ㄹ정 그릅쥬.
32041-0-1	있-(有)[쓰]-지	지베 싰찌마랑 나갑쥬.
32041-0-2	있-(有)[쓰]-고	그 지베 돈 싰꼭 말곡.
32041-0-3	있-(有)[쓰]-더라	강 보민 싰디 셔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지비 싰난 베려점쥬.
32041-0-5	있-(有)[쓰]-아/어(왔/었다)	도니 싰 부제여.
32042-0-1	놓-(放)[ㅎ]-지	이디 쥬 노치 맵쥬.
32042-0-2	놓-(放)[ㅎ]-고	이디 쥬 노곡 갑쥬.
32042-0-3	놓-(放)[ㅎ]-더라	간 보난 받띠도 쥬 놔서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쥬 노난 도라봐사쥬.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쥬 낱 메기라.
32043-0-1	훑-(扱)[ㄸ]-지	보리 잘 홀트지 몬터키여.
32043-0-2	훑-(扱)[ㄸ]-고	보리 홀트곡 태작허곡 헤여사 한다.
32043-0-3	훑-(扱)[ㄸ]-더라	보리도 홀타라.
32043-0-4	훑-(扱)[ㄸ]-으니까	보리도 홀트난 홀거라.
32043-0-5	훑-(扱)[ㄸ]-아/어(왔/었다)	*
32044-0-1	곱:-(麗)[ㅂ변]-지	막 곱찌 아녀라.
32044-0-2	곱:-(麗)[ㅂ변]-고	새각씨난 곱꼭 말곡.
32044-0-3	곱:-(麗)[ㅂ변]-더라	가인 막 고와라.
32044-0-4	곱:-(麗)[ㅂ변]-으니까	고난 조은 디 씨집 갑쥬다.
32044-0-5	곱:-(麗)[ㅂ변]-아/어(왔/었다)	딸 고완 막 조쿠다.
32045-0-1	쥐:-(握)[기]-지	주먹 짹 쥬지 맵쥬.
32045-0-2	쥐:-(握)[기]-고	쥬곡 페우곡 허여 보라.
32045-0-3	쥐:-(握)[기]-더라	애긴 디도 짹 쥬여라.
32045-0-4	쥐:-(握)[기]-으니까	짹 쥬난 빠지 몬터키여.
32045-0-5	쥐:-(握)[기]-아/어(왔/었다)	짹 쥬영 시라.
32046-0-1	가-(去)[ㅏ]-지	그디랑 가지 맵쥬.
32046-0-2	가-(去)[ㅏ]-고	가곡 오곡 커영 만납쥬.
32046-0-3	가-(去)[ㅏ]-더라	가이도 감서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가난 올 쥬 몰라라.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가이도 가라.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밥 하영 먹찌 말라.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밥 하영 머거도 베가 고프다.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경 하영 툷찌 말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토다도 나곡 나곡 험찌.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지레는 아방이영 꼭 ㄴ타라.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얼구리 ㄴ타도 안 조아라.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간 산 보난 무리 야파라.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야판 몸 금찌 몬터키여.
32051-0-1	"홀-(散)-지 -고 -더라"	걸름 잘 허트지 몬터키여.
32051-0-2	"홀-(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허터도 용만 드련찌.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그 생인 잘 놀지 몬터키여.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생이는 잘 느란 감찌.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잘잘 울지 말라.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렁 조은 날 시카.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이제랑 일지마랑 건집찌.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쫄른 이렁 티 건져내야 허여마찌.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물도 얼곡 땅도 얼곡 문딱 어련찌.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어린 몬 지리왈쑤다.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울땀 넘찌 말라.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울땀 너멍 도망간쑤다.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이제랑 곱찌 마랑 나오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 봐지게 고방 촛찌 몬터카부덴.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노는 일도 쉽찌 아너다.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일 보멘 쉬와도 막쌍 허젠 허민 어려와.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장판 우에 눅찌 말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뵈 자도 하위염만 나왓찌.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줍찌 마랑 시너도 뒹켜.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젠 쥘 시너야켜.
32061-0-1	"밧-(憎)-지 -고 -더라"	이젠 밧곡대곡 헐 때 너먼찌.
32061-0-2	"밧-(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제도 미왕 몰살쿠다.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동산 우의 지비난 노프곡 말곡.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낭 너미 노판 몬 미치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차 사곡 집 진꼭 허열쑤다.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젠 집 지성 사람 실 꺼우다.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양지도 분꼭 손도 분꼭 허열쑤.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얼굴 부성 몰살쿠다.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슴벨타허멍 잘 우서라.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성 나쁜 일 이시카마쑤.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경 주끄지 말렌 허라.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주쑤 입 아니 아프카.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잘 꼬지지 몬터키여.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꼬장 놔두그면 자빠지곡 헤여라.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도새기 새끼 나곡나곡 허열쑤.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끼 난 폴레 텡염쑤다.
32069-0-1	"땅:-(辮)-지 -고 -더라"	머리 졸랑 다우지 몬터키여.
32069-0-2	"땅:-(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리 잘 다왕 텡기라.
32070-0-1	"꺾-(切)-지 -고 -더라"	질견 끈치지 몬터키여.
32070-0-2	"꺾-(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먹판 거지만 끈창 머그라.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그 정도는 켜찬치 아너우파.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갑쑤면 켜찬타.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 책 어려완 익쑤 몬터키여.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정 이정 오라.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이 가든 초랍쑤 아너다.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가든 너미 초라완 몬 먹키여.
32074-0-1	"웁:-(遷)-지 -고 -더라"	집 웅기지 말라.
32074-0-2	"웁:-(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근방으로 집 웅경 덕 볼릴 언나.
32075-0-1	"똥:-(貫)-지 -고 -더라"	고망 툄르지 몬터쿠다.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망 큰큰허게 툇랑 몬 쓴다.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흙불로 꼴리지 말라.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꼴렁 아지민 발 저런다.
32077-0-1	"닿-(扞 연필 심이)-지 -고 -더라 "	하영 다이지 몬터게 허라.
32077-0-2	"닿-(扞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다영 몬 쓰켜.
32078-0-1	"닿-(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하영 딸리지 맙써.
32078-0-2	"닿-(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딸런 나만쭈다.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장맛또 짜고 손맛또 짜다.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짱 무레 헤와사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명석 들지 마랑 꽤우라.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튼튼 믱랑 저디 세와라.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글 잘 쓰지 몬터키여.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글 썩 놔두면 어서지곡 어서지곡.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르지 몬턴 낭 츠다보지 말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름 우에 올랑 보민 가스미 씨원헌다.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살당 보민 손도 바쁘곡 입도 바쁘곡.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요새 바빻 경 몬테여마씨.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배 고프지 말게 머급써.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 고폡 건찌 몬터키여.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조근 핑이랑 쏘으지 맙써.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총으로 쏘앙 자븐 핑은 냄새 납니다.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즘자당 보민 꿈도 꾸도 허여서마씨.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느른 조은 꿈 핑 십써.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오래 머치지 맙써.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래 머정 이익 웰 쭈 얻쭈다.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잘 다듬찌 몬터키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잘 다드망 놔둡써.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래 전디지 몬터키여.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오래 전디여 보라.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몰르지 몬터키여.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이남 찌지 아녀민 조켜.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남 쩍 아피 안 보엿써.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물 급퍼게 마시지 마랑 춘츰니 머그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라.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경 마성 베타탈 난다.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힘 세지 안허면 지는 거여.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브름 쩌영 바당에 몬 가쿠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경노꼭 허단 보난 메기우다.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그른 주경노치 말라.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픈 디랑 두드리꼭 험써.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경 두드령 까지카마씨.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 흰허게 썩지 몬터열쑤다.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흰허게 썩 시민 올람옵니께.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픈 디 올랑 바람 췌우라.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벤 췌왕 드리라.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리 세우린 세지 아녜썰.  
 32099-0-1 "쉬:-(體)-지 -고 -더라" 너무 세연 몬 머그키여.  
 32099-0-2 "쉬:-(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쉬지 말게 브름 발라 놔두라.  
 32100-0-1 "회-(白)-지 -고 -더라" 이 바쁜 쉬영 몬 머그키여.  
 32100-0-2 "회-(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손도 히영허꼭 양지도 히영허꼭.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누는 오민 천치가 히영헤나서.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보리 보끄지 몬터키여.  
 보리 보깡 먹꼭 헤날쑤다.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너무 켜 안찌 몬터키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아낭 시민 웬다.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잘 묻찌 아느민 씨거 분다.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땅에 잘 무덩 놔두라.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이브로 불곡 부체로 부끄곡 허라.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미 부렁 담베나 먹께.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이불 너무 켜 빨지 몬터키여.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빨랑 너렁 놔두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이 보린 죽찌 아넬쑤다.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보린 너무 주건 깎 안 주쿠다.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더 이상 걸찌 몬터쿠다.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버데 거렁 그릅쑤.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올린 ㄱ물지 아넬쑤다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린 너무 ㄱ무란 농사가 안 웬쑤다.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아절따 허민 조랍찌 아넬다 허는 거주.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랑으네 웬는 이른 언나.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오스로 코 썰곡 썰곡 험쑤.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당 구둑 팡팡 나느디 씨렁 무신 거 헐 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얼레 썰 감꼭 감꼭 허라.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썰패에 썰 가망 놔두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이레저레 더듬찌 말라.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드멍 츠자지난 다행이주.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이 불로 꿰기 굽찌 몬터키여.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꿰 머굽쑤.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이거 베지 아너민 들렁 갈 꺾다.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베영 등에 저지카.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머리 쫄랑 인찌 몬터키여.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흔 가다그로 이성 놔두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얼레기 어선 빗찌 몬터키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 비성 시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머리가 어떻 꺼멍허지 아녀다.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도 꺼멍 눈도 꺼멍.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그디만 노록 노록 허난 다 ㄹ드간져.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몬 넣 아져오라.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술 따끄곡 허멍 사란져.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술 따깡 사란져.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쓰러지게 언지지 말라.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질메에 언정 글라.
32121-0-1	"귀찮-(囑)-지 -고 -더라"	소님 오민 귀찬꼭 허지마는 흘 쭈 언 따.
32121-0-2	"귀찮-(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님 오면 귀차녕 허지 말라.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너미 커부난 불르지 몬터키여.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베블랑 소금헨땅 썩 머급썩.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하느리 경 목찌 몬터다.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느리 물강 바당 잔잔허켜.
32124-0-1	"굵:-(膿)-지 -고 -더라"	아직 골므지 아녜썩.
32124-0-2	"굵:-(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제사 골망 터전썩.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즌즌허게 혹찌 아녀다.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흘경 안찌 몬터키여.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이 고른 얇롭꼬 허영 몬 쓰켜.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얇왕 더 몬터키여.
32127-0-1	"쑤-(春)-지 -고 -더라"	*
32127-0-2	"쑤-(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이버니랑 일르지 말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번도 일렁 욱 뜬나.
32129-0-1	"훤-(舐)-지 -고 -더라"	할르지 마랑 뻥랑 머급써.
32129-0-2	"훤-(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 할랑 머급써.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두 개로 인꼭 조그민 찢르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졸랑 몬 쓰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경 놀래지 맙써.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놀래영 몬쌀कु다.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지 마랑 일 험써.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장 어떻허젠 험쭈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일 몬터곡 그냥 험써.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몬터영 어떻허코마써.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알카부텐 허난 경도 몰라라.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건 몰랑 조쭈다.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지 맙써.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팡 조은 이리 이시카마써.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경 크지 아녀우다.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 오스 켕 몬 이브कु다.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웬스끼 꼬지 말라.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끼 꼬왕 놔두라.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미음 쭈지 몬터열쭈다.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닐랑 폰쭈 썰 머급쭈.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잘 맞추지 몬터키여.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마창 놔두라.
32140-0-1	"데우-(燂)-지 -고 -더라"	데우곡 데우치곡 케영 머급써.
32140-0-2	"데우-(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신 거만 데왕 머급써.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브름 부렁 집 일지 몬터키여.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초집 잘 이렁 놔두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비당 버치민 ㄱ리곡 허주.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ㄱ령 힘든다.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경 오래 기다리지 말라.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다령 올 싸르미민 조케.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너미 한 세지 몬터키여.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드리지 마랑 잘 세영 놔두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지피 드러간 빠지 몬터키여.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출 무채로 빵 이십씨.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너미 압께 싸지 맘씨.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낭 잘 쌍 놔듭씨.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물 비우멍 돼지 몬터게 험씨.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돼영 전찌 몬터कु다,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일 하부난 쉬지 몬터키여.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디서 쉬영 가게.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진 손코브로 국쭈지 말라.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국쭈왕 쉼 마리우파.
32150-0-1	"눌:-(燋)-지 -고 -더라"	눌지 몬터게 잘 저스라.
32150-0-2	"눌:-(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꾸 누령 몬 저스कु다.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잘 깨닫찌 몬터키여.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깨드랑 다음부떠랑 멍심허라.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아지근 오줌 믱롭찌 아너다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줌 믱로왕 춤찌 몬터키여.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이젠 부끄럽찌 아너다.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부치롭지 아너다.
		경 부끄러왕 씨집가지카.
		경 부치로왕 씨집가지카.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경 가깝찌 아너다.
		경 가참찌 아너다.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가까왕 조कु다.

		막 가차왕 조쿠다.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경 지프지 아니다.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지평 몬 너므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줄바로 굳찌 몬터키여.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그성 놔두라.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잘 시치지 몬터키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청 놔두라.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이젠 방에 진찌 몬터키여.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강 방에 정 놔두라.
32159-0-1	"잡-(擻)-지 -고 -더라"	잘 그그지 몬터키여.
32159-0-2	"잡-(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글경 놔두라.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때랑 굶찌 말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굴멍 사라지느냐.
32161-0-1	"답-(似)-지 -고 -더라"	아방 답찌 아니다.
32161-0-2	"답-(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멍 달망 곱딱허다.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일 실프지 안 허민 부제로 산다.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실펍 어멍 살코.
32163-0-1	"굶-(餓)-지 -고 -더라"	소곰에 놔두민 고리지 아넌다.
32163-0-2	"굶-(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령 몬 머그키여.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잘 비우지 몬터키여.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 비왕 놔두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물 잘 타지 몬터키여.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잘 탕 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비가 자주 왕 물리지 몬터키여.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물량 다므라.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이 야근 쓰지 아니다.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베 썩 조은 야기여.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이젠 슬프지 아니다.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슬펏 몬살키여.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막 지쁘지 아너다.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기뻡 추미라도 취사켜.
32170-0-1	"쏘-(蜚 벌이)-지 -고 -더라"	벌초 가면 벌 쏘이지 말라.
32170-0-2	"쏘-(蜚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벌 막 쏘앙 몬 살쿠다.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하영 주지 몬터키여.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췌 봐두민 다 도라온다.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이젠 버청 질루지 몬터키여.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질황 폰라사 헐 켜디.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자주 튀어난 가두지 몬터키여.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가왕 봐두라.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병텅이 잘 부수지 몬터키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병텅이 잘 부수왕 봐두라.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골고루 눅누지 몬터키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골고루 눅냥 욱든찌 아넌다.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눔 췌기지 말라.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췌경 잘 뷌는 법 얻찌.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그 페네 끼지 몬터쿠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페네 끼영 무슨 조은 이리 시카.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잘 뛰지 몬터키여.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뛰영 도망가봐도 췌필 꺼.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이던 물 퀘지 아넌다.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하영 퀘영 췌덜 멍는다.
32180-0-1	"여워-(癯)-지 -고 -더라"	경 줄지 아너다.
32180-0-2	"여워-(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주렁 사라지느냐.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경 맵찌 아너다.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매왕 몬 먹쿠다.

32182-0-1	"뀌:-(屍)-지 -고 -더라"	똥 끼지 말라.
32182-0-2	"뀌:-(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똥 끼영 씨원허쿠다.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잘 고치지 못터키여.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고청 시너.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잘 시끄지 못터쿠다.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가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이젠 어서부난 얻찌 못터키여.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 어덩 무신거 허쿠과.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복삭커게 뽕스지 못터키여.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뽕상 머급써.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바당이 파랑허지 아너다.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치메 파랑허연 곱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생가기 나광 트나지 아너다.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부 생가기 트낭 웨쿠과.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잘 푸지 못터키여.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펴 갇써.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잘 누지 못터키여.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뉘똥 잡써.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온 더럽찌 아너다.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더러왕 몬 이브쿠다.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잘 거두지 못터키여.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거두왕 가라.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아직 꿰지 아넬찌.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꿰왕 더꺼두라.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즌식 이기지 못턴다.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즌식 이경 뭇 혈 꺼과.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봄 빼시라도 막 즈급찌 아너다.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 저그왕 눈 못 뜨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세왕 놔두민 잘 자빠지지 아넌다.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꾸 자빠정 못터키여.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경 빨리 일리지 말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렁 아짱 놔두면 드리눅꼭 험쩌.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바짝커게 등기지 못터키여.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등경 무끄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이걸랑 버리지 마랑 시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거랑 버령 새 걸로 사게.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이거 훔치지 못터게 잘 지켜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미 꺼 훔청 잘 못싼다.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게에 지지 못터키여.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 엉 글라.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잘 예우지 못터키여.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왕 이시민 곧 이저부러.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놈광 잘 사귀지 못터키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놈 잘 사귀영 놔두라.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아직 썩썩 아넌쑤다.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상에 썩경 조은 거 이시카.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이 바슨 질지 아너다.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지렁 못 갈키여.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브름 성 푸끄지 못터키여.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푸경 푸대에 다므라.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지 아너다.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드무렁 똬카.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머거도 머거도 굴지 아넌쩌.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구렁 어서꺼꾸나.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잘 싱그지 못터키여.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신경 봐두라.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머리 찢지 아녀도 조타.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리 씨렁 말텐 허카이.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경 싸납찌 아녀다.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개 너미 싸나왕 안 웨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들런 보난 게북찌 아녀다.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게벼왕 모미 항겺허다.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막 젓찌 말라.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성 놀지 아녀다.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경 두껍지 아녀다.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두꺼왕 드러가지 아녀다.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경 물르지 아녀다.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물렁 안 웨켜.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둘로 분지르지 몬터키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둘로 분지렁 가부련꾸나.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크게 배우지 아녀찌.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왕 놈 주느냐.
32218-0-1	"다리-(撻)-지 -고 -더라"	잘 다리지 몬터키여.
32218-0-2	"다리-(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다렁 이브라.
32219-0-1	"후비-(窰 귀를)-지 -고 -더라"	지피 오비지 말라.
32219-0-2	"후비-(窰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병 아프지 안 허느냐.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경 알리지 아녀라.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알런 밤새낭 아 혼날찌.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잘 그리지 몬터키여.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그렁 저디 겺라.
32222-0-1	"저리-(癱)-지 -고 -더라"	오래 안자도 다리 자리지 아녀다.
32222-0-2	"저리-(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리 자렁 몬 거르쿠다.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수정 불리지 못터키여.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정 불령 폰라 먹게.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경 뜨시지 아너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 뜨상 굴목 질찌 아너도 조키여.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잘 끌리지 못터키여.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도 잘 끌령 머그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잘 누비지 못터키여.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누병 이브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온 구비지 말라.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온 구경 안 똬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그 집 아직 비지 아넬찌.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집 비왕 나뎡이지 말라.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이건 시기지 마랑 머그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머거사 현다.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검질 메지 못터키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기 검질 메영 가게.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잘 메지 못터쿠다.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메영 시라.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잘 뛰지 말라.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뛰영 정확컬 싸름 얻찌.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하영 담찌 말라.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다망 글라.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이젠 ㄱ릅찌 아너다.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ㄱ려왕 몬살키여.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경 뜨리지 말라.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뜨령 똬카.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아직 어둑찌 아너다.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눈 어두경 잘 몬 베리켜.  
 하영 심찌 말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시명 먹찌 몬턴다.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멀리 차지 몬터키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멀리 창 득르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하영 모지리지 아너다.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끔 모리제영 부족 커염직커다.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노래 잘 불르지 몬터키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미 부렁 담배 먹게.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잘 따르지 몬터키여.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톨랑 가져오라.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잘 쪼찌 몬터키여.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조삼시라.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잘 두지 아너민 일러분다.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두언 촛찌 몬터키여.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경 시기지 말라.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득랑 살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사름 오주미라도 막 찌리지 아너다.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줌 냄새 찌령 몬살키여.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멀리 데끼지 말라.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멀리 데경 가정오라.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하영 모두지 몬터키여.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모두왕 정 가게.  
 32248-0-1 "만지-(搦)-지 -고 -더라" 경 몽직찌 말라.  
 32248-0-2 "만지-(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몽지강 저금타느냐.  
 32249-0-1 "쪼:- (曬)-지 -고 -더라" 가까이서 불초지 말라.  
 32249-0-2 "쪼:- (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초앙 갑써.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막 테우지 맵썩.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테왕 묻 썩네다.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오래 돕썩 묻터쿠다.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도와 줍썩.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경 질긴 거 씹썩 맵썩.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병 그차머굽썩.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눈길 미끄럽썩 말게 허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길 미끄러왕 묻 꺼르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가장자리에 닫썩 묻터케 허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디 다양 막 다란꾸나.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경 누들지 말라.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두드렁 시라.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저금타게 주물르지 말라.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금타게 주물런 올곶썩.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잘 메우지 묻터키여.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메왕 가라.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경 쿠시지 아너다.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쿠성 조쿠다.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노릇 누리지 묻터케 허라.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흔저 느령 그릅썩.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경 둥글지 맵썩.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래 둥그령 갑썩.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잘 만들지 묻터키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만드랑 프라살 꺾디.
32262-0-1	"늪-(老)-지 -고 -더라"	늪썩 맵썩.
32262-0-2	"늪-(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경 돈 이서사.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밤새낭 알리지 아넢썩.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리당 머검쨌.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어멍 조르메 들르지 말라.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멍 조르메 들랑 무신 거 헐티.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너미 비싼 몬 사켜.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싸도 상 갑쨌.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몬 치우지 맙쨌.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몬 치왕 갑쨌.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뿌러지게 맙쨌.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러정 몬 씨쿠다.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크게 다치지 말게 험쨌.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손 다청 일 몬터쿠다.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사르메 따랑 느리곡 백르곡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느령 안 똬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너무 짜게 무치지 말라.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느물랑 무청 먹게.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팍 쨌지 말라.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팍 쨌영 이시라.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싸게랑 풀지 맙쨌.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싸게 프랑 갑쨌.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아프게 뽑쨌 맙쨌.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 뽕방 멀리 데껴 불라.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막 두지지 말라.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뒤정 가서라.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오닐 다 믇치지 몬터키여.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헤도 다 믇창 갑쨌.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잘 저리지 몬터키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저령 짐치 험쨌.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막 휘지 못터키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휘왕 자방 무릅써.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이삭 카영 줍찌 못터키여.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주성 그릅써.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거 빼안찌 맵써.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이 꺼 빼아상 가미우파.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막 기우리지 맵써.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기우령 비우라.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웨아덜리난 아깝찌 아너쿠파.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아더리난 막 아까왕 주거지쿠다.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자주 오난 반갑찌 아너다.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반가왕 마당꺼지 나완 인사헤라.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너무 설게 치지 맵써.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게 청 문 멍는다.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랑허지 아너다.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양지도 노랑 손도 노랑.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막 푸리지 아너다.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푸령 어떻 이상허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막 서둘지 말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둘령 웰 일 아니여.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경 서툴지 아너다.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령 일 못 시키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으르지 못터게 허라.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을령 일 못 시키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벤또 딱뜰터고 브름도 딱뜰터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등이 딱뜰터연 줍 완찌.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찌 아너게 잘 끄리라.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추웁 몬 살키여.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막 뜨겁찌 아니다.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뜨거왕 몬 먹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국도 메지근허곡 밥또 미지근허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지근허영 몬 머그키여.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갑찌 말게 끄리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차가왕 몬 머그키여.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이젠 놈 부럽찌 아니다.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 사름 불르왕 막 주거지켜.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너미 알밋찌 아느면 조켜마는.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알미왕 주거지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경 비스터지 아니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비스터연 바깥 살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씨집오난 집또 새롭꼬 사람도 새롭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새 사르미랑 새로왕 조추.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경 서럽찌 아너게 흐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설왕 몬 살키여.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경 까다롭찌 말렌 허라.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까드로왕 벋 몬터키여.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이젠 웨롭찌 아니다.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웨로왕 주거지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이젠 아쉽찌 아니다.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헤도 아쉬왕 주거지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간수허는 게 든든허지 아니다.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든든허영 몬 싸는 사름 업찌.
32303-0-1	"늦-(晩)-지 -고 -더라"	늦찌 말게 오라.
32303-0-2	"늦-(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느정 미안허우다.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놈 주당도 나만쨌.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반 테우당 나만 놈도 쨌쨌.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먹땅 냉기지 말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영 냉경 욱뜬나.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미 쨌 너머뜨리지 몬터키여.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잘 뻐르지 몬터키여.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뻐랑 썬지느냐.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그 두를 비교허지 말라.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교허영 조은 겐로 가져옴쨌.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잘잘 예우지 몬터키여.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잘 예왕 상 마탄쨌.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막 문질르지 말라.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문질렁 뻐라사 현다.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왁팍케영 ㄱ리치지 몬터키여.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줄바로 ㄱ리쨌 옴쨌.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잘 ㄱ리치지 몬터키여.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ㄱ리쨌 오라.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잘 조정허지 몬터키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조정헿 나두라.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성제끼리 심백커지 말라.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심백커영 누게 조은 일 이시카.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너미 우렁 달래지 몬터키여.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달래영 ㄷ랑 갑쨌.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그 사르몬 본받쨌 맵쨌.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본바당 조은 일립쨌.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경 어지리지 맙썤.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지령 옥 든나.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빨리 뜯찌 몬터키여.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막 득랑 제게 완쭈다.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경 우기지 맙썤.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우경 이겨지카마썤.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경 중얼거리지 맙썤.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경 중얼거령 알 싸름 얻쭈다.
32321-0-1	"지꼴이-(騷)-지 -고 -더라"	너미 시끄리지 말라.
32321-0-2	"지꼴이-(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시끄령 조아힐 싸람 얻쭈다.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나뎡기지 말라.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뎡경 팡 무리 온다.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찰찰 흘리지 말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찰찰 흘청 조은 일 아니여.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즘 깨지 말게 허라.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즘 깨왕 일리라.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너무 시지 말게 허라.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무 시영 몬 머그키여.
32326-0-1	"숯-(湧)-지 -고 -더라"	땅으로 솟찌 몬터게 허라.
32326-0-2	"숯-(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소상 막찌 몬터키여.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이건 조치 아너다.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건 너미 조양 조키여.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이건 빨강허지 아너다.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강허영 너미 곱따.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신 끝찌 말라.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끄성 글라.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눈도 히영허지 아너다.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히영허영 약커게 보엿찌.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짜다.
32332-0-2	국(羹)-을/를	이 국 머그라.
32332-0-3	국(羹)-에(서)	구게 소금 놔시냐.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머그라
32332-0-5	국(羹)-도	이 국또 머그라.
32333-0-1	논(飧)-이/가	노니 너르다.
32333-0-2	논(飧)-을/를	노를 잘 달루라.
32333-0-3	논(飧)-에(서)	노네 무를 주라.
32333-0-4	논(飧)-으로	노느로 가게.
32333-0-5	논(飧)-도	논도 너르다.
32334-0-1	쌀(米)-이/가	쓰리 하영 인찌.
32334-0-2	쌀(米)-을/를	이 쓰를 다끄라.
32334-0-3	쌀(米)-에(서)	쓰레 니 인찌.
32334-0-4	쌀(米)-으로	쓸로 떡갱 먹게.
32334-0-5	쌀(米)-도	쓸도 하다.
32335-0-1	봄(春)-이/가	보미 완찌.
32335-0-2	봄(春)-을/를	보를 잘 냉겨사 현다.
32335-0-3	봄(春)-에(서)	보메 고장 핀다.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ㄹ슬꺼지 간다.
32335-0-5	봄(春)-도	봄도 봄마니 바쁜다.
32336-0-1	집(家)-이/가	지비 크다.
32336-0-2	집(家)-을/를	저 지블 보라.
32336-0-3	집(家)-에(서)	지비 글라.
32336-0-4	집(家)-으로	노미 지브로 너머가젠.
32336-0-5	집(家)-도	이 집또 크다.
32337-0-1	옷(衣)-이/가	이 오시 크다.
32337-0-2	옷(衣)-을/를	오슬 주난 말텐.
32337-0-3	옷(衣)-에(서)	오세 무덜찌.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더끄라.
32337-0-5	옷(衣)-도	이 온또 곱따.
32338-0-1	방(房)-이/가	이 구드리 크다.
32338-0-2	방(房)-을/를	방을 너르게 헤사켜.

32338-0-3	방(房)-에(서)	이 방에 드러오자.
32338-0-4	방(房)-으로	저 방으로 글라.
32338-0-5	방(房)-도	이 방도 너르다.
32339-0-1	낮(晝)-이/가	여름 나시 길다.
32339-0-2	낮(晝)-을/를	나슬 바쁘로 알라.
32339-0-3	낮(晝)-에(서)	나지랑 일허라.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밤까지 일헬찌.
32339-0-5	낮(晝)-도	여름 날또 진다.
32340-0-1	낮(顔)-이/가	늑시 막 곱따.
32340-0-2	낮(顔)-을/를	논 막 잘 다끄라.
32340-0-3	낮(顔)-에(서)	늑세 밥풀 무던찌.
32340-0-4	낮(顔)-으로	늑스로 밤 머거져.
32340-0-5	낮(顔)-도	논또 고와라.
32341-0-1	부엌(廚)-이/가	정기가 널르다.
32341-0-2	부엌(廚)-을/를	정지를 잘 썰라.
32341-0-3	부엌(廚)-에(서)	정지에 강 보라.
32341-0-4	부엌(廚)-으로	정제로 너멍 글라.
32341-0-5	부엌(廚)-도	이 정제도 널르다.
32342-0-1	밭(田)-이/가	이 바시 크다.
32342-0-2	밭(田)-을/를	바슬 잘 갈라.
32342-0-3	밭(田)-에(서)	바세 걸르를 허라.
32342-0-4	밭(田)-으로	저 바스로 글라.
32342-0-5	밭(田)-도	이 받또 크다.
32343-0-1	앞(前)-이/가	아비 흰허다.
32343-0-2	앞(前)-을/를	저 아블 보라.
32343-0-3	앞(前)-에(서)	아피 글라.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가라.
32343-0-5	앞(前)-도	압또 흰허다.
32344-0-1	넋(魂)-이/가	호니 나간찌.
32344-0-2	넋(魂)-을/를	호늘 불르라.
32344-0-3	넋(魂)-에(서)	호네 혼날찌.
32344-0-4	넋(魂)-으로	*
32344-0-5	넋(魂)-도	혼도 드러사켜
32345-0-1	흙(土)-이/가	이 흐기 조타.
32345-0-2	흙(土)-을/를	흐글 더프라.
32345-0-3	흙(土)-에(서)	흐게 물 비우라.
32345-0-4	흙(土)-으로	흐그로 멘드란찌.
32345-0-5	흙(土)-도	이 흑또 조타.
32346-0-1	여덟(八)-이/가	으다비 아옴보다 족따.
32346-0-2	여덟(八)-을/를	으다블 내어보라.
32346-0-3	여덟(八)-에(서)	으다베 두를 더허라.



32346-0-4	여덟(八)-으로	*
32346-0-5	여덟(八)-도	으 답또 하다.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도라완져.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행 먹게.
32347-0-3	돌(週歲)-에(서)	에기 도레 떡커라.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산 거여.
32347-0-5	돌(週歲)-도	아이 돌도 머거사켜.
32348-0-1	값(價)-이/가	값씨 비싸다.
32348-0-2	값(價)-을/를	값쓸 흥꿈 내리웁써.
32348-0-3	값(價)-에(서)	*
32348-0-4	값(價)-으로	꾼 까브로 말 석 췌.
32348-0-5	값(價)-도	이 물건값또 비싸다.
32349-0-1	속:(內)-이/가	쏘기 지픈 사르미여.
32349-0-2	속:(內)-을/를	나 쪽 놈 주지 못턴다.
32349-0-3	속:(內)-에(서)	그 쏘게 뭇싸 드러신디.
32349-0-4	속:(內)-으로	쏘그로 생각케 보라.
32349-0-5	속:(內)-도	그 사름 쪽또 지프다.
32350-0-1	돈:(錢)-이/가	도니 하영 드린져.
32350-0-2	돈:(錢)-을/를	돈 하영 버스런져.
32350-0-3	돈:(錢)-에(서)	도네 돈 부트는 거.
32350-0-4	돈:(錢)-으로	이 도느로 사지카.
32350-0-5	돈:(錢)-도	돈도 하영 버스런져.
32351-0-1	발(足)-이/가	바리 막 아프다.
32351-0-2	발(足)-을/를	발 막 잘 씨쓰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헐리날져.
32351-0-4	발(足)-으로	발로 차라.
32351-0-5	발(足)-도	발도 크다.
32352-0-1	짐(荷物)-이/가	이 지미 무겁따.
32352-0-2	짐(荷物)-을/를	이 지를 싸라.
32352-0-3	짐(荷物)-에(서)	이 지메 뭇싸 드러신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므로 정 글라.
32352-0-5	짐(荷物)-도	이 짐도 베다.
32353-0-1	입(口)-이/가	이비 너미 크다.
32353-0-2	입(口)-을/를	이블 다물라.
32353-0-3	입(口)-에(서)	이베 풀칠 헤여지카.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ㄱ른 말.
32353-0-5	입(口)-도	그 사름 입또 크다.
32354-0-1	낫(鎌)-이/가	이 호미가 크다.
32354-0-2	낫(鎌)-을/를	호미를 굴라.
32354-0-3	낫(鎌)-에(서)	이 호미에 험벽 가므라.
32354-0-4	낫(鎌)-으로	이 호미로 비라.

32354-0-5	낫(鎌)-도	그 호미도 크다.
32355-0-1	강(江)-이/가	강이 크다.
32355-0-2	강(江)-을/를	저 강을 보라.
32355-0-3	강(江)-에(서)	저 강에 강 보게.
32355-0-4	강(江)-으로	저 강으로 너먼찌.
32355-0-5	강(江)-도	이 강도 크다.
32356-0-1	젓(乳)-이/가	제시 크다.
32356-0-2	젓(乳)-을/를	제슬 물리라.
32356-0-3	젓(乳)-에(서)	어멍 제세 물리라.
32356-0-4	젓(乳)-으로	어멍 제스로 달래라.
32356-0-5	젓(乳)-도	어멍 쯔또 메기라.
32357-0-1	꽃(花)-이/가	이 고장이 곱따.
32357-0-2	꽃(花)-을/를	이 고장을 보라.
32357-0-3	꽃(花)-에(서)	저 고장에 물 주라.
32357-0-4	꽃(花)-으로	고장으로 멘드란찌.
32357-0-5	꽃(花)-도	이 고장도 곱따.
32358-0-1	팥(赤豆)-이/가	팍시 흑따.
32358-0-2	팥(赤豆)-을/를	팍슬 갈라.
32358-0-3	팥(赤豆)-에(서)	팍세 베렝이 이럴찌.
32358-0-4	팥(赤豆)-으로	폴쭈근 팍스로 쏜다.
32358-0-5	팥(赤豆)-도	이 폴또 곱따.
32359-0-1	옆(側)-이/가	마당 여피 너르다.
32359-0-2	옆(側)-을/를	마당 여블 보라.
32359-0-3	옆(側)-에(서)	마당 여피 사라.
32359-0-4	옆(側)-으로	이 여프로 글라.
32359-0-5	옆(側)-도	이 엽또 보라.
32360-0-1	샅(賃金)-이/가	푸미 비싸다.
32360-0-2	샅(賃金)-을/를	푸믈 잘 주라.
32360-0-3	샅(賃金)-에(서)	푸메 품 부뜨카.
32360-0-4	샅(賃金)-으로	푸므로 바든 거여.
32360-0-5	샅(賃金)-도	이 품도 비싸다.
32361-0-1	닭(鷄)-이/가	그 덕이 크다.
32361-0-2	닭(鷄)-을/를	그 덕글 자브라.
32361-0-3	닭(鷄)-에(서)	덕게 고달 일찌.
32361-0-4	닭(鷄)-으로	덕그로 여슬 만들주.
32361-0-5	닭(鷄)-도	이 덕또 크다.
32362-0-1	밖(外)-이/가	베껴시 흰허다.
32362-0-2	밖(外)-을/를	베껴슬 보라.
32362-0-3	밖(外)-에(서)	베곁띠 보난 아무도 얻찌.
32362-0-4	밖(外)-으로	베곁딜로 글라.
32362-0-5	밖(外)-도	베곁띠도 흰허다.

## 제4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나가
40101-0-2 내	나
40101-0-3 나-를	나 만나레
40101-0-4 나-에게	나신디
40101-0-5 나-와	나영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가
40102-0-1 저-가	*
40102-0-2 저-의	*
40102-0-3 저-을/를	*
40102-0-4 저-에게	*
40102-0-5 저-와/과	*
40102-0-6 저-는	*
40102-0-7 저-도	*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우리 아부지
40105 너	너
40105-0-1 -가	너 머거서.
40105-0-2 -의	느 거 아니냐
40105-0-3 -을/를	느 보레 왈찌.
40105-0-4 -에게	너신디 감시네.
40105-0-5 -와/과	너영 가치가게.
40105-0-6 -는	너는 ㄴ치 가게
40105-0-7 -도	너도 머견찌.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저 사름만 갠따왕
40108 너희	너네 아버지
40109 개	가이
40109-1 애	야이가 일찌.
40109-2 재	*
40110 자기	이녁 마리엔 허지
40111 당신	하르부지는

#### 4.1.2. 의문대명사

##### •누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어디서 옵디가? 누게봐?  
누게 불러신고?  
이 돈 임제가 누젠고?  
누구를 만난?  
누구신디 줘던  
누게연 싸완

##### •무엇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거 뭇?  
게왈쭈게 먼 이서?  
요즘 무신 일 허명 사람서?  
뭇슬 머코?  
무신 거 달맡찌.

####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어디 간따 왔서?  
서울 언제 간따 와서?  
어느 지비 간따 와신고?  
무사 우럼디?  
얼마나 걸려?  
요즘 어떻 사람서?

#### 4.1.4. 지시대명사 ·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이거 여기 일찌.  
그거 그디 일찌.  
저거.  
이디  
그디  
저디  
이레 오라  
그레 오라  
저레 가라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시 비싸다.
40202	-이/가	코가 크다.
40203	-을/를	귀를 때리는고.
40204	-을/를	ㄱ무난 무를 쥐야돼켜.
40205	-에게/게	저 사름신디 쥐부러.
40206	-보고/더러	나보고 당신이엔 허여.
40207	-보고/더러	너 왜 나신디 반말해.
40208	-에	난 지비 감쨌.
40209	-에	냉중에 다시 만나게.
40210	-에서	우리 종손칩이서.
40211	-에서	우리 마을회과네서 만나게.
40212	-에서	*
40213	-으로	좁싸로헤그네 백상.
40214	-으로	찌그로
40215	-으로	새끼로도 무꾼텐허곡 가망이떼로도
40216	-으로	*
40217	-와/과	춤피영 수바기영 인쨌.
40218	-와/과	나영 시장에 ㄱ치 강 오게.
40219	-보다	형보단 아시가 키가 크다.
40220	-처럼	돼지가치 망 머검쨌.
40221	-만큼	저 아이만치만 키 커시민 조으켜.
40222	-만큼	욕심부리지 마랑 머글 만큼만 머경.
		머글마니
40223	-아/야	은자야.
40224	-아/야	*
40225	-아/야	민수야
40226	-아/야	누님
40226-1	-예	*
40227	-아/야	하르버지
40227-1	-요	*
40228	-이랑	수바기영 떠기영
40229	-커녕	마뉘니랑 마랑 처넨도 어서.

### 4.2.2. 보조사

40230	-은/는	난 수른 머거도 담베는 안 피왓서.
40231	-만	아 아덜만 조타.
40232	-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난 붓따.
40233	-마다	날마다 술만 머꼬.
40234	-부터	오닐부터 담베 떠런찌.
40235	-까지	오닐꺼지만 피왕 담베 떨젠.
40236	-조차	머글물조차도 ㄹ무라노난 어션.
40236-1	-할라	*
40237	-이야/야	아 그사람 말이주.
40238	-을랑	그런 소리 너무 험서.
40239	-이라도	그 사라튼 부제라도
40240	-밖에	난 지비싸름베끼 어서.
40241	-가지고	포따리에 싼.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이레 오라.
40243	알았어-요	아랄쭈다.
40244	했지-요?	아랄찌.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	이레 안지라.
40302	-게	이리 드리왕 이레왕 아지라게.
40303	-으오	드리왕 이레 아집씨게.
40304	-으십시오	이레왕 안집씨.
40305	-세요	장모님 일로 왕 안집씨.

### 4.3.2. 청유형

40306	-자	민수야 ㄹ찌 가게.
40307	-세	사위야 ㄹ치 가게.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다  
40310 -세요

ㄴ치 글라.  
가치 갑쭈.  
ㄴ치 갑쭈.  
장모님 ㄴ치 갑쭈.

#### 4.3.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비 오람시냐?  
사위야 비 오람시냐?  
비 오람쭈가?  
비 오람쭈가?  
장모님 바께 비오람쭈가?  
민수야 어디 감시니?  
\*  
형님 어디 감수과?  
어디 감수과?  
어디 감수과?

####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잘 머검쭈.  
느네 애기 밥 잘 머검쭈.  
형님네 애긴 밥 잘 머검신게.  
철수가 밥 잘 머검신게마쭈.  
잘 머검쭈다.  
너무 족따.  
너무 족따.  
오시 너무 족쭈다.  
너무 족쭈다.  
너무 온 족쭈다.

#### 4.3.5. 반말

40331 -아  
40332 -지

어디 아파?  
병원에 가야쭈여.

#### 4.3.5. -이다

40333	-이다	민수 생이리여.
40334	-이니	넬 생이리냐?
40335	-이네	*
40336	-인가	내일 느 생이리가?
40337	-이오	*
40338	-이오	넬 형님 생이리우팡?
40339	-입니다.	넬 아버지 생이리우다.
40340	-입니까	아버님 넬 생시니우파?
40341	-이시지요	생이리우다.
40342	-이시지요	생이리파?
40343	-이냐?	이거 뭐꼬?
40344	-인가?	이거 뭐꼬?
40345	-이오?	형님 이거 뭐이파?
40346	-입니까?	이거 뭐시파?
40347	-인가요?	이거 뭐시파?
40348	-이야?	이거 뭐시라?
40349	-어어요?	이거 뭐시파?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켁장이 만쑤다.
		차 하우다.
40351	-습디다	서우레 간 보난 차가 막 함띠따.
40352	-는구나/구나	*
40353	-는구먼/구먼	잘 머검서라.
40354	-일세	오래마니 만난네.
40355	-으마	내일까지 꼭 가프마.
40356	-음세	하르방덜 경헨쭈 가품세.
40357	-을라	다치켜.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밤 머경으네
40402	-으면서	밤 머그멍 텔레비 뵈짜.(번호 확인)
40403	-어/-어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문 완짜.
40404	-으니 /-으니까	방이 땀스난 즈미 완짜.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무신 일 나신고라 막 사르미 하영 모여절찌.  
지비 오단  
그 사름 만나민 안부 전허여질 꺼여.  
만나건 안부 전해 드라.  
먹뜨래도 하영 먹찌 말라.  
떠글 나와 먹젠  
빼빠지게 일 헨는데  
이글쭈룩  
늘거갈쭈룩 그거 추미로 사람쭈.  
물 쓰든 씨점찌.  
뉴스만 보지 연속끄근 안 봐.

##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드러 읍써.  
검질 다 메얼쭈과?

##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고 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7 왔었다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40610 만나는 친구  
40611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컸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애기 잘 우섬찌.  
애기 잘 기엄찌.  
아기 눈도 크다.  
내일 생이리너.  
바깥때 비 오람찌.  
밤 머거서?  
가따 왈찌.  
잘 머검서라.  
잘 머검서냐?  
만나는 친구 인는디 만나보라.  
어제 만난 친구  
오년 저네 본 친구 만날찌. 만난 친구 만날찌.  
내일 만날 친구  
킨 큰 아이여.  
키가 크던 아니 키가 저겅찌.  
예저네 키가 켜편 아이.  
절때로 안 먹켜.  
곧 비가 쏸다점직커다.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나는 안 먹걸썬.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 조타.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 조치 안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끗 안 너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장계를 안 간다.
40705	만나 보지 않았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안 만나 뵈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안 먹걸따.
40706-1	먹도 않고	*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
40708	맞잖소?/안 맞소?	안 맞따.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렸썬.
40802	늘리다	늘렸썬.
40803	말리다1	말리웬.
40804	말리다2	싸우른 멀리랴.
40805	얼리다	냉장고에 낱 얼류랴.
40806	녹이다	어르믈 노기랴.
40807	신기다	예기 신발 신지랴.
40808	보이다	베아주랴.
40809	알리다	알리랴.
40810	입히다	아기 온 입찌랴.
40811	얹히다	얹찌랴.
40812	벗기다	예기온 베끼랴.
40813	웃기다	노믈 우찌랴.
40814	씩히다	썤기랴
40815	숨기다	잘 곱지랴.
40816	끓기다	끓지랴.
40817	깨우다	깨우랴.
40818	돋우다	썤지 올리랴.

## 4.8.2. 피동

40819	잡히다	경찰안티 쥼뽼쥼.
40820	깎이다	봉급또 쥼쥼쥼.
40821	끼이다	문트메 쥼쥼쥼.
40822	떼이다	끼완 놔두난 일러부런쥼.
40823	채이다	뽼뽼로 차부난 마잘쥼.
40824	닫히다	더거쥼쥼.
40825	들리다	보청기 허나네 소리 잘 들럼쥼.
40826	업히다	업쥼라.
40827	바뀌다	신발 바뀐 가부런쥼.
40828	썹히다	머홀 썹버쥼쥼.
40829	엎히다	하영 머그난 언쥼쥼.
40830	찍히다	나 발뽼 쥼건쥼.
40831	눌리다	손까라그로 눌렁 이시라.
40832	실리다	*
40833	끓기다	열라기 쥼너쥼쥼.
40834	끓히다	글켜쥼엔도 허곡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아버지 생일 선물 받꾸정 헌 게 뽼이파?
40902	싶다	새로 강아지 사온 거 잘 밥 안 머검쥼.
40903	보다	이버 볼쥼.
40904	버리다	떠근 다 머거부런쥼.
40905	대다	재여리 우럼쥼.
40906	-나/는가 보다	구르미 물려오는 모양이 비 오람직커다.
40907	-나/는가 보다	쥼자는 거 답따.
40908	-나/는가 보다	추운 생이엔도 곤꼭.

##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그라.
41002	많이	하영 머그라
41003	너무	술 너미 하영 머그민 모미 헤롭따.
41004	조금	쥼쥼만 머거도 술 취헌다.
41005	자주	화장시레 즈지 텡겨쥼쥼.
41006	빨리	생각보다 빨리 완쥼.

41007	얼른	항 머거불라.
41008	기어코	기어이 간 사고날찌.
41009	가끔	가끔.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내중에 가켄도 허곡.
41012	가득	ㄱ득 찰찌.
41013	몽땅	몬딱 머거부럴찌.
		몽땅 머거부럴찌.
41014	모조리	다 비어부난 하나도 어서라.
41015	혼자	혼자 이션찌.
41016	항상	항상 바쁘다.
41017	똑똑히	똑또기 봐라.
41018	겨우	제우 츄맡찌.
41019	늘	늘 항상 줌만 잠서라.
41020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제절로 하품 나온다.
41021	자꾸	자주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흙마 차 칠뻔 헨찌.
41024	함께	가조기 흙께 간찌.
41025	결핍하면	헉썰허민 성질 낸다.
		결핍터민 성질만 내여.
41026	공연히	공연이 트지블 허는 거.
41027	그냥	그냥 지나가지 못턴다.
41028	매우	매우 쓰다.
41029	곧장	구짱 오라.
41030	벌써	블써 다 끝나서라.
41031	가장	가장 큰지비엔도 씩쭈.
41032	가만히	지비서 ㄱ마니 시라.
41033	미리	미릴 대비허라 미리 준비허라.
41034	이따금	가당오당.
41034	이따금	이따금엔도 허주.

## 4.11. 관용구

###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어의
41102	여보세요	양 어디 감수과
41103	들어가요	전나 끄넌쭈다.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했쥬다 잘 감썸.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아 오래마니 만난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아 어디 감수와 영 허영.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폐난히 이서집띠가
41108	여기 있습니다	돈 바듭썸
41109	예	예 성안 갑따완.
41110	아니	아 나 안 가와서.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어떻 아녀. 웬찬헤여.
41112	내버려 둬	즌소리허지 마라 단속커지 마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아무나

#### 4.11.2. 속담

41114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미창 어신 황아리에 물본뜻 뭇 도와줘바야 아무 피료 어서.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농 도도기 황쉐 도둑 뒤썸 헤여네.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걸썸 장귀에 소리 나게.
41116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딱린 장귀에 소리가 나느냐.

<Abstract>

## **Report on Jeju dialect in 2009**

This report is about the study of Jeju dialect in 2009.

It was researched in Saekdal Dong, Seogwipo City, Jeju Self-Governing Province. Saekdal Dong is located in the East of Jungmun Dong, West of Sangye Dong, South of the Jungmun Tourist area and North of Aewol Eup. The gentle slope from North to South continues to the sea. Even though there are many Orum (parasite volcanoes), this area provides a fine view. Most of villagers farm tangerines in this typical agricultural village.

As of November 2009, the number of households was 165 (male: 45, female: 369, total: 799). Traditionally, this village is known for their cooperation, diligence and no family debt. They pay their tax with the profit from the villiage running Jungmun Beach and they also have good welfare facilities.

The main speaker is Byun, Haeng Chan(70) and his wife, Han In Yeol(72), the supportive speaker. They were selected by researchers. Mr.Byun has stayed in Jeju his whole life except during the period of his military service. This unschooled man is good at making farm appliances such as a plow and had built several thatched houses, so the process of the research went smoothly. His voice was loud and clear. The supportive speaker, Mrs. Han, was the head of a women's association and worked as a woman diver for a while. She remembered more and her pronunciations were clear in spite of her small voice. They were self-made men and they explain their lives "work after work". They have one son and six daughters. Now, they raise five cows and tangerine tre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19 times in total from July 4 to December 6 (July: eight times, August: six times, September: once, December: twice). On September 1, we took pictures of the village, trees and plants. Though it was the middle of the summer, there weren't the noisy buzzing of cicadas so it was easy to record. Also, thanks for the responsive speakers, everything went very well.

Kang, Young Bong, Kim, Sun Ja and Kim, Seong Yong were in charge of this project and it took place at the speaker's home.

The four parts such as interview,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researched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Moreover, when we researched names of plants, we tried to find the real samples and confirmed. Extra works were on December 5 and 6. Finally, the records for interview,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up to 15

hours 47 minutes, 12 hours 3minutes, 3 hours 30 minutes and 2 hours 4 minutes respectively (total: approximately 33 hours). Marantz RMD 660(a recorder) and Sure SM11(a microphone) were used.

The records were transcribed from September 10 to November 27. While words or phrases("base form + ending of a word" was used for phonemes) from each contents of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fully transcribed, the interviews did so 4 hours out of 15 hours 47 minutes sentence by sentence. Kim, Sun Ja and Kang, Young Bong were in charge of the transcriptions and the contents were checked twice (first time: by Kang, Young Bong, Kim and Seong Yong, Second time: by Kang, Young Bong and Kim, Sun ja).

Keywords: Jeju dialect vocabulary, interview, transcription, speaker, Jeju culture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 ◆ 위    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 ◆ 위    원      김무식 (경성대학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남대학교)
- ◆ 위    원      박경래 (세명대학교)
- ◆ 위    원      소강춘 (전주대학교)
- ◆ 위    원      최명옥 (서울대학교)
- ◆ 위    원      한영목 (충남대학교)
- ◆ 위    원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